기본연구
2025-01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연구책임 | **이선영**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민철**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JEONBUK WOMEN & FAMILY FOUNDATION

발 / 간 / 사

JEONBUK WOMEN & FAMILY FOUNDATION

우리나라 가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다문화가구, 이혼 후 동거 가족, 비혼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과 관계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현황을 진단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욕구와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3년 단위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북 지역의 특성과 세부 항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는 20년 만에 이루어진 연구로 현재 전북 가족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북 인구 및 가구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 인식 및 가치관,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관계 및 돌봄, 건강과 생애설계, 일과 여가, 가족정책, 1인 가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북 가족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전북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연구 설계와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주신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한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목 차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선행연구 고찰 ····· 6

Ⅱ. 전북 가족 특성과 정책 검토 ····· 15

1. 전북 인구 변화와 특성 ····· 17
2. 전북 가구 변화와 특성 ····· 24
3. 전북 가족 정책 ····· 40

Ⅲ.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결과 ····· 47

1. 조사개요 ····· 49
2. 가족인식 및 가치관 ····· 60
3. 가족형성 ····· 113
4. 부부관계 ····· 124
5. 부모-자녀 관계 ····· 155
6. 가족돌봄 ····· 183
7. 건강과 생애설계 ····· 204
8. 일과 여가 ····· 224
9. 가족정책 ····· 235
10. 1인 가구 ····· 252

Ⅳ. 결론 ····· 271
1. 주요결과 및 시사점 ····· 273
2. 정책방향 ····· 289

참고문헌 ····· 300
부　　록 ····· 303

표 목차 Table Contents

▌표 Ⅰ-1▐ 연구절차 ····· 6
▌표 Ⅰ-2▐ 가족실태조사 선행연구 ····· 8

▌표 Ⅱ-1▐ 전북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2005-2024) ····· 17
▌표 Ⅱ-2▐ 합계출산율 ····· 18
▌표 Ⅱ-3▐ 시군별 합계출산율(연도별 작성) ····· 19
▌표 Ⅱ-4▐ 전북 고령화 비율(전국과 비교, 연도별 작성) ····· 20
▌표 Ⅱ-5▐ 시군별 고령화 비율(연도별 작성) ····· 21
▌표 Ⅱ-6▐ 전국 및 전북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21
▌표 Ⅱ-7▐ 전북 시군별 혼인건수, 평균초혼연령, 조혼인율(2015, 2020, 2024) ····· 22
▌표 Ⅱ-8▐ 전국 및 전북 이혼건수, 조이혼율, 평균이혼연령 ····· 23
▌표 Ⅱ-9▐ 시군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5, 2020, 2024) ····· 24
▌표 Ⅱ-10▐ 전국 및 전북 가구 변화(2020-2024) ····· 25
▌표 Ⅱ-11▐ 전북 세대 구성별 가구 수(2015, 2020, 2024) ····· 26
▌표 Ⅱ-1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1인가구 변화(2015-2024) ····· 28
▌표 Ⅱ-13▐ 전북 시군별 성별별 1인가구 현황(2024) ····· 29
▌표 Ⅱ-14▐ 전북 한부모가구 세대구성 및 비율(2016, 2020, 2024) ····· 30
▌표 Ⅱ-15▐ 전북 시군별 다문화가구 현황(일반가구 기준) ····· 31
▌표 Ⅱ-16▐ 전북 재혼건수 및 비율(2015, 2020, 2024) ····· 32
▌표 Ⅱ-17▐ 전북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2016, 2020, 2024) ····· 33
▌표 Ⅱ-18▐ 전북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2016, 2020, 2024) ····· 34
▌표 Ⅱ-19▐ 전북 가사분담 인식(2016, 2024) ····· 35
▌표 Ⅱ-20▐ 전북 가사분담 실태(2016, 2020, 2024) ····· 36
▌표 Ⅱ-21▐ 결혼문화태도_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 36
▌표 Ⅱ-22▐ 결혼문화태도_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37
▌표 Ⅱ-23▐ 노부모 부양 인식 ····· 38
▌표 Ⅱ-24▐ 가족정책 관련 법령 ····· 40
▌표 Ⅱ-25▐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정책 관련 조례 ····· 41

▌표 Ⅱ-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정책 사업 현황 ····· 43

▌표 Ⅲ-1▐ 권역별 인구분포 ····· 50
▌표 Ⅲ-2▐ 조사표본 ····· 50
▌표 Ⅲ-3▐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 51
▌표 Ⅲ-4▐ 일반적 특성 ····· 59
▌표 Ⅲ-5▐ 가족 범위 ····· 60
▌표 Ⅲ-6▐ 가족개념 - 혈연관계 ····· 62
▌표 Ⅲ-7▐ 가족개념 - 법적 연결관계 ····· 63
▌표 Ⅲ-8▐ 가족개념 - 경제 공동체 ····· 64
▌표 Ⅲ-9▐ 가족개념 - 생활 공동체 ····· 65
▌표 Ⅲ-10▐ 가족개념 -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 관계 ····· 66
▌표 Ⅲ-11▐ 가족개념 - 내가 선택하고 구성하는 관계 ····· 67
▌표 Ⅲ-12▐ 가장 의지되는 사람 ····· 69
▌표 Ⅲ-13▐ 가족기능 - 정서적 안정 제공 ····· 71
▌표 Ⅲ-14▐ 가족기능 - 성적 욕구 충족 ····· 72
▌표 Ⅲ-15▐ 가족기능 - 세대 유지 ····· 73
▌표 Ⅲ-16▐ 가족기능 필요도 - 자녀 양육 및 교육 ····· 74
▌표 Ⅲ-17▐ 가족기능 필요도 - 가족구성원 보호 및 돌봄 ····· 75
▌표 Ⅲ-18▐ 가족기능 - 수입과 자산 공유 ····· 76
▌표 Ⅲ-19▐ 가족기능 - 여가와 재미 추구 ····· 77
▌표 Ⅲ-20▐ 결혼가치관 - 비혼1인가구 ····· 79
▌표 Ⅲ-21▐ 결혼가치관 - 비혼 동거 ····· 80
▌표 Ⅲ-22▐ 결혼가치관 - 이혼/재혼 ····· 81
▌표 Ⅲ-23▐ 결혼가치관 - 기혼 미출산 ····· 82
▌표 Ⅲ-24▐ 결혼가치관 - 비혼 출산 동의정도 ····· 83
▌표 Ⅲ-25▐ 결혼가치관 - 부부가 따로 사는 것 ····· 84
▌표 Ⅲ-26▐ 결혼가치관 - 결혼생활 계약서 작성 ····· 85
▌표 Ⅲ-27▐ 결혼가치관 - 자녀 어머니성 사용 ····· 86
▌표 Ⅲ-28▐ 결혼가치관 - 비혼입양 ····· 87
▌표 Ⅲ-29▐ 결혼가치관 - 동성 결혼 ····· 88
▌표 Ⅲ-30▐ 가족의례 및 문화 - 부부 각자 명절 보내는 것 ····· 90
▌표 Ⅲ-31▐ 가족의례 및 문화 -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 91
▌표 Ⅲ-32▐ 가족의례 및 문화 - 가족 중심 장례 ····· 92
▌표 Ⅲ-33▐ 가족의례 및 문화 - 결혼 당사자 중심 결혼식 ····· 93

▌표 Ⅲ-34▌가족의례 및 문화 -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 ····· 94
▌표 Ⅲ-35▌가정내 성역할 - 경제적 부양 주책임은 남성 ····· 96
▌표 Ⅲ-36▌가정내 성역할 - 집안일은 주책임은 여성 ····· 97
▌표 Ⅲ-37▌가정내 성역할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이 있음 ····· 98
▌표 Ⅲ-38▌가정내 성역할 - 가족돌봄 주책임은 여성 ····· 99
▌표 Ⅲ-39▌가정내 성역할 -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 정서가 좋음 ····· 100
▌표 Ⅲ-40▌가족부양 -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함 ····· 102
▌표 Ⅲ-41▌가족부양 -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함 ····· 103
▌표 Ⅲ-42▌가족부양 -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함 ····· 104
▌표 Ⅲ-43▌가족부양 -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함 ····· 105
▌표 Ⅲ-44▌가족부양 - 부모는 자녀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함 ····· 106
▌표 Ⅲ-45▌자녀가치관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 108
▌표 Ⅲ-46▌자녀가치관 -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함 ····· 109
▌표 Ⅲ-47▌자녀가치관 -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음 ····· 110
▌표 Ⅲ-48▌자녀가치관 -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함 ····· 111
▌표 Ⅲ-49▌자녀가치관 - 자녀양육은 경제적으로 부담됨 ····· 112
▌표 Ⅲ-50▌혼인신고 여부 ····· 113
▌표 Ⅲ-51▌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114
▌표 Ⅲ-52▌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어려움(중복응답) ····· 115
▌표 Ⅲ-53▌미성년 자녀 수 ····· 116
▌표 Ⅲ-54▌자녀계획여부 ····· 117
▌표 Ⅲ-55▌계획 중인 자녀 수 ····· 118
▌표 Ⅲ-56▌이상적인 자녀수 ····· 119
▌표 Ⅲ-57▌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 1순위 ····· 120
▌표 Ⅲ-58▌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 중 더 중요한 것 ····· 121
▌표 Ⅲ-59▌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과 얻는 것 중 중요한 것 ····· 122
▌표 Ⅲ-60▌향후 임신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향 ····· 123
▌표 Ⅲ-61▌배우자와의 동거여부 ····· 124
▌표 Ⅲ-62▌맞벌이 여부 ····· 125
▌표 Ⅲ-63▌결혼기간 ····· 126
▌표 Ⅲ-64▌결혼만족도 ····· 127
▌표 Ⅲ-65▌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9
▌표 Ⅲ-66▌결혼불안정성 ····· 130
▌표 Ⅲ-67▌결혼생활 중요도 ····· 132
▌표 Ⅲ-68▌결혼생활 충족도 ····· 134

▌표 Ⅲ-69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136
▌표 Ⅲ-70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 137
▌표 Ⅲ-71 ▌가정관리 - 자녀 양육 및 교육 ····· 138
▌표 Ⅲ-72 ▌가정관리 - 투자와 자산 관리 ····· 139
▌표 Ⅲ-73 ▌가정관리 - 가사노동 ····· 140
▌표 Ⅲ-74 ▌가정관리 - 본인 부모 돌봄 ····· 141
▌표 Ⅲ-75 ▌가정관리 - 배우자 부모 돌봄 ····· 142
▌표 Ⅲ-76 ▌가정관리 - 가족여가 ····· 143
▌표 Ⅲ-77 ▌가정관리 - 성인자녀 돌봄 ····· 144
▌표 Ⅲ-78 ▌평일 가사 참여시간 ····· 145
▌표 Ⅲ-79 ▌주말 가사 참여시간 ····· 146
▌표 Ⅲ-80 ▌평일 자녀돌봄 참여시간 ····· 147
▌표 Ⅲ-81 ▌주말 자녀돌봄 참여 시간 ····· 148
▌표 Ⅲ-82 ▌맞벌이 집단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 149
▌표 Ⅲ-83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 공평성 ····· 150
▌표 Ⅲ-84 ▌가사 및 돌봄 부담이 불리한 집단 ····· 151
▌표 Ⅲ-85 ▌부부갈등 경험 ····· 152
▌표 Ⅲ-86 ▌부부갈등 이유 : 1순위 ····· 153
▌표 Ⅲ-87 ▌부부갈등 해결방안 : 1순위 ····· 154
▌표 Ⅲ-88 ▌부모효능감 ····· 156
▌표 Ⅲ-89 ▌부모역할 지원 및 지지 ····· 157
▌표 Ⅲ-90 ▌청소년 자녀 양육 어려움 : 1순위 ····· 158
▌표 Ⅲ-91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159
▌표 Ⅲ-92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결정 ····· 160
▌표 Ⅲ-93 ▌첫째 성인 자녀의 인적 사항 ····· 161
▌표 Ⅲ-94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가사 등 지원 줌 ····· 162
▌표 Ⅲ-95 ▌성인 자녀에게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줌 ····· 163
▌표 Ⅲ-96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가사 등 지원 받음 ····· 164
▌표 Ⅲ-97 ▌성인 자녀에게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받음 ····· 165
▌표 Ⅲ-98 ▌성인 자녀와의 관계 인식 ····· 167
▌표 Ⅲ-99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에 따른 관계만족도 차이 ····· 168
▌표 Ⅲ-100 ▌독립한 성인자녀와의 만남정도 ····· 169
▌표 Ⅲ-101 ▌독립한 성인자녀와의 연락정도 ····· 170
▌표 Ⅲ-102 ▌부모와의 동거 여부 ····· 171
▌표 Ⅲ-103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여부 ····· 172

▌표 Ⅲ-104 ▌별거 중인 부모와의 만남정도 ····· 173
▌표 Ⅲ-105 ▌별거 중인 부모와의 연락정도 ····· 174
▌표 Ⅲ-106 ▌별거 중인 배우자 부모와의 만남정도 ····· 175
▌표 Ⅲ-107 ▌별거 중인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정도 ····· 176
▌표 Ⅲ-108 ▌부모 지원_경제, 집안일 ····· 177
▌표 Ⅲ-109 ▌부모 지원_돌봄, 정서지원 ····· 178
▌표 Ⅲ-110 ▌배우자 부모 지원_경제, 집안일 ····· 179
▌표 Ⅲ-111 ▌배우자 부모 지원_돌봄, 정서지원 ····· 180
▌표 Ⅲ-112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 182
▌표 Ⅲ-113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 : 1순위 ····· 183
▌표 Ⅲ-114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 : 1+2순위 ····· 184
▌표 Ⅲ-115 ▌영유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 ····· 185
▌표 Ⅲ-116 ▌영유아 등원 기관 여부 ····· 186
▌표 Ⅲ-117 ▌영유아 등원 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 ····· 186
▌표 Ⅲ-118 ▌등원하는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 187
▌표 Ⅲ-119 ▌등원하는 영유아 자녀 주 양육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187
▌표 Ⅲ-120 ▌미등원 영유아 자녀의 주 양육자 ····· 188
▌표 Ⅲ-121 ▌미등원 영유아 자녀 주 양육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188
▌표 Ⅲ-122 ▌양육자 부재 시 도움을 주는 사람 ····· 189
▌표 Ⅲ-123 ▌영유아 자녀돌봄 필요 시간대(중복응답) ····· 190
▌표 Ⅲ-124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일상생활 돌봄 ····· 191
▌표 Ⅲ-125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아플 때 돌봄 ····· 192
▌표 Ⅲ-126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놀이 활동 ····· 192
▌표 Ⅲ-127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자녀 등하원 ····· 193
▌표 Ⅲ-128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훈육 및 교육 ····· 193
▌표 Ⅲ-129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만족도 ····· 194
▌표 Ⅲ-130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 : 1순위 ····· 195
▌표 Ⅲ-131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 : 1+2순위 ····· 196
▌표 Ⅲ-132 ▌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 197
▌표 Ⅲ-133 ▌하교 후 초등 자녀 돌보는 곳(중복응답) ····· 198
▌표 Ⅲ-134 ▌하교 후 초등자녀가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 198
▌표 Ⅲ-135 ▌평일 초등생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중복응답) ····· 199
▌표 Ⅲ-136 ▌간병·돌봄 필요한 가구원 여부 ····· 200
▌표 Ⅲ-137 ▌간병·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 201
▌표 Ⅲ-138 ▌가족 구성원 돌봄 어려움 ····· 202

▌표 Ⅲ-139 ▌가족돌봄 스트레스 ····· 203
▌표 Ⅲ-140 ▌신체적 건강 ····· 204
▌표 Ⅲ-141 ▌정신적 건강 상태 ····· 205
▌표 Ⅲ-142 ▌가정 건강성 ····· 206
▌표 Ⅲ-143 ▌생애설계 준비 ····· 209
▌표 Ⅲ-144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 ····· 210
▌표 Ⅲ-145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선호 여부 ····· 211
▌표 Ⅲ-146 ▌노후에 자녀와 동거 선호 이유 ····· 212
▌표 Ⅲ-147 ▌노후에 자녀와 동거 비선호 이유 ····· 213
▌표 Ⅲ-148 ▌노후준비 ····· 216
▌표 Ⅲ-149 ▌경제적 노후준비 ····· 217
▌표 Ⅲ-150 ▌경제적 준비 종류(중복응답) ····· 218
▌표 Ⅲ-151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 220
▌표 Ⅲ-152 ▌경제적 노후 준비 수준 ····· 221
▌표 Ⅲ-153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 1순위 ····· 222
▌표 Ⅲ-154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 1+2+3순위 ····· 223
▌표 Ⅲ-155 ▌근로여부 ····· 224
▌표 Ⅲ-156 ▌고용형태 ····· 225
▌표 Ⅲ-157 ▌정시퇴근 가능성 ····· 226
▌표 Ⅲ-158 ▌일·생활의 균형 수준 ····· 227
▌표 Ⅲ-159 ▌일·생활 불균형 원인 ····· 229
▌표 Ⅲ-160 ▌가족여가시간 : 평일 ····· 230
▌표 Ⅲ-161 ▌가족여가시간 : 주말 ····· 231
▌표 Ⅲ-162 ▌가족 여가시간 충분 여부 ····· 232
▌표 Ⅲ-163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 ····· 233
▌표 Ⅲ-164 ▌선호하는 가족여가프로그램 : 1순위 ····· 234
▌표 Ⅲ-165 ▌아동돌봄 책임 ····· 235
▌표 Ⅲ-166 ▌양육정책 방향 ····· 236
▌표 Ⅲ-167 ▌맞벌이 시 자녀 선호돌봄 ····· 237
▌표 Ⅲ-168 ▌노인돌봄 책임 ····· 238
▌표 Ⅲ-169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인지도 ····· 240
▌표 Ⅲ-170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접근성 ····· 242
▌표 Ⅲ-171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경험 ····· 244
▌표 Ⅲ-172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만족도 ····· 246
▌표 Ⅲ-173 ▌일·생활 균형 정책 ····· 248

▌표 Ⅲ-174 ▌가족 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생애주기 : 1순위 ····· 250
▌표 Ⅲ-175 ▌가족 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생애주기 : 1+2순위 ····· 251
▌표 Ⅲ-176 ▌1인가구 생활기간 ····· 252
▌표 Ⅲ-177 ▌1인가구로 생활하는 이유 ····· 254
▌표 Ⅲ-178 ▌1인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 ····· 255
▌표 Ⅲ-179 ▌1인가구 거주지 마련 방법 ····· 256
▌표 Ⅲ-180 ▌1인가구의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 257
▌표 Ⅲ-181 ▌1인가구 정서적 지지자 ····· 259
▌표 Ⅲ-182 ▌1인가구 일상생활 인식 ····· 262
▌표 Ⅲ-183 ▌1인가구 생활 만족도 ····· 263
▌표 Ⅲ-184 ▌향후 혼자 살 의향 ····· 264
▌표 Ⅲ-185 ▌1인가구 어려움 : 1순위 ····· 265
▌표 Ⅲ-186 ▌1인가구 생활 지속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 : 1+2순위 ····· 266
▌표 Ⅲ-187 ▌1인가구 생활 지속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 ····· 267
▌표 Ⅲ-188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지원정책 : 1순위 ····· 269
▌표 Ⅲ-189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지원정책 : 1+2순위 ····· 270

▌표 Ⅳ-1 ▌전북 가족정책 방향 ····· 289

그림 목차 Picture Contents

▌그림 Ⅱ-1 ▌전북과 전국의 가족지원서비스 요구도(1순위) ····· 39

▌그림 Ⅲ-1 ▌가족개념 ····· 61
▌그림 Ⅲ-2 ▌가족기능 ····· 70
▌그림 Ⅲ-3 ▌결혼가치관 ····· 78
▌그림 Ⅲ-4 ▌가족의례 및 문화 ····· 89
▌그림 Ⅲ-5 ▌가정내 성역할 ····· 95
▌그림 Ⅲ-6 ▌가족부양 가치관 ····· 101
▌그림 Ⅲ-7 ▌자녀가치관 ····· 107
▌그림 Ⅲ-8 ▌결혼생활 중요도와 충족도 ····· 135
▌그림 Ⅲ-9 ▌가족지원서비스 우선순위 ····· 249

연구요약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음. 전통적 가족의 모습은 감소하고 1인가구, 비친족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 및 출산 선택, 돌봄분담, 일생활 균형 등 기능, 관계, 생활양식 등에서도 변화하고 있음

○ 전북의 고령화율은 25.3%, 1인가구 비율은 38.17%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다문화가구, 비친족가구, 재혼가구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 세대별, 지역별 가족인식 및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남

○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개인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실태에 대한 진단과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

○ 중앙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가족실태조사는 전국단위 조사로 지역 간 특성과 세부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전북은 2005년 이후 자체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계열 분석과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가치관, 가족관계, 돌봄, 일과 여가, 1인가구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정책 요구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전북 가족 자료 재분석
- 가족정책 관련 조례 및 전북 가족정책 검토

○ 가족실태조사

▌표 1▐ 가족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5년 6월 30일~2025년 7월 31일
조사대상	전북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
표본수	유효응답 기준 총 1,025
표본추출방법	우선비례할당(성별, 권역, 연령, 가구형태)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조사
조사내용	가족 인식,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관계 및 돌봄, 건강과 여가, 가족정책 및 1인 가구 등

Ⅱ. 전북 가족 변화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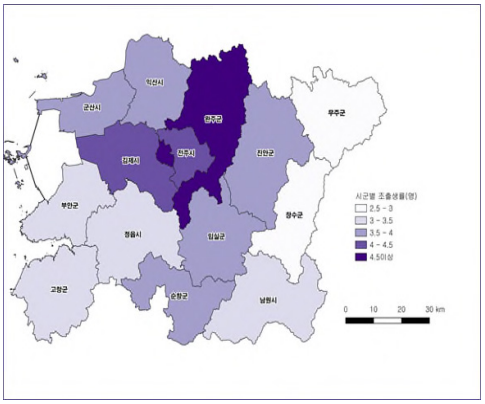
□ 전북 인구 변화와 특성

○ 전북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0명대에서 2024년 대부분 0.81명으로 감소했으며, 도시 지역의 하락 폭이 가장 큼(전주시 0.69명, 익산시 0.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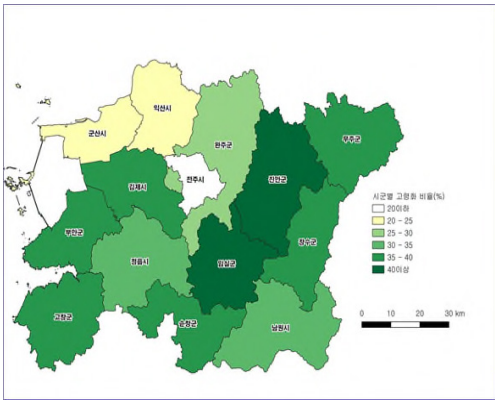
○ 전북의 조출생률은 12.6명(2000)에서 3.9명(2024)으로 같은 기간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완주군은 5.5명으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은 2.5명으로 가장 낮았음

○ 전북 시·군의 고령화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주시(18.5%)·군산시(23.0%)·익산시(24.2%)도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함

○ 임실군(41.5%)·진안군(40.3%)·장수군(39.9%)·고창군(39.7%) 등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비율이 40% 내외로 도시보다 훨씬 높음



▌그림 1▐ 전북 조출생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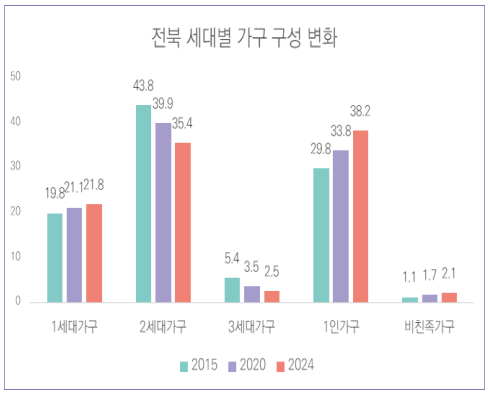


▌그림 2▐ 전북 고령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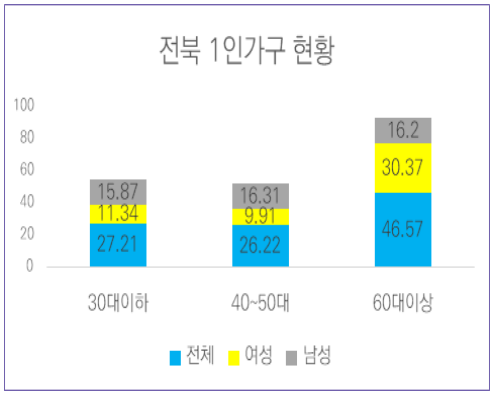
□ 전북 가구 및 가족 변화와 특성

○ 전북은 1인가구, 1세대 가구, 비친족가구가 증가하고, 2세대·3세대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확대되는 추세임

○ 1인가구는 2015년 29.8%에서 2024년 38.2%로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음. 전북 1인가구 중 60대 이상이 가장 많으며 30대 이하~50대는 남성 1인가구가 많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1인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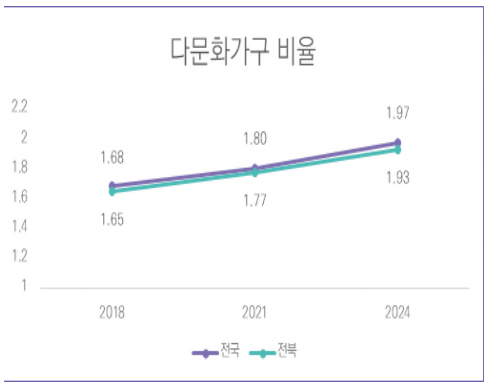
❙그림 3❙ 전북 세대별 가구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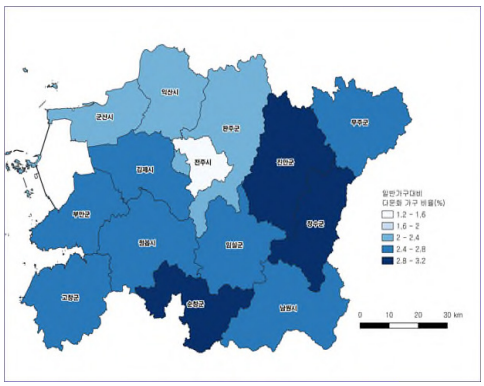
❙그림 4❙ 전북 1인가구 현황

○ 전북의 다문화가구는 2018년 1.68%에서 2024년 1.97%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 가구 대비 비중도 지속 상승하고 있음

○ 2024년 다문화가구 수는 전주시·익산시·군산시가 가장 많으나, 일반가구 대비 비율은 장수군(3.12%)·진안군(2.95%)·순창군(2.89%)이 가장 높고 전주시(1.26%)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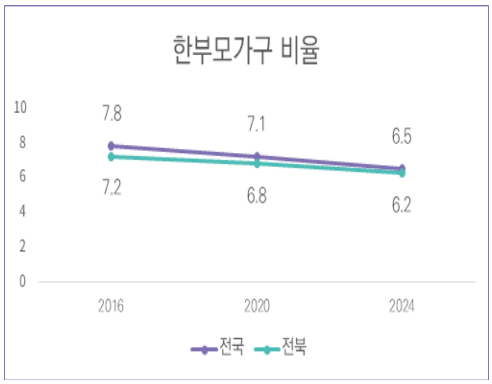
❙그림 5❙ 전북 다문화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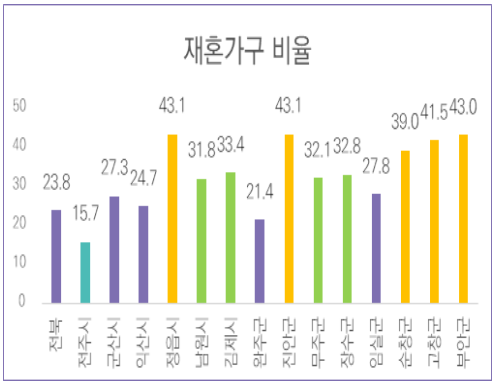
❙그림 6❙ 전북 시군별 다문화가구 비율

○ 전북의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6년 7.19%에서 2024년 6.22%로 감소 추세임

○ 전체 혼인 중 재혼 비율은 정읍시(43.1%)·부안군(43.0%)·고창군(41.5%) 등이 높아 농촌 지역의 재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7❙ 전북 한부모가구 비율



❙그림 8❙ 전북 재혼가구 비율

Ⅲ.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결과

□ 일반적 특성

○ 성별은 여성 50.7%, 남성 49.3%이며, 연령은 20대 11.4%, 30대 10.8%, 40대 14.9%, 50대 20.1%, 60대 20.0%, 70대 이상 22.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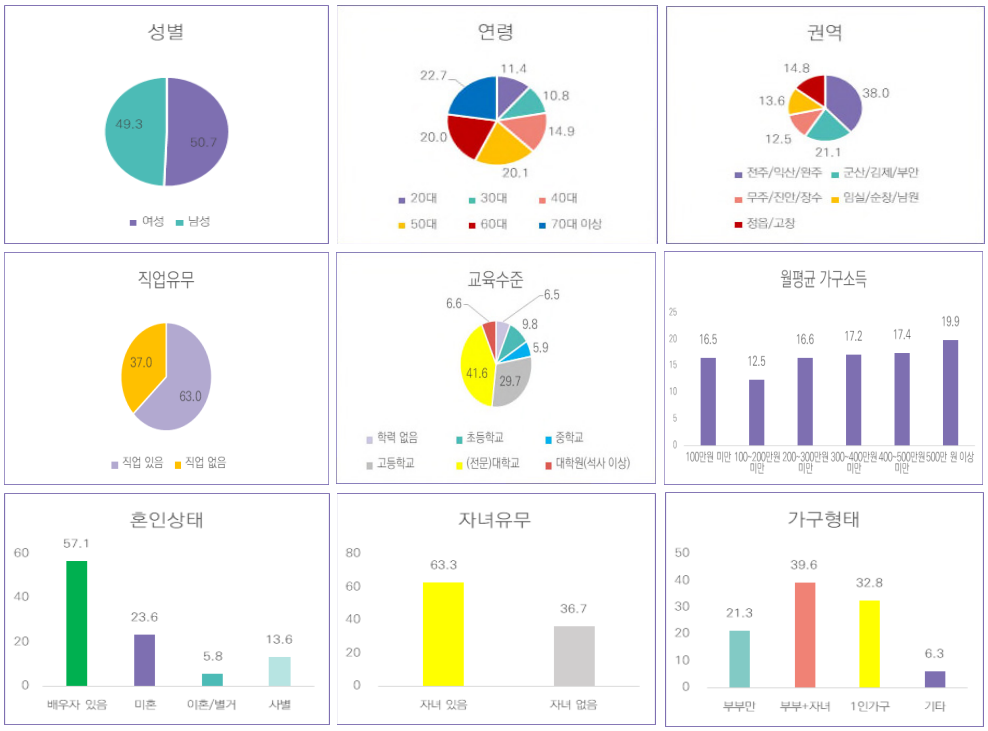
○ 권역별로는 전주·익산·완주 38.0%, 군산·김제·부안 21.1%, 무주·진안·장수 12.5%, 임실·순창·남원 13.6%, 정읍·고창 14.8%로 나타나 전주·익산·완주 권역이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직업은 있음 63.0%, 없음 37.0%이며, 학력은 (전문)대졸 41.6%, 고졸 29.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6.5%에서 500만원 이상 19.9%까지 분포하며, 300만원 이상 가구가 약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57.1%, 비혼 23.6%, 이혼·별거 5.8%, 사별 13.6%이며 자녀 있음은 63.3%, 없음은 3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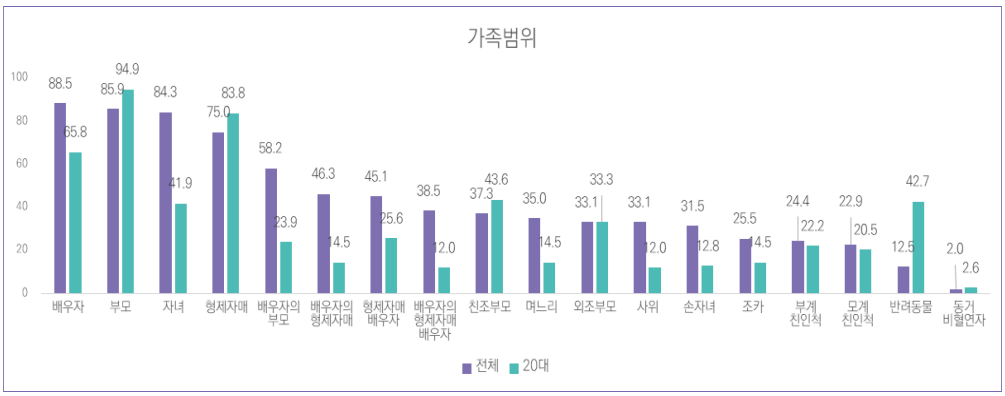
○ 가구 형태는 부부만 21.3%, 부부+자녀 39.6%, 1인가구 32.8%, 기타 6.3%로 나타나 부부+자녀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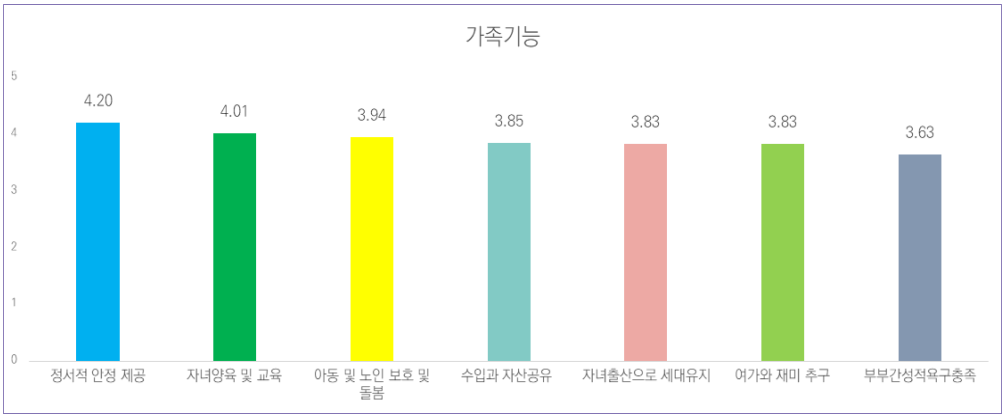
□ 가족인식 및 가치관

○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는 배우자(88.5%), 부모(85.9%), 자녀(84.3%), 형제자매(75.0%)가 가장 높음. 그러나 20대(42.6%)와 30대(19.8%)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부계·모계 친인척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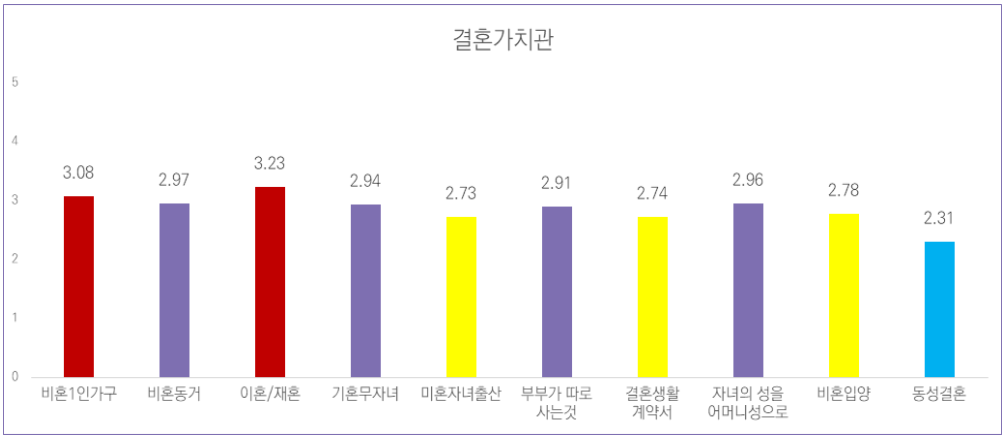
▌그림 10▐ 가족범위

○ 가족기능에서는 ‘정서적 기능’은 4.20점, ‘자녀 양육·교육 기능’은 4.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부 간 성적 욕구 충족 기능’은 3.6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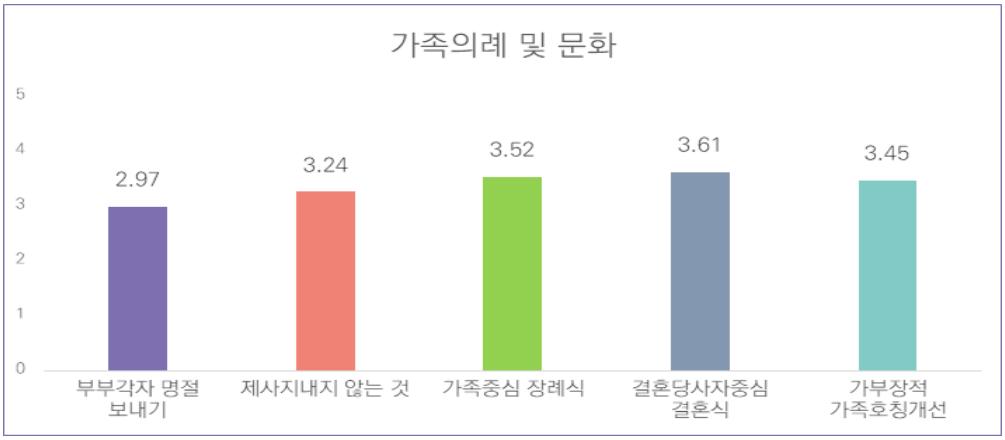
▌그림 11▐ 가족기능

○ 결혼가치관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3.08점)’과 ‘이혼·재혼(3.23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5점 척도 기준 중간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미혼자의 자녀 입양(2.78점)’, ‘동성 간 결혼(2.31점)’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12▐ 결혼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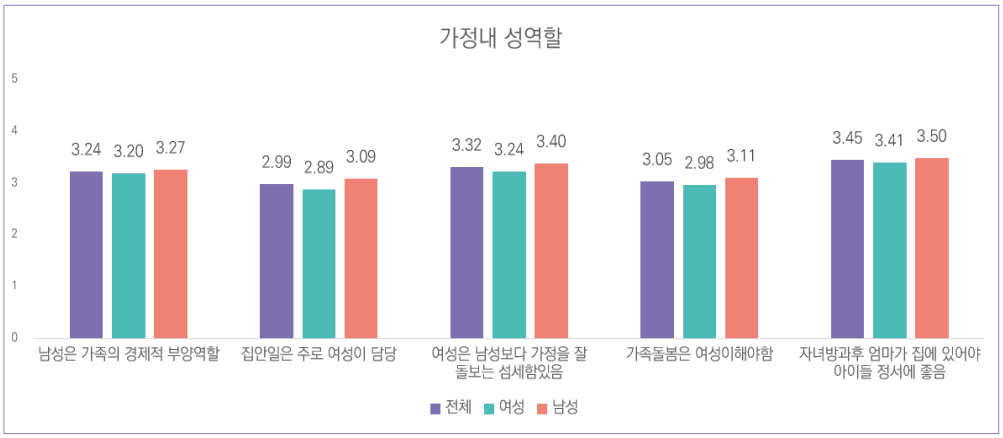
○ 가족의례 및 문화에서는 '결혼식을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3.61점)'과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3.52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부부가 각자 명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은 2.97점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13▐ 가족의례 및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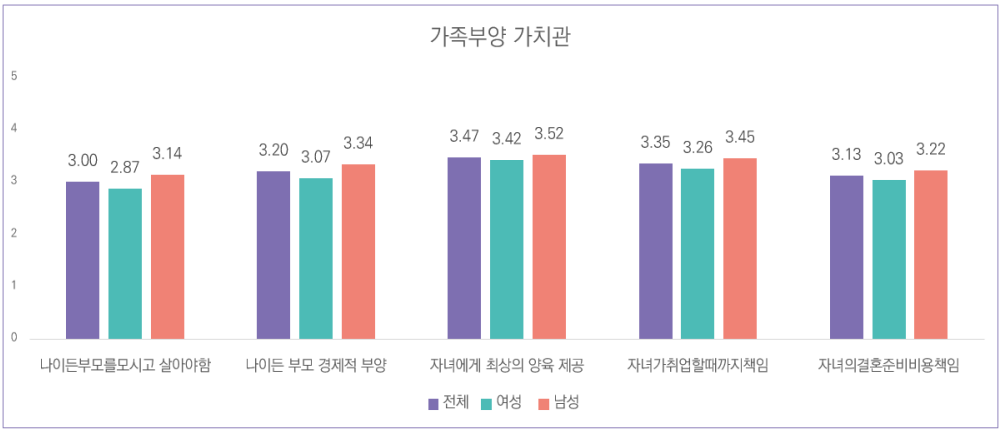
○ 가정 내 성역할 인식에서는 가족 돌봄·양육에 대해서는 전통적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자녀 방과 후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는 응답은 3.45점으로 가장 높았음

○ '여성은 남성보다 가정을 잘 돌보는 섬세함이 있다(3.32점)', '남성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 역할을 맡아야 한다(3.24점)'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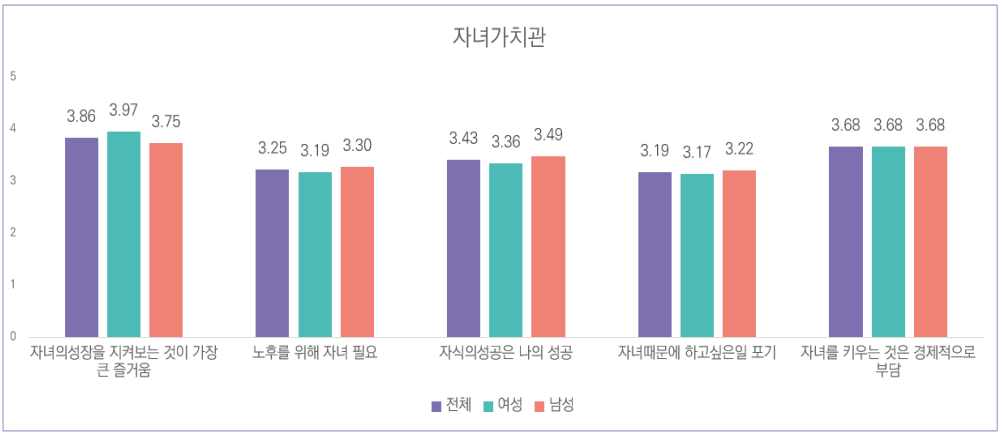
▌그림 14▐ 가정내 성역할

○ 가족부양 가치관에서는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3.20점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3.47점)’와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3.3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남



▌그림 15▐ 가족부양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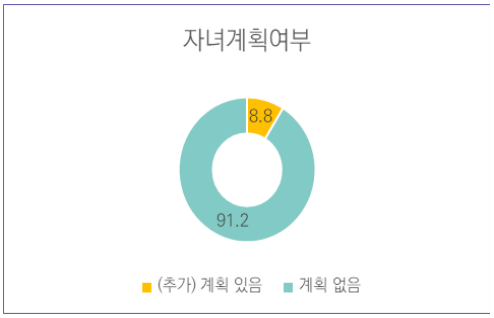
○ 자녀가치관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평균 3.86점,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3.68점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의 가치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높게 인식하는 양가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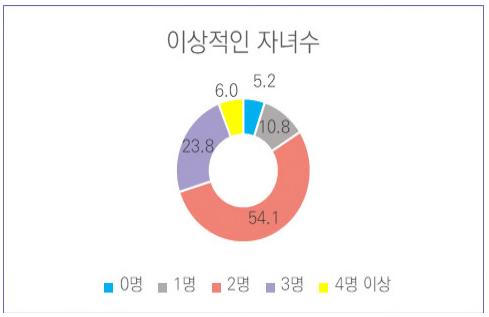
▌그림 16▐ 자녀가치관

□ 가족형성과 변화

○ 자녀계획에서는 계획없음 비율이 91.2%로 나타났으며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2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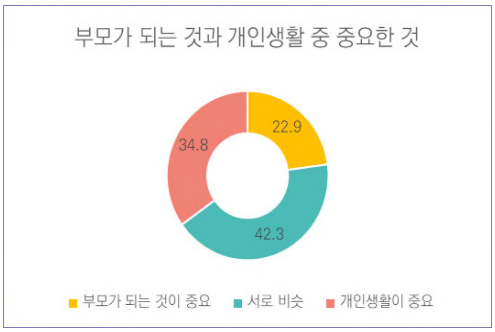
▌그림 17 ▌자녀계획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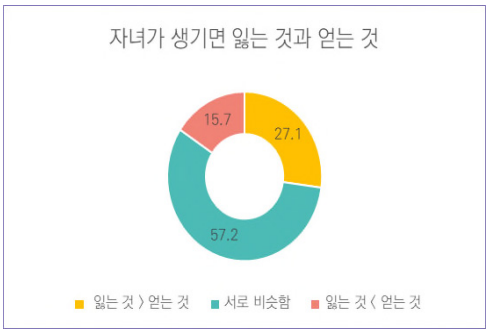
▌그림 18 ▌이상적인 자녀수

○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생활'이 더 중요하다(34.9%)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22.9%)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음

○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으나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응답(27.1%)이 '얻는 것이 더 많다'(15.7%)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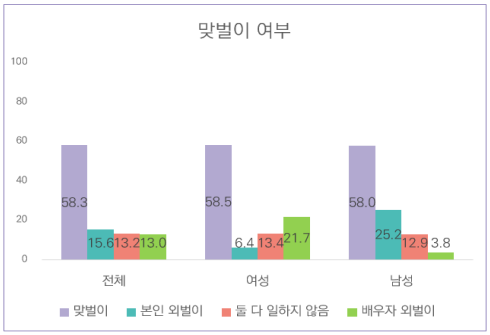
▌그림 19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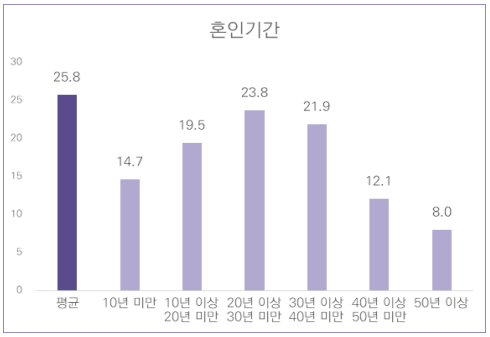
▌그림 20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과 얻는 것

□ 부부관계

○ 전북도민의 58.3%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혼인기간은 평균 25.8년으로 나타남



▌그림 21▐ 맞벌이 여부



▌그림 22▐ 혼인기간

○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β=.181), 자녀가 있는 경우(β=-.102)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2단계 분석 결과, 남성인 경우(β=.069), 가정 내 성역할 태도가 평등할수록(β=.066),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만족할수록(β=.266), 결혼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β=.123), 결혼안정성이 높을수록(β=.562)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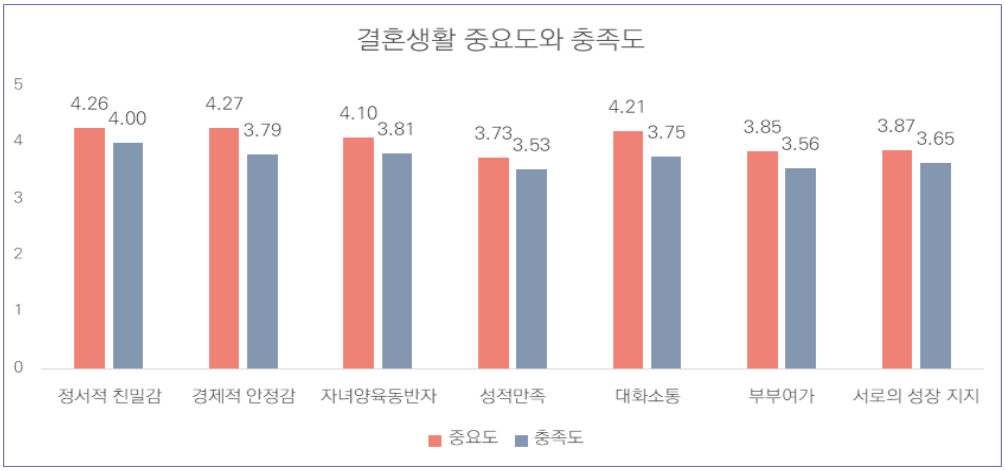
▌표 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85)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B	β	B	β
성별	.128	.079	.112	.069*
연령	.008	.012	.002	.003
월평균가구소득	.095	.181***	.031	.060
맞벌이 유무	.078	.047	.028	.017
자녀유무	-.252	-.102*	-.059	-.024
가정내 성역할태도			.059	.066*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236	.266***
결혼생활 중요도			.195	.123***
결혼안정성			.451	.562***
R	.235		.761	
R^2	.055		.580	
F	6.742***		88.132***	
Durbin-Watson	1.891			

*p< .05,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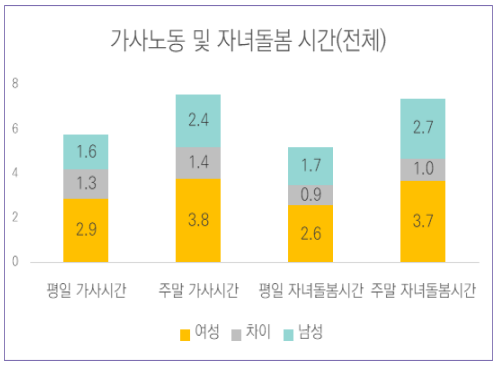
○ 결혼생활 중요도는 경제적 안정감(4.27점), 정서적 친밀감(4.26점), 대화·소통(4.21점), 자녀양육의 동반자 역할(4.10점) 등 핵심 영역이 모두 4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됨. 충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경제적 안정감과 대화·소통 영역에서 중요도–충족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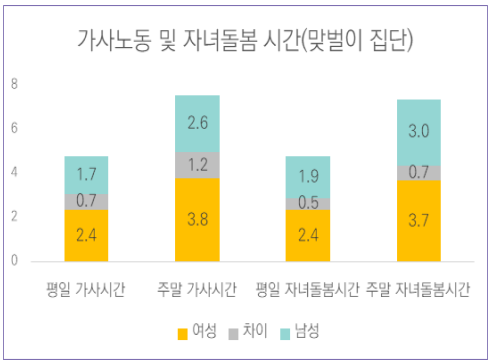
▌그림 23▐ 결혼생활 중요도와 충족도

○ 여성의 가사 참여시간은 남성보다 평일 기준 1.3시간, 주말 기준 1.4시간 더 길게 나타남. 여성의 자녀돌봄 시간은 남성보다 평일 0.9시간, 주말에는 1.0시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 맞벌이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가사참여 시간은 남성보다 평일 0.7시간, 주말 1.2시간 더 길었으며 여성의 자녀돌봄 시간은 남성보다 평일 0.5시간, 주말 0.7시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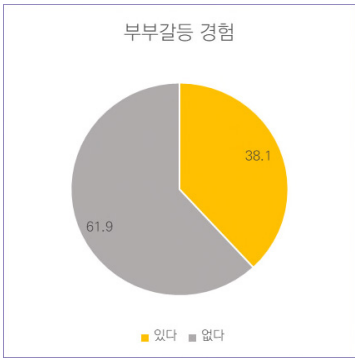
▌그림 24▐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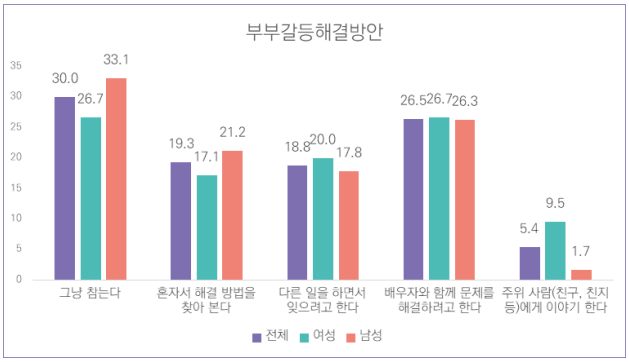
▌그림 25▐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맞벌이)

○ 최근 6개월 내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은 38.1%로 나타남

○ 부부갈등 해결방안은 '그냥 참는다'가 30.0%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26.5%)', '혼자 해결 방법을 모색함(19.3%)', '다른 일을 하며 잊으려는 경우(18.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 부부갈등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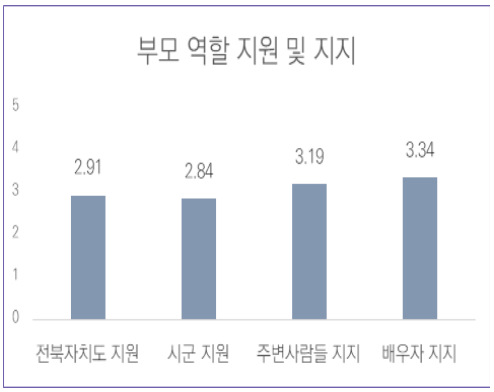


❙그림 27❙ 부부갈등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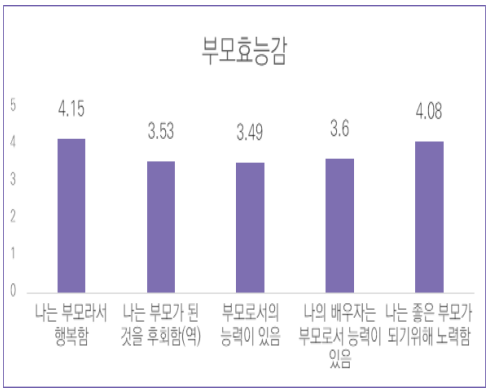
□ 부모-자녀 관계

○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부모역할 지원에 대한 평가는 각각 2.91점, 2.84점으로 나타나 중간값(3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 부모효능감을 살펴보면 '나는 부모라서 행복하다'가 4.15점,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가 4.08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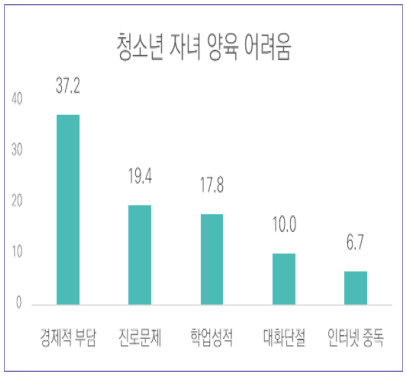
❙그림 28❙ 부모역할 지원 및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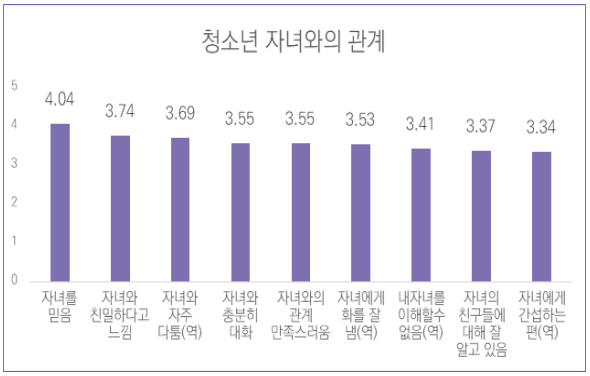
❙그림 29❙ 부모효능감

○ 청소년 자녀 양육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37.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문제(19.4%), 학업성적(17.8%)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자녀를 믿는다'가 4.0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는다'가 3.34점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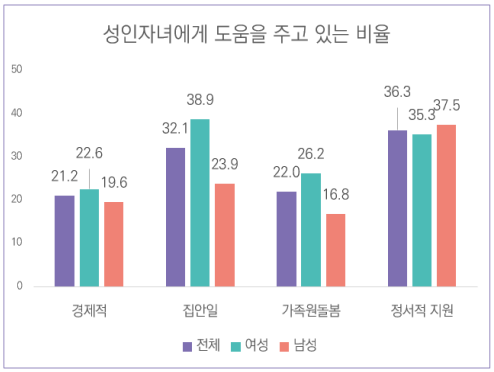
❙그림 30❙ 청소년 자녀 양육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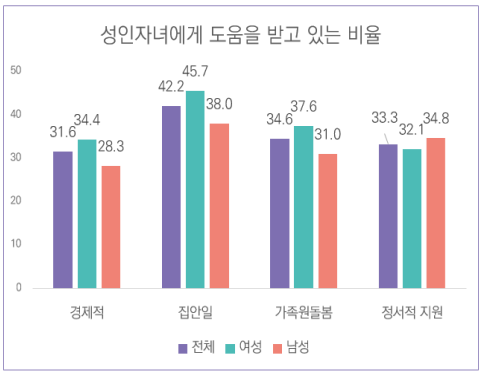
❙그림 31❙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을 살펴보면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정서적 지원(36.3%), 가사·집안일 도움(32.1%), 가족원 돌봄(22.0%), 경제적 지원(21.2%)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부모가 성인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은 가사·집안일 도움(42.2%), 가족원 돌봄(34.6%), 정서적 지원(33.3%), 경제적 지원(3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주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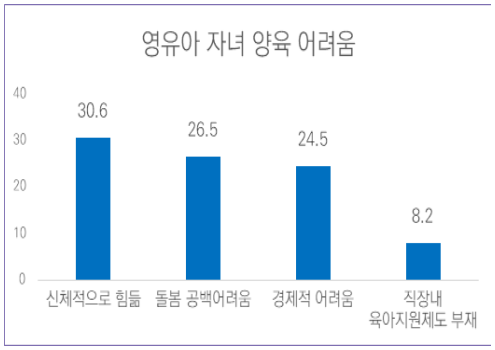


❙그림 33❙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받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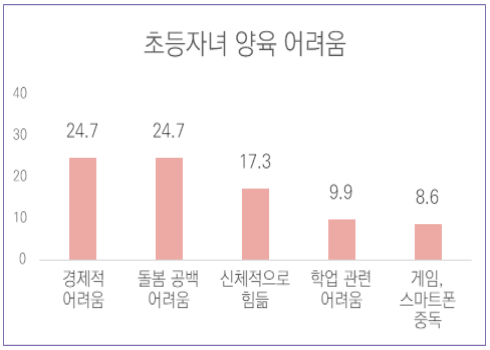
□ 가족돌봄

○ 영유아 자녀의 양육 어려움은 신체적 힘듦(30.6%)이 가장 높았고, 돌봄 공백(26.5%), 경제적 부담(24.5%) 순으로 나타남

○ 초등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돌봄공백(24.7%)과 경제적 어려움(24.7%)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으로 힘듦(17.3%), 학업관련 어려움(9.9%), 게임·스마트폰·인터넷 중독(8.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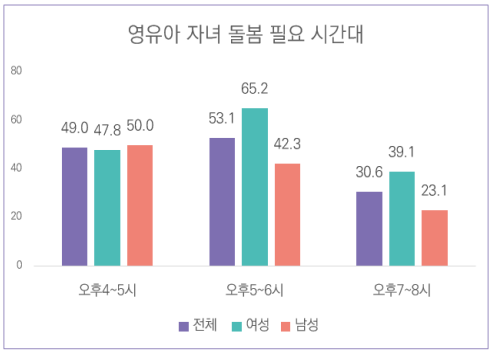


▌그림 34 ▌영유아 자녀 양육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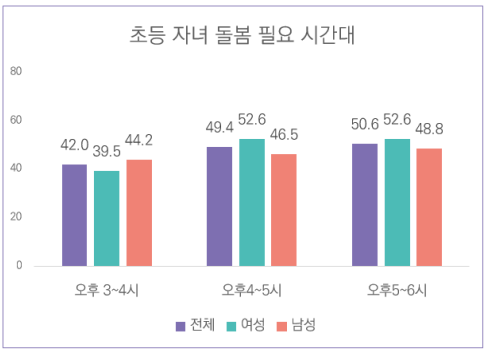


▌그림 35 ▌초등자녀 양육어려움

○ 영유아 자녀의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간대는 오후 4시~7시, 초등자녀의 경우는 오후 2시~7시로 초등자녀의 돌봄수요는 영유아 돌봄 수요(오후 4시~7시)보다 이른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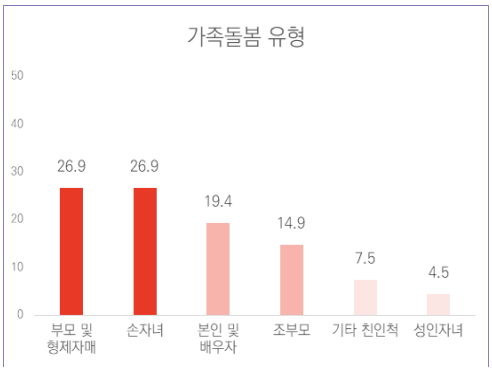
▌그림 36 ▌영유아 자녀 돌봄 필요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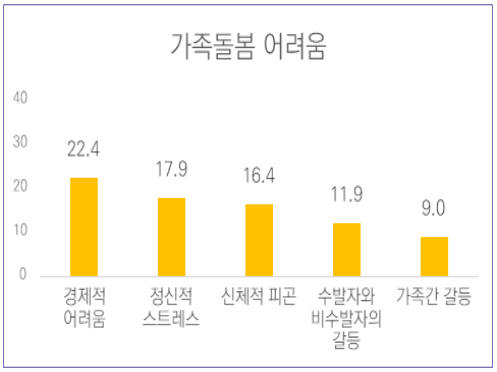
▌그림 37 ▌초등자녀 돌봄 필요 시간대

○ 영유아 및 초등, 청소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 돌봄 유형은 부모 및 형제자매와 손자녀 돌봄이 가장 많았음

○ 가족구성원 돌봄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22.4%)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스트레스(17.9%), 신체적 피곤(16.4%) 순으로 나타남



❙그림 38❙ 가족돌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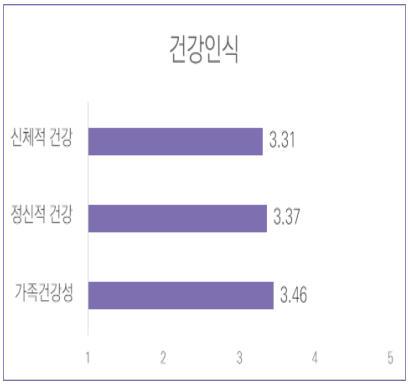


❙그림 39❙ 가족돌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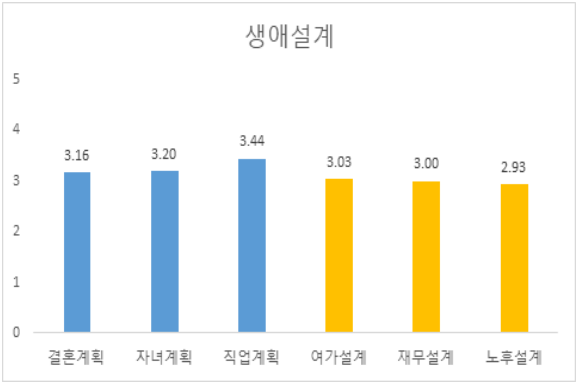
□ 건강과 생애설계

○ 주관적 신체적 건강 평균은 3.31점, 정신적 건강 평균은 3.37점, 가정건강성 평균은 3.4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건강 상태를 보임

○ 전북도민의 생애설계 준비 수준을 살펴보면 직업계획(3.44점)이 가장 높고 자녀계획(3.20점)과 결혼계획(3.16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여가설계(3.03점), 재무설계(3.00점), 은퇴·노후준비(2.93점)는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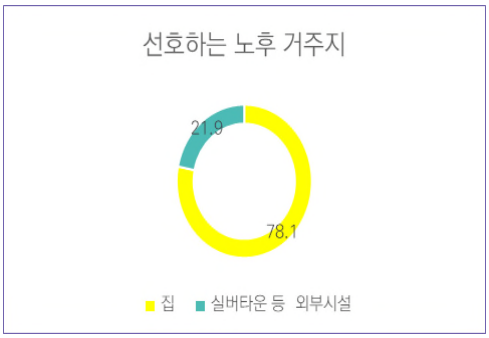
❙그림 40❙ 건강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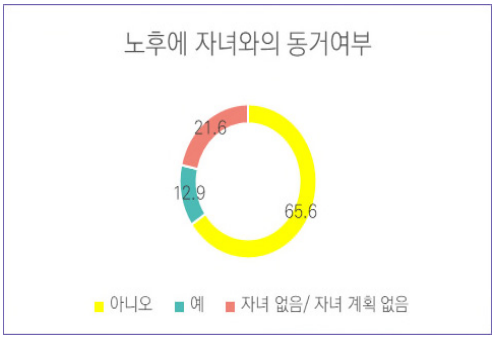
❙그림 41❙ 생애설계

○ 전북도민의 노후 거주 선호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8.1%가 요양시설 등 외부시설보다는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에 자녀동거 선호도는 전체 응답자의 12.9%만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면 65.6%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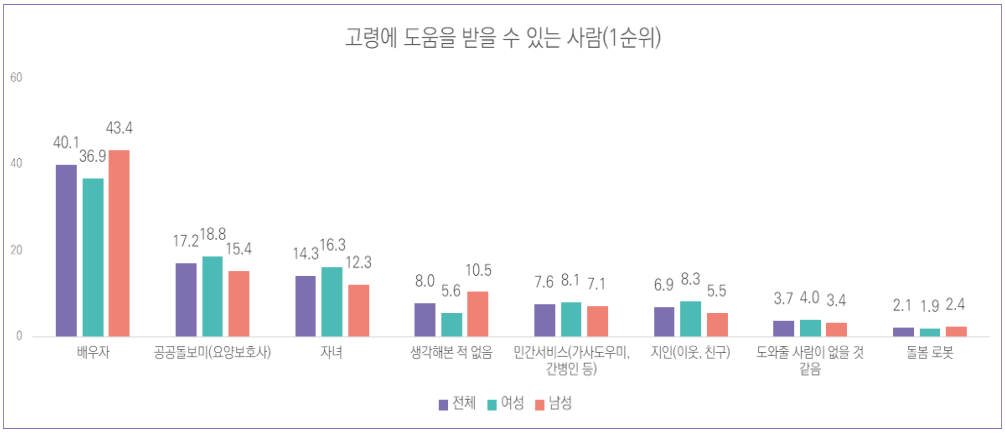


❙그림 42❙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



❙그림 43❙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여부

○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1순위 도움 대상으로 '배우자(40.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공공돌보미(요양보호사 등, 17.2%), 자녀(14.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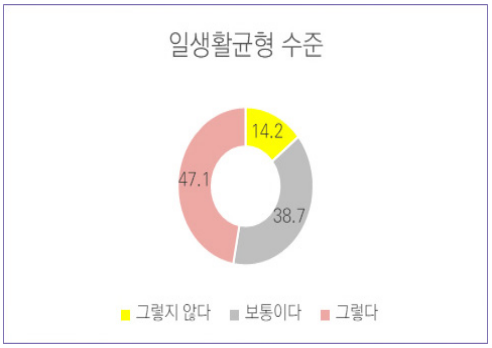


❙그림 44❙ 고령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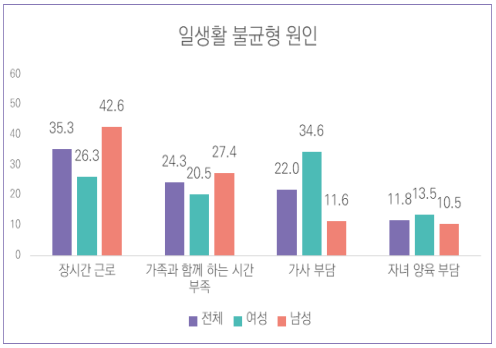
□ 일과 여가

○ 전체 응답자의 63.0%가 현재 근로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생활 균형 수준(5점 척도)은 평균은 3.37점으로 나타남

○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는 장시간 근로(35.3%)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24.3%), 가사 부담(22.0%), 자녀양육 부담(11.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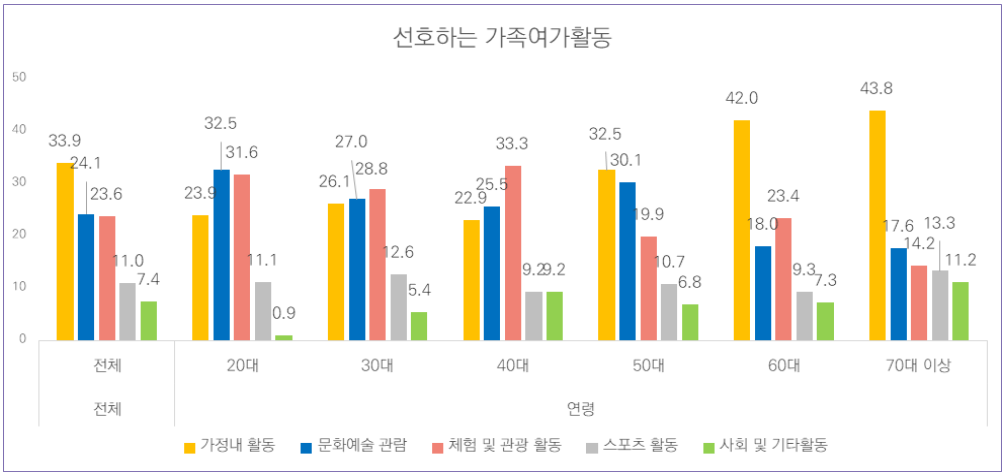


▌그림 45▐ 일생활균형 수준



▌그림 46▐ 일생활 불균형 원인

○ 선호하는 가족여가프로그램은 가정 내 활동(33.9%)이 가장 높으며 문화예술 관람(24.1%), 체험·관광 활동(23.6%), 스포츠 활동(11.0%), 사회·기타 활동(7.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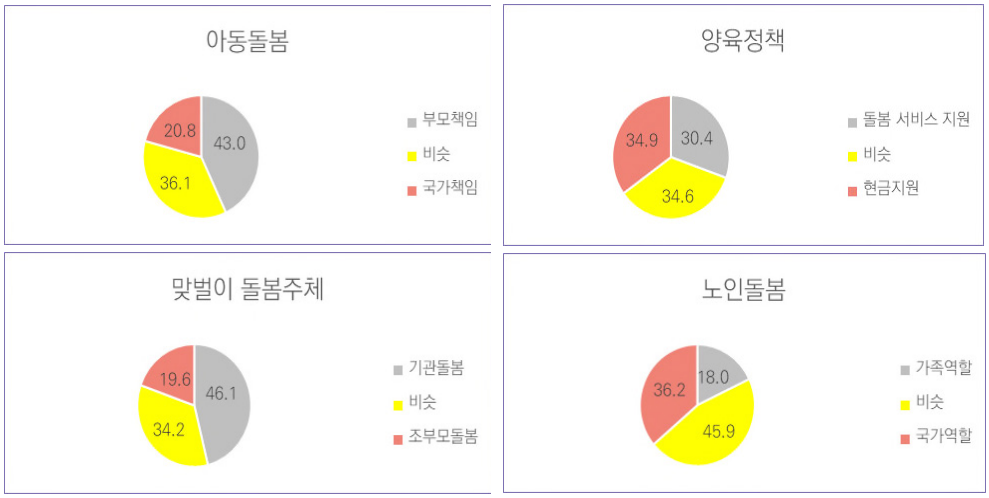


▌그림 47▐ 선호하는 가족여가활동

□ 가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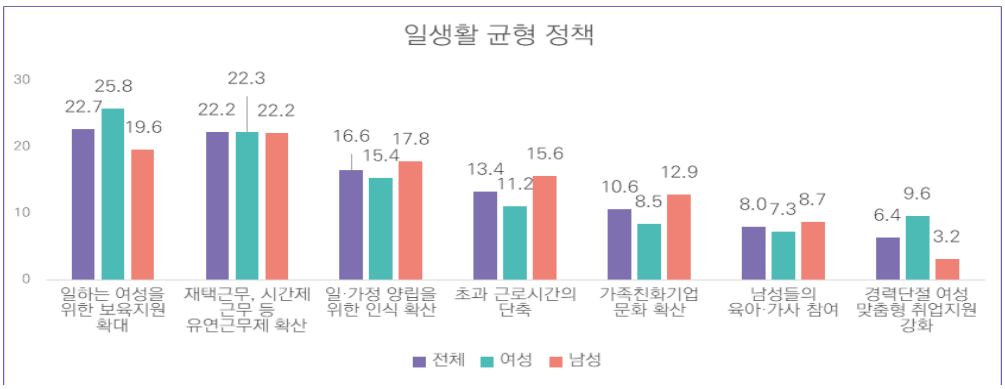
○ 아동돌봄 책임 인식에서는 '부모 책임(43.0%)'이 가장 높은 반면 노인돌봄 책임 인식에서는 '국가·가족 공동 책임(45.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양육자 지원정책 방식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필요(34.9%)', '현금과 돌봄서비스 비슷(34.6%)', '돌봄서비스 지원 필요(30.4%)'로 유사한 응답 수준을 보였으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방식 선호는 '기관돌봄(46.1%)'이 가장 높음



▌그림 48▐ 돌봄 정책 및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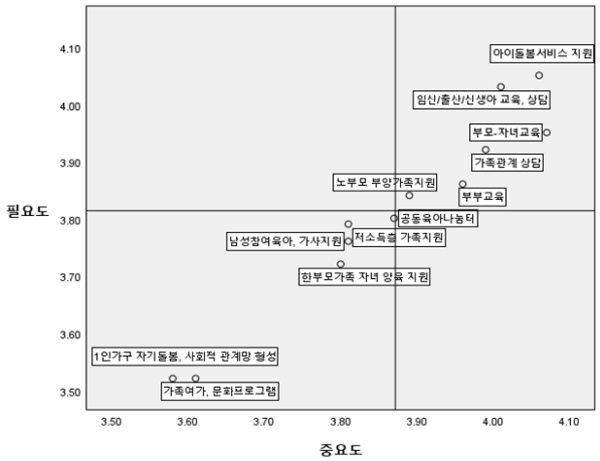
○ 일·생활 균형 정책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22.7%로 가장 높았으며 재택근무·시차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22.2%),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16.6%), 초과근로시간 단축(13.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일생활 균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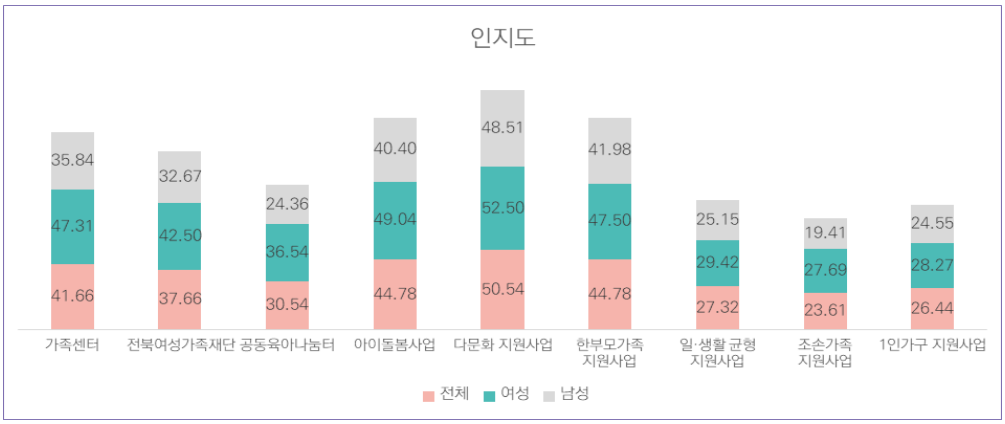
○ 가족지원서비스 사업의 중요도와 필요도는 모두 중간값(3점)을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됨

○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중요도와 필요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임신·출산 및 신생아 교육·상담, 부모-자녀 교육, 가족관계 상담, 부부교육,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등도 중요도와 필요도가 모두 높은 서비스로 나타남



▌그림 50▐ 가족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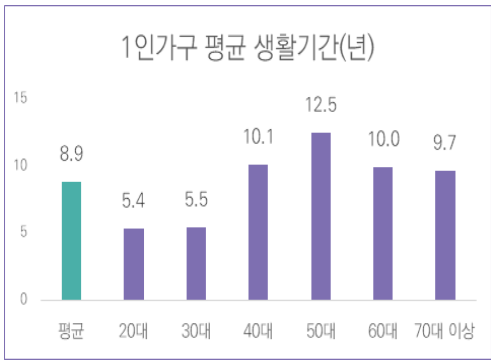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는 다문화 지원사업(50.54%)이 가장 높았으며 아이돌봄사업·한부모가족지원사업(각44.78%), 가족센터(41.66%), 전북여성가족재단(37.6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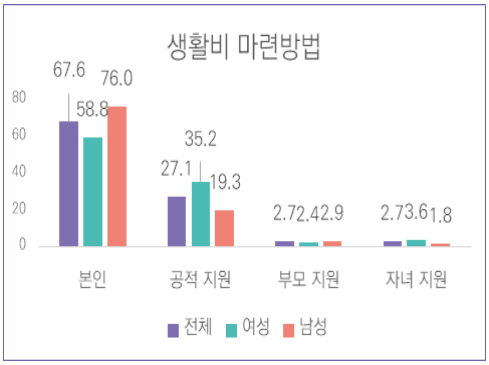
▌그림 51▐ 인지도

□ 1인가구

○ 전북 1인가구 생활기간은 8.9년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 마련은 본인이 스스로 마련(67.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공적지원을 받는 경우도 27.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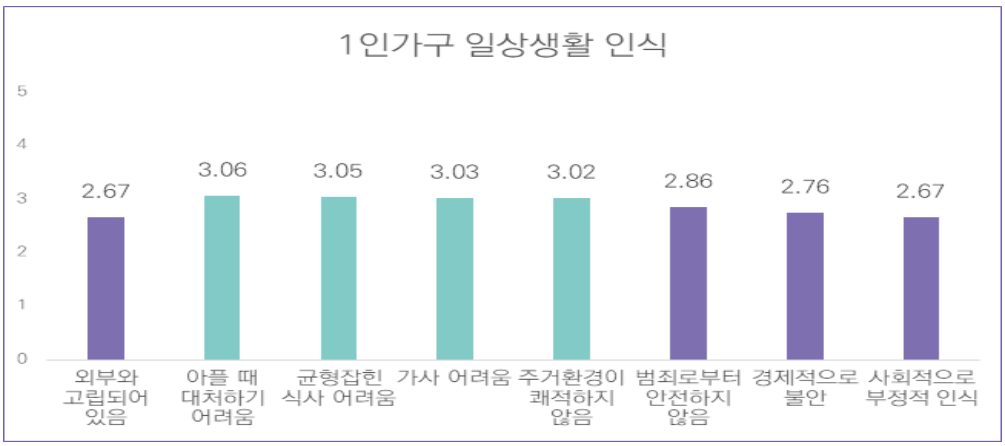


▌그림 52 ▌1인가구 생활기간



▌그림 53 ▌1인가구 생활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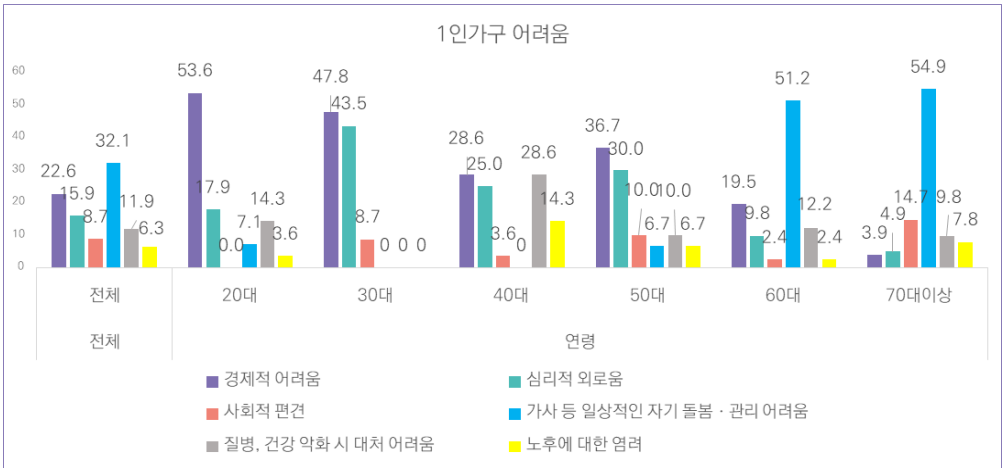
○ 1인가구의 일상생활 인식에서는 '아플 때 대처하기 어렵다(3.06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3.05점)', '가사를 하기 어렵다(3.03점)',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다(3.02점)'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4 ▌1인가구 일상생활 인식

○ 1인가구의 어려움은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22.6%), 심리적 외로움(15.9%), 질병·건강 악화 시 대처의 어려움(11.9%)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60대 이상은 일상적인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함



▌그림 55▐ 1인가구 어려움

Ⅳ.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정책 방향

▌표 3▐ 전북 가족정책 방향

정책방향	주요정책
다양한 가족의 포용과 지속가능한 지원 확대	• 비혼, 동거, 무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가족 다양성 인식 개선(교육·캠페인) • 가족실태조사 정례화 및 자료체계 구축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생애주기별 부부관계 지원체계 구축	•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방안 마련 •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상담 확대 • 부부 상담 및 관계 전환 지원 강화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관계 지원 강화	• 부모역할 캠페인 • 자녀발달별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갈등 대응 지원 확대 • 생애주기별 부모-자녀 지원 플랫폼 구축
돌봄의 성평등과 공공성 강화	•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틈새·긴급돌봄 강화) • 남성 돌봄참여 촉진 지원 강화 • 가족돌봄자 보편적 지원체계 확대 및 비공식돌봄 연계
건강한 노후 자립과 생애설계 지원 강화	• 재무·여가·건강 등 생애 설계 교육 강화 • 노년기 건강·여가·관계지원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
생애주기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확대	• 성별·연령별 맞춤 지원 강화 • 1인가구 고립 예방 관계망 회복 지원 • 1인가구 전담 창구 및 통합지원 거버넌스 구축
가족정책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	• 가족센터 보편사업 강화(교육, 상담, 돌봄 등)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환류체계 구축 • 지역특성 반영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고찰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가족은 구조, 기능, 관계, 생활양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확대가족과 핵가족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한부모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 다문화가족의 확대 등 가족의 형태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족은 1.8%, 한부모가족은 6.9%으로 가족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2020년 34.0%에서 2023년 47.4%로 증가하였고, 12세 미만 자녀 돌봄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돌본다'는 응답 비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족관계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이러한 흐름은 전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전북의 고령화율은 25.3%로 전국 평균인 20.0%보다 높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세대 구성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2세대 및 3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가구 및 비친족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38.2%로 2세대 가구(36.4%)보다 높게 나타나 2024년 기준 1인가구는 전북의 보편적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전북의 조혼인율은 3.7건으로 전국에서 낮은 수준인 반면 조이혼율은 2.0건으로 전국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24).

전북도민의 가족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결혼에 찬성하는 여성의 비율은 2014년 59.9%에서 2022년 50.7%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일 · 생활 균형의 어려움에서도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여성은 가사부담(42.2%)과 자녀양육(18.5%)의 부담을, 남성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33.0%)과 가사부담(26.2%)을 주요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조막래·김혜린, 2024).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은 경제(83.5%)였으며 가족관계(73.2%), 건강(65.0%) 순으로 나타났다(김동영 외, 2023). 이는 가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중요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단위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가족 관련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 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가족기능, 결혼안정성, 가사노동 시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북은 2005년 이후 별도의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계열적 분석이 어렵고 전북자치도의 가족정책기본계획 또한 부재하다. 다만 매년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틀에 맞춘 단기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닌다(이윤정 · 권안나, 2021). 따라서 전북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북 가족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도민의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가치관, 가족관계, 돌봄 실태, 일·생활 균형, 1인 가구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정책 요구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북의 가족현황과 가족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실태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전북 지역의 가족 구조 변화 및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정리하고 연구 수행을 위한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가족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북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재분석하였으며 전북 가족정책 관련 조례와 지자체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정책 사업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북 도민 1,025명의 결과를 분석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족 인식 및 가치관, 가족 형성과 변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 돌봄, 건강과 생애설계, 일과 여가, 가족정책 인식, 1인 가구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응답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북 가족의 주요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착수 전,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착수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후 가족실태조사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및 문헌을 검토하고, 국가승인통계를 재분석하여 가족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설문자료를 검토하여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 종료 후에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검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시사점 및 향후 방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자문(서면)을 진행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표 Ⅰ-1 ▌과 같이 연구기획, 문헌연구, 조사분석, 정책자문, 보고서 완성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Ⅰ-1 ▌연구절차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 기획	문헌고찰 및 자문회의	-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수립 - 착수자문회의(연구방향 및 범위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문헌 연구	행정 자료 검토 및 재분석	- 선행연구 고찰 - 전북 가족의 변화와 주요특성 * 관련 통계, 가족실태조사, 사회조사 재분석
조사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설문조사 * 대상: 전북 도민 20세 이상 성인 1,025명 * 내용: 가족인식, 가족관계, 가족돌봄, 정책인식, 1인가구 등
정책 자문	서면자문	-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보고서 완성	최종 심의 및 보고서 작성	- 최종심의 결과 반영 - 최종 보고서 완성

3.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실태조사 선행연구-정책연구보고서 중심으로

가족실태조사 관련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족실태조사'와 '가족다양성 인식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2005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실시

되었으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에는 4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최근 실시된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는 전국 12,000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가족 인식,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관계, 일과 생활, 노후 생애설계, 가족돌봄, 정책 인식, 1인가구 등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다양성 인식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최근 3년간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안세아, 2024), 전라남도(김경주 외, 2024), 제주특별자치도(강권오 외, 2022), 대구광역시(이경숙 외, 2022), 경상북도(김수연, 2022) 등은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가족 특성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정책의 시사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거나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하였다. 전라남도의 경우 20~40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실태를 조사하여 그에 기반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022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23년에 「경북 가족정책 대응전략 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2021년 별도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를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 가족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파악하였다. 지자체 연구인 충청북도(주경미·김희찬, 2024), 광주광역시(박주희·신난딩, 2023), 경기도(이나련 외, 2022)는 가족다양성 인식조사를 통해 가족 개념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가족 기능과 성역할 인식,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가족정책 확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이선형·김우영, 2023)는 가족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내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Ⅰ-2▐ 가족실태조사 선행연구

연구제목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내용	정책제안
김영란 외(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표본규모: 전국 12,000가구 (12,044가구 조사) •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상 가구원 • 조사방법: 일대일 가구 방문 면접조사 원칙. 가구원조사에 한정해 자기기입식 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 가구 대표: 가구원명부, 가족돌봄, 1인 가구, 가구 특성 • 가구 대표, 가구원 공통: 개인관련사항,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 가족생활과 노후 생애설계, 정책에 대한 인식, (11개 영역, 97개 문항)	• 가족형태 다양성 관련 정책 추진 필요 •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 확산 등 정책 추진 필요 • 성평등한 부부관계와 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정책, 일·생활 균형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자녀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 양육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가족친화적 문화 환산 등 정책 필요 •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던 정책 개인 중심으로 전환 필요 • 1인 가구 분석 위한 방안 필요(실태조사 표본 확대)
안세아(2024), 「충청남도 가족정책 종합계획 (2024-2028) 수립연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표본규모: 400가구 (514가구원)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와 개별면접조사 병행	• 가족형성 및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및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 일·생활 균형, 가족정책 수요 (정책 및 제도 측면, 시설 인프라 측면)	• 가족친화환경조성: 충남형 돌봄정책 강화, 가족친화 문화 확산 등 •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가족관계 개선증진,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가족의 복지증진: 취약가족 통합지원 활성화, 다양한 가족 생활 및 복지 증진 • 가족지원 체계 강화: 거점 가족센터 역할 기능 제고,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활성화

연구제목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내용	정책제안
김경주 외(2024), 「전남지역 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향」, 전남여성가족재단	• 설문조사: 20세 이상 49세 이하 도민 1,000명 • 면접조사: 20~40대 도민 35명	• 설문조사: 가족인식,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문화, 일·생활균형, 지역사회와의 관계, 1인 가구 삶, 정책 수요 등 • 면접조사: 성차별 경험, 가족 성평등 문화, 결혼·출산·돌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일·생활균형 인식, 지역 정주의식, 정책 수요 등	• 추진체계 정비(조례 제정,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광역가족센터 설립) • 성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전남형 가족문화 지표 개발 및 관리, 농어촌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등) • 일·생활균형 확산 (농촌형 촉진 포함) • 지역사회 연계 지원 • 지역 여건 개선
강권오 외(202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 표본 수: 1,009명 • 조사대상: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조사원 통한 면접조사 병행	• 일반적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의 형성 및 변화, 가족의 관계 및 생활, 건강 및 노후관리, 공동체 및 가족친화 정책, 자녀 및 가족 돌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정책 발굴 필요 • 여성 관점에서의 가족 정책 및 저출생 정책 수립 필요 • 공백없는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일·생활균형 지원 강화 •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이혼 및 재혼가족 지원체계 구축 • 지역특성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 • 가족정책 전달체계 구축 • 가족실태조사 정례화 및 법적근거 마련
이경숙 외(2022), 「대구시 가족실태조사」, 대구여성가족재단	• 표본 수: 1,250명 • 조사대상: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 통한 설문조사(온라인/모바일 등)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치관), 가족 형성 및 돌봄, 가족생활 및 관계, 가족건강 및 노후준비, 일·생활균형, 가족성평등 실태, 가족정책 수요, 코로나19 이후 가족 삶의 변화, 1인 가구 형성 특징 및 인식과 정책수요	• 포괄적 가족정책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 •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 도입 필요 • 돌봄친화적 정책 구축 필요 •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필요

연구제목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내용	정책제안
김수연·정서린 (2022), 「경상북도 가족생활 진단 및 대응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경북여성정책 개발원	• 표본 수: 1,000명 •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도민 •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조사와 세대방문 면접조사 병행	• 일반현황, 가구(주)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일·생활균형, 생활 및 경제수준, 1인가구, 가족정책	• 다양한 가족 인식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자녀 양육 부담 완화되도록 지원 필요 • 부부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돌봄 부담 완화위한 돌봄체계 구축 및 지속적 인프라 강화 필요 • 가사수행 지원 정책 보편화 필요 • 여가활동 다양화 및 활성화 지원 필요 • 노후준비 지원 강화 필요 • 현실성 있는 일·생활균형 정책 필요 • 1인가구 정책 개발 필요 • 독거노인 돌봄지원 강화 필요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홍보 강화 필요
주경미·김희찬 (2024), 「충북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 충북여성재단	• 표본크기: 800명 (남400명, 여400명) • 조사대상: 15세 이상 69세 이하 도민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	• 응답자 기본사항, 인구사회학적 배경, 가족의 정의와 범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성역할 인식, 향후 필요한 정책	•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결혼 제도 밖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식개선 필요 • 가족다양성 및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필요 • 가족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다양한 가족의 날’ 혹은 ‘모든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필요

연구제목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내용	정책제안
박주희·신난딩 (2023), 「광주지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광주여성가족재단	• 표본 수: 1,012명 (온라인 536명, 오프라인 476명 응답)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도민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면접원 조사) 조사 병행	• 응답자 일반현황, 가족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인식, 현재 가족상황 및 차별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 가족커뮤니티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생애주기별 가구 필요서비스 및 보편적 가구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필요 • 파트너 여부와 무관하게 돌봄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 복지 서비스 도입 필요 • 정부차원 추진체계 개선: 가족기본법 개편, 연대인 제도 도입 • 광주차원 추진체계 개선: 조례제·개정, 컨트롤타워 구축, 1인가구 종합센터 설치 • 다양한 가족 지원 위한 제도 개선(가족수당,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가구영향평가 필요
이나련 외(2022), 「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표본 수: 2,053명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 도민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통한 온라인 조사	• 가족다양성 인식, 가족기능 및 결혼 제도 인식,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 성역할태도, 가족지원제도 인지 및 향후 가족관련 제도에 대한 지지, 응답자의 특성	• 가족관련 지원 사업 관계자 대상 교육(가족다양성 관련) 필요 • 경기도형 가족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가족다양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캠페인, 모니터링 등) 필요 • 다양한 가족 정서적 기능 지원 강화 필요 • 다양한 가족지원 위한 제도적 체계 •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시범사업) 마련

연구제목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내용	정책제안
이선형·김우영 (2023), 「서울시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설문조사: 만 15세~64세 서울시민 2,000명 • 면접조사: 서울시 주요정책 대상 그룹(가족돌봄 비혼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성차별을 경험한 청소년, 섹슈얼리티 이슈가 있는 가족구성원, 폭력·피해 등 갈등 이슈 있는 가족구성원) 총 19명	• 설문조사: 가족인식, 가사노동과 돌봄, 가족관계, 일·생활균형, 젠더 의식, 사회적 관계망, 정책 수요, 일반적 특성 • 면접조사: 돌봄 현황 및 서비스 이용 현황, 가족관계별 만족도 및 갈등 내용, 고용과 소득, 의사결정 권한, 가족계획 등	• 돌봄 사회로의 전환 필요(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 가족 돌봄자 지원 정책 통합 및 확대, 기술기반 가족돌봄 지원) • 가사노동과 돌봄의 성별 격차해소(서울형 가사서비스 활성화, 남성 돌봄 참여 활성화, 서울시 가족 성평등 지표 제안) • 미래세대 가족 인식에 부합하는 가족 정책 필요(청소년기 성적 실천에 대한 가족의 지지망 강화, 양육자 대상 가족 성평등 교육 강화, 가족문화 개선 캠페인)

3) 선행연구 분석 결과 및 연구의 한계점

최근 실시된 가족실태조사 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연구마다 조사 대상자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 내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부 연구는 특정 연령대(예: 20~40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김경주 외, 2024). 또한 연령 기준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층의 포함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이 차이가 있다.

조사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가족의 질적 특성이나 복잡한 가족관계, 가족정책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보편적인 가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가족기능, 부부의 결혼 안정성, 생애주기별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도 등 전반적인 가족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특히 전북의 초고령화 상황을 반영하여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대상으로 구성하였고, 표본 설계 시 권역별, 연령별, 성별 가구형태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비례할당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우선비례할당 방법으로 표본을 설계하여 전북 전체 가족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집단(예: 가족돌봄가구 등)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오차를 감소할 수 있는 표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정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025년 전북 가족실태를 단일 시점에서 연구한 횡단 조사(cross-sectional design)로 시계열적 변화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중앙정부의 가족실태조사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등 기존 조사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북 가족 실태 변화 및 정책수요 등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북의 가족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하여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방법이 설문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가족의 질적 특성이나 복합적인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면접조사 등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고, 가족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Ⅱ

전북 가족 특성과 정책 검토

1. 전북 인구 변화와 특성
2. 전북 가구 변화와 특성
3. 전북 가족정책

Jeonbuk Women & Family Foundation

Ⅱ 전북 가족 특성과 정책 검토

1. 전북 인구 변화와 특성

1) 전북 인구구조

전북의 총인구는 2005년 1,784천 명에서 2024년 1,758천 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05년 대비 인구 규모의 축소는 크지 않으나, 인구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유소년 부양비는 2005년 28.4%에서 2024년 15.0%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노년 부양비는 같은 기간 21.2%에서 37.1%로 상승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1 ▌전북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2005-2024)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여성				남성			
				전체	14세 이하 인구 구성비	15~64세 인구 구성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전체	14세 이하 인구 구성비	15~64세 인구 구성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2005	1,784,013	28.4	21.2	906,435	18.0	64.9	17.1	877,578	20.0	68.8	11.2
2010	1,777,220	24.1	24.2	904,496	15.4	65.0	19.5	872,724	17.1	69.9	13.0
2015	1,834,114	19.5	25.7	918,385	13.0	66.1	21.0	915,729	13.9	71.7	14.4
2020	1,802,766	17.2	30.9	903,708	11.2	64.6	24.1	899,058	12.0	70.4	17.6
2024	1,758,836	15.0	37.1	878,196	9.6	62.8	27.6	880,640	10.1	68.8	21.2

자료: 통계청, 각 년도「인구총조사」재가공
주) 총인구(내국인+외국인)를 기준으로 하였음

전북 여성 인구는 2005년 906천 명에서 2024년 878천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5~64세 여성 인구 비중은 64.9%에서 62.8%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여성 인구 비중은 17.1%에서 27.6%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남성 인구는 877천 명에서 880천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15~64세 인구 비중도 68.8%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남성 인구 비중은 11.2%에서 21.2%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타지역 전출 가능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노인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2) 저출산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0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전북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면서 코로나 이후 결혼 후 출산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전북의 조출산율은 2000년 12.6명에서 3.9명(2024년)으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북은 여성 1인당 출산 의향은 전국보다 높지만,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출로 출산 가능한 인구 자체가 적어 실제 출생아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표 Ⅱ-2 ▌합계출산율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전국	1.48	13.5	1.09	9.0	1.23	9.4	1.24	8.6	0.84	5.3	0.75	4.7
전북	1.60	12.6	1.18	8.3	1.37	8.7	1.35	7.6	0.91	4.5	0.81	3.9

자료: 통계청, 각년도「인구동향조사」
주1) 합계출산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주2) 2024년 합계출산율은 잠정치임

전북 시군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00년 1.5명대였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대부분 1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전주시(0.69명), 군산시(0.80명), 익산시(0.76명) 등 주요 도시 지역의 출산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 낮으며 특히 전주시는 2000년 1.59명에서 2024년 0.69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제시(1.15명), 진안군(1.25명), 임실군(1.27명) 등 일부 지역은 2024년에도 1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출산율 감소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출생률은 같은 기간 동안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전주시는 2000년 14.4명에서 2024년 4.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군산시는 13.6명 → 3.7명, 완주군은 12.8명 → 5.5명, 무주군 8.0명 → 2.5명 등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농촌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출생률이 2~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출산 성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임기 여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3 ▌시군별 합계출산율(연도별 작성)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합계 출산율	조출 생률
전주시	1.59	14.4	1.15	9.3	1.23	9.1	1.26	8.3	0.81	4.9	0.69	4.1
군산시	1.60	13.6	1.16	8.6	1.42	9.6	1.50	8.8	0.95	4.9	0.80	3.7
익산시	1.59	13.6	1.22	9.0	1.34	8.6	1.34	7.6	0.85	4.2	0.76	3.6
정읍시	1.53	11.2	1.17	7.4	1.39	7.5	1.34	6.0	0.87	3.4	0.93	3.4
남원시	1.61	11.5	1.25	7.8	1.48	7.8	1.38	6.1	1.22	4.7	0.10	3.5
김제시	1.54	10.0	1.17	6.7	1.47	7.2	1.27	5.4	0.97	3.6	1.15	4.3
완주군	1.69	12.8	1.38	9.6	1.87	11.8	1.70	9.8	0.92	4.3	1.09	5.5
진안군	1.72	9.3	1.04	5.5	2.41	11.8	1.82	7.4	1.64	5.4	1.25	3.6
무주군	1.37	8.0	1.46	7.0	1.54	7.1	1.46	5.7	1.11	3.7	0.87	2.5
장수군	1.51	8.6	1.42	7.2	1.78	8.0	1.39	5.5	1.28	4.3	1.09	2.9
임실군	1.51	8.0	1.11	5.3	1.88	8.1	1.63	6.3	1.75	5.9	1.27	3.7
순창군	1.76	9.1	1.37	6.7	1.62	7.4	1.48	6.2	1.66	5.9	1.19	3.6
고창군	1.69	8.6	1.14	5.1	1.38	5.7	1.28	4.8	1.15	3.7	1.09	3.2
부안군	1.65	9.5	1.04	5.4	1.34	6.1	1.18	4.7	0.95	3.2	1.03	3.1

자료: 통계청, 각년도「인구동향조사」
주1) 합계출산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주2) 2024년 합계출산율은 잠정치임

3) 고령화

의료기술 및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는 2000년 7.0%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사회(14%)를 거쳐 20.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2024년)에 진입하였다. 전북은 2024년 25.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므로 노인 의료, 주거,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4▐ 전북 고령화 비율(전국과 비교, 연도별 작성)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전국	7.0	8.9	10.9	13.1	16.4	20.0
전북	10.3	12.9	15.2	17.8	21.4	25.3

자료: 행정안전부(주민과), 고령인구비율

전북 시군별 고령화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주시(18.5%), 군산시(23.0%), 익산시(24.2%) 등 주요 도시 지역은 2000년 6~8%대로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24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임실군(41.5%), 진안군(40.3%), 장수군(39.9%), 고창군(39.7%) 등 군 단위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4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가 나타나 농촌 지역의 고령화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북은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 정도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는 노동력 부족, 의료와 돌봄 수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령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표 Ⅱ-5▐ 시군별 고령화 비율(연도별 작성)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전주시	6.2	7.8	9.6	12.1	15.0	18.5
군산시	8.1	10.3	12.3	14.8	18.9	23.0
익산시	8.6	10.6	12.8	15.6	19.9	24.2
정읍시	13.2	17.4	20.6	24.1	27.9	32.0
남원시	13.6	17.4	20.6	24.1	28.1	32.8
김제시	15.2	19.5	23.7	27.6	31.9	35.4
완주군	13.1	15.8	18.1	19.2	23.4	25.4
진안군	18.2	23.3	27.4	31.0	35.0	40.3
무주군	17.3	23.1	26.7	29.5	33.6	38.0
장수군	16.8	23.5	27.1	29.4	34.2	39.9
임실군	18.6	25.1	28.9	31.5	36.4	41.5
순창군	19.1	24.3	28.4	30.4	34.0	37.8
고창군	16.7	22.5	26.5	29.4	34.4	39.7
부안군	15.8	20.7	24.6	28.5	33.3	38.6

자료: 행정안전부(주민과), 고령인구비율

4) 혼인

혼인건수는 ▌표 Ⅱ- 6▐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0년 326,104건에서 2024년 222,41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조혼인율도 같은 기간 6.5%에서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초혼 연령은 증가하고 있는데 남성은 2010년 31.84세에서 2024년 33.86세로 여성은 28.91세에서 31.55세로 증가하여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표 Ⅱ-6▐ 전국 및 전북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 세)

연도	혼인건수		조혼인율[1]		평균 초혼 연령			
					여성		남성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2010	10,525	326,104	5.7	6.5	28.48	28.91	31.77	31.84
2015	9,060	302,828	4.9	5.9	29.40	29.96	32.58	32.57
2020	6,053	213,502	3.4	4.2	30.49	30.78	33.54	33.23
2024	6,388	222,412	3.7	4.4	31.16	31.55	33.90	33.86

출처: 인구동향조사(통계청, 2024)

1) 인구천명당 혼인건수

▌표 Ⅱ-7▐ 전북 시군별 혼인건수, 평균초혼연령, 조혼인율(2015, 2020, 2024)

(단위: 건, 세)

구분	2015				2020				2024			
	혼인건수	평균 초혼 연령		조혼인율 (천명당)	혼인건수	평균 초혼 연령		조혼인율 (천명당)	혼인건수	평균 초혼 연령		조혼인율 (천명당)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북	9,060	29.40	32.58	4.9	6,053	30.49	33.54	3.4	6,388	31.16	33.90	3.7
전주시	3,406	29.59	32.33	5.2	2,447	30.66	33.25	3.7	2,648	31.14	33.44	4.2
군산시	1,606	29.28	32.56	5.8	1,015	30.66	33.60	3.8	949	30.82	33.97	3.7
익산시	1,544	28.98	32.09	5.1	820	30.10	33.13	2.9	931	31.55	33.77	3.5
정읍시	475	29.25	33.30	4.1	306	29.81	33.95	2.8	283	30.84	34.48	2.8
남원시	309	29.83	33.33	3.6	211	29.71	33.34	2.6	220	31.79	35.23	2.9
김제시	337	28.85	32.52	3.8	289	30.62	34.96	3.5	323	31.27	35.24	4.0
완주군	468	30.09	33.40	5.1	310	30.85	34.22	3.4	500	31.05	33.80	5.1
진안군	83	30.13	33.95	3.2	62	29.56	32.74	2.4	51	30.86	35.85	2.1
무주군	117	29.30	32.95	4.6	69	30.76	31.83	2.9	56	31.64	35.69	2.4
장수군	84	29.19	33.78	3.6	54	31.29	36.03	2.4	58	31.23	34.41	2.8
임실군	94	30.06	33.87	3.1	87	30.18	35.42	3.1	54	31.39	35.39	2.1
순창군	114	29.67	33.83	3.8	66	30.15	34.40	2.4	59	31.07	33.82	2.2
고창군	209	29.48	34.01	3.5	150	30.82	34.94	2.7	142	30.59	35.05	2.8
부안군	214	28.50	33.03	3.8	167	30.44	33.44	3.2	114	31.18	36.11	2.4

자료: 통계청, 각년도「인구동향조사」재가공

전북은 전반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평균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전주시는 2015년 3,406건에서 2024년 2,648건으로 군산시는 1,606건에서 949건으로, 익산시는 1,544건에서 931건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군 단위는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은 2024년 기준, 남성은 33세~36세, 여성은 30~31세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초혼연령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높은 연령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5) 이혼

전국 이혼건수는 2010년 116.858건에서 2023년 91,151건으로 약 22%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도 2.3%에서 1.8%로 하락하여 전국적으로 이혼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북은 같은 기간 3,910건에서 3,453건으로 약 12% 감소하여 전국보다는 감소폭이 작다. 또한 전북의 조이혼율은 2.0~2.1% 사이에서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는 이혼율은 감소하는데 전북은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 이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0년 남성은 44.99세, 여성은 41.13세였던 평균 이혼 연령이 2024년에는 남성 50.42세, 여성 47.10세로 모두 높아졌다. 이는 이혼 건수는 줄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더 오래 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Ⅱ-8▐ 전국 및 전북 이혼건수, 조이혼율, 평균이혼연령

(단위: 건, 세)

연도	이혼건수		조이혼율 (천명당)		평균 이혼 연령			
					여성		남성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2010	3,910	116,858	2.1	2.3	40.48	41.13	44.47	44.99
2015	3,755	109,153	2.0	2.1	42.28	43.31	46.68	46.93
2020	3,763	106,500	2.1	2.1	45.55	46.00	49.60	49.37
2024	3,453	91,151	2.0	1.8	46.97	47.10	51.16	50.42

자료: 통계청, 각 년도「인구동향조사」재가공

시군별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주시(1,101건)의 이혼건수가 가장 많으며, 익산시(575건), 군산시(574건), 정읍시(209건), 완주군(207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이혼율은 진안군(2.8)이 가장 높으며 김제시(2.3), 군산시(2.2), 부안군(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안군은 2015년 기준 이혼 건수가 37건, 조이혼율은 1.4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이혼 건수가 68건, 조이혼율 2.8건로 타 시군보다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Ⅱ-9▐ 시군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5, 2020, 2024)

(단위: 건)

구분	2015		2020		2024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전북	3,755	2.0	3,763	2.1	3,453	2.0
전주시	1,129	1.7	1,216	1.9	1,101	1.7
군산시	688	2.5	640	2.4	574	2.2
익산시	641	2.1	616	2.2	575	2.1
정읍시	288	2.5	223	2.1	209	2.0
남원시	168	2.0	171	2.1	160	2.1
김제시	198	2.2	185	2.2	186	2.3
완주군	180	2.0	210	2.3	207	2.1
진안군	37	1.4	62	2.4	68	2.8
무주군	46	1.8	48	2.0	38	1.6
장수군	45	1.9	38	1.7	29	1.4
임실군	55	1.8	55	2.0	46	1.8
순창군	63	2.1	62	2.2	45	1.7
고창군	96	1.6	119	2.2	107	2.1
부안군	121	2.1	118	2.3	108	2.2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주) 조이혼율: 천명당 이혼건수

2. 전북 가구 변화와 특성

1) 가구수와 가구원수

전국 가구수는 2020년 21,484,785가구에서 2024년 22,997,120가구로, 전북 가구수는 767,803가구에서 805,961가구로 증가했다. 그러나 가구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2.41(2020년)명에서 2.25명

(2024년)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또는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가구원수가 적어 개인 또는 부부 중심의 가구가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10▐ 전국 및 전북 가구 변화(2020-2024)

(단위: 가구,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북	가구수	767,803	785,218	791,720	802,546	805,961
	가구원수	1,802,766	1,787,053	1,774,248	1,768,491	1,758,836
	평균 가구원수	2.35	2.28	2.24	2.20	2.18
전국	가구수	21,484,785	22,022,753	22,383,187	22,728,163	22,997,120
	가구원수	51,829,136	51,738,071	51,692,272	51,774,521	51,805,546
	평균 가구원수	2.41	2.35	2.31	2.28	2.25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각 년도를 활용하여 재분석
주 1) 평균가구원수 = 가구원수/가구수
주 2) 총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세대별 가구 구성 변화

전북 가구구성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1인가구 증가와 2세대, 3세대 가구 감소로 볼 수 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세대 가구는 2015년 142,173가구(19.8%)에서 2024년 172,193가구(21.8%)로 증가하였다. 특히 부부만 구성된 세대는 같은 시기 130,239가구(18.2%)에서 2024년 159,410가구(20.0%)로 증가하여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세대 가구는 2015년 314,324가구(43.8%)에서 2024년 278,787가구(35.4%)로 가구수와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세대수는 25.9%(2015년)에서 20.4%(2024년)로 감소하였으며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세대수도 소폭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3세대, 4세대 가구 또한 감소하고 있어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는 2015년 전체 가구의 29.8%였으나 2024년 38.2%로 확대되어 전북 가구 구조 변화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고령화, 청년층 감소 및 유출, 비혼 인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친족가구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5년에 7,840가구(1.1%)가 2024년에는 17,077가구(2.2%)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1 ▌전북 세대 구성별 가구 수(2015, 2020, 2024)

(단위: 가구, %)

구 분	2015		2020		2024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일반가구	**717,311**	**100**	**755,575**	**100**	**788,621**	**100**
1세대가구-계	**142,173**	**19.8**	**159,410**	**21.1**	**172,193**	**21.8**
1세대가구-부부	130,239	18.2	146,062	19.3	157,468	20.0
1세대가구-부부+미혼형제자매	621	0.1	629	0.1	759	0.1
1세대가구-부부+기타친인척	145	0.0	159	0.0	199	0.0
1세대가구-가구주+미혼형제자매	6,149	0.9	6,759	0.9	6,735	0.9
1세대가구-가구주+기타친인척	537	0.1	661	0.1	789	0.1
1세대가구-기타	4,482	0.6	5,140	0.7	6,243	0.8
2세대가구-계	**314,324**	**43.8**	**301,729**	**39.9**	**278,787**	**35.4**
2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	185,516	25.9	177,346	23.5	160,892	20.4
2세대가구-부+미혼자녀	21,774	3.0	20,320	2.7	19,507	2.5
2세대가구-모+미혼자녀	55,652	7.8	55,592	7.4	53,796	6.8
2세대가구-부부+양친	808	0.1	638	0.1	466	0.1
2세대가구-부부+한부모	5,886	0.8	4,798	0.6	4,069	0.5
2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2,124	0.3	1,667	0.2	1,473	0.2
2세대가구-조부모+미혼손자녀	2,233	0.3	1,997	0.3	1,788	0.2
2세대가구-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3,813	0.5	3,318	0.4	3,124	0.4
2세대가구-기타	36,518	5.1	36,053	4.8	33,672	4.3
3세대가구-계	**38,684**	**5.4**	**26,164**	**3.5**	**19,451**	**2.5**
3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양친	3,803	0.5	2,460	0.3	1,543	0.2
3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부친	2,465	0.3	1,777	0.2	1,405	0.2
3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모친	14,315	2.0	9,243	1.2	6,177	0.8
3세대가구-기타	18,101	2.5	12,684	1.7	10,326	1.3
4세대이상 가구	540	0.1	215	0.0	128	0.0
1인가구	213,750	29.8	255,269	33.8	300,985	38.2
비친족가구	7,840	1.1	12,788	1.7	17,077	2.2

자료: 통계청, 각 년도「인구총조사」
주) 일반가구 기준으로 집계(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 제외)하여, 총가구와 차이 있음

3) 다양한 가족 형태

(1) 1인가구

전북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29.80%에서 2024년 38.17%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60대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체 1인 가구 중 60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41.19%였으나 2024년에는 46.57%로 상승하였다. 또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40~50대에서는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 시군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임실군(40.34%)과 고창군(40.4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안군(39.53%), 무주군(39.84%), 김제시(39.04%) 또한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10가구 중 약 4가구가 1인 가구임을 의미한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율은 진안군(70.03%)이 가장 높으며 순창군(69.64%), 장수군(69.58%), 고창군(69.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고령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일부 시군(김제시를 비롯하여 군단위)에서는 40~50대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여성의 1인가구 비율보다 약 2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남성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여성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많지만, 농촌 지역일수록 남성은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노년층의 1인가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농촌지역에서는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와 노인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돌봄 등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Ⅱ-1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1인가구 변화(2015-2024)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1인가구 구성비*
			전체		여성		남성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2015	전북	**합계**	**213,750**	**100.00**	**113,793**	**53.24**	**99,957**	**46.76**	29.80
		30대 이하	62,068	29.04	23,253	10.88	38,815	18.16	
		40~50대	63,631	29.77	25,305	11.84	38,326	17.93	
		60대 이상	88,051	41.19	65,235	30.52	22,816	10.67	
	전국	**합계**	**5,203,440**	**100.00**	**2,610,477**	**50.17**	**2,592,963**	**49.83**	27.23
		30대 이하	1,898,365	36.48	775,324	14.90	1,123,041	21.58	
		40~50대	1,727,307	33.20	707,604	13.60	1,019,703	19.60	
		60대 이상	1,577,768	30.32	1,127,549	21.67	450,219	8.65	
2020	전북	**합계**	**255,269**	**100.00**	**133,505**	**52.30**	**121,764**	**47.70**	33.78
		30대 이하	75,621	29.62	30,410	11.91	45,211	17.71	
		40~50대	69,721	27.31	26,848	10.52	42,873	16.80	
		60대 이상	109,927	43.06	76,247	29.87	33,680	13.19	
	전국	**합계**	**6,643,354**	**100.00**	**3,338,956**	**50.26**	**3,304,398**	**49.74**	31.75
		30대 이하	2,458,631	37.01	1,058,045	15.93	1,400,586	21.08	
		40~50대	1,943,311	29.25	776,347	11.69	1,166,964	17.57	
		60대 이상	2,241,412	33.74	1,504,564	22.65	736,848	11.09	
2024	전북	**합계**	**300,985**	**100.00**	**155,371**	**51.62**	**145,614**	**48.38**	38.17
		30대 이하	81,892	27.21	34,133	11.34	47,759	15.87	
		40~50대	78,927	26.22	29,837	9.91	49,090	16.31	
		60대 이상	140,166	46.57	91,401	30.37	48,765	16.20	
	전국	**합계**	**8,044,948**	**100.00**	**4,019,439**	**49.96**	**4,025,509**	**50.04**	36.09
		30대 이하	2,833,576	35.22	1,239,339	15.41	1,594,237	19.82	
		40~50대	2,206,801	27.43	864,752	10.75	1,342,049	16.68	
		60대 이상	3,004,571	37.35	1,915,348	23.81	1,089,223	13.54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에서 재구성

주1) 1인가구 구성비는 일반가구수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주2)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집단가구 및 외국인 가구 제외)됨

▌표 Ⅱ-13▐ 전북 시군별 성별별 1인가구 현황(2024)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1인가구 구성비*
		전체		여성		남성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전주시	**합계**	**105,982**	**100.00**	**54,399**	**51.33**	**51,583**	**48.67**	37.34
	30대 이하	39,929	37.68	17,471	16.48	22,458	21.19	
	40~50대	28,881	27.25	12,043	11.36	16,838	15.89	
	60대 이상	37,172	35.07	24,885	23.48	12,287	11.59	
군산시	**합계**	**44,562**	**100.00**	**21,414**	**48.05**	**23,148**	**51.95**	37.94
	30대 이하	12,035	27.01	4,605	10.33	7,430	16.67	
	40~50대	13,366	29.99	4,847	10.88	8,519	19.12	
	60대 이상	19,161	43.00	11,962	26.84	7,199	16.16	
익산시	**합계**	**46,643**	**100.00**	**23,734**	**50.88**	**22,909**	**49.12**	38.29
	30대 이하	14,516	31.12	5,887	12.62	8,629	18.50	
	40~50대	11,698	25.08	4,404	9.44	7,294	15.64	
	60대 이상	20,429	43.80	13,443	28.82	6,986	14.98	
정읍시	**합계**	**18,501**	**100.00**	**9,991**	**54.00**	**8,510**	**46.00**	39.12
	30대 이하	2,690	14.54	1,077	5.82	1,613	8.72	
	40~50대	4,813	26.01	1,737	9.39	3,076	16.63	
	60대 이상	10,998	59.45	7,177	38.79	3,821	20.65	
남원시	**합계**	**13,482**	**100.00**	**7,682**	**56.98**	**5,800**	**43.02**	38.68
	30대 이하	1,845	13.68	837	6.21	1,008	7.48	
	40~50대	3,481	25.82	1,350	10.01	2,131	15.81	
	60대 이상	8,156	60.50	5,495	40.76	2,661	19.74	
김제시	**합계**	**14,314**	**100.00**	**7,833**	**54.72**	**6,481**	**45.28**	39.04
	30대 이하	1,655	11.56	620	4.33	1,035	7.23	
	40~50대	3,338	23.32	1,091	7.62	2,247	15.70	
	60대 이상	9,321	65.12	6,122	42.77	3,199	22.35	
완주군	**합계**	**17,360**	**100.00**	**7,989**	**46.02**	**9,371**	**53.98**	38.53
	30대 이하	5,269	30.35	2,044	11.77	3,225	18.58	
	40~50대	4,746	27.34	1,625	9.36	3,121	17.98	
	60대 이상	7,345	42.31	4,320	24.88	3,025	17.43	
진안군	**합계**	**4,287**	**100.00**	**2,212**	**51.60**	**2,075**	**48.40**	38.92
	30대 이하	311	7.25	118	2.75	193	4.50	
	40~50대	974	22.72	307	7.16	667	15.56	
	60대 이상	3,002	70.03	1,787	41.68	1,215	28.34	
무주군	**합계**	**4,328**	**100.00**	**2,345**	**54.18**	**1,983**	**45.82**	39.84
	30대 이하	433	10.00	168	3.88	265	6.12	
	40~50대	1,010	23.34	318	7.35	692	15.99	
	60대 이상	2,885	66.66	1,859	42.95	1,026	23.71	

구분		1인가구						1인가구 구성비*
		전체		여성		남성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장수군	**합계**	**3,652**	**100.00**	**2,027**	**55.50**	**1,625**	**44.50**	38.53
	30대 이하	277	7.58	118	3.23	159	4.35	
	40~50대	834	22.84	259	7.09	575	15.74	
	60대 이상	2,541	69.58	1,650	45.18	891	24.40	
임실군	**합계**	**4,852**	**100.00**	**2,718**	**56.02**	**2,134**	**43.98**	40.34
	30대 이하	769	15.85	350	7.21	419	8.64	
	40~50대	848	17.48	242	4.99	606	12.49	
	60대 이상	3,235	66.67	2,126	43.82	1,109	22.86	
순창군	**합계**	**4,489**	**100.00**	**2,599**	**57.90**	**1,890**	**42.10**	37.44
	30대 이하	420	9.36	164	3.65	256	5.70	
	40~50대	943	21.01	315	7.02	628	13.99	
	60대 이상	3,126	69.64	2,120	47.23	1,006	22.41	
고창군	**합계**	**9,685**	**100.00**	**5,515**	**56.94**	**4,170**	**43.06**	40.44
	30대 이하	906	9.35	369	3.81	537	5.54	
	40~50대	2,056	21.23	661	6.82	1,395	14.40	
	60대 이상	6,723	69.42	4,485	46.31	2,238	23.11	
부안군	**합계**	**8,848**	**100.00**	**4,913**	**55.53**	**3,935**	**44.47**	39.53
	30대 이하	837	9.46	305	3.45	532	6.01	
	40~50대	1,939	21.91	638	7.21	1,301	14.70	
	60대 이상	6,072	68.63	3,970	44.87	2,102	23.76	

자료: 통계청(2024),「인구총조사」
주) 1인가구 구성비는 각 시군 일반가구수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한부모 가구

전북의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6년 7.19%에서 2024년 6.22%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모자가구가 부자가구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4 ▌전북 한부모가구 세대구성 및 비율(2016, 2020, 2024)

(단위: 가구, %)

구분	총가구 수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 비율
		전체	모자가구	부자가구	
2016	734,037	52,779	39,000	13,779	7.19
2020	767,803	51,895	38,730	13,165	6.76
2024	805,961	50,149	37,802	12,347	6.22

자료: 통계청 각 년도「인구총조사」에서 재구성
주) 기타가구원이 있는 한부모 가구도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3) 다문화가구

전북 다문화가구는 2018년 334,856가구(1.68%)에서 2021년 385,219가구(1.80%), 2024년 439,304가구(1.97%)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 가구에서 다문화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 추세이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으나 비율 상승폭은 전국과 유사하게 확대되고 있다. 2024년 다문화가구 수는 전주시(3,569가구), 익산시(2,472가구), 군산시(2,362가구)가 가장 많으나 일반가구 대비 다문화가구 비율로 살펴보면 장수군(3.12%)이 가장 높으며 진안군(2.95%), 순창군(2.89%) 순이다. 반면 전주시는 1.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도시는 다문화의 규모가 크지만 비율은 낮고 농촌 지역은 규모는 작지만 비율이 높아 지역간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Ⅱ-15▐ 전북 시군별 다문화가구 현황(일반가구 기준)

(단위: 가구, %)

구 분	2018			2021			2024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비중(%)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비중(%)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비중(%)
전국	**19,979,188**	**334,856**	**1.68**	**21,448,463**	**385,219**	**1.80**	**22,294,419**	**439,304**	**1.97**
전북	732,908	12,103	1.65	772,471	13,661	1.77	788,621	15,202	1.93
전주시	255,604	2,647	1.04	281,896	3,204	1.14	283,796	3,569	1.26
군산시	108,539	1,794	1.65	114,276	2,095	1.83	117,450	2,362	2.01
익산시	118,435	2,012	1.70	119,937	2,180	1.82	121,801	2,472	2.03
정읍시	45,514	952	2.09	46,589	1,114	2.39	47,287	1,216	2.57
남원시	33,135	715	2.16	34,386	795	2.31	34,859	863	2.48
김제시	34,621	723	2.09	35,113	808	2.30	36,667	922	2.52
완주군	37,860	804	2.12	39,605	892	2.25	45,051	1,059	2.35
진안군	10,374	305	2.94	10,725	316	2.95	11,014	325	2.95
무주군	10,251	230	2.24	10,669	244	2.29	10,864	267	2.46
장수군	9,213	269	2.92	9,452	282	2.98	9,479	296	3.12
임실군	11,940	306	2.56	12,247	314	2.56	12,027	347	2.73
순창군	11,577	325	2.81	11,639	343	2.95	11,990	347	2.89
고창군	23,647	540	2.28	23,648	568	2.40	23,951	610	2.55
부안군	22,270	481	2.16	22,289	506	2.27	22,385	565	2.52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에서 재구성

(4) 재혼가구

전북의 재혼건수(2015년 25.4% → 2020년 26.9% → 2024년 23.8%)는 전체 혼인건수(2015년 9,060건 → 2024년 6,388건)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재혼비율은 2020년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2024년에는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재혼건수를 살펴보면 전주시(417가구)가 가장 많으며 군산시(259가구), 익산시(230가구), 정읍시(12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의 재혼 비율을 보면 정읍시(43.1%), 부안군(43.0%), 고창군(41.5%), 임실군(37.0%), 장수군(32.8%), 무주군(32.1%) 순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의 재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편으로 나타나 재혼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표 Ⅱ-16▐ 전북 재혼건수 및 비율(2015, 2020, 2024)

(단위: 건, %)

구분	2015			2020			2024		
	전체 혼인건수 (A)	재혼건수 (B)	재혼비율 (B/A)	전체 혼인건수 (A)	재혼건수 (B)	재혼비율 (B/A)	전체 혼인건수 (A)	재혼건수 (B)	재혼비율 (B/A)
전북	9,060	2,303	25.4	6,053	1,630	26.9	6,388	1,518	23.8
전주시	3,406	654	19.2	2,447	489	20.0	2,648	417	15.7
군산시	1,606	472	29.4	1,015	302	29.8	949	259	27.3
익산시	1,544	371	24.0	820	226	27.6	931	230	24.7
정읍시	475	166	34.9	306	116	37.9	283	122	43.1
남원시	309	105	34.0	211	66	31.3	220	70	31.8
김제시	337	110	32.6	289	117	40.5	323	108	33.4
완주군	468	123	26.3	310	92	29.7	500	107	21.4
진안군	83	40	48.2	62	26	41.9	51	22	43.1
무주군	117	37	31.6	69	19	27.5	56	18	32.1
장수군	84	26	31.0	54	15	27.8	58	19	32.8
임실군	94	28	29.8	87	32	36.8	54	15	27.8
순창군	114	28	24.6	66	21	31.8	59	23	39.0
고창군	209	75	35.9	150	51	34.0	142	59	41.5
부안군	214	68	31.8	167	58	34.7	114	49	43.0

주1) 남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재혼인 경우 재혼건수로 집계하였음
주2) '미상'은 전체혼인건수에는 포함하였으나, 재혼건수에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에서 재가공

2) 통계로 살펴본 전북 가족 특성

(1) 전북 가족생활

① 가족관계만족도

전북의 가족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만족 비율('약간 만족'+'매우 만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6년 여성의 만족 비율은 59.8%, 남성은 73.7%로 약 14%p 차이가 있었으나, 2024년에는 각각 73.9%, 81.8%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즉, 성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남녀 모두 배우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Ⅱ-17▐ 전북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2016, 2020, 2024)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16	여성	2.9*	4.3	33	32.6	27.2
	남성	0.6**	2.3*	23.3	34.7	39
2020	여성	1.2*	9.7	32.2	31.5	25.3
	남성	0.7*	4.6	22.8	31.3	40.6
2024	여성	2.1*	5	19	32.9	41
	남성	0.7**	2.2*	15.1	32.6	49.2

자료: 통계청 각 년도「사회조사」
주1) * : 상대표준오차가 25% ~ 50% 미만인 경우 (신뢰도 다소 낮음)
주2) ** : 상대표준오차가 50% 이상인 경우 (신뢰도 낮음)

자녀와의 관계 만족 비율('약간 만족'+'매우 만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여성의 만족 비율은 76.0%, 남성은 74.2%로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각각 85.8%, 82.8%로 상승하였다. 이는 남녀 모두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여성의 만족 수준이 지속적으로 더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8▐ 전북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2016, 2020, 2024)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16	여성	0.3**	2.2*	21.5	37.7	38.3
	남성	0.6**	1.7*	23.5	36.7	37.5
2020	여성	0.2**	1.8	21	38.9	38.1
	남성	0.5*	3	21.9	35.5	39
2024	여성	0.3**	1.8*	12	43.1	42.7
	남성	0.9*	1.5*	14.8	43.7	39.1

자료: 통계청 각 년도「사회조사」
주1) * : 상대표준오차가 25% ~ 50% 미만인 경우 (신뢰도 다소 낮음)
주2) ** : 상대표준오차가 50% 이상인 경우 (신뢰도 낮음)

② 가사분담 인식 및 실태

전북도민의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은 남녀 모두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16년에는 53.7%, 2024년에는 66.0%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여성 60.0%, 남성 46.9%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공평한 분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4년에는 여성 69.5%, 남성 62.5%로,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격차도 감소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평한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분담 실제 모습은 인식과 다르게 나타났다.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해당 비율은 50.4%였다. 또한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도 여전히 20.5%로 나타나 가사노동이 주로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성별 차이를 보면, 2016년에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여성은 21.6%, 남성은 19.6%로 여성이 더 높았으나, 2024년에는 여성 24.1%, 남성 25.5%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의 가사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된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이중적 현실을 보여준다.

▌표 Ⅱ-19▐ 전북 가사분담 인식(2016, 2024)

(단위: %)

구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6	전체		3.4	40.7	53.7	1.5	0.7
	여성	전체	2.8	35.6	60.0	1.0	0.5
		13~19세	0.6	10.5	85.6	1.9	1.4
		20~29세	0.0	20.5	76.9	0.9	1.8
		30~39세	1.0	35.7	61.2	1.4	0.6
		40~49세	1.0	33.8	63.2	1.2	0.7
		50~59세	2.4	49.4	47.5	0.7	0.0
		60세 이상	6.4	42.6	50.3	0.8	0.0
	남성	전체	4.0	46.3	46.9	1.9	0.8
		13~19세	1.4	19.6	73.8	3.5	1.7
		20~29세	1.2	26.4	70.7	1.7	0.0
		30~39세	4.0	46.3	47.2	0.6	1.9
		40~49세	7.0	52.2	39.1	1.8	0.0
		50~59세	4.1	53.0	38.2	3.3	1.4
		60세 이상	4.5	58.4	35.6	1.0	0.5
2024	전체		2.5	29.4	66.0	1.3	0.7
	여성	전체	2.0	26.1	69.5	1.8	0.6
		13~19세	0.0	6.6	91.2	2.2	0.0
		20~29세	0.0	4.8	89.5	3.2	2.5
		30~39세	1.6	25.3	69.9	3.2	0.0
		40~49세	0.5	18.3	79.5	1.8	0.0
		50~59세	0.7	25.1	72.3	1.3	0.7
		60세 이상	4.4	40.9	53.2	1.2	0.4
	남성	전체	3.0	32.9	62.5	0.9	0.8
		13~19세	2.6	10.4	87.0	0.0	0.0
		20~29세	1.2	7.6	89.5	0.0	1.7
		30~39세	1.2	16.1	81.1	1.6	0.0
		40~49세	3.7	35.5	58.6	0.9	1.3
		50~59세	2.8	39.0	56.6	0.8	0.8
		60세 이상	4.1	48.7	45.4	1.1	0.7

자료: 성인지통계시스템; 통계청 각년도「사회조사-가족편」원자료 분석.

▌표 Ⅱ-20▐ 전북 가사분담 실태(2016, 2020, 2024)

(단위: %)

구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6	여성	22.6	52.6	21.6	2.1*	1.0*
	남성	22.7	54.8	19.6	2.2*	0.7*
2020	**전체**	**27.3**	**51.1**	**19.2**	**2.0**	**0.4***
	여성	29.5	48.9	19.7	1.5*	0.4**
	남성	25.2	53.1	18.7	2.6	0.5**
2024	**전체**	**20.5**	**50.4**	**24.8**	**3.7**	**0.7***
	여성	21.5	50.4	24.1	3.5	0.5*
	남성	19.4	50.3	25.5	4.0	0.8*

자료: 통계청 각 년도「사회조사」
주1) * : 상대표준오차가 25% ~ 50% 미만인 경우 (신뢰도 다소 낮음)
주2) ** : 상대표준오차가 50% 이상인 경우 (신뢰도 낮음)
주3) 인구 전체에 대한 자료는 2020년부터 2년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 2016년은 제외하였음

(2) 전북도민의 가족가치관

전북도민이 인식하는 결혼문화 태도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6년 47.0%에서 2024년 65.8%로 증가하여, 동거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60대 이상에서도 49.5%가 동의하여 세대 전반에 걸쳐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21▐ 결혼문화태도_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전적으로 동의
2016	**계**	**26.4**	**26.6**	**36.7**	**10.3**
	여자	29.2	26.6	35.5	8.8
	남자	23.4	26.6	38.1	11.9
2020	**계**	**19**	**28.4**	**41.7**	**11**
	여자	20.5	30.5	38.6	10.4
	남자	17.5	26.2	44.8	11.6
2024	**계**	**14.9**	**19.3**	**47.6**	**18.2**
	여자	16.2	19.9	46.8	17
	남자	13.5	18.7	48.4	19.4

자료: 통계청 각 년도「사회조사」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혼자녀출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비동의 비율이 동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동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26.0%에서 2024년 35.4%로 약 9.4%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여성의 동의 비율은 33.7%, 남성은 37.3%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Ⅱ-22 ▌결혼문화태도_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전적으로 동의
2016	**계**	**42**	**31.9**	**20.8**	**5.2**
	여자	43.9	31.2	20.2	4.7
	남자	40	32.7	21.5	5.8
2020	**계**	**38.4**	**35.7**	**21**	**4.9**
	여자	40.9	35.6	17.9	5.6
	남자	35.9	35.7	24.1	4.3
2024	**계**	**30.6**	**34**	**27.3**	**8.1**
	여자	33.2	33.2	25.4	8.3
	남자	27.9	34.8	29.3	8

자료: 통계청 각 년도「사회조사」

전북도민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 46.8%에서 2024년 64.8%로 증가하여 노인 돌봄에 대한 공동 책임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살펴보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65.0%, 남성 64.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가족이 전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로 노부모 부양 부담을 가장 크게 지고 있는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50대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에서 여성은 71.8%, 남성은 78.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공동 책임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Ⅱ-23▐ 노부모 부양 인식

(단위: %)

구분			스스로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 사회	정부, 사회
2016	전체		24.3	22.7	46.8	6.1
	여성	전체	23.9	21.9	47.5	6.7
		13~19세	25.2	21.5	48.1	5.1
		20~29세	18.4	19.4	58.3	3.9
		30~39세	17.3	18.6	57.4	6.7
		40~49세	20.2	17.1	57.5	5.2
		50~59세	24.1	16.5	52.8	6.6
		60세 이상	30.0	29.3	31.7	9.0
	남성	전체	24.8	23.7	46.1	5.5
		13~19세	17.6	38.7	41.6	2.1
		20~29세	24.9	22.8	48.5	3.8
		30~39세	22.2	20.2	55.3	2.3
		40~49세	19.1	19.9	54.5	6.5
		50~59세	24.6	24.9	44.5	6.1
		60세 이상	33.4	22.1	36.2	8.3
2024	전체		13.8	17.2	64.8	4.2
	여성	전체	14.4	16.1	65.0	4.5
		13~19세	15.3	17.1	65.2	2.4
		20~29세	15.3	20.6	60.9	3.2
		30~39세	19.7	10.3	67.6	2.4
		40~49세	12.5	15.5	67.6	4.5
		50~59세	13.3	11.7	71.8	3.2
		60세 이상	13.6	18.5	61.4	6.5
	남성	전체	13.2	18.4	64.5	3.9
		13~19세	8.8	23.3	61.4	6.4
		20~29세	24.4	14.9	59.5	1.2
		30~39세	19.1	21.5	56.4	3.1
		40~49세	10.8	17.6	67.9	3.6
		50~59세	3.2	12.9	78.8	5.1
		60세 이상	14.5	21.1	60.4	4.0

자료: 성인지통계시스템; 통계청 각년도「사회조사-가족편」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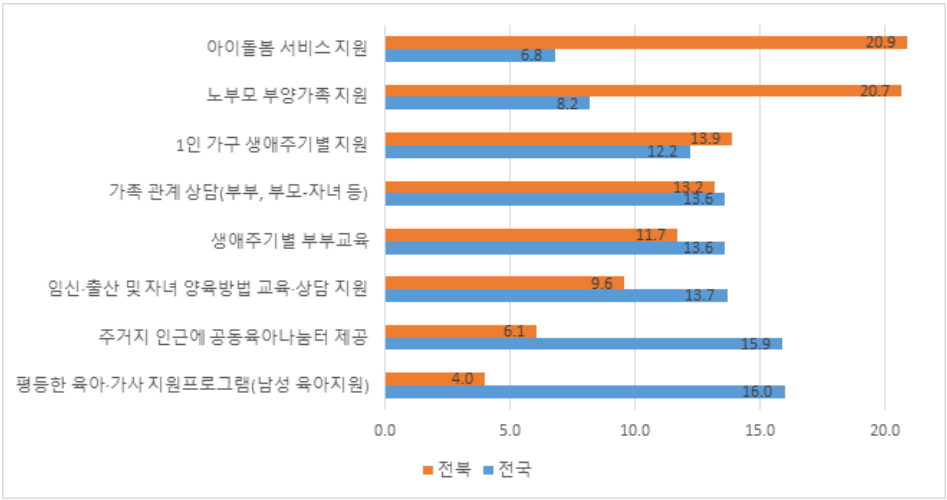
(3) 가족정책

2023년 가족실태조사 중 가족정책 요구도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평등한 육아휴직 가정 지원 프로그램(16.0%)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일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공동 육아 나눔터

제공(15.9%)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이웃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육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방법 교육·상담(13.7%), 가족관계 상담(13.6%) 및 부부 교육(13.6%)에 대한 요구도도 높게 나타나, 올바른 육아 정보와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북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20.9%)과 노부모 부양 가족 지원(20.7%)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육아와 노인 부양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덜고자 하는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주요 요구 사업으로는 1인 가구 지원(13.9%), 가족관계 상담(13.2%), 부부 교육(11.7%)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전국과 전북 모두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은 남성육아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전북은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에 더 높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북은 고령화 비중이 높아 노부모 부양부담이 가구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나 남성 육아지원보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1▐ 전북과 전국의 가족지원서비스 요구도(1순위)

자료: 여성가족부(2023), 「가족실태조사」.

3. 전북 가족 정책

1) 가족정책 관련 법률 및 조례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실현과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정책으로는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추진 △정기적인 가족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사업으로는 △가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 △위기가족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가족단위 복지 및 건강 증진 △가족부양 지원 △가정의례와 봉사활동 △이혼 예방 및 건강가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표 Ⅱ-24❙과 같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령들은 가족 유형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Ⅱ-24❙ 가족정책 관련 법령

관련법령	내용	소관부서
건강가정기본법 (2004. 2. 9. 제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함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 5. 18. 제정)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본방향 및 수립·추진체계, 국민과 국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1989. 4. 1. 제정)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등을 규정함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3. 21. 제정)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2012. 2. 1. 제정)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	여성가족부

관련법령	내용	소관부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87. 12. 4. 제정)	고용에서의 남녀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실현,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규정함	고용노동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 12. 31. 제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12. 14. 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차체의 책무 규정	여성가족부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조례」는 도민의 가정이 건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1인 가구,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장애인 가정의 임신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돌봄 상황에 대응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Ⅱ-25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정책 관련 조례

관련법령	내용	소관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2018. 12. 28. 제정)	건강가정지원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여성가족과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2008. 10. 31. 제정)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고령자 소득보장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청년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2009. 5. 29. 제정)	한부모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여성가족과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2023. 3. 31. 제정)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여성가족과

관련법령	내용	소관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2018. 3. 30. 제정)	아이돌봄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여성가족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4. 제정)	도민이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일·생활 균형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여성가족과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11. 1. 제정)	전북도 내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여성가족과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 11. 11. 제정)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여성가족과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4. 제정)	다자녀 가정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다자녀 가정 지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인구청년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2021. 10. 1. 제정)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도지사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1. 제정)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여성가족과

2) 전북 가족정책 사업 현황(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25년 지자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정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틀에 맞춘 단기적인 프로그램과 사업 중심 운영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윤정·권안나, 2021). 전북특별자치도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네 가지 대과제 영역에 맞춰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영역에서는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와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며,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둘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영역에서는 가족센터 지원 및 운영, 온가족 보듬 사업, 건강가정 조성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와 교육협력추진단이며 지원사업 중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건강가정 조성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방비로만 운영된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급식지원, 자립 및 취업지원등은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나 학교 밖 청소년 교통가트 지원은 지방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셋째,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 1인가구와 노인 맞춤돌봄 지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정책과, 고령친화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과 아이돌보미·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지방비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과와 기업애로해소과가 담당 부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지원 사업은 지방비로만 운영된다.

▌표 Ⅱ-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정책 사업 현황

제4차 기본계획	전북도 시행계획(´25)	대상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조손돌봄 가정 조부모, 초중등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 245여명	성주류화 제도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청년 공감대 사업 등	352 (국비 50%, 지방비 50%)
	가정폭력피해 상담 및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사업(전화, 내방, 현장방문, 사이버), 솔루션 회의 및 슈퍼비젼, 역량강화교육, 홍보사업	800 (국비 50%, 지방비 50%)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 활성화	18세 미만 아동	e아동행복지원사업 위기아동 점검,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800 (국비 18%, 지방비 82%)

제4차 기본계획	전북도 시행계획(´25)	대상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가정폭력 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폭력피해 유관기관 (도, 경찰청,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경찰-폭력피해지원기관 간담회	비예산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18세 미만 아동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 민관협력회의 시군: 지역정보연계 협의체(매월), 통합사례회의(수시) 등	비예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	1,130 (국비 66%, 지방비 34%)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8세 미만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8,588 (국비 44%, 지방비 56%)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도내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123명 예정)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최대 3개월간 육아휴직 수당 월 30만원 지원	111 (지방비 1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자립지원촉진수당	248 (국비 80%, 지방비 20%)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지원	전북도민	발달단계별 자녀양육방법 등 올바른 부모의 역할 교육 실시	62 (지방비 100%)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도민 등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가족 행복교육, 문화교육,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등	1,622 (지방비 100%)
	가정 밖, 학교 밖 등 위기청소년 지원	도내 청소년	상담·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경제적 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지원 등	492 (국비 50%, 지방비 5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681 (국비 63%, 지방비 37%)

제4차 기본계획	전북도 시행계획(´25)	대상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가족센터 운영지원	도민	가족관계(가족상담, 부모역할지원 등), 가족돌봄(역량강화지원,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취업지원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봉사단 등)	12,354 (국비 50%, 지방비 50%)
	가족센터 건립	도내 11개 시·군 * 공사중: 전주, 군산, 남원, 순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공사 착공 및 준공	-
	온가족 보듬사업 추진	도민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2,924 (국비 50%, 지방비 50%)
	가족상담 전문인력 배치	14개 시·군	14개 시·군에 18명의 가족상담 전문인력 배치. 가족상담 및 임신·출산 갈등 상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도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사례별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 등 포괄적 서비스 지원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운영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27개소	인건비 및 사업비(돌봄 품앗이, 정보제공, 육아용품 공유 등)	1,544 (국비 48%, 지방비 5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287개소, 종사자 86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교부	34,946 (국비 50%, 지방비 5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방과후 돌봄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2,641 (국비 77%, 지방비 23%)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시설 (13개 시군 60개소)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지원	5,282 (국비 51%, 지방비 49%)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도내 1인가구	가정용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최대 3종지원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 지우개	126 (지방비 100%)

제4차 기본계획	전북도 시행계획(´25)	대상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아이돌봄 지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 수요 가정에 전북 아이돌보미 1,168명 파견 및 서비스 요금 지원	36,738 (국비 70%, 지방비 3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신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환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1개소)	1,222 (국비 50%, 지방비 5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돌봄 취약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등 연계 - 특화서비스: 우울형 노인 맞춤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 사후관리: 종결대상자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56,635 (국비 70%, 지방비 30%)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도내 활동중인 아이돌보미 1,168명	독감 예방접종, 건강검진 비용 등 3만원 이내 지원	23.9 (지방비 10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명절수당 지원	1,753 (지방비 100%)
	장애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 지급	2,430 (국비 70%, 지방비 30%)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도내 중소기업 중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기업지원사업 평가시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인센티브 부여	비예산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	기업 및 도민	찾아가는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 산업·노동계, 지자체,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채널 통한 도민 홍보	136 (지방비 100%)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	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정책형성 교육, 친화도시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홍보 등	비예산

Ⅲ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가족인식 및 가치관
3. 가족형성
4. 부부관계
5. 부모-자녀 관계
6. 가족돌봄
7. 건강과 생애설계
8. 일과 여가
9. 가족정책
10. 1인 가구

Jeonbuk Women & Family Foundation

Ⅲ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본 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1,079명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1) 표본크기

모집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20대 이상 도민 1,479,251명이다(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모집단을 기준으로 95% 신뢰수준, ±3% 표본오차를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 표본 수는 1,0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 허용되는 2~3% 수준의 표본오차 기준(통계청, 2019)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2)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조사 효율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약 1,000명 규모로 설계하였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약 ±3.1%의 허용오차로 연구 목적을 충족하는 규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별·연령·권역별 반영하여 비확률표집 방법인 우선 비례할당법을 적용하였으며, 연령은 20대부터 70대 이상의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하고 1인 가구 비중(30%)도 반영하였다. 또한 14개 시·군의 인구 분포를 기반으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권역에 따른 인구분포는 ▌표 Ⅲ-1 ▌에 제시하였다.

▌표 Ⅲ-1▐ 권역별 인구분포

(단위: 명)

권역	남성						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주/익산/완주	62,774	59,013	71,219	87,322	73,644	59,258	55,065	54,363	71,280	86,783	77,082	82,721	840,524
군산/김제/부안	19,327	18,920	27,613	36,139	34,336	30,977	14,932	16,565	24,651	30,862	33,563	44,076	331,961
무주/진안/장수	2,406	2,053	3,505	6,514	8,143	8,049	1,840	1,891	2,842	5,026	6,920	11,548	60,737
임실/순창/남원	5,194	4,523	6,905	12,040	13,352	13,401	4,020	4,187	6,413	10,118	11,880	20,291	112,324
정읍/고창	6,596	5,860	8,822	14,385	15,302	15,309	4,921	5,076	7,842	11,934	14,224	23,434	133,705
합계	**96,297**	**90,369**	**118,064**	**156,400**	**144,777**	**126,994**	**80,778**	**82,082**	**113,028**	**144,723**	**143,669**	**182,070**	**1,479,251**

시 지역의 과대표집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각 권역에 100부씩, 전체 조사 목표의 50%를 균등하게 선배분하였다. 선배분된 100부는 권역 내 성별 연령별에 따라 비례 배분하였으며, 남은 500부는 전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비례 배분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배분 결과를 합산한 조사표본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조사표본

(단위: 명)

권역	남성						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주/익산/완주	28	27	33	40	34	27	26	24	32	38	35	38	382
군산/김제/부안	13	12	17	23	22	19	9	11	16	19	21	28	210
무주/진안/장수	5	4	7	13	16	16	5	4	6	10	13	23	122
임실/순창/남원	7	6	8	15	17	17	5	5	7	12	15	25	139
정읍/고창	7	6	10	16	16	16	6	6	9	13	16	26	147
합계	**60**	**55**	**75**	**107**	**105**	**95**	**51**	**50**	**70**	**92**	**100**	**140**	**1,000**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명시된 가족실태조사 항목을 포함하였다. 특히, 2018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 수요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담았으며, 가족 경제 상태(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 가치관(가정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가치관), 가족 행태(혼인, 출산, 자녀 양육, 가족 부양, 가족 역할 등), 가족 관계(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 생활양식(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가족 문제(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서비스 욕구(건강가정 관련 교육·상담 및 서비스 이용 욕구) 등이 포함되게 구성하였다.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가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 기능, 결혼 안정성, 가족 정책 인식 등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도 문항에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일반사항, 가족 인식 및 가치관,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관계, 가족 돌봄, 건강과 생애설계, 일과 여가, 가족 정책,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가족 인식 및 가치관	-	가족 범위
	가족 개념 (동의하는 정도)	혈연관계
		법적관계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 관계
		내가 선택하고 구성하는 관계
	-	가장 의지되는 사람
	가족 기능 (필요하다 생각하는 정도)	정서적 안정 제공
		성적 욕구 충족
		세대 유지
		자녀 양육 및 교육
		가족구성원 보호 및 돌봄
		수입과 자산 공유
		여가와 재미 추구
	결혼가치관 (동의하는 정도)	비혼 1인가구
		비혼 동거
		이혼/재혼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기혼 미출산
		비혼 출산
		부부가 따로 사는 것
		결혼생활 계약서 작성
		자녀 어머니의 성 사용
		비혼 입양
		동성결혼
	가족의례 및 문화 (동의하는 정도)	부부가 각자 명절 보내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가족중심 장례
		당사자 중심 결혼식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 *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가족 내 성역할 (동의하는 정도)	경제적 부양 주책임은 남성
		집안일 주책임은 여성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세심함이 있음
		가족돌봄 주책임은 여성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 정서가 좋음
	가족 부양 가치관 (동의하는 정도)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함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함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함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함
		부모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책임져야 함
	자녀가치관 (동의하는 정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함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과 같음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함
		자녀양육은 경제적으로 부담됨
가족 형성	혼인관련	혼인상태
		혼인신고 여부 ↳ 혼인신고하지 않은 이유 ↳ 혼인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복수응답)
	자녀계획	미성년 자녀 수
		자녀계획 여부 ↳ 이상적 자녀 수
	-	삶에서 중요한 영역
	자녀에 대한 인식 (자녀 없는 경우만)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 중 더 중요한 것
		자녀로 인해 잃는 것과 얻는 것의 비교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향
부부관계	-	배우자와 동거 여부
	-	맞벌이 여부
	-	결혼(동거) 기간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결혼만족도 (동의하는 정도)	결혼(동거)생활에 만족함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동거)하기 잘했음	
		결혼(동거)에 후회함	
		마지못해 배우자와 살고 있음	
	결혼 불안정성 (동의하는 정도)	이혼 고려	
		친한 친구와 이혼/별거에 대한 논의	
		나 또는 배우자가 이혼 제의	
		법적 절차 확인	
	결혼생활 중요도와 충족도	결혼생활 중요도	
		결혼생활 충족도	
	배우자와의 소통	하루 평균 대화시간	
		의사소통 만족도	
	가정관리	자녀양육/교육	
		투자/자산 관리	
		가사	
		본인 부모 돌봄	
		배우자 부모 돌봄	
		가족 여가	
		성인자녀 돌봄	
	가사 및 자녀돌봄 참여 시간	가사(평일, 주말)	
		자녀돌봄(평일, 주말)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 공평성 ↳ 불공평하다면 누구에게 더 불리한지	
	부부갈등	부부갈등 경험여부(최근 6개월간) ↳ 부부갈등 이유 ↳ 부부갈등 해결방법	
부모-자녀 관계	부모효능감 (동의하는 정도)	부모라 행복함	
		부모가 된 것 후회함	
		부모로서 능력 있음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 있음	
		좋은 부모가되려 노력함	
	부모역할 지원 및 지지 (동의하는 정도)	전북은 부모역할을 지원함	
		동네(시·군)는 부모역할을 지원함	
		주변사람들은 부모역할을 응원/지지함	
		배우자는 부모역할을 응원/지지함	
	청소년 자녀 관련	자녀 양육 어려움(2순위까지)	
		자녀와의 관계 (동의하는 정도)	자녀와 친밀함
			자녀의 친구를 잘 앎
			자녀를 믿음
			자녀와 충분히 대화함
			자녀에 간섭하는 편임
			자녀와 자주 다툼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자녀에게 화를 내는 편임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음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함
		의사결정 방식 (동의하는 정도)	가사관련 자녀의견을 존중함
			진학관련 자녀의사를 존중함
			진로관련 자녀의사를 존중함
	성인 자녀 관련	첫째 성인자녀 인적사항 ↳ 성별 ↳ 연령 ↳ 동거 여부 ↳ 혼인 여부	
		도움 받는지 여부 (부모→자녀, 자녀→부모)	경제적 도움
			집안일 도움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성인자녀와의 관계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함
			자녀의 생활을 잘 앎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낌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함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함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함
		자녀와의 만남 빈도	
		자녀와의 연락 빈도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동거여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부모와 따로사는 경우 만남/연락 빈도	나의 부모와의 만남
			나의 부모와의 연락
			배우자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
		부모님께 도움 받는지 여부 (나의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경제적 도움
			집안일 도움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부모님 관계와의 만족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가족돌봄	영유아자녀 관련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	
		주중 이용기관 여부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 기관이용하는 경우 ↳ 자녀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 ↳ 기관에 다니지 않는 시간 주 돌봄자 ↳ 하루평균 자녀돌봄시간 - 기관이용하지 않는 경우 ↳ 주 돌봄자 ↳ 하루평균 자녀돌봄시간	
		주 돌봄자 부재시 양육 지원자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복수응답)	
		가정 내 돌봄활동 분담	일상생활 돌봄
			아플 때 돌봄
			놀이 활동
			자녀 등하원
			훈육/교육
		자녀 돌봄활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초등학생자녀 관련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	
		하교 후 낮시간 주 돌봄자/기관(복수응답)	
		하루 평균 자녀 홀로 보내는 시간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복수응답)	
	가족구성원 돌봄 관련	간병/돌봄 필요가족 여부(영유아와 초등학생 이외)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 돌봄 어려움	
		가족원 돌봄 스트레스	
건강과 생애설계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가정 건강성	
	생애설계 준비정도	결혼 계획과 준비	
		자녀 계획과 준비	
		직업 계획과 준비	
		여가설계	
		재무설계	
		은퇴/노후설계	
	노후준비	노후에 살고 싶은 곳	
		노후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 자녀와 동거 희망 이유 ↳ 자녀와 동거 비희망 이유	
		노후준비 정도 (동의하는 정도)	정기적 검진
			규칙적 운동
			가족과 함께 활동/대화
			노년기 긍정적으로 생각
			사회활동(봉사/동호회) 참여
			노후생활 교육계획/참여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경제적 준비 여부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복수 응답) ↳ 준비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경제적 준비 정도(주관적 인식)	
		노후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3순위 까지)	
일과 여가	-	근로 여부 ↳ 고용형태 ↳ 정시퇴근 가능(동의 정도)	
	일생활 균형 관련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 ↳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	
		최근 6개월간의 가족들과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주말)	
		가족과 여가시간 충분한지(최근 6개월) ↳ 여가시간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	
		가족과 함께하고픈 여가 프로그램(2순위까지)	
가족정책	돌봄 정책 관련	아동돌봄 책임	부모 VS 국가
		양육자 지원정책	돌봄서비스 지원 VS 현금 지원
		맞벌이 시 자녀 선호돌봄	기관돌봄 VS 조부모돌봄
		노인돌봄 책임	가족역할 VS 국가역할
	전북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관련	인지도	
		접근성(해당자만)	
		이용경험(해당자만)	
		만족도(해당자만)	
	-	일생활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가족지원서비스	중요도	
		필요도	
	-	생애주기 중 가족 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2순위까지)	
1인 가구	-	1인가구 생활기간	
	-	1인가구가 된 이유	
	-	생활비 마련 방법	
	-	주거 마련 방법	
	-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	의지하는 사람	
	1인가구 일상생활 인식 (동의하는 정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외로움	
		응급상황에 대처 어려움	
		균형잡힌 식사 어려움	
		가사가 어려움	
		주거환경 불쾌함	
		범죄에 노출됨	
		경제적으로 불안함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각 있음
	-	생활 만족도
		1인가구 지속 의향 ↳ 1인가구 지속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2순위까지) ↳ 혼자 살 의향 없는 경우의 계획
	-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2순위까지)
응답자 일반사항 및 가구 특성	일반사항	연령대, 출생연도
		자녀 여부 및 연령 (복수응답)
		성별
		거주지역 (5개 권역* 중 선택) *전주/익산/완주, 군산/김제/부안, 무주/진안/장수, 임실/순창/남원, 정읍/고창
		거주 시/군
		최종 학력
		거주 행정구역(읍, 면, 동)
		주관적 경제적 지위
	가구특성	가구 형태
		1인 가구 여부
		함께 사는 가구원 수
		월 평균 가구소득(세후)
		거주 중인 주택 유형
		거주 주택 소유 형태

3)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자료 수집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온라인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참여가 어렵거나 대면 방식이 더 적합한 연령대는 전문 조사원을 활용한 1:1 대면조사로 보완하였다. 특히 온라인 조사를 선행하여 모집이 어려운 연령대와 대면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온라인 조사 회수는 625부, 대면 조사 회수는 400부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1,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025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프로그램(예: SPSS)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응답자의 특성 및 변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교차분석 및 t-검정/F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회귀분석, IP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4▐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520명(50.7%), 남성 505명(49.3%)이었다. 연령은 20대 117명(11.4%), 30대 111명(10.8%), 40대 153명(14.9%), 50대 206명(20.1%), 60대 205명(20.0%), 70대 이상 233명(22.7%)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읍·면 지역' 242명(23.6%), '동 지역' 783명(76.4%)이었으며 권역별로는 '전주·익산·완주' 390명(38.0%), '군산·김제·부안' 216명(21.1%), '무주·진안·장수' 128명(12.5%), '임실·순창·남원' 139명(13.6%), '정읍·고창' 152명(14.8%)이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585명(57.1%), '비혼' 242명(23.6%), '이혼·별거' 59명(5.8%), '사별' 139명(13.6%)이었다. 자녀 유무는 '자녀 있음' 649명(63.3%), '자녀 없음' 376명(36.7%)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형태는 '부부만' 218명(21.3%), '부부+자녀' 406명(39.6%), '1인 가구' 336명(32.8%), '기타' 65명(6.3%)이며, 가구원 수는 '1인 가구' 336명(32.8%), '2인 가구' 250명(24.4%), '3인 가구' 202명(19.7%), '4인가구' 188명(18.3%), '5인 이상 가구' 49명(4.8%)이었다.

직업 유무는 '직업 있음' 646명(63.0%), '직업 없음' 379명(37.0%)이었다. 학력은 '학력 없음' 67명(6.5%), '초등학교' 100명(9.8%), '중학교' 60명(5.9%), '고등학교' 304명(29.7%), '(전문)대학교' 426명(41.6%), '대학원(석사 이상)' 68명(6.6%)으로 분포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69명(16.5%), '100~200만원 미만' 128명(12.5%), '200~300만원 미만' 170명(16.6%), '300~400만원 미만' 176명(17.2%), '400~500만원 미만' 178명(17.4%), '500만원 이상' 204명(19.9%)이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음' 93명(9.1%), '조금 낮음' 355명(34.6%), '중간' 469명(45.8%), '조금 높음' 94명(9.2%), '매우 높음' 14명(1.4%)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일반주택' 314명(30.6%), '아파트' 521명(50.8%), '다세대 주택' 182명(17.8%), '기타' 8명(0.8%)이었고, 주택 소유 형태는 '자기집' 이 690명(67.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자치하였으며 '전세' 152명(14.8%), '보증금 있는 월세' 114명(11.1%), '보증금 없는 월세' 47명(4.6%), '무상' 22명(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일반적 특성

(*N*=1,025)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520	50.7	직업유무	직업 있음	646	63.0
	남성	505	49.3		직업 없음	379	37.0
연령	20대	117	11.4	학력	학력 없음	67	6.5
	30대	111	10.8		초등학교	100	9.8
	40대	153	14.9		중학교	60	5.9
	50대	206	20.1		고등학교	304	29.7
	60대	205	20.0		(전문)대학교	426	41.6
	70대 이상	233	22.7		대학원(석사 이상)	68	6.6
지역	읍/면 지역	242	23.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9	16.5
	동 지역	783	76.4		100~200만원 미만	128	12.5
권역	전주/익산/완주	390	38.0		200~300만원 미만	170	16.6
	군산/김제/부안	216	21.1		300~400만원 미만	176	17.2
	무주/진안/장수	128	12.5		400~500만원 미만	178	17.4
	임실/순창/남원	139	13.6		500만 원 이상	204	19.9
	정읍/고창	152	14.8	주관적 사회경제 지위	매우 낮음	93	9.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585	57.1		조금 낮음	355	34.6
	비혼	242	23.6		중간	469	45.8
	이혼/별거	59	5.8		조금 높음	94	9.2
	사별	139	13.6		매우 높음	14	1.4
자녀유무	자녀 있음	649	63.3	주택유형	일반주택	314	30.6
	자녀 없음	376	36.7		아파트	521	50.8
가구형태	부부만	218	21.3		다세대 주택	182	17.8
	부부+자녀	406	39.6		기타	8	0.8
	1인가구	336	32.8	주택 소유형태	자기집	690	67.3
	기타	65	6.3		전세	152	14.8
가구원수	1인 가구	336	32.8		보증금 있는 월세	114	11.1
	2인	250	24.4		보증금 없는 월세	47	4.6
	3인	202	19.7		무상	22	2.2
	4인	188	18.3				
	5인 이상	49	4.8				

2. 가족인식 및 가치관

1) 가족 범위

전북도민이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배우자(88.5%), 부모(85.9%), 자녀(84.3%)가 가장 핵심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었으며, 형제자매(75.0%) 역시 높은 비율로 가족 범위에 포함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20대(42.6%)와 30대(19.8%)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부계·모계 친인척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비혼(26.9%)과 자녀유무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20.2%)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젊은 연령대의 비혼 또는 무자녀 가구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반려동물을 제외한 전반적인 가족 범위를 더 넓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일수록 전통적 가족 범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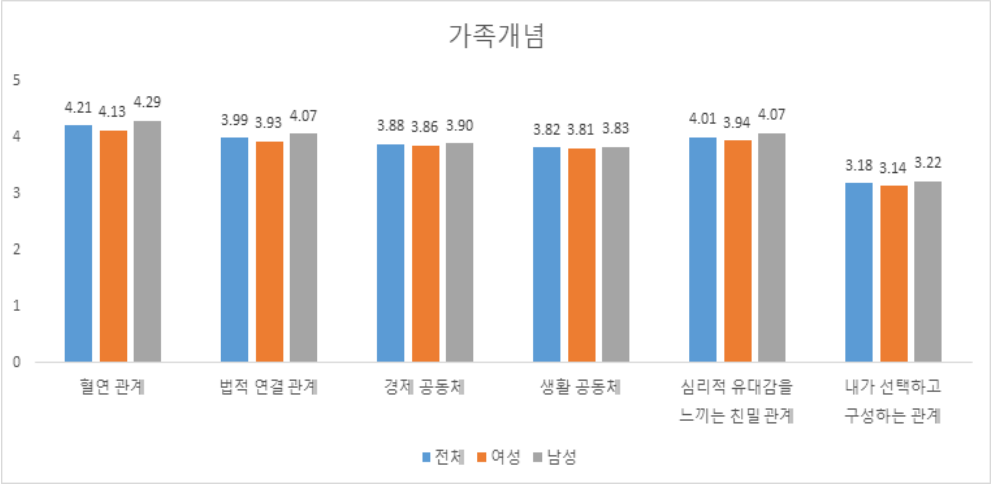
▌표 Ⅲ-5 ▐ 가족 범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며느리	조부모	사위	손자녀	조카	부계 친인척	모계 친인척	반려동물	동거 비혈연자
전체		1,025	88.5	85.9	84.3	75.0	58.2	35.0	33.1	33.1	31.5	25.5	24.4	22.9	12.5	2.0
성별	여성	505	87.9	88.5	81.8	74.1	56.8	35.6	33.7	33.5	31.7	25.1	23.8	22.8	12.3	1.6
	남성	520	89.0	83.3	86.7	76.0	59.6	34.4	32.5	32.7	31.3	25.8	25.0	23.1	12.7	2.3
연령	20대	117	65.8	94.9	41.9	83.8	23.9	14.5	33.3	12.0	12.8	14.5	22.2	20.5	42.7	2.6
	30대	111	82.9	87.4	75.7	72.1	38.7	27.9	29.7	25.2	23.4	18.9	15.3	16.2	19.8	4.5
	40대	153	88.9	79.7	88.2	63.4	45.1	21.6	27.5	18.3	18.3	18.3	17.0	15.7	11.1	2.0
	50대	206	93.2	82.5	91.7	62.1	49.5	26.2	28.6	24.8	25.7	20.4	14.6	13.1	8.3	0.0
	60대	205	94.1	89.8	94.6	83.9	81.0	50.2	37.6	49.3	45.4	31.7	30.2	27.3	5.9	2.4
	70대 이상	233	93.1	84.1	91.4	83.3	81.1	51.9	38.2	50.2	46.4	37.8	38.2	36.9	4.3	1.7
지역	읍/면	242	89.7	88.8	88.0	87.6	75.2	47.9	42.1	45.9	40.9	35.1	36.8	36.0	11.6	2.5
	동	783	88.1	84.9	83.1	71.1	53.0	31.0	30.3	29.1	28.6	22.5	20.6	18.9	12.8	1.8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585	98.3	80.7	94.7	68.7	65.3	38.6	32.5	37.3	36.4	26.2	22.9	21.5	9.2	1.9
	비혼	242	66.1	95.9	51.2	80.6	28.1	19.8	31.0	16.9	16.1	17.8	19.4	17.4	26.9	2.1
	이혼·별거	59	76.3	83.1	93.2	78.0	45.8	35.6	30.5	32.2	28.8	23.7	23.7	22.0	8.5	1.7
	사별	139	91.4	91.4	94.2	90.6	86.3	46.0	40.3	43.9	38.8	36.7	39.6	38.8	2.9	2.2
자녀 유무	있음	649	95.2	81.0	98.3	72.0	66.3	40.8	33.6	39.0	37.8	27.3	25.4	23.7	7.7	1.7
	없음	376	76.9	94.1	60.1	80.3	44.4	25.0	32.2	22.9	20.7	22.3	22.6	21.5	20.7	2.4

2) 가족 개념

전북도민이 인식하는 가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족은 혈연관계'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4.21점(5점척도)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에 대해서는 3.99점, '경제공동체'는 3.88점, '거주와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는 3.82점,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4.01점,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수 있는 관계'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는 3.18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 가족개념

(1) 가족개념_가족은 혈연관계이다

가족은 혈연관계라는 문항은 전체 평균 4.2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29점, 여성 4.13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46, p<.001).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40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3.94점으로 가장 낮았다(F=10.425, p<.001). 지역별 차이에서는 동 지역 4.25점, 읍·면 지역 4.07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았으며(t=-3.452,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4.30점)과 배우자 있음(4.27점)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별(3.83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16.457, p<.001).

▌표 Ⅲ-6▐ 가족개념 - 혈연관계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4	2.2	11.6	47.6	38.1	4.21	
성별	여성	520	0.6	3.1	12.5	50.4	33.5	4.13	-3.346***
	남성	505	0.2	1.4	10.7	44.8	43.0	4.29	
연령	20대	117	0.0	2.6	17.9	32.5	47.0	4.24	10.425***
	30대	111	0.0	1.8	9.0	38.7	50.5	4.38	
	40대	153	0.7	2.6	13.1	43.1	40.5	4.20	
	50대	206	1.5	1.9	6.8	35.0	54.9	4.40	
	60대	205	0.0	1.5	4.9	63.4	30.2	4.22	
	70대 이상	233	0.0	3.0	18.9	59.7	18.5	3.94	
지역	읍/면	242	0.0	4.1	10.7	59.5	25.6	4.07	-3.452***
	동	783	0.5	1.7	11.9	43.9	42.0	4.2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5	2.1	8.5	48.0	40.9	4.27	16.457***
	비혼	242	0.4	1.7	12.8	37.6	47.5	4.30	
	이혼·별거	59	0.0	3.4	13.6	49.2	33.9	4.14	
	사별	139	0.0	3.6	21.6	62.6	12.2	3.83	
자녀유무	있음	649	0.5	2.3	11.4	47.5	38.4	4.21	0.043
	없음	376	0.3	2.1	12.0	47.9	37.8	4.21	

***p<.001

(2) 가족개념_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가족은 법적 연결관계 문항은 전체 평균 3.8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07점, 여성이 3.93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t=-2.449, p<.05),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38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은 3.44점으로 가장 낮았다(F=38.839,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4.08점, 읍·면 지역이 3.71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았으며(t=-5.587,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4.20점)과 배우자 있음(4.09점)이 높은 반면 사별(3.28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37.803, p<.001).

▌표 Ⅲ-7 ▌가족개념 - 법적 연결관계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6	4.7	25.0	34.2	35.5	3.99	
성별	여성	520	0.8	4.8	28.5	33.1	32.9	3.93	-2.449*
	남성	505	0.4	4.6	21.4	35.4	38.2	4.07	
연령	20대	117	0.0	1.7	12.8	37.6	47.9	4.32	38.839***
	30대	111	0.0	1.8	9.9	40.5	47.7	4.34	
	40대	153	0.7	2.6	16.3	44.4	35.9	4.12	
	50대	206	1.5	1.0	4.9	43.7	49.0	4.38	
	60대	205	0.5	7.3	36.1	27.3	28.8	3.77	
	70대 이상	233	0.4	9.9	51.9	20.6	17.2	3.44	
지역	읍/면	242	0.0	5.4	43.0	26.9	24.8	3.71	-5.587***
	동	783	0.8	4.5	19.4	36.5	38.8	4.0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9	3.4	20.9	35.6	39.3	4.09	37.803***
	비혼	242	0.4	2.5	15.7	39.3	42.1	4.20	
	이혼·별거	59	0.0	8.5	28.8	32.2	30.5	3.85	
	사별	139	0.0	12.2	56.8	20.9	10.1	3.29	
자녀유무	있음	649	0.8	4.8	25.0	33.3	36.2	3.99	-0.014
	없음	376	0.3	4.5	25.0	35.9	34.3	3.99	

*p<.05, ***p<.001

(3) 가족개념_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이다

경제공동체라는 가족 개념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88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77점으로 가장 낮았다(F=3.24, p<.01). 이외 다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8▐ 가족개념 – 경제 공동체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7	6.9	20.7	47.3	24.4	3.88	
성별	여성	520	0.6	6.7	21.5	48.3	22.9	3.86	-0.609
	남성	505	0.8	7.1	19.8	46.3	25.9	3.90	
연령	20대	117	0.0	12.8	12.8	35.0	39.3	4.01	3.24**
	30대	111	0.0	6.3	17.1	40.5	36.0	4.06	
	40대	153	2.0	3.9	26.8	41.8	25.5	3.85	
	50대	206	0.5	5.3	21.8	42.7	29.6	3.96	
	60대	205	1.0	8.8	21.5	50.2	18.5	3.77	
	70대 이상	233	0.4	6.0	20.6	61.8	11.2	3.77	
지역	읍/면	242	0.4	7.9	20.7	51.7	19.4	3.82	-1.211
	동	783	0.8	6.6	20.7	46.0	25.9	3.9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9	6.5	21.2	46.0	25.5	3.89	2.08
	비혼	242	0.8	9.1	16.9	40.5	32.6	3.95	
	이혼·별거	59	0.0	3.4	33.9	45.8	16.9	3.76	
	사별	139	0.0	6.5	19.4	65.5	8.6	3.76	
자녀유무	있음	649	0.8	6.5	21.6	47.3	23.9	3.87	-0.357
	없음	376	0.5	7.7	19.1	47.3	25.3	3.89	

**p<.01

(4) 가족개념_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생활공동체라는 가족 개념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82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95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3.67점으로 가장 낮았다 (F=2.84, p<.05). 이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9▐ 가족개념 – 생활 공동체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3	6.2	24.0	46.1	22.3	3.82	
성별	여성	520	1.2	6.9	23.8	46.0	22.1	3.81	-0.396
	남성	505	1.4	5.5	24.2	46.3	22.6	3.83	
연령	20대	117	1.7	3.4	22.2	44.4	28.2	3.94	2.84*
	30대	111	1.8	9.0	17.1	36.0	36.0	3.95	
	40대	153	1.3	8.5	24.2	43.8	22.2	3.77	
	50대	206	1.9	7.8	19.9	40.3	30.1	3.89	
	60대	205	1.0	4.4	23.4	54.1	17.1	3.82	
	70대 이상	233	0.4	5.2	32.2	51.5	10.7	3.67	
지역	읍/면	242	0.4	4.1	23.1	57.4	14.9	3.82	0.041
	동	783	1.5	6.9	24.3	42.7	24.6	3.8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0	6.8	23.9	44.4	23.8	3.83	2.008
	비혼	242	2.5	6.6	18.2	45.9	26.9	3.88	
	이혼·별거	59	1.7	3.4	35.6	33.9	25.4	3.78	
	사별	139	0.0	4.3	29.5	59.0	7.2	3.69	
자녀유무	있음	649	0.9	6.5	23.7	46.2	22.7	3.83	0.545
	없음	376	1.9	5.9	24.5	46.0	21.8	3.80	

*p<.05

(5) 가족개념_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를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함께 살지 않아도)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 관계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4.0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07점, 여성이 3.94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t=-2.616, p<.01),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3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3.74점으로 가장 낮았다(F=9.863,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4.05점, 읍·면 지역이 3.88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았으며(t=-2.974, p<.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4.06점)과 배우자 있음(4.11점)이 높은 반면 사별(3.60점)이 가장 낮았다(F=20.471, p<.001).

▌표 Ⅲ-10 ▌가족개념 –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 관계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4	2.9	19.8	49.3	27.6	4.01	
성별	여성	520	0.6	3.7	21.3	49.6	24.8	3.94	-2.616**
	남성	505	0.2	2.2	18.2	48.9	30.5	4.07	
연령	20대	117	0.9	0.9	20.5	47.0	30.8	4.06	9.863***
	30대	111	0.9	3.6	9.9	42.3	43.2	4.23	
	40대	153	0.7	1.3	20.3	47.1	30.7	4.06	
	50대	206	0.5	1.9	12.1	50.5	35.0	4.17	
	60대	205	0.0	3.4	22.0	50.2	24.4	3.96	
	70대 이상	233	0.0	5.2	28.8	53.2	12.9	3.74	
지역	읍/면	242	0.4	3.7	21.1	57.4	17.4	3.88	-2.974**
	동	783	0.4	2.7	19.4	46.7	30.8	4.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2	2.1	16.4	48.9	32.5	4.11	20.471***
	비혼	242	1.2	2.1	17.8	47.1	31.8	4.06	
	이혼·별거	59	0.0	8.5	30.5	45.8	15.3	3.68	
	사별	139	0.0	5.8	33.1	56.1	5.0	3.60	
자녀유무	있음	649	0.2	2.9	19.1	49.8	28.0	4.03	0.977
	없음	376	0.8	2.9	21.0	48.4	26.9	3.98	

**p<.01, ***p<.001

(6) 가족개념_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가족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응답의 평균 점수는 3.18점으로, 중간값(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연령대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6.015, p<.001), 20대가 3.70점으로 가장 높고 60대는 3.06점으로 가장 낮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된다.

▌표 Ⅲ-11 ▌가족개념 - 내가 선택하고 구성하는 관계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0.9	16.2	31.5	26.6	14.7	3.18	
성별	여성	520	9.6	17.1	35.0	26.3	11.9	3.14	-1.143
	남성	505	12.3	15.2	27.9	26.9	17.6	3.22	
연령	20대	117	5.1	6.0	33.3	24.8	30.8	3.70	6.015***
	30대	111	14.4	16.2	18.0	31.5	19.8	3.26	
	40대	153	11.1	22.2	26.1	28.8	11.8	3.08	
	50대	206	18.9	17.0	19.9	25.7	18.4	3.08	
	60대	205	11.2	17.6	36.6	22.9	11.7	3.06	
	70대 이상	233	4.7	15.5	46.4	27.9	5.6	3.14	
지역	읍/면	242	6.2	12.4	44.6	25.6	11.2	3.23	0.846
	동	783	12.4	17.4	27.5	26.9	15.8	3.1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2.8	16.2	26.7	28.7	15.6	3.18	1.206
	비혼	242	10.3	17.8	27.7	24.8	19.4	3.25	
	이혼·별거	59	11.9	8.5	42.4	23.7	13.6	3.19	
	사별	139	3.6	16.5	54.0	22.3	3.6	3.06	
자녀유무	있음	649	11.4	14.5	31.0	28.5	14.6	3.20	0.862
	없음	376	10.1	19.1	32.4	23.4	14.9	3.14	

***p<.001

3) 가장 의지되는 사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을 한 명만 선택하는 문항에서 배우자(43.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13.5%), 딸(8.4%), 아버지(7.6%), 아들(6.6%), 형제자매(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F=43.748, p<.001)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12.1%, 남성 4.6%로 여성에서 더 높았고, '아버지'에 대한 응답은 남성 10.3%, 여성 5.0%로 남성에서 더 높았다. 즉, 여성은 딸에게, 남성은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5.0%, 남성 8.5%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12 ▌가장 의지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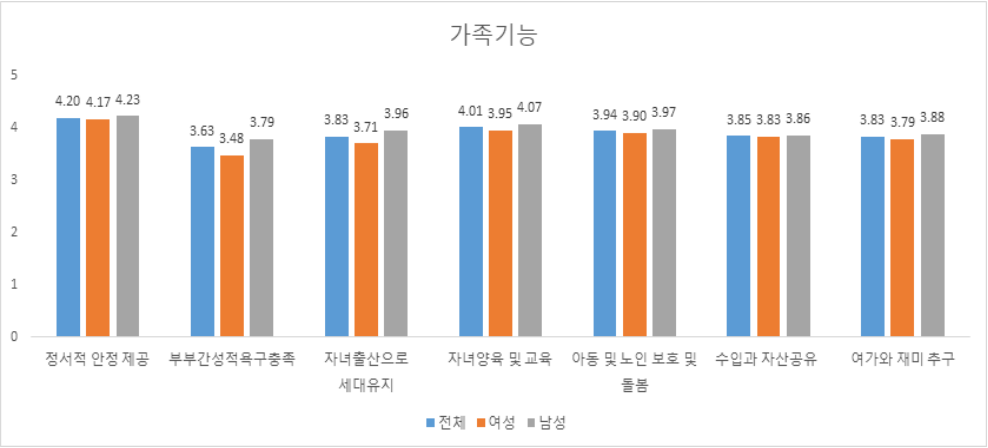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배우자	어머니	딸	아버지	아들	형제 자매	친구	연인	성직자	이웃	동료	상담사/ 사회 복지사	의지할 사람 없음	x^2
전체		1025	43.4	13.5	8.4	7.6	6.6	6.6	2.8	2.3	1.1	0.7	0.1	0.1	6.7	
성별	여성	520	43.1	13.3	12.1	5.0	6.3	6.3	2.5	1.7	0.2	0.6	0.2	0.2	8.5	43.748 ***
	남성	505	43.8	13.7	4.6	10.3	6.9	6.9	3.2	3.0	2.0	0.8	0.0	0.0	5.0	
연령	20대	117	3.4	39.3	0.0	41.0	0.0	2.6	2.6	7.7	0.0	0.9	0.0	0.0	2.6	765.166***
	30대	111	34.2	28.8	0.9	9.9	0.0	6.3	7.2	9.0	0.9	0.0	0.0	0.0	2.7	
	40대	153	46.4	23.5	1.3	7.2	2.6	7.2	3.9	0.7	0.7	0.0	0.0	0.0	6.5	
	50대	206	60.2	10.7	2.9	2.4	2.9	5.3	4.4	0.5	3.9	1.9	0.0	0.0	4.9	
	60대	205	68.3	1.0	9.8	1.5	7.3	3.9	0.0	1.5	0.5	0.0	0.0	0.0	6.3	
	70대 이상	233	29.2	0.0	24.5	0.0	18.5	12.0	1.3	0.0	0.0	0.9	0.4	0.4	12.9	
지역	읍/면	242	38.0	9.9	12.4	3.3	11.2	12.0	2.5	2.5	0.8	0.4	0.0	0.0	7.0	43.629 ***
	동	783	45.1	14.6	7.2	8.9	5.2	5.0	2.9	2.3	1.1	0.8	0.1	0.1	6.6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585	76.1	6.3	3.2	3.1	4.1	2.7	1.7	0.0	1.4	0.2	0.2	0.0	1.0	1136.313***
	비혼	242	0.0	38.4	0.4	23.6	0.0	10.3	6.2	9.9	0.0	0.8	0.0	0.0	10.3	
	이혼·별거	59	0.0	13.6	22.0	3.4	25.4	6.8	3.4	0.0	5.1	5.1	0.0	0.0	15.3	
	사별	139	0.0	0.0	38.1	0.7	20.9	16.5	1.4	0.0	0.0	0.7	0.0	0.7	20.9	
자녀 유무	있음	649	59.3	6.2	13.3	2.5	10.5	3.7	1.4	0.0	1.5	0.3	0.0	0.0	1.4	487.107***
	없음	376	16.0	26.1	0.0	16.5	0.0	11.7	5.3	6.4	0.3	1.3	0.3	0.3	16.0	

***p<.001

4) 가족기능

전북 가족 기능에서 정서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수가 4.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 기능(4.01점), 아동 및 노인 보호 및 돌봄 기능(3.94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자산 공유 기능는 3.85점, 자녀 출산을 통한 세대 유지와 여가·재미 추구 기능은 각각 3.83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간 성적 욕구 충족 기능은 3.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가족의 핵심기능이 정서적 지원과 자녀돌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 가족기능

(1) 가족기능_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정서적 안정 제공 기능은 전체 평균 4.20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4.31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4.0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2.988, p<.05),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4.32점), 비혼(4.08점), 사별(4.03점), 이혼·별거(3.93점) 순으로 나타났다(F=16.378, p<.001).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 4.26점, 없는 경우 4.09점으로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점수가 더 높았다(t=3.657, p<.001).

▌표 Ⅲ-13 ▌가족기능 - 정서적 안정 제공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5	0.9	12.1	51.2	35.3	4.20	
성별	여성	520	0.6	1.0	12.1	53.5	32.9	4.17	-1.308
	남성	505	0.4	0.8	12.1	48.9	37.8	4.23	
연령	20대	117	0.9	0.9	32.5	26.5	39.3	4.03	2.988*
	30대	111	0.0	2.7	10.8	43.2	43.2	4.27	
	40대	153	0.7	1.3	16.3	39.2	42.5	4.22	
	50대	206	1.5	1.5	12.1	45.6	39.3	4.20	
	60대	205	0.0	0.0	4.9	59.5	35.6	4.31	
	70대 이상	233	0.0	0.0	6.0	73.0	21.0	4.15	
지역	읍/면	242	0.0	0.4	9.9	59.5	30.2	4.19	-0.158
	동	783	0.6	1.0	12.8	48.7	36.9	4.2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3	0.7	8.2	48.5	42.2	4.32	16.378***
	비혼	242	0.8	1.7	22.3	38.8	36.4	4.08	
	이혼·별거	59	1.7	1.7	18.6	57.6	20.3	3.93	
	사별	139	0.0	0.0	7.9	81.3	10.8	4.03	
자녀유무	있음	649	0.3	0.6	8.8	53.2	37.1	4.26	3.657***
	없음	376	0.8	1.3	17.8	47.9	32.2	4.09	

*p<.05, ***p<.001

(2) 가족기능_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성적 욕구 충족 기능은 전체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t=-5.159, p<.001). 성별로는 남성이 3.79점, 여성이 3.48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F=9.273, p<.001),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85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3.79점), 비혼(3.60점), 이혼·별거(3.25점), 사별(3.1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20.332,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3.69점, 없는 경우가 3.53점으로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더 높았다(t=2.637, p<.01).

▌표 Ⅲ-14 ▌가족기능 - 성적 욕구 충족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8	8.3	35.2	34.4	20.3	3.63	
성별	여성	520	1.9	12.3	38.5	30.2	17.1	3.48	-5.159***
	남성	505	1.6	4.2	31.9	38.8	23.6	3.79	
연령	20대	117	1.7	7.7	44.4	29.9	16.2	3.51	9.273***
	30대	111	1.8	8.1	27.0	36.0	27.0	3.78	
	40대	153	2.6	5.9	25.5	42.5	23.5	3.78	
	50대	206	1.9	4.9	24.8	43.2	25.2	3.85	
	60대	205	0.5	6.3	39.5	35.6	18.0	3.64	
	70대 이상	233	2.1	15.0	46.4	21.9	14.6	3.32	
지역	읍/면	242	2.9	4.5	45.9	27.3	19.4	3.56	-1.387
	동	783	1.4	9.5	31.9	36.7	20.6	3.6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4	5.6	28.5	41.9	22.6	3.79	20.332***
	비혼	242	2.5	7.0	40.1	28.5	21.9	3.60	
	이혼·별거	59	5.1	22.0	32.2	23.7	16.9	3.25	
	사별	139	0.7	15.8	56.1	18.0	9.4	3.19	
자녀유무	있음	649	1.7	7.4	32.4	37.1	21.4	3.69	2.637**
	없음	376	1.9	9.8	40.2	29.8	18.4	3.53	

**p<.01, ***p<.001

(3) 가족기능_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 유지 기능

다음 세대 유지 기능은 전체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3.96점, 여성이 3.71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t=-4.595, p<.001),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98점으로 가장 높고 40대가 3.68점으로 가장 낮았다(F=2.71, p<.05).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3.90점), 이혼·별거(3.81점), 비혼(3.74점), 사별(3.6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3.528, p<.05),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3.90점)가 없는 응답자(3.72점)보다 더 높았다(t=3.059, p<.01).

▌표 Ⅲ-15 ▌가족기능 - 세대 유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6	4.2	26.9	44.4	22.9	3.83	
성별	여성	520	2.3	4.6	31.0	44.4	17.7	3.71	-4.595***
	남성	505	0.8	3.8	22.8	44.4	28.3	3.96	
연령	20대	117	1.7	6.8	20.5	53.8	17.1	3.78	2.71*
	30대	111	4.5	9.0	22.5	38.7	25.2	3.71	
	40대	153	2.6	5.2	30.7	44.4	17.0	3.68	
	50대	206	1.9	5.3	23.3	41.3	28.2	3.88	
	60대	205	0.0	1.0	28.3	42.9	27.8	3.98	
	70대 이상	233	0.4	1.7	31.8	46.4	19.7	3.83	
지역	읍/면	242	2.1	2.1	26.0	44.6	25.2	3.89	1.194
	동	783	1.4	4.9	27.2	44.3	22.2	3.8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5	3.2	24.6	44.6	26.0	3.90	3.528*
	비혼	242	2.5	7.9	23.1	45.9	20.7	3.74	
	이혼·별거	59	1.7	3.4	30.5	40.7	23.7	3.81	
	사별	139	0.0	2.2	41.7	42.4	13.7	3.68	
자녀유무	있음	649	0.8	3.1	27.0	44.2	25.0	3.90	3.059**
	없음	376	2.9	6.1	26.9	44.7	19.4	3.72	

*p<.05, **p<.01, ***p<.001

(4) 가족기능_자녀 양육 및 교육 기능

자녀 양육 및 교육 기능은 전체 평균 4.0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07점, 여성이 3.95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t=-2.243, p<.05), 연령대별로는 60대가 4.15점으로 가장 높고 30대가 3.91점으로 가장 낮았다(F=2.497, p<.05).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4.09점), 사별(3.94점), 비혼(3.91점), 이혼·별거(3.8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4.46, p<.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4.08점)가 없는 응답자(3.89점)보다 더 높았다(t=3.671, p<.001).

▌표 Ⅲ-16 ▌가족기능 필요도 - 자녀 양육 및 교육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0	2.7	18.3	50.2	27.7	4.01	
성별	여성	520	1.2	2.7	20.4	51.2	24.6	3.95	-2.243*
	남성	505	0.8	2.8	16.2	49.3	30.9	4.07	
연령	20대	117	0.9	3.4	18.8	50.4	26.5	3.98	2.497*
	30대	111	1.8	3.6	24.3	42.3	27.9	3.91	
	40대	153	0.7	5.2	23.5	39.2	31.4	3.95	
	50대	206	2.4	2.9	13.1	51.5	30.1	4.04	
	60대	205	0.0	0.5	13.7	56.1	29.8	4.15	
	70대 이상	233	0.4	2.1	20.6	54.9	21.9	3.96	
지역	읍/면	242	0.8	1.2	14.0	55.4	28.5	4.10	1.873
	동	783	1.0	3.2	19.7	48.7	27.5	3.9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9	2.4	16.4	47.9	32.5	4.09	4.46**
	비혼	242	1.7	4.5	20.2	47.9	25.6	3.91	
	이혼·별거	59	1.7	1.7	30.5	45.8	20.3	3.81	
	사별	139	0.0	1.4	18.0	66.2	14.4	3.94	
자녀유무	있음	649	0.6	1.8	17.3	49.5	30.8	4.08	3.671***
	없음	376	1.6	4.3	20.2	51.6	22.3	3.89	

*p<.05, **p<.01, ***p<.001

(5) 가족기능_가족구성원 보호 및 돌봄 기능

가족구성원 보호 및 돌봄 기능은 전체 평균 4.01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07점으로 가장 높고 30대가 3.80점으로 가장 낮았다(F=3.232, p<.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4.00점), 비혼(3.95점), 이혼·별거(3.80점), 사별(3.7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5.957,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3.98점)가 없는 응답자(3.86점)보다 더 높았다(t=2.338, p<.05).

▌표 Ⅲ-17 ▌가족기능 필요도 - 가족구성원 보호 및 돌봄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5	3.1	21.8	51.3	23.3	3.94	
성별	여성	520	0.4	3.1	24.0	50.8	21.7	3.90	-1.436
	남성	505	0.6	3.2	19.4	51.9	25.0	3.97	
연령	20대	117	0.9	1.7	21.4	43.6	32.5	4.05	3.232**
	30대	111	0.9	7.2	25.2	44.1	22.5	3.80	
	40대	153	0.7	5.2	21.6	49.0	23.5	3.90	
	50대	206	1.0	3.9	16.0	45.6	33.5	4.07	
	60대	205	0.0	2.0	18.5	60.0	19.5	3.97	
	70대 이상	233	0.0	0.9	28.3	57.5	13.3	3.83	
지역	읍/면	242	0.4	2.9	20.7	57.0	19.0	3.91	-0.574
	동	783	0.5	3.2	22.1	49.6	24.6	3.9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5	2.9	18.1	53.3	25.1	4.00	5.957***
	비혼	242	0.8	3.7	23.1	44.6	27.7	3.95	
	이혼·별거	59	0.0	6.8	27.1	45.8	20.3	3.80	
	사별	139	0.0	1.4	32.4	56.8	9.4	3.74	
자녀유무	있음	649	0.5	2.8	18.5	54.5	23.7	3.98	2.338*
	없음	376	0.5	3.7	27.4	45.7	22.6	3.86	

*p<.05, **p<.01, ***p<.001

(6) 가족기능_수입과 자산을 공유하는 기능

수입과 자산 공유 기능은 전체 평균 3.85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12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3.6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5.548, p<.0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3.92점), 비혼(3.84점), 사별(3.68점), 이혼·별거(3.53점) 순으로 나타났다(F=7.002, p<.001).

▌표 Ⅲ-18▐ 가족기능 - 수입과 자산 공유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9	4.0	27.3	45.2	22.6	3.85	
성별	여성	520	0.4	5.0	27.5	45.0	22.1	3.83	-0.469
	남성	505	1.4	3.0	27.1	45.3	23.2	3.86	
연령	20대	117	0.0	1.7	20.5	41.9	35.9	4.12	5.548***
	30대	111	1.8	9.0	15.3	42.3	31.5	3.93	
	40대	153	1.3	7.2	25.5	44.4	21.6	3.78	
	50대	206	1.9	3.9	28.2	39.8	26.2	3.84	
	60대	205	0.0	1.5	28.3	50.2	20.0	3.89	
	70대 이상	233	0.4	3.0	36.1	48.9	11.6	3.68	
지역	읍/면	242	1.2	3.7	28.1	50.4	16.5	3.77	-1.56
	동	783	0.8	4.1	27.1	43.6	24.5	3.8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2	3.6	25.0	46.5	24.8	3.92	7.002***
	비혼	242	2.5	5.4	25.2	39.3	27.7	3.84	
	이혼·별거	59	3.4	6.8	37.3	39.0	13.6	3.53	
	사별	139	0.0	2.2	36.7	52.5	8.6	3.68	
자녀유무	있음	649	0.3	3.2	27.1	47.0	22.3	3.88	1.507
	없음	376	1.9	5.3	27.7	42.0	23.1	3.79	

***p<.001

(7) 가족기능_함께 여가를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기능

여가와 재미 추구 기능은 전체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03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3.5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7.997,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3.87점, 읍·면 지역이 3.71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았다(t=-2.697, p<.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3.91점), 비혼(3.86점), 이혼·별거(3.73점), 사별(3.5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10.474,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3.87점)가 없는 응답자(3.76점)보다 더 높았다(t=1.965, p<.05).

▌표 Ⅲ-19▐ 가족기능 - 여가와 재미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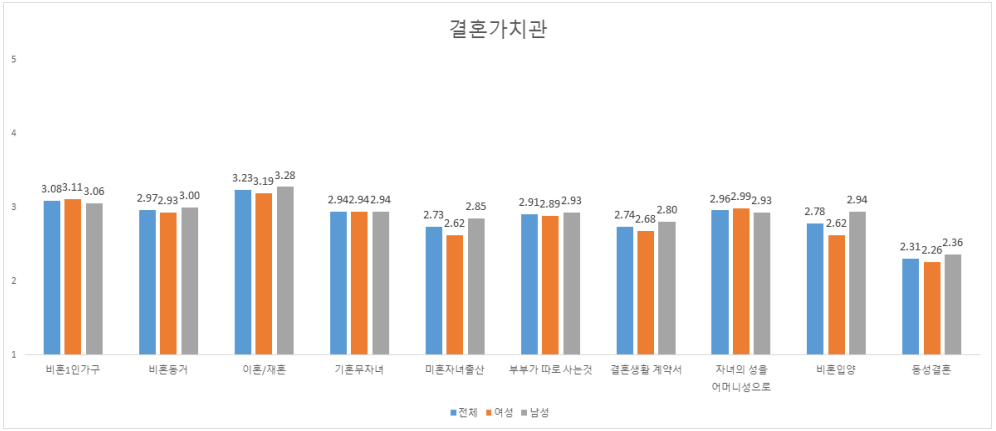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5	4.3	29.0	43.9	22.3	3.83	
성별	여성	520	0.4	4.4	31.2	44.0	20.0	3.79	-1.736
	남성	505	0.6	4.2	26.7	43.8	24.8	3.88	
연령	20대	117	0.0	2.6	26.5	35.9	35.0	4.03	7.997***
	30대	111	0.9	5.4	21.6	39.6	32.4	3.97	
	40대	153	0.7	3.9	26.8	45.1	23.5	3.87	
	50대	206	1.5	4.4	18.9	50.5	24.8	3.93	
	60대	205	0.0	2.0	30.2	49.8	18.0	3.84	
	70대 이상	233	0.0	6.9	42.9	38.2	12.0	3.55	
지역	읍/면	242	0.4	3.3	40.1	37.6	18.6	3.71	-2.697**
	동	783	0.5	4.6	25.5	45.8	23.5	3.8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3	3.1	25.6	47.2	23.8	3.91	10.474***
	비혼	242	1.2	4.5	28.1	38.8	27.3	3.86	
	이혼·별거	59	0.0	8.5	27.1	47.5	16.9	3.73	
	사별	139	0.0	7.2	45.3	37.4	10.1	3.50	
자녀유무	있음	649	0.2	3.1	28.4	46.1	22.3	3.87	1.965*
	없음	376	1.1	6.4	30.1	40.2	22.3	3.76	

*p<.05, **p<.01, ***p<.001

5) 결혼가치관

결혼가치관을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3.08점, '이혼·재혼'은 3.23점으로 나타나 5점 척도 기준 중간값(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2.97점),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2.94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2.73점),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것'(2.91점), '결혼 생활에 대한 계약서 작성'(2.74점),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2.96점), '결혼하지 않은 개인의 자녀 입양'(2.78점), '동성 간 결혼'(2.31점) 등은 모두 중간값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결혼 및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부정적 태도임을 보여준다.



▌그림 Ⅲ-3 ▌결혼가치관

(1) 결혼가치관_비혼1인가구

비혼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08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50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7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10.183, p<.001),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3.56점), 비혼(3.54점), 사별(2.97점), 배우자 있음(2.88점) 순으로 나타났다(F=24.014,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43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88점)보다 더 높았다(t=-7.65, p<.001).

▌표 Ⅲ-20▐ 결혼가치관 - 비혼1인가구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9.7	19.2	36.1	23.0	12.0	3.08	
성별	여성	520	9.2	17.9	37.1	24.0	11.7	3.11	0.765
	남성	505	10.1	20.6	35.0	22.0	12.3	3.06	
연령	20대	117	4.3	21.4	24.8	27.4	22.2	3.42	10.183***
	30대	111	9.0	9.0	24.3	37.8	19.8	3.50	
	40대	153	11.8	17.6	31.4	24.2	15.0	3.13	
	50대	206	11.7	18.0	31.1	24.3	15.0	3.13	
	60대	205	9.3	17.1	49.3	19.0	5.4	2.94	
	70대 이상	233	9.9	27.0	43.3	15.5	4.3	2.77	
지역	읍/면	242	6.6	17.4	41.3	23.6	11.2	3.15	1.069
	동	783	10.6	19.8	34.5	22.9	12.3	3.0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4.2	20.9	35.2	22.6	7.2	2.88	24.014***
	비혼	242	3.7	14.5	29.8	28.5	23.6	3.54	
	이혼·별거	59	3.4	11.9	39.0	16.9	28.8	3.56	
	사별	139	3.6	23.7	49.6	18.0	5.0	2.97	
자녀유무	있음	649	12.8	21.7	38.2	18.8	8.5	2.88	-7.65***
	없음	376	4.3	14.9	32.4	30.3	18.1	3.43	

***p<.001

(2) 결혼가치관_비혼 동거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97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30점으로 가장 높고 60대가 2.7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11.193, p<.001),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3.32점), 비혼(3.31점), 사별(2.83점), 배우자 있음(2.82점) 순으로 나타났다(F=15.998,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25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80점)보다 더 높았다(t=-6.908, p<.001).

▌표 Ⅲ-21 ▌결혼가치관 - 비혼 동거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9.5	21.4	40.8	19.9	8.5	2.97	
성별	여성	520	7.5	23.5	44.2	18.1	6.7	2.93	-1.070
	남성	505	11.5	19.2	37.2	21.8	10.3	3.00	
연령	20대	117	5.1	11.1	43.6	29.1	11.1	3.30	11.193***
	30대	111	9.9	12.6	30.6	32.4	14.4	3.29	
	40대	153	7.8	14.4	36.6	30.1	11.1	3.22	
	50대	206	10.7	28.2	30.1	22.3	8.7	2.90	
	60대	205	12.7	26.8	43.4	11.7	5.4	2.70	
	70대 이상	233	8.6	24.5	54.1	7.7	5.2	2.76	
지역	읍/면	242	7.0	19.4	50.4	14.5	8.7	2.98	0.31
	동	783	10.2	22.0	37.8	21.6	8.4	2.9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2.5	25.1	36.6	19.8	6.0	2.82	15.998***
	비혼	242	6.2	12.4	39.7	27.3	14.5	3.31	
	이혼·별거	59	3.4	11.9	47.5	23.7	13.6	3.32	
	사별	139	5.0	25.2	57.6	5.8	6.5	2.83	
자녀유무	있음	649	12.0	25.4	39.6	16.9	6.0	2.80	-6.908***
	없음	376	5.1	14.4	42.8	25.0	12.8	3.26	

***p<.001

(3) 결혼가치관_이혼/재혼

이혼·재혼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23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68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8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22.178,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62점), 이혼·별거(3.37점), 배우자 있음(3.12점), 사별(2.95점) 순으로 나타났다(F=19.681,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52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3.07점)보다 더 높았다(t=-6.758, p<.001).

▌표 Ⅲ-22 ▌결혼가치관 - 이혼/재혼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6.9	14.8	38.0	28.6	11.7	3.23	
성별	여성	520	6.2	16.0	40.0	28.3	9.6	3.19	-1.250
	남성	505	7.7	13.7	35.8	28.9	13.9	3.28	
연령	20대	117	5.1	8.5	17.1	52.1	17.1	3.68	22.178***
	30대	111	8.1	5.4	19.8	42.3	24.3	3.69	
	40대	153	4.6	14.4	26.8	35.3	19.0	3.50	
	50대	206	7.8	16.5	33.0	29.6	13.1	3.24	
	60대	205	5.9	16.1	53.2	20.5	4.4	3.01	
	70대 이상	233	9.0	20.2	55.4	12.0	3.4	2.81	
지역	읍/면	242	7.9	13.6	47.9	18.2	12.4	3.14	-1.625
	동	783	6.6	15.2	34.9	31.8	11.5	3.2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8.9	17.3	36.2	27.7	9.9	3.12	19.681***
	비혼	242	4.5	8.7	26.0	41.3	19.4	3.62	
	이혼·별거	59	5.1	10.2	42.4	27.1	15.3	3.37	
	사별	139	3.6	17.3	64.0	10.8	4.3	2.95	
자녀유무	있음	649	8.5	18.0	40.2	25.0	8.3	3.07	-6.758***
	없음	376	4.3	9.3	34.0	34.8	17.6	3.52	

***p<.001

(4) 결혼가치관_기혼 미출산

기혼 미출산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9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59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30.075,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44점), 이혼·별거(3.20점), 배우자 있음(2.81점), 사별(2.52점) 순으로 나타났다(F=25.992,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27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75점)보다 더 높았다(t=-6.847, p<.001).

▌표 Ⅲ-23 ▌결혼가치관 - 기혼 미출산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1.9	27.5	25.8	24.0	10.8	2.94	
성별	여성	520	12.3	26.5	26.3	24.0	10.8	2.94	0.022
	남성	505	11.5	28.5	25.1	24.0	10.9	2.94	
연령	20대	117	8.5	10.3	21.4	33.3	26.5	3.59	30.075***
	30대	111	9.9	7.2	26.1	34.2	22.5	3.52	
	40대	153	12.4	14.4	24.8	37.9	10.5	3.20	
	50대	206	13.1	17.5	35.4	23.3	10.7	3.01	
	60대	205	12.7	40.0	25.9	17.1	4.4	2.60	
	70대 이상	233	12.4	52.4	19.7	12.0	3.4	2.42	
지역	읍/면	242	7.4	40.5	22.7	19.0	10.3	2.84	-1.5
	동	783	13.3	23.5	26.7	25.5	11.0	2.9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5.4	26.8	26.8	23.1	7.9	2.81	25.992***
	비혼	242	7.9	14.5	24.8	31.4	21.5	3.44	
	이혼·별거	59	5.1	18.6	37.3	28.8	10.2	3.20	
	사별	139	7.2	56.8	18.0	12.9	5.0	2.52	
자녀유무	있음	649	14.0	31.4	26.7	21.0	6.9	2.75	-6.847***
	없음	376	8.2	20.7	24.2	29.3	17.6	3.27	

***p<.001

(5) 결혼가치관_비혼출산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7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85점, 여성이 2.62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t=-3.170, p<.01),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17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53점으로 가장 낮았다(F=8.424,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2.79점, 읍·면 지역이 2.55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았으며(t=-2.769, p<.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05점), 이혼·별거(2.93점), 배우자 있음(2.64점), 사별(2.50점) 순으로 나타났다(F=10.365,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2.96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60점)보다 더 높았다(t=-4.816, p<.001).

▌표 Ⅲ-24 ▌결혼가치관 - 비혼 출산 동의정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5.0	31.1	27.8	17.5	8.6	2.73	
성별	여성	520	16.9	30.8	31.3	15.2	5.8	2.62	-3.170**
	남성	505	13.1	31.5	24.2	19.8	11.5	2.85	
연령	20대	117	13.7	16.2	29.1	21.4	19.7	3.17	8.424***
	30대	111	14.4	16.2	26.1	29.7	13.5	3.12	
	40대	153	17.0	21.6	29.4	23.5	8.5	2.85	
	50대	206	20.9	24.3	32.5	16.0	6.3	2.63	
	60대	205	12.2	45.9	23.4	13.2	5.4	2.54	
	70대 이상	233	12.0	45.1	26.6	10.7	5.6	2.53	
지역	읍/면	242	15.3	40.9	23.1	14.5	6.2	2.55	-2.769**
	동	783	14.9	28.1	29.2	18.4	9.3	2.7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8.5	30.9	26.7	15.9	8.0	2.64	10.365***
	비혼	242	10.3	22.7	31.8	21.9	13.2	3.05	
	이혼·별거	59	10.2	30.5	23.7	27.1	8.5	2.93	
	사별	139	10.8	46.8	27.3	12.2	2.9	2.50	
자녀유무	있음	649	17.9	33.9	25.6	15.4	7.2	2.60	-4.816***
	없음	376	10.1	26.3	31.6	21.0	10.9	2.96	

**p<.01, ***p<.001

(6) 결혼가치관_부부가 따로 사는 것

부부가 따로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91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40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5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18.526,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2.97점, 읍·면 지역이 2.71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았다(t=-3.185, p<.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05점), 이혼·별거(2.93점), 배우자 있음(2.64점), 사별(2.5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16.131, p<.001), 자녀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05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83점)보다 더 높았다(t=-3.08, p<.01).

▌표 Ⅲ-25 ▌결혼가치관 - 부부가 따로 사는 것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0.3	28.1	29.3	25.0	7.3	2.91	
성별	여성	520	9.6	28.8	31.7	22.7	7.1	2.89	-0.581
	남성	505	11.1	27.3	26.7	27.3	7.5	2.93	
연령	20대	117	8.5	17.9	25.6	38.5	9.4	3.22	18.526***
	30대	111	8.1	11.7	27.9	36.9	15.3	3.40	
	40대	153	7.2	21.6	26.8	34.6	9.8	3.18	
	50대	206	12.6	18.4	34.5	24.8	9.7	3.00	
	60대	205	11.7	41.5	27.3	16.1	3.4	2.58	
	70대 이상	233	11.2	42.1	30.5	14.2	2.1	2.54	
지역	읍/면	242	8.7	42.1	24.4	19.0	5.8	2.71	-3.185**
	동	783	10.9	23.8	30.8	26.8	7.8	2.9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2.6	27.0	28.9	23.9	7.5	2.87	16.131***
	비혼	242	7.0	21.1	28.1	35.1	8.7	3.17	
	이혼·별거	59	5.1	15.3	44.1	25.4	10.2	3.20	
	사별	139	8.6	50.4	26.6	11.5	2.9	2.50	
자녀유무	있음	649	11.2	30.0	30.2	21.7	6.8	2.83	-3.08**
	없음	376	8.8	24.7	27.7	30.6	8.2	3.05	

**p<.01, ***p<.001

(7) 결혼가치관_결혼생활 계약서 작성

결혼생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7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25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3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15.281,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2.78점, 읍·면 지역이 2.59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았다(t=-2.448, p<.05).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15점), 이혼·별거(3.02점), 배우자 있음(2.62점), 사별(2.3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23.47,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2.98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60점)보다 더 높았다(t=-5.48, p<.001).

▌표 Ⅲ-26 ▌결혼가치관 - 결혼생활 계약서 작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2.5	32.3	30.7	18.0	6.4	2.74	
성별	여성	520	11.9	33.1	35.6	14.4	5.0	2.68	-1.831
	남성	505	13.1	31.5	25.7	21.8	7.9	2.80	
연령	20대	117	6.8	16.2	35.9	27.4	13.7	3.25	15.281***
	30대	111	9.9	17.1	40.5	22.5	9.9	3.05	
	40대	153	9.8	28.1	29.4	26.8	5.9	2.91	
	50대	206	12.6	28.2	35.9	16.5	6.8	2.77	
	60대	205	18.0	36.1	26.3	16.1	3.4	2.51	
	70대 이상	233	13.3	50.6	23.6	8.6	3.9	2.39	
지역	읍/면	242	13.6	42.1	23.6	13.2	7.4	2.59	-2.448*
	동	783	12.1	29.2	33.0	19.5	6.1	2.7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5.6	33.3	29.6	16.2	5.3	2.62	23.47***
	비혼	242	6.6	19.0	38.0	25.2	11.2	3.15	
	이혼·별거	59	8.5	25.4	30.5	27.1	8.5	3.02	
	사별	139	11.5	54.0	23.0	9.4	2.2	2.37	
자녀유무	있음	649	14.3	36.4	29.6	14.8	4.9	2.60	-5.48***
	없음	376	9.3	25.3	32.7	23.7	9.0	2.98	

*p<.05, ***p<.001

(8) 결혼가치관_자녀 어머니성 사용

자녀의 어머니성 사용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9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50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4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20.227,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33점), 이혼·별거(3.05점), 배우자 있음(2.89점), 사별(2.53점) 순으로 나타났다(F=18.049,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20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81점)보다 더 높았다(t=-5.56, p<.001).

▌표 Ⅲ-27▐ 결혼가치관 - 자녀 어머니성 사용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2.2	18.0	40.1	21.5	8.3	2.96	
성별	여성	520	11.9	17.7	39.0	22.5	8.8	2.99	0.869
	남성	505	12.5	18.2	41.2	20.4	7.7	2.93	
연령	20대	117	6.8	11.1	34.2	21.4	26.5	3.50	20.227***
	30대	111	5.4	14.4	32.4	35.1	12.6	3.35	
	40대	153	12.4	9.8	37.3	32.7	7.8	3.14	
	50대	206	9.7	20.9	35.4	26.7	7.3	3.01	
	60대	205	13.7	15.1	52.7	16.1	2.4	2.79	
	70대 이상	233	18.9	28.3	41.6	7.7	3.4	2.48	
지역	읍/면	242	12.0	18.6	47.1	17.4	5.0	2.85	-1.779
	동	783	12.3	17.8	37.9	22.7	9.3	2.9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3.0	20.0	37.6	23.6	5.8	2.89	18.049***
	비혼	242	7.4	9.9	40.9	25.2	16.5	3.33	
	이혼·별거	59	13.6	13.6	40.7	18.6	13.6	3.05	
	사별	139	16.5	25.2	48.9	7.2	2.2	2.53	
자녀유무	있음	649	14.6	19.9	40.2	20.0	5.2	2.81	-5.56***
	없음	376	8.0	14.6	39.9	23.9	13.6	3.20	

***p<.001

(9) 결혼가치관_비혼입양

비혼입양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7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94점, 여성이 2.62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485, p<.001).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32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2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27.02,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2.84점, 읍·면 지역이 2.60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았다(t=-3.036, p<.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23점), 이혼·별거(3.02점), 배우자 있음(2.71점), 사별(2.1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32.516,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2.98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66점)보다 더 높았다(t=-4.204, p<.001).

▌표 Ⅲ-28▐ 결혼가치관 - 비혼입양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6.2	25.9	29.7	20.6	7.7	2.78	
성별	여성	520	20.0	27.1	30.4	16.2	6.3	2.62	-4.485***
	남성	505	12.3	24.6	28.9	25.1	9.1	2.94	
연령	20대	117	3.4	15.4	38.5	31.6	11.1	3.32	27.02***
	30대	111	9.9	17.1	31.5	29.7	11.7	3.16	
	40대	153	8.5	16.3	37.3	27.5	10.5	3.15	
	50대	206	11.2	24.8	33.0	22.3	8.7	2.93	
	60대	205	23.4	33.2	24.9	15.1	3.4	2.42	
	70대 이상	233	28.8	36.1	20.6	9.4	5.2	2.26	
지역	읍/면	242	14.5	41.7	22.7	13.6	7.4	2.58	-3.036**
	동	783	16.7	20.9	31.8	22.7	7.8	2.8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8.3	25.5	29.2	20.9	6.2	2.71	32.516***
	비혼	242	5.4	19.4	35.1	26.9	13.2	3.23	
	이혼·별거	59	11.9	22.0	30.5	23.7	11.9	3.02	
	사별	139	28.1	40.3	21.6	7.2	2.9	2.17	
자녀유무	있음	649	19.9	25.9	28.7	19.3	6.3	2.66	-4.204***
	없음	376	9.8	25.8	31.4	22.9	10.1	2.98	

**p<.01, ***p<.001

(10) 결혼가치관_동성결혼

동성결혼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31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95점으로 가장 높고,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1.87점으로 가장 낮았다(F=23.898,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2.75점)과 이혼·별거(2.75점), 배우자 있음(2.20점), 사별(1.8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23.656,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2.55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16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4.679, p<.001).

▌표 Ⅲ-29▐ 결혼가치관 - 동성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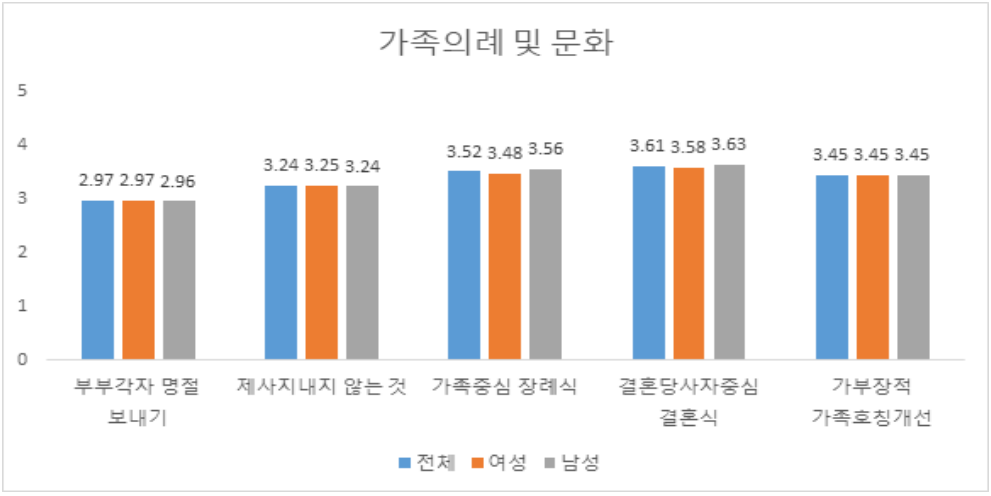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38.2	18.0	25.1	12.3	6.4	2.31	
성별	여성	520	38.3	19.2	27.1	9.4	6.0	2.26	-1.318
	남성	505	38.2	16.6	23.0	15.2	6.9	2.36	
연령	20대	117	20.5	8.5	41.0	15.4	14.5	2.95	23.898***
	30대	111	29.7	7.2	29.7	23.4	9.9	2.77	
	40대	153	29.4	20.3	26.8	15.0	8.5	2.53	
	50대	206	33.0	17.0	28.2	14.1	7.8	2.47	
	60대	205	52.7	20.5	17.6	5.9	3.4	1.87	
	70대 이상	233	48.9	24.9	17.6	7.7	0.9	1.87	
지역	읍/면	242	39.7	21.9	19.8	11.6	7.0	2.24	-0.89
	동	783	37.8	16.7	26.7	12.5	6.3	2.3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42.1	18.5	22.2	12.1	5.1	2.20	23.656***
	비혼	242	25.6	13.2	33.1	16.9	11.2	2.75	
	이혼·별거	59	22.0	16.9	35.6	15.3	10.2	2.75	
	사별	139	51.1	24.5	18.7	3.6	2.2	1.81	
자녀유무	있음	649	42.5	19.0	22.7	11.2	4.6	2.16	-4.679***
	없음	376	30.9	16.2	29.3	14.1	9.6	2.55	

***p<.001

6) 가족의례 및 문화

가족의례 및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평균 2.97점(5점척도)으로 나타났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3.24점,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은 3.52점, '결혼식을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은 3.61점, '가부장적 가족호칭을 개선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는 3.45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가족의례 및 문화

(1) 가족의례 및 문화_부부 각자 명절을 보내는 것

부부가 각자 명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97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41점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2.5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F=14.081, p<.001),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3.42점), 비혼(3.31점), 배우자 있음(2.87점), 사별(2.60점) 순으로 나타났다(F=15.459,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18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2.8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4.267, p<.001).

▌표 Ⅲ-30 ▌가족의례 및 문화 - 부부 각자 명절 보내는 것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2.1	27.8	21.2	29.2	9.8	2.97	
성별	여성	520	9.8	31.7	20.2	27.9	10.4	2.97	0.169
	남성	505	14.5	23.8	22.2	30.5	9.1	2.96	
연령	20대	117	4.3	23.9	21.4	33.3	17.1	3.35	14.081***
	30대	111	10.8	14.4	17.1	38.7	18.9	3.41	
	40대	153	11.1	17.0	30.7	30.1	11.1	3.13	
	50대	206	12.6	18.0	28.2	29.6	11.7	3.10	
	60대	205	14.6	36.1	19.5	25.4	4.4	2.69	
	70대 이상	233	14.6	44.6	12.0	24.9	3.9	2.59	
지역	읍/면	242	14.9	30.6	18.2	28.1	8.3	2.84	-1.836
	동	783	11.2	26.9	22.1	29.5	10.2	3.0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5.6	25.6	22.6	29.1	7.2	2.87	15.459***
	비혼	242	7.0	21.9	21.5	32.6	16.9	3.31	
	이혼·별거	59	1.7	23.7	23.7	32.2	18.6	3.42	
	사별	139	10.8	48.9	13.7	22.3	4.3	2.60	
자녀유무	있음	649	14.5	29.0	21.4	27.7	7.4	2.85	-4.267***
	없음	376	8.0	25.8	20.7	31.6	13.8	3.18	

***p<.001

(2) 가족의례 및 문화_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은 2.60점으로 가장 낮아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F=42.435, p<.001). 지역별 비교에서는 동 지역이 3.37점, 읍·면 지역이 2.85점으로 동 지역의 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t=-5.755,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70점), 이혼·별거(3.37점), 배우자 있음(3.20점), 사별(2.58점) 순으로 평균이 나타났으며(F=34.155, p<.001),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50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3.10점)보다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t=-5.143, p<.001).

▌표 Ⅲ-31 ▌가족의례 및 문화 -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8.5	21.6	27.0	22.8	20.1	3.24	
성별	여성	520	7.7	24.0	26.0	20.4	21.9	3.25	0.084
	남성	505	9.3	19.0	28.1	25.3	18.2	3.24	
연령	20대	117	1.7	6.8	36.8	26.5	28.2	3.73	42.435***
	30대	111	1.8	10.8	20.7	26.1	40.5	3.93	
	40대	153	5.2	9.8	22.9	33.3	28.8	3.71	
	50대	206	9.2	12.1	24.8	29.1	24.8	3.48	
	60대	205	12.2	32.7	30.2	17.1	7.8	2.76	
	70대 이상	233	13.3	40.3	27.0	12.0	7.3	2.60	
지역	읍/면	242	13.2	30.2	27.7	16.1	12.8	2.85	-5.755***
	동	783	7.0	18.9	26.8	24.9	22.3	3.3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1.1	20.5	25.6	22.4	20.3	3.20	34.155***
	비혼	242	2.9	9.9	30.6	27.7	28.9	3.70	
	이혼·별거	59	0.0	23.7	32.2	27.1	16.9	3.37	
	사별	139	10.8	45.3	24.5	14.4	5.0	2.58	
자녀유무	있음	649	10.8	24.0	27.3	20.6	17.3	3.10	-5.143***
	없음	376	4.5	17.3	26.6	26.6	25.0	3.50	

***p<.001

(3) 가족의례 및 문화_가족중심 장례

가족 중심 장례식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3.81점)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반면 70대 이상은 3.10점으로 가장 낮았다(F=15.111, p<.001). 지역별 비교에서는 동 지역이 3.59점, 읍·면 지역이 3.31점으로 동 지역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t=-3.678,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76점), 배우자 있음(3.50점), 이혼·별거(3.44점), 사별(3.20점) 순으로 평균이 나타났으며(F=13.511, p<.001),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69점)가 있는 응답자(3.42점)보다 동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t=-4.05, p<.001).

▌표 Ⅲ-32 ▌가족의례 및 문화 - 가족 중심 장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4.6	10.0	32.6	34.2	18.5	3.52	
성별	여성	520	4.2	11.2	34.6	32.3	17.7	3.48	-1.247
	남성	505	5.0	8.9	30.5	36.2	19.4	3.56	
연령	20대	117	2.6	6.8	29.9	28.2	32.5	3.81	15.111***
	30대	111	8.1	4.5	20.7	37.8	28.8	3.75	
	40대	153	2.6	9.8	24.2	42.5	20.9	3.69	
	50대	206	5.3	9.7	18.4	44.7	21.8	3.68	
	60대	205	4.9	11.2	34.6	35.6	13.7	3.42	
	70대 이상	233	4.3	13.7	55.8	19.7	6.4	3.10	
지역	읍/면	242	4.5	12.8	42.1	28.5	12.0	3.31	-3.678***
	동	783	4.6	9.2	29.6	36.0	20.6	3.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6.5	11.1	26.7	36.9	18.8	3.50	13.511***
	비혼	242	2.5	6.6	28.9	36.0	26.0	3.76	
	이혼·별거	59	3.4	13.6	33.9	33.9	15.3	3.44	
	사별	139	0.7	10.1	63.3	20.1	5.8	3.20	
자녀유무	있음	649	5.7	12.5	32.0	33.3	16.5	3.42	-4.05***
	없음	376	2.7	5.9	33.5	35.9	22.1	3.69	

***p<.001

(4) 가족의례 및 문화_결혼 당사자 중심 결혼식

결혼 당사자 중심의 결혼식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61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70대 이상은 3.39점으로 가장 낮았다(F=4.714, p<.001). 결혼상태별 비교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혼(3.84점)과 이혼·별거(3.75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배우자 있음(3.54점), 사별(3.44점) 순으로 이어졌다(F=8.232, p<.001).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77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3.51점)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t=-3.964, p<.001).

▌표 Ⅲ-33 ▌가족의례 및 문화 - 결혼 당사자 중심 결혼식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4.6	10.0	23.5	43.9	18.0	3.61	
성별	여성	520	4.0	12.1	22.7	44.2	16.9	3.58	-0.846
	남성	505	5.1	7.9	24.4	43.6	19.0	3.63	
연령	20대	117	3.4	5.1	29.1	28.2	34.2	3.85	4.714***
	30대	111	4.5	5.4	21.6	38.7	29.7	3.84	
	40대	153	5.9	6.5	23.5	43.8	20.3	3.66	
	50대	206	6.3	9.2	21.8	41.3	21.4	3.62	
	60대	205	4.9	11.2	21.5	51.2	11.2	3.53	
	70대 이상	233	2.6	16.7	24.9	50.2	5.6	3.39	
지역	읍/면	242	3.3	12.8	26.0	45.9	12.0	3.50	-1.748
	동	783	5.0	9.2	22.7	43.3	19.8	3.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6.8	11.3	21.2	42.9	17.8	3.54	8.232***
	비혼	242	1.2	5.0	27.3	41.7	24.8	3.84	
	이혼·별거	59	1.7	8.5	28.8	35.6	25.4	3.75	
	사별	139	2.2	14.4	24.5	55.4	3.6	3.44	
자녀유무	있음	649	6.2	12.3	21.6	43.9	16.0	3.51	-3.964***
	없음	376	1.9	6.1	26.9	43.9	21.3	3.77	

***p<.001

(5) 가족의례 및 문화_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

가부장적 호칭 개선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70대 이상은 3.19점으로 가장 낮았다 (F=5.456, p<.001). 결혼상태별 평균은 이혼·별거(3.54점)가 가장 높았으며, 비혼(3.48점)과 배우자 있음(3.48점), 사별(3.22점) 순으로 나타났다(F=3.205, p<.05).

▌표 Ⅲ-34 ▌가족의례 및 문화 -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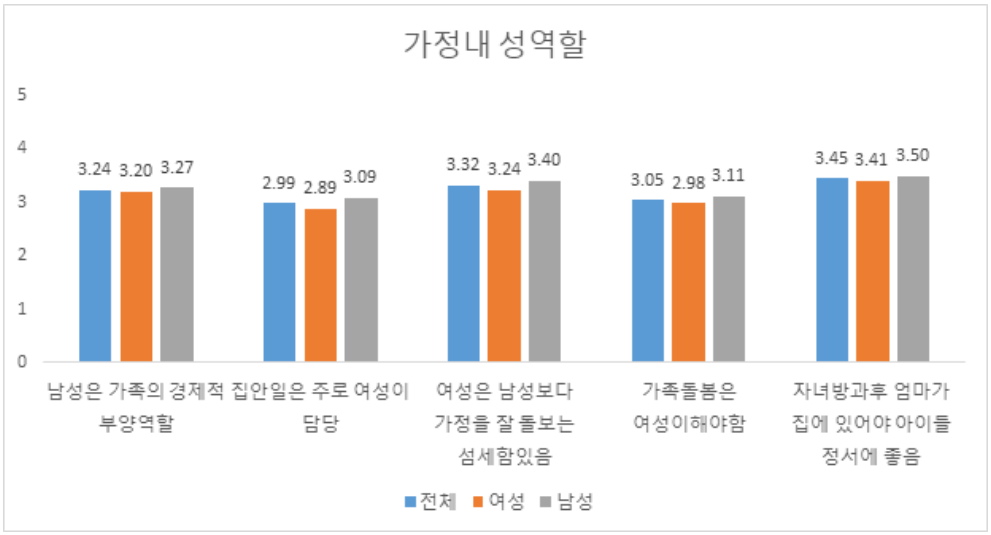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5.7	10.7	35.1	30.1	18.3	3.45	
성별	여성	520	6.9	11.9	31.9	28.1	21.2	3.45	-0.050
	남성	505	4.4	9.5	38.4	32.3	15.4	3.45	
연령	20대	117	5.1	19.7	29.9	23.9	21.4	3.37	5.456***
	30대	111	5.4	9.0	25.2	29.7	30.6	3.71	
	40대	153	7.8	11.1	22.2	32.7	26.1	3.58	
	50대	206	4.4	11.2	29.6	32.5	22.3	3.57	
	60대	205	3.9	8.8	42.4	31.7	13.2	3.41	
	70대 이상	233	7.3	8.2	49.4	28.3	6.9	3.19	
지역	읍/면	242	6.6	7.0	44.6	26.9	14.9	3.36	-1.428
	동	783	5.4	11.9	32.2	31.2	19.4	3.4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6.8	9.9	32.0	30.9	20.3	3.48	3.205*
	비혼	242	3.7	14.0	33.5	28.5	20.2	3.48	
	이혼·별거	59	3.4	6.8	40.7	30.5	18.6	3.54	
	사별	139	5.0	10.1	48.9	29.5	6.5	3.22	
자녀유무	있음	649	6.9	9.9	35.7	29.3	18.2	3.42	-1.116
	없음	376	3.5	12.2	34.0	31.6	18.6	3.50	

*p<.05, ***p<.001

7) 가정내 성역할

가정 내 성역할 인식에서 응답자들은 가족 돌봄과 양육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였다. 특히 '자녀 방과 후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는 항목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정을 잘 돌보는 섬세함이 있다'는 항목이 3.32점, '남성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항목은 3.2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항목은 3.05점, '집안일은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는 항목은 2.99점으로 중간값 수준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그림 Ⅲ-5▐ 가정내 성역할

(1) 가정내 성역할_경제적 부양은 주책임은 남성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24점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2.76점으로 가장 낮아 세대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F=50.295, p<.001). 지역별 비교에서는 읍·면 지역이 3.71점으로 동 지역(3.09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t=7.314, p<.001). 결혼상태별로는 사별(3.97점)이 가장 높았으며, 이혼·별거(3.29점), 배우자 있음(3.14점), 비혼(3.03점) 순으로 나타났다(F=36.344, p<.001).

▌표 Ⅲ-35 ▌가정내 성역할 - 경제적 부양 주책임은 남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9.7	19.1	22.9	34.4	13.9	3.24	
성별	여성	520	10.2	20.4	20.2	37.3	11.9	3.20	-0.905
	남성	505	9.1	17.8	25.7	31.5	15.8	3.27	
연령	20대	117	17.1	19.7	22.2	27.4	13.7	3.01	50.295***
	30대	111	13.5	36.0	19.8	22.5	8.1	2.76	
	40대	153	12.4	28.8	28.8	22.2	7.8	2.84	
	50대	206	17.0	22.3	34.0	19.9	6.8	2.77	
	60대	205	3.9	13.7	23.4	38.0	21.0	3.59	
	70대 이상	233	0.9	6.4	10.7	61.4	20.6	3.94	
지역	읍/면	242	5.0	12.0	14.5	43.8	24.8	3.71	7.314***
	동	783	11.1	21.3	25.5	31.5	10.5	3.0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0.6	20.3	26.7	28.9	13.5	3.14	36.344***
	비혼	242	11.6	26.0	21.5	29.8	11.2	3.03	
	이혼·별거	59	10.2	11.9	25.4	44.1	8.5	3.29	
	사별	139	2.2	5.0	8.6	61.9	22.3	3.97	
자녀유무	있음	649	9.1	17.9	24.0	34.1	14.9	3.28	1.476
	없음	376	10.6	21.3	21.0	35.1	12.0	3.16	

***p<.001

(2) 가정내 성역할_집안일은 주책임은 여성

'집안일은 주로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2.99점으로 중간값(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3.09점, 여성이 2.89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다(t=-2.809, p<.01). 연령별로는 70대 이상(3.54점)이 가장 높았고, 40대는 2.61점으로 가장 낮았다(F=26.97, p<.001). 지역별 비교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읍·면 지역(3.33점)이 동 지역(2.88점)보다 높았다(t=5.227, p<.001). 결혼상태별 평균은 사별(3.50점), 이혼·별거(3.19점), 배우자 있음(2.89점), 비혼(2.89점) 순으로 나타났다(F=20.078, p<.001).

▌표 Ⅲ-36 ▌가정내 성역할 - 집안일은 주책임은 여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2.7	22.1	27.7	28.7	8.8	2.99	
성별	여성	520	16.0	21.0	28.7	27.3	7.1	2.89	-2.809**
	남성	505	9.3	23.4	26.7	30.1	10.5	3.09	
연령	20대	117	19.7	21.4	22.2	22.2	14.5	2.91	26.97***
	30대	111	17.1	35.1	18.9	24.3	4.5	2.64	
	40대	153	20.3	30.7	22.9	20.3	5.9	2.61	
	50대	206	20.4	25.7	26.2	15.5	12.1	2.73	
	60대	205	6.8	21.5	29.8	35.6	6.3	3.13	
	70대 이상	233	0.4	8.2	37.3	45.1	9.0	3.54	
지역	읍/면	242	9.5	10.7	28.1	40.9	10.7	3.33	5.227***
	동	783	13.7	25.7	27.6	24.9	8.2	2.8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5.4	23.2	27.4	25.5	8.5	2.89	20.078***
	비혼	242	12.8	29.8	22.7	25.2	9.5	2.89	
	이혼·별거	59	11.9	10.2	40.7	22.0	15.3	3.19	
	사별	139	1.4	9.4	32.4	51.1	5.8	3.50	
자녀유무	있음	649	12.8	19.6	30.7	27.7	9.2	3.01	0.844
	없음	376	12.5	26.6	22.6	30.3	8.0	2.95	

**p<.01, ***p<.001

(3) 가정내 성역할_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이 있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 3.32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40점, 여성이 3.24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다(t=-2.635, p<.01). 연령별로는 70대 이상과 60대가 각각 3.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3.11점으로 가장 낮았다(F=3.932, p<.01). 결혼상태별 평균은 사별(3.45점), 배우자 있음(3.35점), 이혼·별거(3.22점), 비혼(3.18점) 순으로 나타났다(F=2.976, p<.05).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3.38점)가 없는 응답자(3.21점)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t=2.59, p<.01).

▌표 Ⅲ-37 ▐ 가정내 성역할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이 있음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5.1	12.7	38.4	33.1	10.7	3.32	
성별	여성	520	5.2	14.0	40.2	33.1	7.5	3.24	-2.635**
	남성	505	5.0	11.3	36.6	33.1	14.1	3.40	
연령	20대	117	11.1	17.1	35.0	21.4	15.4	3.13	3.932**
	30대	111	9.9	17.1	36.9	24.3	11.7	3.11	
	40대	153	7.8	15.0	33.3	35.9	7.8	3.21	
	50대	206	5.3	15.0	32.0	38.3	9.2	3.31	
	60대	205	1.5	8.8	42.9	35.6	11.2	3.46	
	70대 이상	233	0.9	8.2	45.9	34.3	10.7	3.46	
지역	읍/면	242	3.3	11.2	49.2	26.9	9.5	3.28	-0.688
	동	783	5.6	13.2	35.1	35.0	11.1	3.3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4.4	13.2	36.1	35.2	11.1	3.35	2.976*
	비혼	242	9.5	14.9	36.8	26.0	12.8	3.18	
	이혼·별거	59	3.4	16.9	40.7	32.2	6.8	3.22	
	사별	139	0.7	5.0	50.4	36.7	7.2	3.45	
자녀유무	있음	649	3.1	12.5	37.9	36.4	10.2	3.38	2.59**
	없음	376	8.5	13.0	39.4	27.4	11.7	3.21	

*p<.05, **p<.01

(4) 가정내 성역할_가족돌봄은 주책임은 여성

'가족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05점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2.67점으로 가장 낮았다(F=27.617, p<.001). 지역별 비교에서는 읍·면 지역이 3.34점으로 동 지역(2.96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t=4.711, p<.001). 결혼상태별 평균은 사별(3.56점), 이혼·별거(3.14점), 배우자 있음(3.02점), 비혼(2.78점) 순으로 나타났다(F=21.351, p<.001). 자녀 유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가 있는 응답자(3.13점)가 없는 응답자(2.90점)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t=3.098, p<.01).

▌표 Ⅲ-38 ▌가정내 성역할 - 가족돌봄 주책임은 여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1.3	19.4	29.6	32.8	6.9	3.05	
성별	여성	520	12.5	21.2	28.1	32.3	6.0	2.98	-1.893
	남성	505	10.1	17.6	31.1	33.3	7.9	3.11	
연령	20대	117	17.1	21.4	41.9	17.1	2.6	2.67	27.617***
	30대	111	18.0	25.2	27.9	20.7	8.1	2.76	
	40대	153	15.7	28.1	28.1	21.6	6.5	2.75	
	50대	206	16.5	24.8	31.1	20.4	7.3	2.77	
	60대	205	6.8	13.7	27.8	42.9	8.8	3.33	
	70대 이상	233	1.7	10.3	25.3	55.8	6.9	3.56	
지역	읍/면	242	9.9	11.2	21.5	50.0	7.4	3.34	4.711***
	동	783	11.7	22.0	32.1	27.5	6.8	2.9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2.0	21.4	27.4	30.9	8.4	3.02	21.351***
	비혼	242	14.9	21.1	38.0	23.1	2.9	2.78	
	이혼·별거	59	10.2	16.9	32.2	30.5	10.2	3.14	
	사별	139	2.9	9.4	23.0	58.3	6.5	3.56	
자녀유무	있음	649	10.2	19.1	26.7	35.9	8.2	3.13	3.098**
	없음	376	13.3	19.9	34.6	27.4	4.8	2.90	

**p<.01, ***p<.001

(5) 가정내 성역할_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 정서가 좋음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 정서가 좋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45점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F=16.663, p<.001). 읍·면 지역은 3.74점, 동 지역은 3.36점으로, 읍·면 지역 응답자의 동의 수준이 더 높은 편이었다(t=4.534, p<.001). 결혼상태별로는 사별(3.88점), 배우자 있음(3.47점), 이혼·별거(3.39점), 비혼(3.18점) 순으로 평균이 나타났다(F=12.776, p<.001). 자녀유무에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3.56점, 없는 응답자는 3.26점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t=4.065, p<.001).

▌표 Ⅲ-39 ▌가정내 성역할 -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 정서가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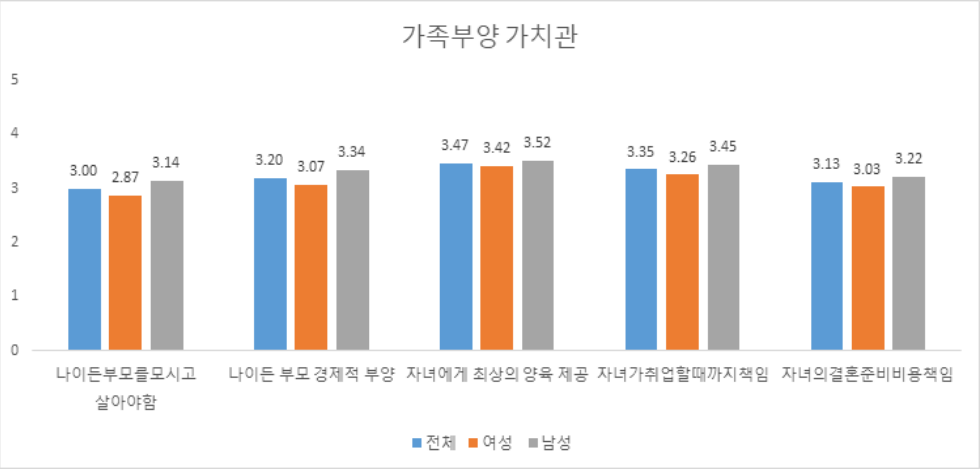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6.3	13.5	29.9	29.2	21.2	3.45	
성별	여성	520	6.3	16.0	28.7	28.5	20.6	3.41	-1.245
	남성	505	6.3	10.9	31.1	29.9	21.8	3.50	
연령	20대	117	15.4	20.5	36.8	17.1	10.3	2.86	16.663***
	30대	111	10.8	17.1	30.6	27.0	14.4	3.17	
	40대	153	9.2	14.4	30.7	26.8	19.0	3.32	
	50대	206	7.3	16.0	27.2	30.6	18.9	3.38	
	60대	205	2.4	12.2	25.9	33.2	26.3	3.69	
	70대 이상	233	0.4	6.4	31.3	33.0	28.8	3.83	
지역	읍/면	242	3.7	9.5	28.1	26.0	32.6	3.74	4.534***
	동	783	7.2	14.7	30.4	30.1	17.6	3.3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6.3	14.2	27.7	29.4	22.4	3.47	12.776***
	비혼	242	9.5	16.5	34.7	25.2	14.0	3.18	
	이혼·별거	59	3.4	11.9	37.3	37.3	10.2	3.39	
	사별	139	2.2	5.8	27.3	31.7	33.1	3.88	
자녀유무	있음	649	5.1	11.7	28.5	31.1	23.6	3.56	4.065***
	없음	376	8.5	16.5	32.2	25.8	17.0	3.26	

***p<.001

8) 가족부양 가치관

가족부양과 관련해,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3.00점(5점척도)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3.20점,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3.47점,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3.35점,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서는 3.1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부모 부양 규범은 약화되는 반면,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6▐ 가족부양 가치관

(1) 가족부양_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함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00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14점, 여성이 2.87점으로 남성이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t=-4.193, p<.001).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3.13점, 동 지역이 2.96점으로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t=2.172, p<.05).

▌표 Ⅲ-40▐ 가족부양 -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함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7.8	25.2	32.9	27.5	6.6	3.00	
성별	여성	520	8.8	30.8	31.0	23.8	5.6	2.87	-4.193***
	남성	505	6.7	19.4	34.9	31.3	7.7	3.14	
연령	20대	117	8.5	26.5	28.2	29.1	7.7	3.01	1.291
	30대	111	13.5	25.2	28.8	26.1	6.3	2.86	
	40대	153	7.2	24.2	33.3	24.8	10.5	3.07	
	50대	206	13.6	21.4	28.6	26.2	10.2	2.98	
	60대	205	5.4	27.3	42.0	20.5	4.9	2.92	
	70대 이상	233	2.1	26.6	32.6	36.5	2.1	3.10	
지역	읍/면	242	4.1	25.6	29.8	34.3	6.2	3.13	2.172*
	동	783	8.9	25.0	33.8	25.4	6.8	2.9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8.5	24.3	35.9	23.9	7.4	2.97	0.925
	비혼	242	7.4	26.4	26.4	31.0	8.7	3.07	
	이혼·별거	59	15.3	18.6	33.9	28.8	3.4	2.86	
	사별	139	2.2	29.5	30.9	36.0	1.4	3.05	
자녀유무	있음	649	7.9	24.7	34.4	26.5	6.6	2.99	-0.246
	없음	376	7.7	26.1	30.3	29.3	6.6	3.01	

*p<.05, ***p<.001

(2) 가족부양_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함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20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34점, 여성이 3.07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다(t=-4.487, p<.001). 연령별로는 20대가 3.32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는 3.04점으로 가장 낮았다(F=2.934, p<.05). 결혼상태별 평균은 비혼(3.32점), 배우자 있음(3.20점), 사별(3.08점), 이혼·별거(3.00점) 순으로 나타났다(F=2.932, p<.05).

▌표 Ⅲ-41 ▌가족부양 -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함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3.8	18.0	41.5	27.9	8.9	3.20	
성별	여성	520	4.8	20.4	44.0	24.6	6.2	3.07	-4.487***
	남성	505	2.8	15.4	38.8	31.3	11.7	3.34	
연령	20대	117	2.6	16.2	38.5	32.5	10.3	3.32	2.934*
	30대	111	10.8	18.0	28.8	32.4	9.9	3.13	
	40대	153	5.2	13.1	39.2	34.6	7.8	3.27	
	50대	206	3.4	21.4	27.7	31.6	16.0	3.35	
	60대	205	2.9	22.9	48.3	19.0	6.8	3.04	
	70대 이상	233	1.3	14.6	56.7	23.6	3.9	3.14	
지역	읍/면	242	3.3	16.1	47.9	24.0	8.7	3.19	-0.278
	동	783	4.0	18.5	39.5	29.1	8.9	3.2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3.2	19.8	39.5	28.4	9.1	3.20	2.932*
	비혼	242	4.1	15.3	36.8	32.2	11.6	3.32	
	이혼·별거	59	13.6	18.6	30.5	28.8	8.5	3.00	
	사별	139	1.4	14.4	62.6	18.0	3.6	3.08	
자녀유무	있음	649	4.0	19.0	40.8	27.6	8.6	3.18	-0.972
	없음	376	3.5	16.2	42.6	28.5	9.3	3.24	

*p<.05, ***p<.001

(3) 가족부양_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함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의 평균 점수는 3.4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3.61점)와 50대(3.61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70대 이상(3.32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연령대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329, p<.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3.58점) 집단이 가장 높고, 이혼·별거(3.03점) 집단이 가장 낮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8.868, p<.001).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3.53점)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36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여,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784, p<.01).

▌표 Ⅲ-42 ▌가족부양 -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함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3.3	11.8	32.2	40.3	12.4	3.47	
성별	여성	520	2.5	13.8	32.5	41.7	9.4	3.42	-1.651
	남성	505	4.2	9.7	31.9	38.8	15.4	3.52	
연령	20대	117	4.3	16.2	32.5	34.2	12.8	3.35	3.329**
	30대	111	2.7	16.2	28.8	36.9	15.3	3.46	
	40대	153	2.0	10.5	26.8	45.8	15.0	3.61	
	50대	206	5.8	7.3	26.2	41.3	19.4	3.61	
	60대	205	3.9	11.2	33.2	40.0	11.7	3.44	
	70대 이상	233	1.3	12.9	41.6	40.8	3.4	3.32	
지역	읍/면	242	4.1	11.6	34.7	39.7	9.9	3.40	-1.284
	동	783	3.1	11.9	31.4	40.5	13.2	3.4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7	9.4	31.1	41.0	15.7	3.58	8.868***
	비혼	242	4.5	14.9	27.7	40.9	12.0	3.41	
	이혼·별거	59	8.5	16.9	40.7	30.5	3.4	3.03	
	사별	139	1.4	14.4	41.0	40.3	2.9	3.29	
자녀유무	있음	649	2.8	10.2	32.0	41.3	13.7	3.53	2.784**
	없음	376	4.3	14.6	32.4	38.6	10.1	3.36	

**p<.01, ***p<.001

(4) 가족부양_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함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평균 점수는 3.35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남성(3.45점)이 여성(3.26점)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3.064, p<.01).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3.48점)이 동 지역(3.3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읍·면 거주자가 부모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35, p<.05).

▌표 Ⅲ-43 ▌가족부양 -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함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4.1	15.6	31.6	38.4	10.2	3.35	
성별	여성	520	4.8	17.5	33.8	34.8	9.0	3.26	-3.064**
	남성	505	3.4	13.7	29.3	42.2	11.5	3.45	
연령	20대	117	3.4	14.5	28.2	41.0	12.8	3.45	0.84
	30대	111	6.3	24.3	23.4	29.7	16.2	3.25	
	40대	153	5.2	15.0	33.3	34.0	12.4	3.33	
	50대	206	5.8	18.4	31.1	31.1	13.6	3.28	
	60대	205	3.9	13.7	32.7	42.4	7.3	3.36	
	70대 이상	233	1.3	11.6	35.6	47.2	4.3	3.42	
지역	읍/면	242	2.1	12.4	29.8	46.7	9.1	3.48	2.535*
	동	783	4.7	16.6	32.2	35.9	10.6	3.3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4.3	15.9	31.1	36.1	12.6	3.37	1.707
	비혼	242	3.7	15.3	32.6	38.8	9.5	3.35	
	이혼·별거	59	6.8	22.0	33.9	32.2	5.1	3.07	
	사별	139	2.9	12.2	30.9	50.4	3.6	3.40	
자녀유무	있음	649	4.0	16.3	30.2	38.2	11.2	3.36	0.524
	없음	376	4.3	14.4	34.0	38.8	8.5	3.33	

*p<.05, **p<.01

(5) 가족부양_부모는 자녀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함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13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점, 여성이 3.03점으로 남성이 더 높았다(t=-2.925, p<.01). 연령별로는 20대가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2.90점으로 가장 낮았다(F=6.634, p<.001). 지역별 비교에서는 읍·면 지역이 3.26점, 동 지역이 3.08점으로 읍·면 지역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t=2.262, p<.05). 결혼상태별 평균은 사별(3.39점), 비혼(3.11점), 배우자 있음(3.09점), 이혼·별거(2.94점) 순으로 나타났다(F=4.526, p<.01).

▌표 Ⅲ-44 ▌가족부양 - 부모는 자녀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함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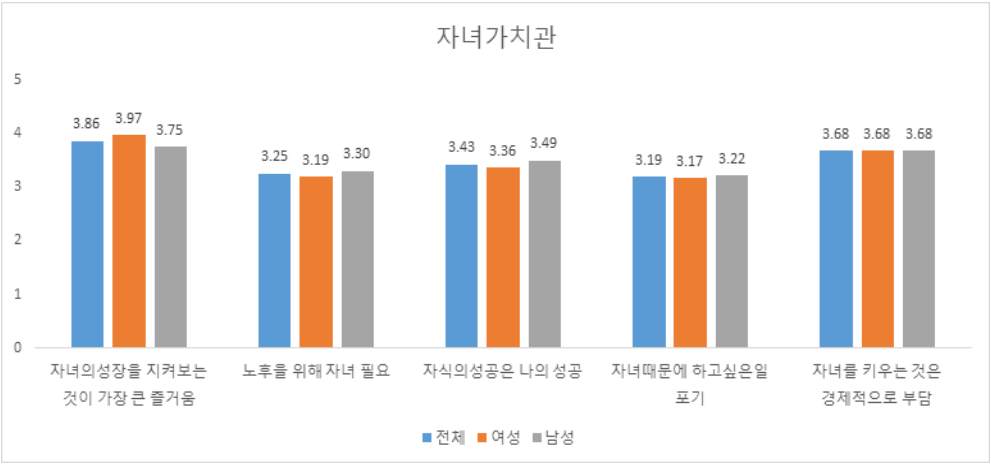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6.6	21.6	33.6	29.1	9.2	3.13	
성별	여성	520	8.3	23.1	32.9	28.8	6.9	3.03	-2.925**
	남성	505	5.0	20.0	34.3	29.3	11.5	3.22	
연령	20대	117	6.8	17.9	27.4	29.9	17.9	3.34	6.634***
	30대	111	14.4	23.4	29.7	22.5	9.9	2.90	
	40대	153	6.5	29.4	35.3	19.0	9.8	2.96	
	50대	206	12.1	23.3	35.4	19.9	9.2	2.91	
	60대	205	2.9	18.5	38.5	31.7	8.3	3.24	
	70대 이상	233	1.3	18.5	31.3	44.2	4.7	3.33	
지역	읍/면	242	5.4	17.8	32.2	34.7	9.9	3.26	2.262*
	동	783	7.0	22.7	34.0	27.3	8.9	3.0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6.5	22.1	36.2	26.7	8.5	3.09	4.526**
	비혼	242	7.9	24.4	29.3	25.6	12.8	3.11	
	이혼·별거	59	11.9	20.3	37.3	22.0	8.5	2.95	
	사별	139	2.9	15.1	28.1	48.2	5.8	3.39	
자녀유무	있음	649	5.1	21.0	36.1	29.7	8.2	3.15	0.906
	없음	376	9.3	22.6	29.3	27.9	10.9	3.09	

*p<.05, **p<.01, ***p<.001

9)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가 평균 3.86점,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3.25점,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는 3.43점,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3.19점,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3.6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가치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높게 인식하는 양가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행복 원천인 동시에, 양육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실적·경제적 어려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Ⅲ-7 ▌자녀가치관

(1) 자녀가치관_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8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97점, 남성이 3.75점으로 여성의 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t=3.783, p<.001). 연령별로는 60대가 4.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3.51점으로 가장 낮았다(F=8.044, p<.001). 결혼상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19.493, p<.001) 배우자 있음(4.04점), 사별(3.92점), 비혼(3.49점), 이혼·별거(3.44점) 순으로 평균이 나타났다.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4.04점)가 없는 응답자(3.55점)보다 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t=7.839, p<.001).

▌표 Ⅲ-45 ▌자녀가치관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2.5	6.4	14.9	54.5	21.6	3.86	
성별	여성	520	1.5	4.2	12.9	58.7	22.7	3.97	3.783***
	남성	505	3.6	8.7	17.0	50.3	20.4	3.75	
연령	20대	117	7.7	12.8	17.1	40.2	22.2	3.56	8.044***
	30대	111	6.3	17.1	19.8	32.4	24.3	3.51	
	40대	153	1.3	7.2	22.9	46.4	22.2	3.81	
	50대	206	3.9	7.3	14.1	45.6	29.1	3.89	
	60대	205	0.0	2.9	9.3	65.9	22.0	4.07	
	70대 이상	233	0.0	0.0	12.0	75.5	12.4	4.00	
지역	읍/면	242	1.2	2.9	11.6	69.8	14.5	3.93	1.675
	동	783	2.9	7.5	16.0	49.8	23.8	3.8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7	3.1	14.4	55.0	26.8	4.04	19.493***
	비혼	242	7.9	15.3	16.9	39.7	20.2	3.49	
	이혼·별거	59	3.4	15.3	27.1	42.4	11.9	3.44	
	사별	139	0.7	1.4	8.6	83.5	5.8	3.92	
자녀유무	있음	649	0.2	2.8	14.2	58.2	24.7	4.04	7.839***
	없음	376	6.6	12.8	16.2	48.1	16.2	3.55	

***p<.001

(2) 자녀가치관_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함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25점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3.34점)이 가장 높았으며, 비혼(3.17점), 이혼·별거(3.08점), 사별(3.05점)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F=5.006, p<.01). 자녀 유무별 비교에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3.34점)가 없는 응답자(3.09점)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t=3.784, p<.001).

▌표 Ⅲ-46 ▌자녀가치관 -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함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3.4	18.6	41.0	23.8	13.2	3.25	
성별	여성	520	2.7	21.2	41.5	23.3	11.3	3.19	-1.687
	남성	505	4.2	16.0	40.4	24.4	15.0	3.30	
연령	20대	117	6.0	18.8	29.1	31.6	14.5	3.30	0.622
	30대	111	8.1	20.7	29.7	32.4	9.0	3.14	
	40대	153	2.6	24.2	39.9	20.3	13.1	3.17	
	50대	206	5.3	16.5	36.4	24.8	17.0	3.32	
	60대	205	1.5	18.5	43.9	24.4	11.7	3.26	
	70대 이상	233	0.4	15.9	54.5	16.7	12.4	3.25	
지역	읍/면	242	2.9	19.8	45.5	18.2	13.6	3.20	-0.851
	동	783	3.6	18.3	39.6	25.5	13.0	3.2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7	17.3	38.5	26.2	15.4	3.34	5.006**
	비혼	242	5.4	19.4	39.7	24.0	11.6	3.17	
	이혼·별거	59	6.8	22.0	39.0	20.3	11.9	3.08	
	사별	139	1.4	21.6	54.7	15.1	7.2	3.05	
자녀유무	있음	649	2.2	16.9	41.1	24.5	15.3	3.34	3.784***
	없음	376	5.6	21.5	40.7	22.6	9.6	3.09	

**p<.01, ***p<.001

(3) 자녀가치관_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음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43점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F=8.925, p<.001). 지역별 비교에서는 읍·면 지역이 3.63점, 동 지역이 3.36점으로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t=3.786, p<.0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3.56점)과 사별(3.53점)이 높은 편이었고, 이혼·별거(3.20점), 비혼(3.10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F=10.472,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3.62점)가 없는 응답자(3.10점)보다 더 높았다(t=7.474, p<.001).

▌표 Ⅲ-47 ▌자녀가치관 -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음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5.8	12.9	28.8	38.1	14.4	3.43	
성별	여성	520	5.2	14.6	31.5	36.0	12.7	3.36	-1.918
	남성	505	6.3	11.1	25.9	40.4	16.2	3.49	
연령	20대	117	16.2	15.4	21.4	40.2	6.8	3.06	8.925***
	30대	111	14.4	20.7	19.8	28.8	16.2	3.12	
	40대	153	3.9	19.0	35.9	29.4	11.8	3.26	
	50대	206	6.8	9.7	29.6	32.0	21.8	3.52	
	60대	205	2.0	11.2	31.2	42.4	13.2	3.54	
	70대 이상	233	0.0	8.2	29.2	48.9	13.7	3.68	
지역	읍/면	242	2.5	7.9	26.9	50.0	12.8	3.63	3.786***
	동	783	6.8	14.4	29.4	34.5	14.9	3.3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3.8	11.5	28.4	38.1	18.3	3.56	10.472***
	비혼	242	12.0	18.2	26.4	34.3	9.1	3.10	
	이혼·별거	59	11.9	11.9	33.9	28.8	13.6	3.20	
	사별	139	0.7	10.1	32.4	48.9	7.9	3.53	
자녀유무	있음	649	2.6	10.0	28.4	41.0	18.0	3.62	7.474***
	없음	376	11.2	17.8	29.5	33.2	8.2	3.10	

***p<.001

(4) 자녀가치관_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함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19점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2.90점으로 가장 낮았다(F=8.262, p<.001).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3.39점, 동 지역은 3.13점으로 읍·면 지역의 평균이 더 높았다(t=3.562, p<.001). 결혼상태별 평균은 사별(3.47점), 배우자 있음(3.23점), 이혼·별거(3.08점), 비혼(2.95점) 순으로 나타났다(F=11.402, p<.001).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3.31점)가 없는 응답자(2.98점)보다 평균이 높았다(t=5.049, p<.001).

▌표 Ⅲ-48 ▌자녀가치관 -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함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6.0	17.0	37.7	30.8	8.6	3.19	
성별	여성	520	5.4	18.7	37.7	30.6	7.7	3.17	-0.8290
	남성	505	6.5	15.2	37.6	31.1	9.5	3.22	
연령	20대	117	12.8	17.9	42.7	19.7	6.8	2.90	8.262***
	30대	111	9.9	22.5	32.4	21.6	13.5	3.06	
	40대	153	6.5	24.2	32.0	26.1	11.1	3.11	
	50대	206	8.3	18.0	40.3	23.3	10.2	3.09	
	60대	205	3.9	16.6	33.7	39.0	6.8	3.28	
	70대 이상	233	0.0	8.6	42.5	43.3	5.6	3.46	
지역	읍/면	242	5.4	10.3	33.5	41.3	9.5	3.39	3.562***
	동	783	6.1	19.0	39.0	27.6	8.3	3.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5.3	18.1	35.4	30.4	10.8	3.23	11.402***
	비혼	242	9.9	20.2	40.5	23.1	6.2	2.95	
	이혼·별거	59	10.2	11.9	44.1	27.1	6.8	3.08	
	사별	139	0.0	8.6	39.6	47.5	4.3	3.47	
자녀유무	있음	649	4.0	14.9	37.4	33.1	10.5	3.31	5.049***
	없음	376	9.3	20.5	38.0	26.9	5.3	2.98	

***p<.001

(5) 자녀가치관_자녀양육은 경제적으로 부담됨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68점이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배우자 있음(3.73점)이 가장 높았고, 사별(3.68점), 비혼(3.65점), 이혼·별거(3.27점)순으로 나타났다(F=4.283, p<.01).

▌표 Ⅲ-49▐ 자녀가치관 - 자녀양육은 경제적으로 부담됨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3.1	6.9	27.5	43.9	18.5	3.68	
성별	여성	520	2.7	5.6	29.4	45.8	16.5	3.68	0.027
	남성	505	3.6	8.3	25.5	42.0	20.6	3.68	
연령	20대	117	3.4	5.1	44.4	30.8	16.2	3.51	2.118
	30대	111	3.6	6.3	19.8	45.0	25.2	3.82	
	40대	153	3.3	5.9	26.8	41.2	22.9	3.75	
	50대	206	6.3	9.7	24.3	38.8	20.9	3.58	
	60대	205	2.0	7.8	21.5	48.3	20.5	3.78	
	70대 이상	233	0.9	5.6	31.3	52.4	9.9	3.65	
지역	읍/면	242	2.9	8.3	23.1	45.0	20.7	3.72	0.839
	동	783	3.2	6.5	28.9	43.6	17.9	3.6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9	6.5	25.0	45.8	19.8	3.73	4.283**
	비혼	242	4.1	7.0	29.3	38.8	20.7	3.65	
	이혼·별거	59	6.8	11.9	33.9	42.4	5.1	3.27	
	사별	139	0.7	6.5	32.4	45.3	15.1	3.68	
자녀유무	있음	649	2.8	6.9	28.0	43.3	19.0	3.69	0.403
	없음	376	3.7	6.9	26.6	44.9	17.8	3.66	

**p<.01

3. 가족형성

1) 혼인신고 여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97.3%였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주로 20대에 집중되어 있었고(x^2=28.799, p<.001),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1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x^2=38.397, p<.001). 이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주로 20대와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표 Ⅲ-50▐ 혼인신고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혼인신고 했음	혼인신고 하지 않음	x^2
전체		585	97.3	2.7	
성별	여성	299	96.7	3.3	0.854
	남성	286	97.9	2.1	
연령	20대	7	71.4	28.6	28.799***
	30대	56	91.1	8.9	
	40대	112	98.2	1.8	
	50대	158	99.4	0.6	
	60대	158	97.5	2.5	
	70대 이상	94	97.9	2.1	
지역	읍/면	124	95.2	4.8	2.618
	동	461	97.8	2.2	
자녀유무	있음	513	98.8	1.2	38.397***
	없음	72	86.1	13.9	

***p<.001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37.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서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25.0%),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1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할 수 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형식에 대한 거부감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5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재산 상속 등의 이유로	기혼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전체		16	37.5	25.0	18.8	6.3	6.3	6.3
성별	여성	10	40.0	20.0	20.0	10.0	0.0	10.0
	남성	6	33.3	33.3	16.7	0.0	16.7	0.0
연령	20대	2	0.0	0.0	0.0	50.0	50.0	0.0
	30대	5	60.0	20.0	0.0	0.0	0.0	20.0
	40대	2	0.0	50.0	50.0	0.0	0.0	0.0
	50대	1	100.0	0.0	0.0	0.0	0.0	0.0
	60대	4	50.0	0.0	50.0	0.0	0.0	0.0
	70대 이상	2	0.0	100.0	0.0	0.0	0.0	0.0
지역	읍/면	6	16.7	33.3	50.0	0.0	0.0	0.0
	동	10	50.0	20.0	0.0	10.0	10.0	10.0
자녀유무	있음	6	33.3	33.3	16.7	16.7	0.0	0.0
	없음	10	40.0	20.0	20.0	0.0	10.0	10.0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어려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겪는 어려움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이 62.5%로 가장 많았다. '주택청약이나 대출 이용 제한과 같은 제도적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7.5%로 나타났다. 한편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5.0%였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신고 여부가 법적 권리 보장과 제도 이용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52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어려움(중복응답)

(단위: 명, %)

		사례수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	주택청약, 대출 등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재산 상속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함	어려움 없음
전체		16	62.5	37.5	25.0	18.8	12.5	25.0
성별	여성	10	60.0	30.0	40.0	10.0	10.0	20.0
	남성	6	66.7	50.0	0.0	33.3	16.7	33.3
연령	20대	2	100.0	50.0	50.0	50.0	50.0	0.0
	30대	5	40.0	20.0	0.0	20.0	0.0	60.0
	40대	2	50.0	50.0	0.0	0.0	0.0	50.0
	50대	1	100.0	0.0	100.0	0.0	0.0	0.0
	60대	4	75.0	75.0	0.0	25.0	25.0	0.0
	70대 이상	2	50.0	0.0	100.0	0.0	0.0	0.0
지역	읍/면	6	50.0	50.0	33.3	0.0	16.7	16.7
	동	10	70.0	30.0	20.0	30.0	10.0	30.0
자녀유무	있음	6	66.7	16.7	66.7	16.7	16.7	0.0
	없음	10	60.0	50.0	0.0	20.0	10.0	40.0

주: 사례수를 기준으로 구한 비율로 전체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4) 미성년 자녀 수

미성년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22, p<.001).

▌표 Ⅲ-53▐ 미성년 자녀 수

(단위: 명, %)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명)	t / F
전체		274	36.1	51.5	9.1	2.6	0.7	1.8	
성별	여성	137	35.8	51.1	9.5	2.9	0.7	1.8	-0.231
	남성	137	36.5	51.8	8.8	2.2	0.7	1.8	
연령	20대	5	80.0	20.0	0.0	0.0	0.0	1.2	
	30대	40	67.5	27.5	5.0	0.0	0.0	1.4	
	40대	105	31.4	58.1	6.7	2.9	1.0	1.9	5.222***
	50대	117	27.4	56.4	13.7	1.7	0.9	1.9	
	60대	7	42.9	28.6	0.0	28.6	0.0	2.1	
지역	읍/면	37	32.4	48.6	8.1	8.1	2.7	2.0	1.853
	동	237	36.7	51.9	9.3	1.7	0.4	1.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60	35.0	51.9	9.6	2.7	0.8	1.8	
	비혼	2	100.0	0.0	0.0	0.0	0.0	1.0	2.093
	이혼·별거	12	50.0	50.0	0.0	0.0	0.0	1.5	

***p<.001

5) 자녀계획여부

향후(추가)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8.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1.3%로 여성보다 비율이 높았다(χ^2=7.809, p<.01).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χ^2=257.481,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 응답자 중 24.4%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χ^2=99.722, p<.001). 자녀 유무에 따라 비교했을 때는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18.9%로 나타나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χ^2=75.669, p<.001).

즉, 전체적으로 자녀 계획 비율은 낮으나 20 · 30대, 비혼자,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30대의 61.3%, 비혼자의 75.6%, 자녀가 없는 집단의 81.1%는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해당 집단에서도 출산 준비나 의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4 ▌자녀계획여부

(단위: 명, %)

		사례수	(추가) 계획 있음	계획 없음	χ^2
전체		1025	8.8	91.2	
성별	여성	520	6.3	93.7	7.809**
	남성	505	11.3	88.7	
연령	20대	117	30.8	69.2	257.481***
	30대	111	38.7	61.3	
	40대	153	7.2	92.8	
	50대	206	0.0	100.0	
	60대	205	0.0	100.0	
	70대 이상	233	0.0	100.0	
지역	읍/면	242	6.6	93.4	1.861
	동	783	9.5	9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5.0	95.0	99.722***
	비혼	242	24.4	75.6	
	이혼·별거	59	3.4	96.6	
	사별	139	0.0	100.0	
자녀유무	있음	649	2.9	97.1	75.669***
	없음	376	18.9	81.1	

**p<.01, ***p<.001

6) 계획 중인 자녀 수

자녀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희망하는 자녀 수는 평균 1.9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 평균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4명, 비혼은 2.2명으로 비혼 응답자의 계획 자녀 수가 더 컸다(F=9.731, p<.001). 자녀 유무로 비교하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평균 2.1명을 계획한 반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향후 추가로 1.2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579, p<.001). 이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둘째 출산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비혼 집단에서는 향후 두 자녀를 희망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Ⅲ-55 ▌계획 중인 자녀 수

(단위: 명, %)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명)	*t* / *F*
전체		90	32.2	54.4	8.9	4.4	1.9	
성별	여성	33	42.4	45.5	9.1	3.0	1.7	1.352
	남성	57	26.3	59.6	8.8	5.3	2.0	
연령	20대	36	16.7	69.4	11.1	2.8	2.0	0.848
	30대	43	44.2	44.2	7.0	4.7	1.8	
	40대	11	36.4	45.5	9.1	9.1	2.0	
	50대	0	-	-	-	-	-	
	60대	0	-	-	-	-	-	
	70대 이상	0	-	-	-	-	-	
지역	읍/면	16	18.8	68.8	6.3	6.3	2.0	0.563
	동	74	35.1	51.4	9.5	4.1	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9	62.1	34.5	3.4	0.0	1.4	9.731***
	비혼	59	15.3	66.1	11.9	6.8	2.2	
	이혼·별거	2	100.0	0.0	0.0	0.0	1.0	
	사별	0	-	-	-	-	-	
자녀유무	있음	19	84.2	15.8	0.0	0.0	1.2	-4.579***
	없음	71	18.3	64.8	11.3	5.6	2.1	

***p<.001

7)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2.2명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32.955, p<.001). 지역별로는 읍·면지역(2.3명)이 동지역(2.1명)보다 많았다(t=2.563, p<.05). 결혼상태별 평균은 사별 2.8명, 배우자 있음 2.2명, 비혼 1.7명으로 나타났다(F=32.758, p<.001).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2.4명)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1.9명)보다 이상적 자녀 수를 더 높게 응답했다(t=7.24, p<.001). 이는 과거 두 자녀를 선호했던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미래 세대의 저출산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표 Ⅲ-56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명, %)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명)	*t* / *F*
전체		1025	5.2	10.8	54.1	23.8	6.0	2.2	
성별	여성	520	4.8	12.1	52.1	25.4	5.6	2.2	0.503
	남성	505	5.5	9.5	56.2	22.2	6.5	2.2	
연령	20대	117	10.3	20.5	61.5	6.0	1.7	1.7	32.955***
	30대	111	14.4	19.8	48.6	14.4	2.7	1.8	
	40대	153	4.6	19.0	60.8	12.4	3.3	1.9	
	50대	206	6.8	10.7	55.8	19.9	6.8	2.1	
	60대	205	1.5	5.4	60.0	28.8	4.4	2.3	
	70대 이상	233	0.4	1.3	42.1	43.8	12.4	2.7	
지역	읍/면	242	3.3	7.4	52.1	30.6	6.6	2.3	2.563*
	동	783	5.7	11.9	54.8	21.7	5.9	2.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1	9.6	58.5	24.6	5.3	2.2	32.758***
	비혼	242	16.1	16.1	52.9	11.2	3.7	1.7	
	이혼·별거	59	3.4	15.3	67.8	8.5	5.1	2.0	
	사별	139	0.0	5.0	32.4	48.9	13.7	2.8	
자녀유무	있음	649	0.5	8.9	55.3	28.4	6.9	2.4	7.24***
	없음	376	13.3	14.1	52.1	16.0	4.5	1.9	

*p<.05, ***p<.001

8)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1순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개인생활(23.5%)로 나타났으며 자녀(22.0%), 일(21.5%), 파트너 관계(1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자녀(27.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개인생활(21.2%), 파트너와의 관계(18.8%), 일(1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개인생활(25.9%)이 가장 중요하였고 일(25.1%), 파트너와의 관계(20.8%), 자녀(16.2%)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57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개인생활	자녀	일	파트너관계	나의 또는 배우자의 원가족 관계	친구관계
전체		1025	23.5	22.0	21.5	19.8	11.5	1.7
성별	여성	520	21.2	27.7	17.9	18.8	12.3	2.1
	남성	505	25.9	16.2	25.1	20.8	10.7	1.2
연령	20대	117	35.9	4.3	38.5	6.8	12.0	2.6
	30대	111	27.0	13.5	20.7	25.2	11.7	1.8
	40대	153	26.1	24.2	13.7	22.9	13.1	0.0
	50대	206	24.8	21.8	15.5	28.6	8.7	0.5
	60대	205	11.7	30.2	23.9	23.4	10.2	0.5
	70대 이상	233	23.2	26.6	21.5	10.7	13.7	4.3
지역	읍/면	242	21.9	24.0	23.1	17.8	10.7	2.5
	동	783	24.0	21.5	20.9	20.4	11.7	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6.8	27.5	15.0	28.9	11.3	0.5
	비혼	242	38.4	2.1	35.5	7.0	14.0	2.9
	이혼·별거	59	30.5	20.3	25.4	13.6	5.1	5.1
	사별	139	23.0	34.5	22.3	6.5	10.8	2.9
자녀유무	있음	649	17.4	32.5	14.8	23.0	11.1	1.2
	없음	376	34.0	4.0	33.0	14.4	12.2	2.4

9)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 중 중요한 것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났는데(x^2=66.567, p<.001) 20대(46.4%)와 40대(44.2%)는 '서로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30대(53.6%)와 50대(53.1%)는 '개인생활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60대(69.0%)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70대에서는 44.3%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8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 중 더 중요한 것

(단위: 명, %)

		사례수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	부모가 되는 것이 약간 더 중요	서로 비슷함	개인 생활이 약간 더 중요	개인 생활이 훨씬 더 중요	x^2
전체		376	11.7	11.2	42.3	21.3	13.6	
성별	여성	177	8.5	14.1	43.5	20.9	13.0	5.808
	남성	199	14.6	8.5	41.2	21.6	14.1	
연령	20대	112	6.3	10.7	46.4	23.2	13.4	66.567***
	30대	71	14.1	9.9	22.5	28.2	25.4	
	40대	43	7.0	14.0	44.2	23.3	11.6	
	50대	47	8.5	4.3	34.0	34.0	19.1	
	60대	42	14.3	4.8	69.0	4.8	7.1	
	70대 이상	61	23.0	21.3	44.3	9.8	1.6	
지역	읍/면	79	16.5	6.3	43.0	22.8	11.4	4.498
	동	297	10.4	12.5	42.1	20.9	14.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2	22.2	9.7	40.3	15.3	12.5	32.457**
	비혼	239	9.2	9.2	40.6	26.4	14.6	
	이혼·별거	18	0.0	27.8	33.3	16.7	22.2	
	사별	47	12.8	17.0	57.4	6.4	6.4	

**p<.01, ***p<.001

10)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과 얻는 것 중 중요한 것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응답은 27.1%,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응답은 15.7%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비슷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잃는 것이 많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x^2=12.306, p<.01). 연령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x^2=21.798, p<.05).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60대(69.0%)와 70대 이상(73.8%)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반면 40대는 '잃는 것이 많다'(27.9%)와 '얻는 것이 많다'(27.9%)가 동일하게 나타나, 긍정과 부정 인식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결혼상태별 비교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얻는 것이 많다'는 응답 비율이 20.8%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x^2=17.8, p<.01). 이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지만, '잃는 것이 많다'는 응답도 일정 비율 나타나 자녀 출산이 개인의 자유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Ⅲ-59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과 얻는 것 중 중요한 것

(단위: 명, %, 점)

		사례수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서로 비슷함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	x^2
전체		376	27.1	57.2	15.7	
성별	여성	177	20.9	66.7	12.4	12.306**
	남성	199	32.7	48.7	18.6	
연령	20대	112	29.5	57.1	13.4	21.798*
	30대	71	32.4	45.1	22.5	
	40대	43	27.9	44.2	27.9	
	50대	47	29.8	55.3	14.9	
	60대	42	16.7	69.0	14.3	
	70대 이상	61	21.3	73.8	4.9	
지역	읍/면	79	35.4	53.2	11.4	4.009
	동	297	24.9	58.2	16.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2	22.2	56.9	20.8	17.8**
	비혼	239	29.7	52.7	17.6	
	이혼·별거	18	38.9	55.6	5.6	
	사별	47	17.0	80.9	2.1	

*p<.05, **p<.01

11)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향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향후 임신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향은 평균 2.41점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77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1.96점으로 가장 낮았다(F=4.981, p<.001). 결혼상태별 평균은 비혼 2.54점, 배우자 있음 2.40점, 이혼·별거 2.00점, 사별 1.96점 순으로 나타났다(F=8.059, p<.001). 이러한 결과는 임신 가능성과 출산 계획이 상대적으로 현존하는 연령대나 비혼 집단에서 생식세포 보존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60 ▌향후 임신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376	21.0	36.7	25.8	12.8	3.7	2.41	
성별	여성	177	18.1	39.0	28.8	10.2	4.0	2.40	0.247
	남성	199	23.6	34.7	23.1	15.1	3.5	2.43	
연령	20대	112	21.4	23.2	35.7	14.3	5.4	2.59	4.981***
	30대	71	14.1	32.4	21.1	26.8	5.6	2.77	
	40대	43	20.9	37.2	32.6	7.0	2.3	2.33	
	50대	47	42.6	31.9	17.0	4.3	4.3	1.96	
	60대	42	11.9	54.8	21.4	9.5	2.4	2.36	
	70대 이상	61	18.0	57.4	18.0	6.6	0.0	2.13	
지역	읍/면	79	16.5	41.8	21.5	12.7	7.6	2.53	1.092
	동	297	22.2	35.4	26.9	12.8	2.7	2.3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2	22.2	37.5	22.2	13.9	4.2	2.40	8.059***
	비혼	239	19.7	31.0	29.7	15.1	4.6	2.54	
	이혼·별거	18	22.2	55.6	22.2	0.0	0.0	2.00	
	사별	47	25.5	57.4	12.8	4.3	0.0	1.96	

***p<.001

4. 부부관계

1)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95.6%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1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사례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음	χ^2
전체		585	95.6	4.4	
성별	여성	299	95.7	4.3	0.013
	남성	286	95.5	4.5	
연령	20대	7	71.4	28.6	13.187*
	30대	56	100.0	0.0	
	40대	112	95.5	4.5	
	50대	158	96.2	3.8	
	60대	158	95.6	4.4	
	70대 이상	94	93.6	6.4	
지역	읍/면	124	94.4	5.6	0.534
	동	461	95.9	4.1	
자녀유무	있음	513	95.9	4.1	1.208
	없음	72	93.1	6.9	

*p<.05

2) 맞벌이 여부

부부의 맞벌이 여부를 보면, 58.3%가 맞벌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본인 외벌이(15.6%), 둘 다 일하지 않음(13.2%), 배우자 외벌이(13.0%)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58.8%가 맞벌이였으며, 21.7%는 '배우자 외벌'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58.0%가 맞벌이, 25.2%는 '본인 외벌'이라고 응답해 외벌 형태에서 성별 역할 차이가 있었다(x^2=69.336, p<.001).

연령별로는 20~50대에서 맞벌이가 약 70% 내외로 가장 높았고, 60대는 약 53% 수준이었다. 70대 이상은 '둘다 일하지 않음' 비율(57.4%)이 가장 높게 나타나(x^2=223.904, p<.001)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이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61.2%)이 읍 · 면 지역(47.6%)보다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x^2=15.985, p<.01).

▌표 Ⅲ-62 ▌맞벌이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맞벌이	본인 외벌이	둘 다 일하지 않음	배우자 외벌이	x^2
전체		585	58.3	15.6	13.2	13.0	
성별	여성	286	58.0	25.2	12.9	3.8	69.336***
	남성	299	58.5	6.4	13.4	21.7	
연령	20대	7	85.7	14.3	0.0	0.0	223.904***
	30대	56	71.4	16.1	0.0	12.5	
	40대	112	68.8	15.2	0.0	16.1	
	50대	158	74.1	13.9	1.3	10.8	
	60대	158	53.8	19.0	13.3	13.9	
	70대 이상	94	17.0	12.8	57.4	12.8	
지역	읍/면	124	47.6	14.5	23.4	14.5	15.985**
	동	461	61.2	15.8	10.4	12.6	
자녀유무	있음	513	58.7	15.2	13.5	12.7	1.028
	없음	72	55.6	18.1	11.1	15.3	

**p<.01, ***p<.001

3) 결혼기간

결혼기간의 평균은 25.8년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F=1355.459, p<.001), 읍·면 지역은 30.5년으로 동 지역(24.6년)보다 혼인기간이 더 길었다(t=86.199, p<.01). 자녀가 있는 집단(26.9년)이 자녀가 없는 집단(18.0년)보다 혼인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t=101.995, p<.001). 즉 전북은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장년 부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63▐ 결혼기간

(단위: 명, %, 년)

		사례수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년)	*t* / *F*
전체		585	14.7	19.5	23.8	21.9	12.1	8.0	25.8	
성별	여성	299	15.1	19.7	24.4	18.7	13.0	9.0	25.7	-64.548
	남성	286	14.3	19.2	23.1	25.2	11.2	7.0	26.0	
연령	20대	7	100.0	0.0	0.0	0.0	0.0	0.0	2.6	1355.459***
	30대	56	83.9	16.1	0.0	0.0	0.0	0.0	5.7	
	40대	112	14.3	67.9	17.9	0.0	0.0	0.0	14.6	
	50대	158	3.2	15.2	63.9	17.7	0.0	0.0	23.4	
	60대	158	4.4	3.2	10.1	58.2	24.1	0.0	33.3	
	70대 이상	94	4.3	0.0	2.1	8.5	35.1	50.0	44.6	
지역	읍/면	124	11.3	12.1	18.5	26.6	16.9	14.5	30.5	86.199**
	동	461	15.6	21.5	25.2	20.6	10.8	6.3	24.6	
자녀유무	있음	513	10.9	20.5	24.0	23.8	12.5	8.4	26.9	101.995***
	없음	72	41.7	12.5	22.2	8.3	9.7	5.6	18.0	

**p<.01, ***p<.001

4)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문항 중 '나의 결혼생활은 만족스럽다'는 평균은 3.74점이었다. 남성(3.86점)이 여성(3.63점)보다 만족도가 높았고(t=-2.994, p<.01), 연령별로는 20대(4.14점)가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3.53점)이 가장 낮았다(F=3.308, p<.05). 지역별로는 동 지역(3.79점)이 읍 · 면 지역(3.5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557, p<.05).

'배우자와 결혼하기 잘했다'문항은 평균은 3.65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3.81점, 여성이 3.49점으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3.95, p<.001), 30대가 4.0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F=7.408,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3.86점)이 읍 · 면 지역(3.44점)보다 높았으며(t=-2.697, p<.01), 자녀가 없는 응답자(3.86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3.62점)보다 높았다(t=-2.209, p<.05).

'배우자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를 역코딩하여 살펴보면 역코딩한 평균은 3.68점이었으며 '마지못해 배우자와 살고 있다'에 대해 역코딩한 평균은 3.86점으로 나타났다. 이 두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리하면,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역채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 전북도민의 결혼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 수준이 높으며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결혼만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Ⅲ-64 ▌결혼만족도

(단위: 명, 점)

		사례수	결혼생활은 만족스러움	배우자와 결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함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함(역)	마지못해 배우자와 살고 있음(역)
전체		585	3.74	3.65	3.68	3.86
성별	여성	299	3.63	3.49	3.66	3.85
	남성	286	3.86	3.81	3.69	3.87
	t		-2.994**	-3.95***	0.317	0.148
연령	20대	7	4.14	3.86	3.29	3.00
	30대	56	4.02	4.07	3.86	3.95

		사례수	결혼생활은 만족스러움	배우자와 결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함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함(역)	마지못해 배우자와 살고 있음(역)
	40대	112	3.65	3.64	3.50	3.68
	50대	158	3.85	3.84	3.87	4.06
	60대	158	3.70	3.51	3.58	3.83
	70대 이상	94	3.53	3.30	3.65	3.80
	F		3.308*	7.408***	2.088	2.09
지역	읍/면	124	3.56	3.44	3.50	3.71
	동	461	3.79	3.71	3.72	3.90
	t		−2.557*	−2.697**	1.94	1.785
자녀유무	있음	513	3.72	3.62	3.65	3.83
	없음	72	3.89	3.86	3.88	4.04
	t		−1.77	−2.209*	1.567	1.410

*p<.05, **p<.01, ***p<.001
(역): 역채점 문항

(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2단계에서는 결혼만족 관련요인을 투입하였다. 먼저 1단계 분석 결과는 월평균 가구소득(β=.181,p<.001), 자녀유무(β=−.102, p<.05)가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고,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변수들에 가정내 성역할 태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결혼생활 중요도, 그리고 결혼안정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남성일수록(β=.069, p=.013), 가정내 성역할 태도가 평등할수록(β=.066, p<.05),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β=.266, p<.001), 결혼생활 중요도가 높을수록(β=.123, p<.001), 결혼안정성이 높을수록(β=.562, p<.001)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단계에서 유의하던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녀유무는 2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개인적, 관계적 요인들이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결혼만족에 대한 설명력도 1단계 5.5%에서 2단계 58.0%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Ⅲ-65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85)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B	β	B	β
성별	.128	.079	.112	.069*
연령	.008	.012	.002	.003
월평균가구소득	.095	.181***	.031	.060
맞벌이 유무	.078	.047	.028	.017
자녀유무	-.252	-.102*	-.059	-.024
가정내 성역할태도			.059	.066*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236	.266***
결혼생활 중요도			.195	.123***
결혼안정성			.451	.562***
R	.235		.761	
R^2	.055		.580	
F	6.742***		88.132***	
Durbin-Watson	1.891			

*p<.05, ***p<.001

3) 결혼불안정성

결혼불안정성에서는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문항의 평균은 2.37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친한 친구와 이혼·별거에 대해 의논해본 적이 있다' 문항의 평균은 2.14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2.35점)이 동 지역(2.09점)보다 높았으며(t=2.29, p<.05), 다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심각하게 이혼을 제의한 적이 있다' 문항의 평균은 2.04점이었으며 '이혼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문항은 평균 1.92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2.03점)이 여성(1.83점)보다 높았고(t=-2.133, p<.05), 연령별로는 20대(2.29점)가 가장 높았으며 60대와 70대 이상(각 1.85점)이 가장 낮았다(F=2.391, p<.05).

전반적으로 전북도민의 결혼불안정성은 평균 2점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일부 존재하지만 실제로 행동(의논, 법적 절차 탐색 등)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6▐ 결혼불안정성

(단위: 명, 점)

		사례수	이혼을 생각해본 적 있음	친한친구와 이혼이나 별거를 의논해본적 있음	나 또는 배우자가 심각하게 이혼을 제의한적 있음	이혼하는 법적절차에 대해 알아본적 있음
전체		585	2.37	2.14	2.04	1.92
성별	여성	299	2.40	2.17	1.98	1.83
	남성	286	2.34	2.11	2.12	2.03
	t		0.621	0.629	-1.462	-2.133*
연령	20대	7	2.57	2.57	2.43	2.29
	30대	56	2.00	1.79	1.73	1.64
	40대	112	2.64	2.33	2.22	2.21
	50대	158	2.29	2.08	2.03	1.92
	60대	158	2.32	2.16	2.03	1.85
	70대 이상	94	2.49	2.17	2.05	1.85
	F		2.353	2.076	1.308	2.391*
지역	읍/면	124	2.52	2.35	2.18	2.03
	동	461	2.33	2.09	2.01	1.90
	t		1.559	2.29*	1.453	1.179
자녀유무	있음	513	2.40	2.17	2.07	1.93
	없음	72	2.19	1.92	1.89	1.88
	t		1.351	1.815	1.227	0.394

*$p<.05$

4) 결혼생활 중요도와 충족도

(1) 결혼생활 중요도

전북도민의 결혼생활의 중요도는 경제적 안정감(4.27점)과 정서적 친밀감·사랑(4.26점)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대화·소통(4.21점), 자녀양육 동반자(4.10점), 서로의 성장 지지(3.87점), 부부의 여가 및 취미 공유(3.85점), 성적 만족(3.76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친밀감·사랑은 4.26점이으로 연령별로는 30대(4.46점)가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4.01점)이 가장 낮았다(F=4.117, p<.05). 지역별 비교에서도 동 지역(4.29점)이 읍·면 지역(4.15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t=-1.976, p<.05).

경제적 안정감은 평균 4.27점으로 30대(4.48점)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F=5.299, p<.001), 자녀가 없는 집단(4.49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4.24점)보다 더 높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t=-2.719, p<.01). 자녀양육 동반자의 평균은 4.10점이었다. 여성(4.16점)이 남성(4.03점)보다 더 높게 평가했으며(t=2.073, p<.05), 자녀가 있는 집단(4.14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3.79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t=3.148, p<.01).

성적 만족 항목의 평균은 3.76점으로 나타났다. 남성(3.87점)은 여성(3.59점)보다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했다(t=-3.845, p<.001). 대화·소통은 평균 4.21점이었다. 30대(4.59점)에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3.91점)이 가장 낮았다(F=8.469,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4.26점)이 읍·면 지역(4.06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t=-2.832, p<.01).

부부의 여가 및 취미 공유의 평균은 3.85점이었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20대(4.14점)가 가장 높아(F=3.28, p<.05), 세대가 젊을수록 여가 공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드러났다. 자녀가 없는 집단(4.08점)은 자녀가 있는 집단(3.81점)보다 중요도를 높게 응답했고(t=-2.647, p<.01), 지역별로는 동 지역(3.89점)이 읍·면 지역(3.70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t=-2.272, p<.05).

서로의 성장 지지 항목은 평균 3.87점이었다. 30대(4.29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F=11.16, p<.001), 지역별로도 동 지역(3.93점)이 읍·면 지역(3.64점)을 상회했다(t=-3.632, p<.001).

▌표 Ⅲ-67▐ 결혼생활 중요도

(단위: 명, 점)

		사례수	정서적 친밀감, 사랑	경제적 안정감	자녀양육 동반자	성적만족	대화, 소통	부부여가 및 취미공유	서로의 성장지지
전체		585	4.26	4.27	4.10	3.73	4.21	3.85	3.87
성별	여성	299	4.26	4.28	4.16	3.59	4.20	3.84	3.86
	남성	286	4.26	4.25	4.03	3.87	4.23	3.85	3.88
	t		0.101	0.539	2.073*	-3.845***	-0.432	-0.154	-0.219
연령	20대	7	4.29	4.43	4.29	4.14	4.14	4.14	4.14
	30대	56	4.46	4.48	4.09	3.88	4.59	4.13	4.29
	40대	112	4.24	4.06	4.05	3.71	4.17	3.84	3.83
	50대	158	4.33	4.31	4.15	3.81	4.34	3.94	4.09
	60대	158	4.27	4.40	4.05	3.72	4.16	3.77	3.75
	70대 이상	94	4.01	4.09	4.14	3.50	3.91	3.66	3.49
	F		4.117**	5.299***	0.477	2.036	8.469***	3.28**	11.16***
지역	읍/면	124	4.15	4.18	4.15	3.64	4.06	3.70	3.64
	동	461	4.29	4.29	4.08	3.75	4.26	3.89	3.93
	t		-1.976*	-1.437	0.876	-1.254	-2.832**	-2.272*	-3.632***
자녀유무	있음	513	4.24	4.24	4.14	3.73	4.20	3.81	3.85
	없음	72	4.40	4.49	3.79	3.74	4.33	4.08	3.99
	t		-1.947	-2.719**	3.148**	-0.078	-1.452	-2.647**	-1.294

*p<.05, **p<.01, ***p<.001

(2) 결혼생활 충족도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결혼생활 충족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친밀감·사랑(4.0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자녀양육 동반자(3.81점), 경제적 안정감(3.79점), 대화·소통(3.75점), 성적 만족(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마다 살펴보면 정서적 친밀감과 사랑의 평균은 4.00점이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20대(4.43점)가 가장 높았고, 40대(3.74점)가 가장 낮았다(F=3.735, p<.01).

경제적 안정감의 충족도는 평균 3.79점이며, 이 역시 20대가 4.2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40대는 3.46점으로 가장 낮았다(F=6.097, p<.001).

자녀양육 동반자 항목의 평균은 3.81점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응답자(3.85점)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3.51점)보다 더 높은 충족도를 보였다(t=3.139, p<.01).

성적 만족은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남성(3.63점)이 여성(3.44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충족도를 보고했다(t=-2.407, p<.05).

대화·소통의 평균은 3.75점이며, 20대(4.29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F=4.521, p<.01), 40대(3.49점)가 가장 낮았다.

부부의 여가 및 취미 공유는 평균 3.56점이었다. 30대(3.95점)가 가장 높았고(F=3.825, p<.01), 40대(3.34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자녀유무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3.81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3.52점)보다 높은 충족도를 보였다(t=-2.762, p<.01).

마지막으로 서로의 성장 지지 항목은 평균 3.65점이며, 20대(4.14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F=4.412, p<.01), 70대 이상(3.40점)은 가장 낮았다.

▌표 Ⅲ-68▐ 결혼생활 충족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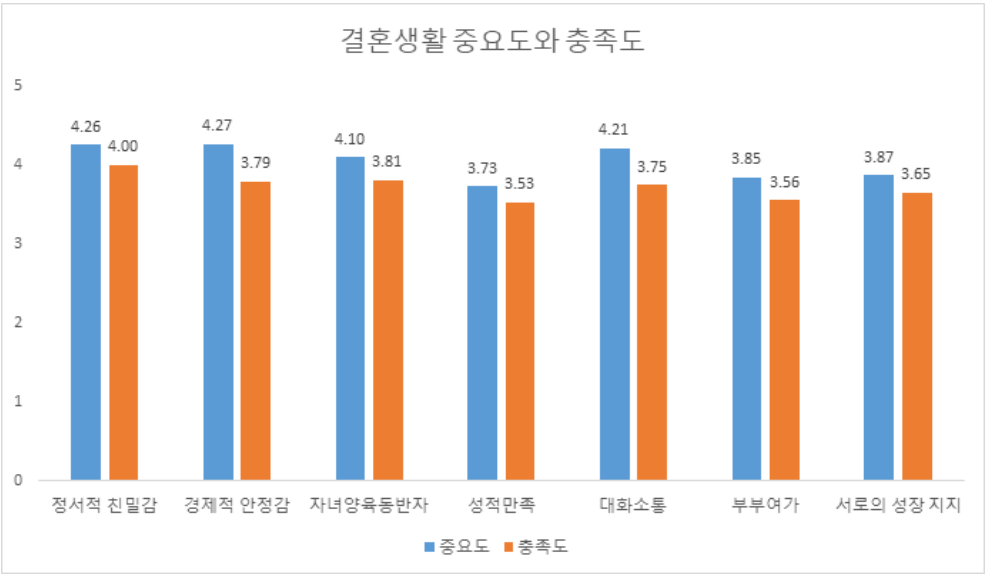
		사례수	정서적 친밀감, 사랑	경제적 안정감	자녀양육 동반자	성적만족	대화, 소통	부부여가 및 취미공유	서로의 성장지지
전체		585	4.00	3.79	3.81	3.53	3.75	3.56	3.65
성별	여성	299	3.98	3.76	3.77	3.44	3.70	3.54	3.59
	남성	286	4.02	3.81	3.85	3.63	3.80	3.57	3.71
	t / *F*		−0.635	−0.736	−1.081	−2.407*	−1.297	−0.447	−1.551
연령	20대	7	4.43	4.29	3.86	4.29	4.29	3.86	4.14
	30대	56	4.23	3.93	3.91	3.68	4.05	3.95	4.00
	40대	112	3.74	3.46	3.57	3.47	3.49	3.34	3.49
	50대	158	3.92	3.68	3.84	3.53	3.75	3.53	3.78
	60대	158	4.11	3.90	3.84	3.49	3.80	3.53	3.63
	70대 이상	94	4.10	4.04	3.95	3.52	3.76	3.65	3.40
	t / *F*		3.735**	6.097***	2.057	1.30	4.521**	3.825**	4.412**
지역	읍/면	124	4.07	3.87	3.89	3.59	3.71	3.59	3.52
	동	461	3.98	3.76	3.79	3.51	3.76	3.55	3.68
	t / *F*		1.05	1.166	1.118	0.779	−0.625	0.439	−1.944
자녀유무	있음	513	3.98	3.77	3.85	3.51	3.73	3.52	3.63
	없음	72	4.18	3.93	3.51	3.67	3.90	3.81	3.76
	t / *F*		−1.918	−1.436	3.139**	−1.309	−1.736	−2.762**	−1.109

*p<.05, **p<.01, ***p<.001

(3) 결혼생활 중요도와 충족도 차이

결혼생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친밀감(4.26점), 경제적 안정감(4.27점), 대화·소통(4.21점), 자녀양육의 동반자 역할(4.10점)은 모두 4점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서로의 성장 지지(3.87점), 부부의 여가·취미 공유(3.85점), 성적 만족(3.76점) 또한 3점 후반대로 나타나,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이 전반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충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안정감과 대화, 소통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기대하는 이상적 결혼생활과 실제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Ⅲ-8▐ 결혼생활 중요도와 충족도

5)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1) 하루 평균 대화시간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을 살펴보면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32.1%)와 70대 이상(29.8%)에서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χ^2=39.073, p<.001).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47.6%)에서 30분~1시간 미만의 비율이 동지역(33.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χ^2=10.91, p<.05).

▌표 Ⅲ-69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단위: 명, %)

		사례수	전혀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이상-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χ^2
전체		585	3.2	23.8	36.4	17.9	18.6	
성별	여성	299	4.0	24.1	40.5	15.7	15.7	8.376
	남성	286	2.4	23.4	32.2	20.3	21.7	
연령	20대	7	0.0	28.6	28.6	28.6	14.3	39.073**
	30대	56	0.0	14.3	28.6	25.0	32.1	
	40대	112	4.5	24.1	38.4	20.5	12.5	
	50대	158	3.8	23.4	36.1	22.2	14.6	
	60대	158	1.9	25.9	39.2	17.1	15.8	
	70대 이상	94	5.3	25.5	35.1	4.3	29.8	
지역	읍/면	124	1.6	22.6	47.6	11.3	16.9	10.91*
	동	461	3.7	24.1	33.4	19.7	19.1	
자녀유무	있음	513	3.5	24.2	36.5	17.7	18.1	1.842
	없음	72	1.4	20.8	36.1	19.4	22.2	

*p<.05, **p<.01

(2) 의사소통 만족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63점)이 여성(3.38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t=-3.302, p<.01), 연령별 비교에서는 20대가 3.8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는 3.36점으로 가장 낮았다(F=2.517, p<.05).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71점)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3.47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2.484, p<.05).

▌표 Ⅲ-70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585	4.8	4.3	37.6	42.6	10.8	3.50	
성별	여성	299	6.4	4.7	41.5	39.5	8.0	3.38	-3.302**
	남성	286	3.1	3.8	33.6	45.8	13.6	3.63	
연령	20대	7	0.0	0.0	28.6	57.1	14.3	3.86	2.517*
	30대	56	0.0	3.6	35.7	33.9	26.8	3.84	
	40대	112	8.0	6.3	34.8	43.8	7.1	3.36	
	50대	158	4.4	7.0	31.6	44.3	12.7	3.54	
	60대	158	5.1	2.5	40.5	43.0	8.9	3.48	
	70대 이상	94	4.3	1.1	47.9	41.5	5.3	3.43	
지역	읍/면	124	4.8	2.4	44.4	37.9	10.5	3.47	-0.476
	동	461	4.8	4.8	35.8	43.8	10.8	3.51	
자녀유무	있음	513	5.5	4.5	37.8	41.7	10.5	3.47	-2.484*
	없음	72	0.0	2.8	36.1	48.6	12.5	3.71	

*p<.05, **p<.01

6) 가정관리

(1) 자녀양육 및 교육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주도는 아내가 주도한다(46.7%)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남편이 주도한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부부가 똑같이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공동으로 양육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71 ▌가정관리 - 자녀 양육 및 교육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전체		585	1.0	5.0	22.4	22.6	24.1	25.0
성별	여성	299	0.7	2.7	21.1	19.7	30.4	25.4
	남성	286	1.4	7.3	23.8	25.5	17.5	24.5
연령	20대	7	0.0	0.0	14.3	14.3	28.6	42.9
	30대	56	0.0	5.4	28.6	17.9	16.1	32.1
	40대	112	1.8	6.3	28.6	27.7	29.5	6.3
	50대	158	1.9	8.2	29.7	30.4	21.5	8.2
	60대	158	0.6	2.5	18.4	17.7	24.1	36.7
	70대 이상	94	0.0	2.1	6.4	14.9	26.6	50.0
지역	읍/면	124	0.0	0.8	10.5	21.0	29.0	38.7
	동	461	1.3	6.1	25.6	23.0	22.8	21.3
자녀유무	있음	513	1.2	5.7	25.5	25.7	27.5	14.4
	없음	72	0.0	0.0	0.0	0.0	0.0	100.0

(2) 투자와 자산관리

투자와 자산 관리 영역은 아내가 주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고, 남편이 주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46.2%가 '아내가 주도한다'고 인식한 반면, 남성은 34.6%가 '남편이 주도한다'고 응답하여 성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χ^2=18.034, p<.01).

▌표 Ⅲ-72 ▌가정관리 - 투자와 자산 관리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χ^2
전체		585	10.6	17.4	33.3	22.2	16.4	
성별	여성	299	8.4	13.4	32.1	26.1	20.1	18.034**
	남성	286	12.9	21.7	34.6	18.2	12.6	
연령	20대	7	28.6	0.0	28.6	42.9	0.0	30.957
	30대	56	10.7	12.5	48.2	10.7	17.9	
	40대	112	12.5	23.2	25.0	23.2	16.1	
	50대	158	10.1	21.5	31.6	18.4	18.4	
	60대	158	11.4	15.2	35.4	25.9	12.0	
	70대 이상	94	6.4	11.7	34.0	26.6	21.3	
지역	읍/면	124	7.3	20.2	33.9	21.0	17.7	2.622
	동	461	11.5	16.7	33.2	22.6	16.1	
자녀유무	있음	513	11.3	18.5	31.8	22.2	16.2	7.948
	없음	72	5.6	9.7	44.4	22.2	18.1	

**p<.01

(3) 가사노동

가사노동 주도 방식을 살펴보면, 아내가 주도한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았고, 남편이 주도한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가 똑같이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남성(32.5%)이 여성(2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 · 30대에서 공동 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내가 주도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x^2=61.252,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29.7%)이 읍·면 지역(25.0%)보다 공동 분담 비율이 높았고(x^2=10.963, p<.05), 자녀가 없는 집단(43.1%)이 자녀가 있는 집단(26.7%)보다 공동 분담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 무자녀 가구에서 공동분담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73 ▌가정관리 - 가사노동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x^2
전체		585	1.2	5.8	28.7	35.2	29.1	
성별	여성	299	0.7	5.4	25.1	32.8	36.1	15.983**
	남성	286	1.7	6.3	32.5	37.8	21.7	
연령	20대	7	0.0	0.0	57.1	28.6	14.3	61.252***
	30대	56	5.4	8.9	44.6	26.8	14.3	
	40대	112	2.7	12.5	25.0	34.8	25.0	
	50대	158	0.6	7.6	27.8	38.6	25.3	
	60대	158	0.0	1.3	30.4	36.7	31.6	
	70대 이상	94	0.0	1.1	20.2	33.0	45.7	
지역	읍/면	124	0.0	1.6	25.0	36.3	37.1	10.963*
	동	461	1.5	6.9	29.7	34.9	26.9	
자녀유무	있음	513	0.8	5.8	26.7	36.1	30.6	16.213**
	없음	72	4.2	5.6	43.1	29.2	18.1	

*p<.05, **p<.01, ***p<.001

(4) 본인 부모 돌봄

본인 부모 돌봄은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주로 아내가 + 대체로 아내가)는 26.2%로, 남편이 주도하는 경우(주로 남편이 + 대체로 남편이)는 11.8%로 나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20.6%)이 여성(17.1%)보다 '부부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 '대체로 남편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74 ▌가정관리 - 본인 부모 돌봄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전체		585	1.7	10.1	18.8	14.7	11.5	43.2
성별	여성	299	0.0	6.4	17.1	18.1	14.4	44.1
	남성	286	3.5	14.0	20.6	11.2	8.4	42.3
연령	20대	7	0.0	0.0	57.1	28.6	14.3	0.0
	30대	56	0.0	12.5	50.0	14.3	19.6	3.6
	40대	112	5.4	17.0	30.4	24.1	18.8	4.5
	50대	158	2.5	16.5	18.4	19.0	9.5	34.2
	60대	158	0.0	4.4	9.5	11.4	10.1	64.6
	70대 이상	94	0.0	0.0	0.0	1.1	3.2	95.7
지역	읍/면	124	0.8	4.0	10.5	17.7	10.5	56.5
	동	461	2.0	11.7	21.0	13.9	11.7	39.7
자녀유무	있음	513	1.9	10.5	18.3	15.4	11.5	42.3
	없음	72	0.0	6.9	22.2	9.7	11.1	50.0

(5) 배우자 부모 돌봄

배우자 부모 돌봄은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주로 아내가 + 대체로 아내가)는 35.9%로, 남편이 주도하는 경우(주로 남편이 + 대체로 남편이)는 13.7%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2.9%)은 여성(25.1%)보다 '부부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은 '대체로 남편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배우자 부모 돌봄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내가 주도하지만 남성 또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75 ▌가정관리 - 배우자 부모 돌봄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전체		585	1.9	11.8	28.9	23.4	12.5	21.5
성별	여성	299	3.0	15.1	25.1	20.7	11.4	24.7
	남성	286	0.7	8.4	32.9	26.2	13.6	18.2
연령	20대	7	0.0	14.3	57.1	14.3	14.3	0.0
	30대	56	1.8	16.1	46.4	21.4	12.5	1.8
	40대	112	6.3	23.2	30.4	25.9	13.4	0.9
	50대	158	1.9	15.2	34.2	29.1	13.3	6.3
	60대	158	0.0	5.7	22.8	22.2	15.2	34.2
	70대 이상	94	0.0	0.0	16.0	14.9	5.3	63.8
지역	읍/면	124	2.4	5.6	17.7	29.8	10.5	33.9
	동	461	1.7	13.4	31.9	21.7	13.0	18.2
자녀유무	있음	513	1.9	12.3	28.3	23.8	12.5	21.2
	없음	72	1.4	8.3	33.3	20.8	12.5	23.6

(6) 가족여가

가족 여가는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아내가 주도한다'는 비율이 35.9%, '남편이 주도한다'는 비율은 17.3%로 나타났다. 즉, 가족 여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76▐ 가정관리 - 가족여가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x^2
전체		585	3.6	13.7	46.8	22.4	13.5	
성별	여성	299	3.3	10.0	47.2	23.7	15.7	8.768
	남성	286	3.8	17.5	46.5	21.0	11.2	
연령	20대	7	0.0	0.0	42.9	42.9	14.3	19.632
	30대	56	1.8	14.3	51.8	19.6	12.5	
	40대	112	3.6	13.4	47.3	21.4	14.3	
	50대	158	4.4	13.9	43.0	21.5	17.1	
	60대	158	3.8	14.6	54.4	20.9	6.3	
	70대 이상	94	3.2	12.8	37.2	27.7	19.1	
지역	읍/면	124	2.4	13.7	41.1	25.0	17.7	4.265
	동	461	3.9	13.7	48.4	21.7	12.4	
자녀유무	있음	513	3.7	13.8	46.2	22.2	14.0	1.521
	없음	72	2.8	12.5	51.4	23.6	9.7	

(7) 성인자녀 돌봄

성인자녀 돌봄은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주로 아내가 + 대체로 아내가)가 30.0%로 남편이 주도하는 경우(주로 남편이 + 대체로 남편이)(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돌봄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표 Ⅲ-77 ▌가정관리 - 성인자녀 돌봄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전체		585	0.5	0.9	16.9	13.2	16.8	51.8
성별	여성	299	0.7	0.7	16.7	11.7	19.4	50.8
	남성	286	0.3	1.0	17.1	14.7	14.0	52.8
연령	20대	7	0.0	0.0	0.0	0.0	0.0	100.0
	30대	56	0.0	0.0	0.0	0.0	0.0	100.0
	40대	112	0.0	0.9	3.6	0.9	0.9	93.8
	50대	158	0.6	0.0	20.3	8.2	7.6	63.3
	60대	158	1.3	1.3	27.8	25.3	29.1	15.2
	70대 이상	94	0.0	2.1	20.2	24.5	41.5	11.7
지역	읍/면	124	0.0	0.8	12.1	21.0	31.5	34.7
	동	461	0.7	0.9	18.2	11.1	12.8	56.4

7)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1) 평일 가사 참여시간

평일 가사 참여 시간은 평균 2.3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여성(2.9시간)이 남성(1.6시간)보다 가사 참여 시간이 더 길었다(t=8.71, p<.001). 연령별로는 40대(2.8시간)가 가장 길었으며(F=3.115, p<.05), 자녀가 있는 집단(2.4시간)은 자녀가 없는 집단(1.7시간)보다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t=4.416, p<.001). 또한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맞벌이 집단(2.6시간)이 맞벌이 집단(2.1시간)보다 평일 가사 참여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t=-2.818, p<.01).

이는 전반적으로 평일 가사 참여는 여성에게 더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자녀가 있는 집단과 비맞벌이 집단에서 참여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에서 가사 부담이 특정 집단에 편중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Ⅲ-78 ▌평일 가사 참여시간

(단위: 명, %, 시간)

		사례수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평균 (시간)	t / F
전체		585	12.3	34.3	26.8	11.3	5.3	3.9	6.2	2.3	
성별	여성	299	2.3	28.4	33.1	12.0	7.7	5.7	10.7	2.9	8.71***
	남성	286	23.4	40.9	19.7	10.4	2.6	1.9	1.1	1.6	
연령	20대	7	0.0	57.1	28.6	0.0	14.3	0.0	0.0	1.7	3.115*
	30대	56	14.3	23.2	30.4	8.9	10.7	5.4	7.1	2.5	
	40대	112	4.5	28.8	28.8	20.7	4.5	4.5	8.1	2.8	
	50대	158	10.2	37.6	29.9	11.5	5.1	4.5	1.3	2.0	
	60대	158	18.2	37.2	25.7	6.8	6.1	2.7	3.4	2.0	
	70대 이상	94	15.7	36.0	18.0	9.0	1.1	3.4	16.9	2.6	
지역	읍/면	124	19.7	30.8	30.8	7.7	2.6	0.9	7.7	2.2	-0.543
	동	461	10.4	35.3	25.7	12.2	6.0	4.7	5.8	2.3	
자녀 유무	있음	513	11.0	34.3	26.3	11.6	5.4	4.4	6.8	2.4	4.416***
	없음	72	21.4	34.3	30.0	8.6	4.3	0.0	1.4	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3	10.5	34.5	31.8	12.6	4.5	3.6	2.4	2.1	-2.818**
	비맞벌이	235	14.9	34.0	19.6	9.4	6.4	4.3	11.5	2.6	

*p<.05, **p<.01, ***p<.001

(2) 주말 가사 참여시간

주말 가사 참여시간은 평균 3.1시간이었으며 여성은 3.8시간, 남성은 2.4시간으로 여성의 참여 시간이 더 길었다(t=8.355, p<.001). 연령별로는 40대가 3.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50~60대는 2.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F=3.447, p<.05).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집단(3.2시간)이 없는 집단(2.5시간)보다 주말 가사 시간이 더 길었다(t=3.525, p<.001). 이는 주말에도 특정 집단(여성,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가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79 ▌주말 가사 참여시간

(단위: 명, %, 시간)

		사례수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평균 (시간)	*t* / *F*
전체		585	5.8	17.8	24.5	20.8	11.3	10.2	9.5	3.1	
성별	여성	299	1.0	9.8	22.9	26.6	12.8	12.1	14.8	3.8	8.355***
	남성	286	11.1	26.7	26.3	14.4	9.6	8.1	3.7	2.4	
연령	20대	7	0.0	28.6	28.6	0.0	0.0	28.6	14.3	3.1	3.447**
	30대	56	1.8	20.0	25.5	16.4	12.7	9.1	14.5	3.4	
	40대	112	4.5	9.1	23.6	22.7	14.5	13.6	11.8	3.6	
	50대	158	5.7	20.3	26.6	18.4	15.2	10.1	3.8	2.8	
	60대	158	9.5	22.3	23.6	20.9	8.1	8.1	7.4	2.8	
	70대 이상	94	4.5	14.6	22.5	27.0	5.6	9.0	16.9	3.4	
지역	읍/면	124	7.7	24.8	17.1	20.5	9.4	6.0	14.5	3.2	0.317
	동	461	5.3	16.0	26.4	20.9	11.8	11.3	8.2	3.1	
자녀 유무	있음	513	5.6	16.9	23.6	21.4	11.1	11.3	10.1	3.2	3.525***
	없음	72	7.0	23.9	31.0	16.9	12.7	2.8	5.6	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3	4.2	15.0	25.2	21.3	15.3	11.1	7.8	3.2	1.515
	비맞벌이	235	8.1	21.8	23.5	20.1	5.6	9.0	12.0	3.0	

**p<.01, ***p<.001

(3) 평일 자녀돌봄 참여시간

평일 자녀돌봄 참여시간은 평균 2.2시간이었다. 여성은 2.6시간, 남성은 1.7시간으로 여성의 돌봄 시간이 더 길었다(t=4.038, p<.001). 연령별로는 30대가 3.8시간으로 가장 높았고(F=5.129, p<.01), 지역별 비교에서는 동 지역(2.3시간)이 읍·면 지역(1.5시간)보다 길었다(t=-3.721, p<.001). 이는 평일 자녀돌봄이 여성과 30대,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80 ▌평일 자녀돌봄 참여시간

(단위: 명, %, 시간)

		사례수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평균 (시간)	*t* / *F*
전체		321	17.4	32.4	21.8	13.1	6.5	3.7	5.0	2.2	
성별	여성	156	11.5	30.9	20.0	15.8	8.5	5.5	7.9	2.6	4.038***
	남성	165	23.7	34.0	23.7	10.3	4.5	1.9	1.9	1.7	
연령	20대	4	0.0	50.0	25.0	0.0	25.0	0.0	0.0	2.0	5.129**
	30대	37	2.7	13.5	27.0	13.5	13.5	10.8	18.9	3.8	
	40대	100	9.0	28.0	27.0	21.0	7.0	5.0	3.0	2.4	
	50대	123	22.8	39.8	17.9	9.8	4.1	2.4	3.3	1.8	
	60대	45	35.6	31.1	15.6	8.9	4.4	0.0	4.4	1.6	
	70대 이상	12	16.7	50.0	25.0	0.0	8.3	0.0	0.0	1.6	
지역	읍/면	52	30.8	34.6	17.3	13.5	1.9	0.0	1.9	1.5	-3.721***
	동	269	14.9	32.0	22.7	13.0	7.4	4.5	5.6	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7	14.5	33.5	23.8	15.9	4.0	4.0	4.4	2.2	-0.517
	비맞벌이	94	24.5	29.8	17.0	6.4	12.8	3.2	6.4	2.2	

**p<.01, ***p<.001

(4) 주말 자녀돌봄 참여시간

주말 자녀돌봄 참여시간은 평균 3.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3.7시간, 남성은 2.7시간으로 여성의 참여가 더 길었다(t=3.363, p<.001). 연령별로는 30대가 6.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F=10.436,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3.3시간)이 읍·면 지역(2.6시간)보다 더 길었다(t=-2.171, p<.05). 이는 주말에도 영유아 자녀 비중이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자녀돌봄 시간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과 도시 지역에서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Ⅲ-81 ▌주말 자녀돌봄 참여 시간

(단위: 명, %, 시간)

		사례수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평균 (시간)	*t* / *F*
전체		321	8.9	25.5	18.8	13.2	11.7	8.3	13.5	3.2	
성별	여성	156	6.1	23.8	18.3	14.0	9.8	7.9	20.1	3.7	3.363***
	남성	165	11.8	27.3	19.3	12.4	13.7	8.7	6.8	2.7	
연령	20대	4	0.0	50.0	0.0	0.0	25.0	25.0	0.0	2.8	10.436***
	30대	37	0.0	5.6	11.1	8.3	22.2	11.1	41.7	6.1	
	40대	100	1.9	17.5	21.4	18.4	12.6	8.7	19.4	3.9	
	50대	123	12.0	36.0	20.0	11.2	10.4	6.4	4.0	2.3	
	60대	45	26.1	30.4	13.0	8.7	4.3	8.7	8.7	2.2	
	70대 이상	12	0.0	18.2	36.4	27.3	9.1	9.1	0.0	2.8	
지역	읍/면	52	13.7	21.6	29.4	17.6	3.9	5.9	7.8	2.6	-2.171*
	동	269	8.0	26.3	16.8	12.4	13.1	8.8	14.6	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7	7.4	22.6	21.3	12.6	13.0	10.0	13.0	3.3	1.201
	비맞벌이	94	12.6	32.6	12.6	14.7	8.4	4.2	14.7	2.9	

*p<.05, ***p<.001

(5) 맞벌이 집단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맞벌이 부부만을 대상으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평일 가사 참여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약 0.7시간 더 길게 나타났다(t=4.464, p<.001). 주말에도 유사한 패턴을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1.2시간 더 많은 가사 시간을 수행해 평일보다 격차가 더 컸다(t=5.630, p<.001).

또한 평일 자녀돌봄 시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 0.5시간 더 길었으며(t=1.995, p<.05), 주말에는 약 0.7시간 더 많은 돌봄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42, p<.05).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구에서도 가사 및 돌봄의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82 ▌맞벌이 집단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단위: 명, 시간)

		사례수	평균시간	t
평일가사 참여시간	여성	175	2.4	4.464***
	남성	158	1.7	
주말 가사 참여 시간	여성	174	3.8	5.630***
	남성	159	2.6	
평일 자녀돌봄 참여시간	여성	118	2.4	1.995*
	남성	109	1.9	
주말 자녀돌봄 참여시간	여성	118	3.7	1.942*
	남성	112	3.0	

*p<.05, ***p<.001

(6) 가사 및 자녀 돌봄 부담 공평성

가사 및 돌봄 부담의 공평성 인식은 평균 3.31점으로, 응답자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인식하였다. 성별로는 남성(3.42점)이 여성(3.20점)보다 공평하게 느끼는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4.14점)가 가장 높고, 50대(3.17점)가 가장 낮았다. 다만 20대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3.61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3.27점)보다 공평성을 더 높게 인식했다.

이는 가사·돌봄 분담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 가족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83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 공평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공평하지 않다	별로 공평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공평하다	매우 공평하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585	3.9	14.4	34.9	40.3	6.5	3.31	
성별	여성	299	6.7	14.4	37.8	34.1	7.0	3.20	-2.859**
	남성	286	1.0	14.3	31.8	46.9	5.9	3.42	
연령	20대	7	0.0	0.0	0.0	85.7	14.3	4.14	2.823*
	30대	56	3.6	12.5	30.4	42.9	10.7	3.45	
	40대	112	5.4	15.2	36.6	38.4	4.5	3.21	
	50대	158	2.5	24.1	32.3	36.1	5.1	3.17	
	60대	158	4.4	10.8	30.4	46.8	7.6	3.42	
	70대 이상	94	4.3	5.3	50.0	34.0	6.4	3.33	
지역	읍/면	124	5.6	8.1	36.3	44.4	5.6	3.36	0.697
	동	461	3.5	16.1	34.5	39.3	6.7	3.30	
자녀유무	있음	513	4.3	15.2	36.1	38.2	6.2	3.27	-2.935**
	없음	72	1.4	8.3	26.4	55.6	8.3	3.61	

*p<.05, **p<.01

(7) 가사 및 돌봄 부담이 불리한 집단

가사 및 돌봄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87.1%는 불리한 쪽이 아내(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 응답자의 93.2%는 여성이 불리하다고 보았고, 남성 응답자의 20.7%는 남성이 더 불리하다고 응답하였다(χ^2=13.213, p<.001).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남성이 더 불리하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χ^2=17.065, p<.01) 지역별로는 동 지역(14.9%)이 읍 · 면 지역(4.8%)보다 남성이 불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χ^2=4.448, p<.05). 자녀 유무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없는 집단은 38.5%, 자녀가 있는 집단은 10.5%가 남성이 더 불리하다고 응답하였다(χ^2=16.59, p<.001).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여성이 더 불리하다고 보지만, 일부 집단(특히 30대, 자녀가 없는 집단, 동 지역)에서는 남성이 불리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Ⅲ-84 ▌가사 및 돌봄 부담이 불리한 집단

(단위: 명, %)

		사례수	남편(남성)	아내(여성)	x^2
전체		311	12.9	87.1	
성별	여성	176	6.8	93.2	13.213***
	남성	135	20.7	79.3	
연령	20대	0	0.0	0.0	17.065**
	30대	26	30.8	69.2	
	40대	64	17.2	82.8	
	50대	93	16.1	83.9	
	60대	72	4.2	95.8	
	70대 이상	56	5.4	94.6	
지역	읍/면	62	4.8	95.2	4.448*
	동	249	14.9	85.1	
자녀유무	있음	285	10.5	89.5	16.59***
	없음	26	38.5	61.5	

*p<.05, **p<.01, ***p<.001

8) 부부갈등

(1) 부부갈등 경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38.1%가 최근 6개월 내 배우자와 다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툼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χ^2=12.005, p<.05), 젊은 세대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85▐ 부부갈등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χ^2
전체		585	38.1	61.9	
성별	여성	299	35.1	64.9	2.338
	남성	286	41.3	58.7	
연령	20대	7	71.4	28.6	12.005*
	30대	56	44.6	55.4	
	40대	112	42.9	57.1	
	50대	158	41.1	58.9	
	60대	158	34.8	65.2	
	70대 이상	94	26.6	73.4	
지역	읍/면	124	37.9	62.1	0.003
	동	461	38.2	61.8	
자녀유무	있음	513	38.6	61.4	0.402
	없음	72	34.7	65.3	

*p<.05

(2) 부부갈등 이유

부부갈등 이유를 살펴보면 1순위 기준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가치관'이 24.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어 배우자의 생활 습관(18.4%), 경제적 문제(17.5%), 자신의 부모·형제자매 관련 문제(13.0%),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관련 문제(10.8%)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갈등은 여성이 15.2%, 남성이 6.8%로, 여성에게서 갈등 경험이 더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는 자녀교육 문제, 40대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해당 연령대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표 Ⅲ-86 ▌부부갈등 이유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내 부모/ 형제 자매 관련한 문제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와 관련한 문제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가사와 육아 분담	내 부모 간병	배우자의 부모 간병	배우자와의 성생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 방식, 가치관
전체		223	13.0	10.8	18.4	6.7	17.5	6.3	0.4	1.3	1.3	24.2
성별	여성	105	12.4	15.2	19.0	8.6	16.2	5.7	0.0	1.9	1.0	20.0
	남성	118	13.6	6.8	17.8	5.1	18.6	6.8	0.8	0.8	1.7	28.0
연령	20대	5	20.0	0.0	0.0	40.0	20.0	20.0	0.0	0.0	0.0	0.0
	30대	25	20.0	4.0	12.0	4.0	20.0	16.0	0.0	0.0	4.0	20.0
	40대	48	12.5	8.3	18.8	6.3	25.0	10.4	0.0	0.0	0.0	18.8
	50대	65	13.8	12.3	24.6	4.6	15.4	3.1	0.0	1.5	3.1	21.5
	60대	55	10.9	14.5	10.9	7.3	12.7	3.6	1.8	3.6	0.0	34.5
	70대 이상	25	8.0	12.0	28.0	8.0	16.0	0.0	0.0	0.0	0.0	28.0
지역	읍/면	47	6.4	14.9	21.3	14.9	19.1	2.1	0.0	0.0	2.1	19.1
	동	176	14.8	9.7	17.6	4.5	17.0	7.4	0.6	1.7	1.1	25.6
자녀유무	있음	198	13.1	10.1	20.2	7.6	17.7	6.1	0.5	1.0	1.5	22.2
	없음	25	12.0	16.0	4.0	0.0	16.0	8.0	0.0	4.0	0.0	40.0

(3) 부부갈등 해결방안

부부갈등의 해결 방식을 보면, 1순위 응답 기준 '그냥 참는다'(30.0%)가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26.5%),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19.3%), 다른 일을 하며 잊으려고 한다(18.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비율은 0.0%로 나타나 부부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33.1%가 '그냥 참는다'를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자녀가 없는 집단(44.0%)은 '배우자와 함께 해결한다'는 응답이 자녀가 있는 집단(24.2%)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자녀가 있는 집단(20.7%)은 '혼자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응답이 자녀가 없는 집단(8.0%)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Ⅲ-87▐ 부부갈등 해결방안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그냥 참는다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본다	다른 일을 하면서 잊으려고 한다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전문가와 상담한다
전체		223	30.0	19.3	18.8	26.5	5.4	0.0
성별	여성	105	26.7	17.1	20.0	26.7	9.5	0.0
	남성	118	33.1	21.2	17.8	26.3	1.7	0.0
연령	20대	5	20.0	20.0	20.0	40.0	0.0	0.0
	30대	25	8.0	12.0	36.0	40.0	4.0	0.0
	40대	48	29.2	12.5	18.8	31.3	8.3	0.0
	50대	65	41.5	15.4	16.9	24.6	1.5	0.0
	60대	55	25.5	30.9	14.5	20.0	9.1	0.0
	70대 이상	25	36.0	24.0	16.0	20.0	4.0	0.0
지역	읍/면	47	27.7	23.4	19.1	19.1	10.6	0.0
	동	176	30.7	18.2	18.8	28.4	4.0	0.0
자녀유무	있음	198	30.3	20.7	19.2	24.2	5.6	0.0
	없음	25	28.0	8.0	16.0	44.0	4.0	0.0

5. 부모-자녀 관계

1) 부모효능감

전북도민의 부모효능감은 총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을 보였다. 먼저 '나는 부모라서 행복하다'의 평균은 4.1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30대(4.38점)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3.60점)는 가장 낮아 연령 간 차이가 나타났다 (F=5.523, p<.001).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역코딩) 문항의 평균은 3.53점으로, 후회 경향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91점)가 가장 높았고, 20대(2.40점)가 가장 낮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F=8.543, p<.001). 또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동 지역(3.63점)이 읍·면 지역(3.24점)보다 후회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t=3.36, p<.00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는 평균은 3.49점으로 나타났다. 20대(4.40점)가 가장 높았고 40대(3.31점)가 가장 낮아, 부모역할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F=4.573, p<.01).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의 평균은 4.50점으로 나타났으며, 20대(4.50점)에서 가장 높고 50대(3.46점)에서 가장 낮았다(F=5.151, p<.001).

마지막으로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의 평균은 4.08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4.22점)이 가장 높았으며 40대(3.85점)가 가장 낮았다 (F=4.446, p<.001). 지역별 비교에서는 읍·면 지역(4.20점)이 동 지역(4.03점)보다 노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t=2.233, p<.05).

▌표 Ⅲ-88▐ 부모효능감

(단위: 명, %, 점)

		사례수	나는 부모라서 행복함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함(역)	부모로서의 능력이 있음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음*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위해 노력함
전체		649	4.15	3.53	3.49	3.60	4.08
성별	여성	343	4.20	3.51	3.50	3.58	4.09
	남성	306	4.08	3.55	3.48	3.63	4.06
	t		1.736	-0.413	0.167	0.362	0.403
연령	20대	5	3.60	2.40	4.40	4.50	4.00
	30대	40	4.38	3.60	3.68	3.92	4.10
	40대	110	3.89	3.37	3.31	3.59	3.85
	50대	159	4.09	3.91	3.42	3.46	3.96
	60대	163	4.11	3.71	3.47	3.58	4.20
	70대 이상	172	4.36	3.12	3.63	3.67	4.22
	F		5.523***	8.543***	4.573**	5.151***	4.446***
지역	읍/면	163	4.23	3.24	3.53	3.66	4.20
	동	486	4.12	3.63	3.48	3.59	4.03
	t		1.396	3.36***	0.758	1.765	2.23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13	4.13	3.59	3.50	3.64	4.07
	이혼·별거	41	4.12	3.46	3.34	2.75	3.83
	사별	92	4.26	3.22	3.53	3.76	4.23
	t		1.387	2.351	1.26	15.662***	2.554

*p<.05, **p<.01, ***p<.001

주1)배우자 문항은 해당없음을 제외한 평균점수임

주2)(역): 역코딩을 의미함

2) 부모역할 지원 및 지지

전북도민의 부모역할 지원 및 지지 수준은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2.91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북도의 부모역할 지원'은 평균 2.91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3.41점)이 가장 높고 40대(2.55점)가 가장 낮아 연령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F=15.740, p<.001).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3.20점)이 동 지역(2.82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t=4.289, p<.001). 결혼상태에서는 사별 집단(3.42점)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2.82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12.243, p<.01).

'거주 지역(시·군)의 부모지원 수준'은 평균 2.8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70대 이상(3.41점)이 가장 높고 40대(2.55점)가 가장 낮았으며(F=5.343, p<.001),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3.09점)이 동 지역(2.76점)보다 높게 평가하였다(t=3.678, p<.001).

'주변 사람들의 부모역할 지지'는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3.37점)이 동 지역(3.13점)보다 더 높은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608, p<.01).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지지'는 평균 3.34점으로, 부모역할 지지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항목에 해당하였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89 ▌부모역할 지원 및 지지

(단위: 명, 점)

		사례수	전북도	각 시군	주변사람들	배우자
전체		649	2.91	2.84	3.19	3.34
성별	여성	343	2.99	2.89	3.22	3.27
	남성	306	2.83	2.79	3.16	3.42
	t		1.893	1.143	0.674	-1.721
연령	20대	5	3.00	2.60	3.80	2.80
	30대	40	3.03	3.08	3.38	3.73
	40대	110	2.55	2.72	3.08	3.20
	50대	159	2.65	2.66	3.20	3.36
	60대	163	2.86	2.74	3.07	3.37
	70대 이상	172	3.41	3.15	3.30	3.30
	F		15.74***	5.343***	0.674	1.923
지역	읍/면	163	3.20	3.09	3.37	3.36
	동	486	2.82	2.76	3.13	3.33
	t		4.289***	3.678***	2.608**	0.24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13	2.82	2.81	3.19	3.38
	이혼·별거	41	2.93	2.73	3.05	-
	사별	92	3.42	3.09	3.25	3.41
	t		12.243**	3.136	0.947	-

**p<.01, ***p<.001

3)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1) 청소년 자녀 양육 어려움

청소년 자녀 양육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37.2%가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하였으며 '진로문제(19.4%)', '학업성적(17.8%)', '대화단절(10.0%)'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진로문제(24.7%)'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하였으며 '경제적 부담(23.7%)', '학업성적(17.2%)', '대화단절(12.9%)'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과반이 넘는 51.7%가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으며 '학업성적(18.4%)', '진로문제(1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90▐ 청소년 자녀 양육 어려움 : 1순위

(단위: 명, %, 점)

		사례수	경제적 부담	학업 성적	대화 단절	자녀의 이성 관계나 성문제	진로 문제	학교 생활 부적응	생활 습관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입시 정보 부족
전체		180	37.2	17.8	10.0	5.0	19.4	1.7	1.1	6.7	1.1
성별	여성	93	23.7	17.2	12.9	7.5	24.7	2.2	1.1	8.6	2.2
	남성	87	51.7	18.4	6.9	2.3	13.8	1.1	1.1	4.6	0.0
연령	30대	5	40.0	20.0	20.0	0.0	0.0	0.0	0.0	20.0	0.0
	40대	57	38.6	19.3	7.0	3.5	19.3	1.8	1.8	8.8	0.0
	50대	111	35.1	18.0	11.7	6.3	18.9	1.8	0.9	5.4	1.8
	60대	7	57.1	0.0	0.0	0.0	42.9	0.0	0.0	0.0	0.0
지역	읍/면	24	50.0	12.5	12.5	0.0	16.7	0.0	0.0	8.3	0.0
	동	156	35.3	18.6	9.6	5.8	19.9	1.9	1.3	6.4	1.3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169	36.7	18.3	9.5	4.7	20.7	1.8	0.6	6.5	1.2
	비혼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이혼·별거	10	50.0	10.0	10.0	10.0	0.0	0.0	10.0	10.0	0.0

(2)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는 총 9개 문항(5점 척도)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를 믿는다'가 4.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3.74점), '자녀와 자주 다툰다(역문항)'(3.69점),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3.55점),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3.55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서 여성(3.56점)이 남성(3.16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F=2.711, p<.01),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의 또래 관계를 더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에게 간섭하는 편이다'(역코딩) 문항에서는 동 지역(3.42점)이 읍·면 지역(2.83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t=2.442, p<.05), 동 지역 거주자가 자녀에게 간섭을 덜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91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단위: 명, 점)

		사례수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낌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자녀를 믿음	자녀와 충분히 대화	자녀에게 간섭하는 편(역)	자녀와 자주 다툼(역)	자녀에게 화를 잘 냄(역)	내자녀를 이해할수 없음(역)	자녀와의 관계 만족스러움
전체		180	3.74	3.37	4.04	3.55	3.34	3.69	3.53	3.41	3.55
성별	여성	93	3.82	3.56	4.08	3.60	3.34	3.68	3.54	3.46	3.55
	남성	87	3.67	3.16	4.00	3.49	3.33	3.71	3.52	3.37	3.55
	t		1.041	2.711**	0.560	0.763	0.070	-0.193	0.152	0.582	-0.024
연령	30대	5	4.20	3.60	4.40	3.80	4.20	4.60	3.60	4.00	4.20
	40대	57	3.70	3.33	3.93	3.51	3.16	3.51	3.28	3.16	3.54
	50대	111	3.76	3.38	4.05	3.56	3.42	3.77	3.68	3.54	3.51
	60대	7	3.57	3.29	4.43	3.57	2.86	3.43	3.14	3.00	3.71
	F		0.481	0.13	0.997	0.154	2.229	2.019	2.131	2.459	0.946
지역	읍/면	24	3.54	3.50	3.83	3.46	2.83	3.42	3.25	3.17	3.42
	동	156	3.78	3.35	4.07	3.56	3.42	3.74	3.57	3.45	3.57
	t		-0.881	0.699	-0.931	-0.508	2.442*	1.339	1.188	1.19	-0.598

*p<.05, **p<.01
(역): 역채점한 문항임

(3)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결정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결정 방식은 총 3개 문항(5점 척도)으로 살펴 본 결과, '자녀의 진학 학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가 3.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진로 결정 시 자녀 의사를 존중한다'(3.91점), '가족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다'(3.74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진학 학교 결정 시 자녀 의견을 존중한다'는 문항에서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t=2.000, p<.05)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F=3.001, p<.05),

▌표 Ⅲ-92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결정

(단위: 명, 점)

		사례수	가족일 결정할때	자녀의 진학	자녀의 진로
전체		180	3.76	3.96	3.91
성별	여성	93	3.84	4.08	3.97
	남성	87	3.68	3.84	3.85
	t		1.313	2.000*	0.965
연령	30대	5	4.20	4.40	4.40
	40대	57	3.79	3.72	3.82
	50대	111	3.73	4.05	3.91
	60대	7	3.71	4.14	4.29
	F		0.556	3.001*	1.318
지역	읍/면	24	3.71	4.00	3.88
	동	156	3.77	3.96	3.92
	t		-0.337	0.257	-0.233

*p<.05

4) 성인자녀와의 관계

(1) 첫째 성인자녀의 인적사항

첫째 성인자녀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56.5%로 남성(43.5%)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40대(23.0%), 20대(23.0%), 50대 이상(18.8%)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를 보면 48.9%가 혼인한 상태였으며, 첫째 성인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77.5%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 Ⅲ-93▐ 첫째 성인 자녀의 인적 사항

(단위: 명, %, 점)

		사례수	성별		연령대				혼인 여부		동거 여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기혼	비혼	동거	비동거
전체		405	43.5	56.5	21.7	36.5	23.0	18.8	48.9	51.1	22.5	77.5
성별	여성	221	35.7	64.3	18.1	36.7	21.3	24.0	47.5	52.5	24.9	75.1
	남성	184	52.7	47.3	26.1	36.4	25.0	12.5	50.5	49.5	19.6	80.4
연령	40대	10	60.0	40.0	100.0	0.0	0.0	0.0	20.0	80.0	20.0	80.0
	50대	63	55.6	44.4	69.8	30.2	0.0	0.0	14.3	85.7	36.5	63.5
	60대	160	38.1	61.9	19.4	66.3	13.8	0.6	40.0	60.0	20.6	79.4
	70대 이상	172	43.0	57.0	1.7	13.4	41.3	43.6	71.5	28.5	19.2	80.8
지역	읍/면	130	39.2	60.8	17.7	30.0	31.5	20.8	47.7	52.3	21.5	78.5
	동	275	45.5	54.5	23.6	39.6	18.9	17.8	49.5	50.5	22.9	77.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2	45.4	54.6	26.2	44.7	21.3	7.8	42.2	57.8	24.1	75.9
	비혼	1	0.0	100.0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이혼·별거	30	46.7	53.3	30.0	26.7	30.0	13.3	46.7	53.3	20.0	80.0
	사별	92	37.0	63.0	5.4	14.1	26.1	54.3	70.7	29.3	18.5	81.5

(2)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_성인자녀에게 경제적, 가사 등 도움을 줌

성인자녀를 둔 응답자의 21.2%는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비율이 높아(x^2=52.383, p<.001), 상대적으로 젊은 부모 세대에서 경제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집안일 등 가사 지원은은 32.1%로 경제적 지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38.9%)이 남성(23.9%)보다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x^2=10.366, p<.01), 연령이 낮을수록 집안일을 돕는 비율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12.808, p<.01).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성인자녀와의 상호 돌봄 및 지원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94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가사 등 지원 줌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 도움			집안일 등 가사 도움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x^2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x^2
전체		405	21.2	78.8		32.1	67.9	
성별	여성	221	22.6	77.4	0.562	38.9	76.1	10.366**
	남성	184	19.6	80.4		23.9	61.1	
연령	40대	10	90.0	10.0	52.383***	50.0	50.0	12.808**
	50대	63	38.1	61.9		39.7	60.3	
	60대	160	22.5	77.5		38.1	61.9	
	70대 이상	172	9.9	90.1		22.7	77.3	
지역	읍/면	130	18.5	81.5	0.88	35.4	64.6	0.948
	동	275	22.5	77.5		30.5	69.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2	24.8	75.2	7.55	32.3	67.7	0.512
	비혼	1	0.0	100.0		0.0	100.0	
	이혼·별거	30	16.7	83.3		33.3	66.7	
	사별	92	12.0	88.0		31.5	68.5	

**p<.01, ***p<.001

(3)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_성인자녀에게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을 줌

성인자녀에게 '가족원 도움을 제공한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으며 여성(26.2%)이 남성(16.8%)보다 가족원 도움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χ^2=5.17, p<.05).

성인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응답은 36.3%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χ^2=47.086, p<.001), 동 지역 거주자(41.5%)가 읍·면 지역(25.4%)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859, p<.01).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χ^2=8.372, p<.05)

▌표 Ⅲ-95 ▌성인 자녀에게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줌

(단위: 명, %, 점)

		사례수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χ^2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χ^2
전체		405	22.0	78.0		36.3	63.7	
성별	여성	221	26.2	73.8	5.17*	35.3	64.7	0.211
	남성	184	16.8	83.2		37.5	62.5	
연령	40대	10	40.0	60.0	6.262	70.0	30.0	47.086***
	50대	63	14.3	85.7		63.5	36.5	
	60대	160	26.3	73.8		41.3	58.8	
	70대 이상	172	19.8	80.2		19.8	80.2	
지역	읍/면	130	22.3	77.7	0.012	25.4	74.6	9.859**
	동	275	21.8	78.2		41.5	58.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2	22.0	78.0	0.389	40.8	59.2	8.372*
	비혼	1	0.0	100.0		0.0	100.0	
	이혼·별거	30	20.0	80.0		26.7	73.3	
	사별	92	22.8	77.2		26.1	73.9	

*p<.05, **p<.01, ***p<.001

(4)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_성인자녀에게 경제적, 가사 등 지원을 받음

성인자녀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1.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0.6%)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x^2=50.766, p<.001) 이는 고령층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26.9%)보다 읍·면 지역(41.5%)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x^2=8.74, p<.01),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집단(52.2%)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x^2=28.409, p<.001).

성인자녀에게서 집안일 등 가사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2.2%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 지원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55.8%가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23.157, p<.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사별 집단(65.2%)에서 가사 등 생활지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x^2=29.287, p<.001)

▌표 Ⅲ-96▐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가사 등 지원 받음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 도움			집안일 도움		
			도움받고 있음	도움받고 있지 않음	x^2	도움받고 있음	도움받고 있지 않음	x^2
전체		405	31.6	68.4		42.2	57.8	
성별	여성	221	34.4	65.6	1.744	45.7	54.3	2.414
	남성	184	28.3	71.7		38.0	62.0	
연령	40대	10	20.0	80.0	50.766***	30.0	70.0	23.157***
	50대	63	12.7	87.3		28.6	71.4	
	60대	160	19.4	80.6		33.8	66.3	
	70대 이상	172	50.6	49.4		55.8	44.2	
지역	읍/면	130	41.5	58.5	8.74**	43.1	56.9	0.057
	동	275	26.9	73.1		41.8	58.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2	23.8	76.2	28.409***	34.0	66.0	29.287***
	비혼	1	0.0	100.0		100.0	0.0	
	이혼·별거	30	43.3	56.7		46.7	53.3	
	사별	92	52.2	47.8		65.2	34.8	

**p<.01, ***p<.001

(5)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_성인자녀에게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을 받음

성인자녀에게서 '가족원 돌봄(일상적 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4.6%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돌봄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0대 이상(48.8%)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χ^2=33.655, p<.001).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44.6%)이 동 지역(29.8%)보다 돌봄 지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χ^2=8.545, p<.01),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집단(56.5%)에서 돌봄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χ^2=32.835, p<.001). 이는 배우자가 없는 고령층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인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97 ▌성인 자녀에게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받음

(단위: 명, %)

		사례수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도움받고 있음	도움받고 있지 않음	χ^2	도움받고 있음	도움받고 있지 않음	χ^2
전체		405	34.6	65.4		33.3	66.7	
성별	여성	221	37.6	62.4	1.921	32.1	67.9	0.319
	남성	184	31.0	69.0		34.8	65.2	
연령	40대	10	20.0	80.0	33.655***	50.0	50.0	4.088
	50대	63	11.1	88.9		41.3	58.7	
	60대	160	29.4	70.6		33.1	66.9	
	70대 이상	172	48.8	51.2		29.7	70.3	
지역	읍/면	130	44.6	55.4	8.545**	30.8	69.2	0.566
	동	275	29.8	70.2		34.5	65.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2	25.9	74.1	32.835***	32.3	67.7	1.06
	비혼	1	100.0	0.0		0.0	100.0	
	이혼·별거	30	46.7	53.3		36.7	63.3	
	사별	92	56.5	43.5		35.9	64.1	

**p<.01, ***p<.001

(6) 성인자녀와의 관계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총 6개 문항(5점 척도)으로 살펴본 결과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한다'(3.42점)와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3.41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3.09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 차이를 보면, '걱정이나 고민을 자녀에게 이야기한다'는 문항에서는 여성(3.19점)이 남성(2.97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에서는 남성(3.51점)이 여성(3.2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안다'(χ^2=11.052, p<.001),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χ^2=7.458, p<.001), '관계에 만족한다'(χ^2=12.615, p<.001)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정서적 소통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자녀의 생활을 잘 안다'(t=-3.704, p<.001), '관계에 만족한다'(t=-2.379, p<.05)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집단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자녀의 생활을 잘 안다'(F=5.036, p<.01),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F=3.992, p<.01), '관계에 만족한다'(F=3.787, p<.05) 모두에서 사별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Ⅲ-98▐ 성인 자녀와의 관계 인식

(단위: 명, 점)

		사례수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함	자녀의 생활을 잘 앎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낌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함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함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함
전체		405	3.09	3.31	3.41	3.42	3.23	3.37
성별	여성	221	3.19	3.26	3.33	3.38	3.15	3.25
	남성	184	2.97	3.37	3.51	3.47	3.33	3.51
	t		2.080*	-1.192	-1.930	-0.971	-1.789	-2.599**
연령	40대	10	3.00	3.60	3.30	2.90	2.90	3.50
	50대	63	3.38	3.78	3.87	3.63	3.32	3.86
	60대	160	2.98	3.31	3.43	3.45	3.24	3.46
	70대 이상	172	3.08	3.12	3.23	3.34	3.21	3.09
	F		2.209	11.052***	7.458***	2.607	0.594	12.615***
지역	읍/면	130	3.05	3.06	3.28	3.37	3.24	3.20
	동	275	3.10	3.43	3.47	3.44	3.23	3.45
	t		-0.427	-3.704***	-1.855	-0.702	0.095	-2.37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2	3.10	3.42	3.51	3.49	3.29	3.48
	비혼	1	2.00	3.00	3.00	3.00	2.00	3.00
	이혼·별거	30	2.90	3.27	3.20	3.40	2.97	3.27
	사별	92	3.11	2.99	3.15	3.20	3.14	3.08
	F		0.7	5.036**	3.992**	2.37	1.966	3.787*

*p<.05, **p<.01, ***p<.001

(7)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에 따른 관계만족도 차이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에 따른 관계만족도를 살펴보면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관계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t=3.557, p<.001),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 역시 관계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8.234, p<.001).

한편 성인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t=4.573, p<.001)과 정서적 지원(t=8.331, p<.001)을 받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사 등 집안일 지원(t=-2.617, p<.01)과 가족원 돌봄 지원(t=-7.118, p<.001)을 받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관계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자녀와의 지원 유무보다 지원의 유형과 방식에 따라 관계만족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Ⅲ-99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에 따른 관계만족도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관계만족도	t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해줌	경제적 지원	지원을 줌	86	3.5	3.557***
		주지 않음	319	3.2	
	가사 등 집안일 지원	지원을 줌	130	3.4	1.837
		주지 않음	275	3.3	
	가족원 돌봄 지원	지원을 줌	89	3.3	-.300
		주지 않음	316	3.3	
	정서적 지원	지원을 줌	147	3.7	8.234***
		주지 않음	258	3.1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받음	경제적 지원	지원을 받음	128	3.5	4.573***
		받지 않음	277	3.2	
	가사 등 집안일 지원	지원을 받음	171	3.2	-2.617**
		받지 않음	234	3.4	
	가족원 돌봄 지원	지원을 받음	140	2.9	-7.118***
		받지 않음	265	3.4	
	정서적 지원	지원을 받음	135	3.7	8.331***
		받지 않음	270	3.1	

**p<.01, ***p<.001

(8) 독립한 성인자녀와의 만남정도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성인자녀와의 만남 빈도를 살펴본 결과, '한 달에 한두 번'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 년에 몇 번'(30.4%), '일주일에 두세 번'(5.2%), '거의 매일'(4.2%), '거의 하지 않음'(0.7%)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월 1~2회 또는 연 몇 차례의 만남이 대부분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자녀와의 만남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일 년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고령층일수록 접촉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독립해 거주하는 성인자녀의 비율이 더 높아, 동 지역에 해당없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00 ▐ 독립한 성인자녀와의 만남정도

(단위: 명, %)

		사례수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체		405	4.2	5.2	31.9	30.4	0.7	27.7
성별	여성	221	3.6	5.0	34.8	24.9	0.9	30.8
	남성	184	4.9	5.4	28.3	37.0	0.5	23.9
연령	40대	10	0.0	0.0	40.0	40.0	0.0	20.0
	50대	63	7.9	11.1	22.2	12.7	1.6	44.4
	60대	160	3.8	3.8	33.1	27.5	0.6	31.3
	70대 이상	172	3.5	4.7	33.7	39.0	0.6	18.6
지역	읍/면	130	4.6	6.2	33.1	38.5	0.0	17.7
	동	275	4.0	4.7	31.3	26.5	1.1	32.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2	4.3	5.0	30.9	28.0	0.4	31.6
	비혼	1	0.0	0.0	0.0	100.0	0.0	0.0
	이혼·별거	30	0.0	6.7	26.7	33.3	6.7	26.7
	사별	92	5.4	5.4	37.0	35.9	0.0	16.3

(9) 독립한 성인자녀와의 연락정도

독립하여 거주하는 성인자녀와의 연락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일주일에 두세 번'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자녀 간 지속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한 달에 한두 번'(17.5%), '거의 매일'(11.9%), '일 년에 몇 번'(4.2%), '거의 하지 않음'(0.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다수 응답자가 정기적이고 비교적 연락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나 부모와 성인자녀 간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01 ▌독립한 성인자녀와의 연락정도

(단위: 명, %)

		사례수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체		405	11.9	38.5	17.5	4.2	0.2	27.7
성별	여성	221	11.8	42.1	10.4	4.5	0.5	30.8
	남성	184	12.0	34.2	26.1	3.8	0.0	23.9
연령	40대	10	0.0	30.0	40.0	10.0	0.0	20.0
	50대	63	17.5	12.7	15.9	7.9	1.6	44.4
	60대	160	11.9	35.6	16.3	5.0	0.0	31.3
	70대 이상	172	10.5	51.2	18.0	1.7	0.0	18.6
지역	읍/면	130	10.8	48.5	22.3	0.8	0.0	17.7
	동	275	12.4	33.8	15.3	5.8	0.4	32.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2	12.4	34.8	17.7	3.2	0.4	31.6
	비혼	1	0.0	0.0	100.0	0.0	0.0	0.0
	이혼·별거	30	3.3	36.7	13.3	20.0	0.0	26.7
	사별	92	13.0	51.1	17.4	2.2	0.0	16.3

5) 부모와의 관계

(1) 부모와의 동거여부

전체 응답자의 8.4%는 아버지와, 11.3%는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청년층에서 부모 동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도시 지역에서 부모와의 동거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비혼 집단에서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 유무에 따라 비교했을 때에도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동거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직 독립하지 않았거나 부모와의 동거가 생활적·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102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와 함께살고 계신다	나와 따로살고 계신다	해당 없음	나와 함께살고 계신다	나와 따로살고 계신다	해당 없음
전체		1025	8.4	42.5	49.1	11.3	46.5	42.1
성별	여성	520	7.7	41.5	50.8	10.4	44.6	45.0
	남성	505	9.1	43.6	47.3	12.3	48.5	39.2
연령	20대	117	36.8	46.2	17.1	43.6	45.3	11.1
	30대	111	18.0	74.8	7.2	17.1	73.9	9.0
	40대	153	7.2	75.2	17.6	12.4	78.4	9.2
	50대	206	4.4	58.3	37.4	9.7	71.8	18.4
	60대	205	1.5	28.8	69.8	2.4	33.7	63.9
	70대 이상	233	0.0	2.1	97.9	0.9	2.1	97.0
지역	읍/면	242	5.4	29.8	64.9	6.2	32.6	61.2
	동	783	9.3	46.5	44.2	12.9	50.8	36.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4	51.5	46.2	4.3	57.1	38.6
	비혼	242	28.9	43.4	27.7	36.4	44.6	19.0
	이혼·별거	59	1.7	44.1	54.2	1.7	47.5	50.8
	사별	139	0.7	2.9	96.4	1.4	5.0	93.5
자녀유무	있음	649	2.5	43.1	54.4	4.3	48.7	47.0
	없음	376	18.6	41.5	39.9	23.4	42.8	33.8

(2)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여부

전체 응답자 중 배우자의 아버지와 동거하는 비율은 0.7%, 배우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비율은 1.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각각 1.2%, 2.2%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03▐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명, %, 점)

		사례수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나와 함께살고 계신다	나와 따로살고 계신다	해당 없음	나와 함께살고 계신다	나와 따로살고 계신다	해당 없음
전체		1025	0.7	40.6	58.7	1.3	44.1	54.6
성별	여성	520	0.6	39.2	60.2	1.9	42.1	56.0
	남성	505	0.8	42.0	57.2	0.6	46.1	53.3
연령	20대	117	0.0	6.0	94.0	0.9	5.1	94.0
	30대	111	1.8	45.0	53.2	1.8	45.9	52.3
	40대	153	0.7	66.0	33.3	3.9	68.0	28.1
	50대	206	1.0	63.6	35.4	1.0	74.3	24.8
	60대	205	1.0	46.8	52.2	1.0	50.7	48.3
	70대 이상	233	0.0	13.3	86.7	0.0	14.6	85.4
지역	읍/면	242	0.4	30.2	69.4	0.4	33.1	66.5
	동	783	0.8	43.8	55.4	1.5	47.5	51.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2	68.5	30.3	2.2	74.7	23.1
	비혼	242	0.0	0.0	100.0	0.0	0.0	100.0
	이혼·별거	59	0.0	20.3	79.7	0.0	20.3	79.7
	사별	139	0.0	2.2	97.8	0.0	2.2	97.8
자녀유무	있음	649	1.1	56.1	42.8	1.5	61.0	37.4
	없음	376	0.0	13.8	86.2	0.8	14.9	84.3

(3) 별거 중인 부모와의 만남정도

별거 중인 부모와의 만남정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응답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년에 몇 번'(15.7%), '일주일에 두세 번'(6.8%), '거의 매일'(4.2%), '거의 하지 않는다'(3.0%)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월 단위의 간헐적 만남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4▐ 별거 중인 부모와의 만남정도

(단위: 명, %)

		사례수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체		1025	4.2	6.8	21.2	15.7	3.0	49.1
성별	여성	520	4.6	5.2	21.5	15.2	2.1	51.3
	남성	505	3.8	8.5	20.8	16.2	4.0	46.7
연령	20대	117	7.7	6.8	30.8	5.1	3.4	46.2
	30대	111	9.0	14.4	31.5	18.0	4.5	22.5
	40대	153	4.6	7.8	37.3	32.0	3.9	14.4
	50대	206	6.3	15.5	28.2	20.4	6.3	23.3
	60대	205	1.5	1.0	13.7	20.0	1.5	62.4
	70대 이상	233	0.4	0.0	1.3	1.3	0.0	97.0
지역	읍/면	242	1.7	1.7	12.8	16.1	2.9	64.9
	동	783	5.0	8.4	23.8	15.6	3.1	44.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3.2	8.2	25.0	22.1	2.6	39.0
	비혼	242	7.9	8.7	23.6	7.9	3.7	48.3
	이혼·별거	59	5.1	1.7	18.6	15.3	10.2	49.2
	사별	139	1.4	0.0	2.2	2.9	0.7	92.8
자녀유무	있음	649	2.6	6.6	22.3	18.6	2.5	47.3
	없음	376	6.9	7.2	19.1	10.6	4.0	52.1

(4) 별거 중인 부모와의 연락정도

별거 중인 부모와의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연락한다는 응답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두 번'(16.4%), '일년에 몇 번'(7.4%), '거의 매일'(6.9%), '거의 하지 않는다'(2.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연락한다는 응답이, 40대는 '한 달에 한두 번' 연락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05 ▌별거 중인 부모와의 연락정도

(단위: 명, %)

		사례수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체		1025	6.9	18.0	16.4	7.4	2.0	49.4
성별	여성	520	6.9	18.3	14.0	7.1	1.9	51.7
	남성	505	6.9	17.6	18.8	7.7	2.0	46.9
연령	20대	117	8.5	17.9	12.8	13.7	0.9	46.2
	30대	111	15.3	34.2	18.0	6.3	3.6	22.5
	40대	153	8.5	28.1	33.3	10.5	5.2	14.4
	50대	206	12.6	27.2	22.8	11.2	1.9	24.3
	60대	205	1.5	12.2	15.1	6.8	1.5	62.9
	70대 이상	233	0.9	0.4	1.7	0.0	0.0	97.0
지역	읍/면	242	4.5	10.3	12.0	5.8	2.1	65.3
	동	783	7.7	20.3	17.8	7.9	1.9	44.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7.4	23.2	22.1	6.7	1.5	39.1
	비혼	242	9.1	15.7	12.4	11.2	2.9	48.8
	이혼·별거	59	6.8	10.2	13.6	15.3	5.1	49.2
	사별	139	1.4	2.9	0.7	0.7	0.7	93.5
자녀유무	있음	649	6.3	20.0	19.3	5.4	1.5	47.5
	없음	376	8.0	14.4	11.4	10.9	2.7	52.7

(5) 별거 중인 배우자 부모와의 만남정도

별거 중인 배우자 부모님과의 만남정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응답이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년에 몇 번'(14.1%), '일주일에 두세 번'(4.3%), '거의 하지 않는다'(1.9%), '거의 매일'(0.6%)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배우자 부모와의 직접적 만남은 월 1회 수준 또는 일년에 몇 번정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Ⅲ-106▐ 별거 중인 배우자 부모와의 만남정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체		1025	0.6	4.3	15.2	14.1	1.9	63.9
성별	여성	520	1.0	4.2	14.6	12.3	2.3	65.6
	남성	505	0.2	4.4	15.8	16.0	1.4	62.2
연령	20대	117	0.0	0.9	2.6	1.7	0.0	94.9
	30대	111	0.9	5.4	23.4	16.2	1.8	52.3
	40대	153	2.0	8.5	24.2	27.5	5.2	32.7
	50대	206	1.0	9.7	30.1	19.4	3.9	35.9
	60대	205	0.0	2.0	10.7	19.5	0.5	67.3
	70대 이상	233	0.0	0.0	2.6	1.3	0.0	96.1
지역	읍/면	242	0.0	0.8	11.2	10.7	0.8	76.4
	동	783	0.8	5.4	16.5	15.2	2.2	6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0	7.4	26.2	23.8	2.7	39.0
	비혼	242	0.0	0.0	0.0	0.0	0.0	100.0
	이혼·별거	59	0.0	1.7	5.1	6.8	5.1	81.4
	사별	139	0.0	0.0	0.0	1.4	0.0	98.6
자녀유무	있음	649	0.9	6.5	21.7	18.5	2.0	50.4
	없음	376	0.0	0.5	4.0	6.6	1.6	87.2

(6) 별거 중인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정도

배우자 부모님과의 연락 빈도를 살펴본 결과, '한 달에 한두 번' 연락한다는 응답이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두세 번'(9.7%), '일년에 몇 번'(8.4%), '거의 하지 않는다'(4.0%), '거의 매일'(1.1%)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은 정기적·일상적 연락보다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07 ▐ 별거 중인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정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체		1025	1.1	9.7	13.0	8.4	4.0	63.9
성별	여성	520	1.3	11.2	11.5	6.2	4.2	65.6
	남성	505	0.8	8.1	14.5	10.7	3.8	62.2
연령	20대	117	0.0	1.7	0.9	1.7	0.9	94.9
	30대	111	3.6	14.4	15.3	8.1	6.3	52.3
	40대	153	1.3	10.5	29.4	17.0	9.2	32.7
	50대	206	2.4	19.9	21.4	13.6	6.8	35.9
	60대	205	0.0	10.7	10.2	9.3	2.4	67.3
	70대 이상	233	0.0	0.9	2.1	0.9	0.0	96.1
지역	읍/면	242	0.8	7.4	9.5	4.1	1.7	76.4
	동	783	1.1	10.3	14.0	9.7	4.7	6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9	16.8	21.7	14.5	6.2	39.0
	비혼	242	0.0	0.0	0.0	0.0	0.0	100.0
	이혼·별거	59	0.0	0.0	8.5	1.7	8.5	81.4
	사별	139	0.0	0.7	0.7	0.0	0.0	98.6
자녀유무	있음	649	1.4	14.5	18.6	10.5	4.6	50.4
	없음	376	0.5	1.3	3.2	4.8	2.9	87.2

(7) 부모 지원_경제, 집안일

부모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56.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85.0%)와 50대(76.7%)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도 56.5%가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60대(76.3%)가 가장 높았고 50대(66.7%), 40대(5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에서의 부모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08 ▌부모 지원_경제, 집안일

(단위: 명, %, 점)

		경제적 도움			집안일 도움		
		사례수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사례수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전체		374	56.7	43.3	331	56.5	43.5
성별	여성	208	60.1	39.9	174	58.6	41.4
	남성	166	52.4	47.6	157	54.1	45.9
연령	20대	77	19.5	80.5	74	50.0	50.0
	30대	57	45.6	54.4	54	37.0	63.0
	40대	81	58.0	42.0	67	53.7	46.3
	50대	116	76.7	23.3	96	66.7	33.3
	60대	40	85.0	15.0	38	76.3	23.7
	70대 이상	3	33.3	66.7	2	50.0	50.0
지역	읍/면	54	64.8	35.2	58	67.2	32.8
	동	320	55.3	44.7	273	54.2	45.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09	70.3	29.7	175	62.9	37.1
	비혼	137	35.8	64.2	129	49.6	50.4
	이혼·별거	22	54.5	45.5	20	40.0	60.0
	사별	6	66.7	33.3	7	71.4	28.6
자녀유무	있음	206	69.4	30.6	184	62.5	37.5
	없음	168	41.1	58.9	147	49.0	51.0

해당없음을 제외한 결과임

(8) 부모 지원_돌봄, 정서지원

가족원 돌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46.1%가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60대와 50대에서 돌봄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고령층의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53.8%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정서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09 ▌부모 지원_돌봄, 정서지원

(단위: 명, %, 점)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사례수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사례수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전체		245	46.1	53.9	288	53.8	46.2
성별	여성	127	45.7	54.3	150	54.7	45.3
	남성	118	46.6	53.4	138	52.9	47.1
연령	20대	30	50.0	50.0	38	39.5	60.5
	30대	47	21.3	78.7	53	34.0	66.0
	40대	61	39.3	60.7	67	56.7	43.3
	50대	78	57.7	42.3	101	61.4	38.6
	60대	27	70.4	29.6	28	78.6	21.4
	70대 이상	2	0.0	100.0	1	0.0	100.0
지역	읍/면	52	53.8	46.2	49	57.1	42.9
	동	193	44.0	56.0	239	53.1	46.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68	44.0	56.0	180	60.6	39.4
	비혼	58	53.4	46.6	84	41.7	58.3
	이혼·별거	14	35.7	64.3	19	42.1	57.9
	사별	5	60.0	40.0	5	60.0	40.0
자녀유무	있음	169	45.0	55.0	184	62.0	38.0
	없음	76	48.7	51.3	104	39.4	60.6

해당없음을 제외한 결과임

(9) 배우자 부모 지원_경제, 집안일

배우자 부모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7.8%가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80.6%)와 60대(84.4%)에서 경제적 지원 비율이 특히 높았다. 가사 등 집안일 지원은 전체의 61.8%가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0대(85.7%)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110 ▐ 배우자 부모 지원_경제, 집안일

(단위: 명, %, 점)

		경제적 도움			집안일 도움		
		사례수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사례수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전체		183	67.8	32.2	157	61.8	38.2
성별	여성	92	73.9	26.1	79	60.8	39.2
	남성	91	61.5	38.5	78	62.8	37.2
연령	20대	5	20.0	80.0	4	25.0	75.0
	30대	23	52.2	47.8	18	33.3	66.7
	40대	53	54.7	45.3	47	44.7	55.3
	50대	67	80.6	19.4	57	77.2	22.8
	60대	32	84.4	15.6	28	85.7	14.3
	70대 이상	3	33.3	66.7	3	33.3	66.7
지역	읍/면	29	69.0	31.0	27	81.5	18.5
	동	154	67.5	32.5	130	57.7	42.3

해당없음을 제외한 결과임

(10) 배우자 부모 지원_돌봄, 정서지원

가족원 돌봄 지원은 전체의 54.3%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84.6%)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원은 전체의 59.2%가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7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지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11 ▌배우자 부모 지원_돌봄, 정서지원

(단위: 명, %, 점)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		
		사례수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사례수	도움주고 있음	도움주고 있지 않음
전체		151	54.3	45.7	169	59.2	40.8
성별	여성	83	56.6	43.4	95	57.9	42.1
	남성	68	51.5	48.5	74	60.8	39.2
연령	20대	4	50.0	50.0	4	25.0	75.0
	30대	21	33.3	66.7	23	34.8	65.2
	40대	43	44.2	55.8	45	51.1	48.9
	50대	55	58.2	41.8	67	68.7	31.3
	60대	26	84.6	15.4	27	77.8	22.2
	70대 이상	2	0.0	100.0	3	33.3	66.7
지역	읍/면	27	59.3	40.7	28	78.6	21.4
	동	124	53.2	46.8	141	55.3	44.7

해당없음을 제외한 결과임

(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전북 도민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3.9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3.70점), 배우자의 아버지(3.50점), 배우자의 어머니(3.47점)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는 연령별로 20대(3.99점)가 가장 높고 70대 이상(3.33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F=152.925,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3.70점)이 읍 · 면 지역(3.6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4.956, p<.0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3.76점)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F=107.071, p<.001).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3.73점)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t=4.427, p<.001).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3.92점)이 남성(3.8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 2.174, p<.05). 연령별로는 20대(4.13점)가 가장 높고 70대 이상(3.43점)이 가장 낮았다(F=189.384, p<.001). 지역별 비교에서는 읍 · 면 지역(3.94점)이 동 지역(3.9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6.331,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99점) 집단에서 가장 높고 이혼·별거(3.35점)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F=111.781, p<.001).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t=2.825, p<.01).

배우자의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는 30대(3.96점)가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3.10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F=68.679, p<.001). 동 지역(3.53점)이 읍 · 면 지역(3.3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2.968, p<.01),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 있음 집단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F=164.858, p<.001).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t=13.397, p<.001).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도 20대(4.14점)가 가장 높고 70대 이상(3.15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97.267, p<.001). 동 지역(3.49점)이 읍 · 면 지역(3.37점)보다 높으며(t=3.590, p<.001),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F=248.404, p<.001). 자녀가 있는 집단(3.49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5.171, p<.001).

▌표 Ⅲ-112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전체		1025	3.70	3.92	3.50	3.47
성별	여성	520	3.74	3.95	3.41	3.36
	남성	505	3.65	3.90	3.58	3.58
	t		1.719	2.174*	0.710	-0.438
연령	20대	117	3.99	4.13	3.80	4.14
	30대	111	3.73	4.07	3.96	3.79
	40대	153	3.56	3.88	3.54	3.54
	50대	206	3.65	3.85	3.55	3.49
	60대	205	3.58	3.72	3.24	3.27
	70대 이상	233	3.33	3.43	3.10	3.15
	F		152.925***	189.384***	68.679***	97.267***
지역	읍/면	242	3.68	3.94	3.38	3.37
	동	783	3.70	3.92	3.53	3.49
	t		4.956***	6.331***	2.968**	3.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3.76	3.94	3.52	3.49
	비혼	242	3.64	3.99	-	-
	이혼·별거	59	3.50	3.35	3.00	2.85
	사별	139	3.29	3.56	3.00	3.00
	F		107.071***	111.781***	164.858***	248.404***
자녀유무	있음	649	3.73	3.91	3.52	3.49
	없음	376	3.66	3.94	3.34	3.34
	t		4.427***	-2.825**	13.397***	15.171***

*p<.05, **p<.01, ***p<.001

주) 5점척도 평균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계산됨

6. 가족돌봄

가족돌봄은 영유아 자녀 돌봄, 초등 자녀 돌봄,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본 조사는 가족실태조사로 해당 돌봄집단을 별도로 집중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 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1) 영유아 자녀 돌봄

(1)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은 '신체적으로 힘듦'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돌봄 공백(26.5%), 경제적 어려움(2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은 신체적 힘듦(30.4%)과 돌봄 공백(30.4%)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34.6%)과 신체적 힘듦(30.8%)을 주요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영유아기 돌봄 부담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체감되고 있으며, 여성은 돌봄 시간과 신체적 피로가, 남성은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Ⅲ-113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체력적) 으로 힘듦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봄 공백 어려움	직장내 육아지원 제도 부재 및 활용 어려움	영유아 놀이공간 부족	정신적 어려움
전체		49	24.5	30.6	26.5	8.2	6.1	4.1
성별	여성	23	13.0	30.4	30.4	4.3	13.0	8.7
	남성	26	34.6	30.8	23.1	11.5	0.0	0.0
연령	20대	3	66.7	33.3	0.0	0.0	0.0	0.0
	30대	31	22.6	29.0	25.8	12.9	6.5	3.2
	40대	14	21.4	35.7	28.6	0.0	7.1	7.1
	50대	1	0.0	0.0	100.0	0.0	0.0	0.0
지역	읍/면	6	16.7	33.3	33.3	0.0	0.0	16.7
	동	43	25.6	30.2	25.6	9.3	7.0	2.3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을 1·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보면 '돌봄 공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으로 힘듦(49.0%), 경제적 어려움(32.7%), 직장 내 육아 제도 부재(3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60.9%)과 남성(57.7%) 모두 '돌봄 공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해, 양육 과정에서 돌봄 공백 문제가 전반적으로 공통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14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 : 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체력적)으로 힘듦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봄 공백 어려움	직장내 육아지원 제도 부재 및 활용 어려움	영유아 놀이공간 부족	정신적 어려움
전체		49	32.7	49.0	59.2	30.6	22.4	6.1
성별	여성	23	26.1	47.8	60.9	26.1	30.4	8.7
	남성	26	38.5	50.0	57.7	34.6	15.4	3.8
연령	20대	3	66.7	66.7	0.0	0.0	66.7	0.0
	30대	31	29.0	41.9	64.5	35.5	22.6	6.5
	40대	14	35.7	64.3	57.1	21.4	14.3	7.1
	50대	1	0.0	0.0	100.0	100.0	0.0	0.0
지역	읍/면	6	16.7	66.7	83.3	0.0	16.7	16.7
	동	43	34.9	46.5	55.8	34.9	23.3	4.7

(2) 영유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평균 6.33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 6.73점, 여성 5.87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5 ▌영유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10점 척도)
전체		49	0.0	0.0	10.2	8.2	14.3	18.4	24.5	8.2	12.2	4.1	6.33
성별	여성	23	0.0	0.0	17.4	8.7	13.0	26.1	17.4	0.0	17.4	0.0	5.87
	남성	26	0.0	0.0	3.8	7.7	15.4	11.5	30.8	15.4	7.7	7.7	6.73
연령	20대	3	0.0	0.0	0.0	0.0	0.0	0.0	0.0	33.3	66.7	0.0	8.67
	30대	31	0.0	0.0	9.7	9.7	19.4	19.4	22.6	3.2	9.7	6.5	6.16
	40대	14	0.0	0.0	14.3	7.1	7.1	21.4	35.7	14.3	0.0	0.0	6.00
	50대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9.00
지역	읍/면	6	0.0	0.0	0.0	33.3	66.7	0.0	0.0	0.0	0.0	0.0	4.67
	동	43	0.0	0.0	11.6	4.7	7.0	20.9	27.9	9.3	14.0	4.7	6.56

(3) 영유아 등원 기관

영유아 자녀의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등원 기관이 있는 비율은 83.7%, 등원하지 않는 비율은 16.3%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가구도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등원하는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관은 어린이집(56.1%)과 유치원(36.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기관 돌봄뿐 아니라 가정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Ⅲ-116 ▌영유아 등원 기관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등원 기관 있음	등원 기관 없음
전체		49	83.7	16.3
성별	여성	23	78.3	21.7
	남성	26	88.5	11.5
연령	20대	3	100.0	0.0
	30대	31	74.2	25.8
	40대	14	100.0	0.0
	50대	1	100.0	0.0
지역	읍/면	6	100.0	0.0
	동	43	81.4	18.6

▌표 Ⅲ-117 ▌영유아 등원 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

(단위: 명, %, 점)

		사례수	어린이집 (놀이방 포함)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유아 스포츠단 등)
전체		41	56.1	36.6	4.9	2.4
성별	여성	18	44.4	44.4	5.6	5.6
	남성	23	65.2	30.4	4.3	0.0
연령	20대	3	33.3	66.7	0.0	0.0
	30대	23	60.9	30.4	4.3	4.3
	40대	14	57.1	42.9	0.0	0.0
	50대	1	0.0	0.0	100.0	0.0
지역	읍/면	6	100.0	0.0	0.0	0.0
	동	35	48.6	42.9	5.7	2.9

(4) 등원하는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와 돌봄 시간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5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친조부모(12.2%), 아이돌보미(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돌봄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부모와 아이돌보미 등 가족 외 돌봄 자원의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영유아 자녀에 대한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5.0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Ⅲ-118 ▌등원하는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단위: 명, %)

		사례수	어머니	친조부모	아이돌보미	아버지	외조부모	베이비시터	친인척	이웃	가사도우미
전체		41	53.7	12.2	12.2	4.9	4.9	4.9	2.4	2.4	2.4
성별	여성	18	50.0	22.2	16.7	5.6	0.0	5.6	0.0	0.0	0.0
	남성	23	56.5	4.3	8.7	4.3	8.7	4.3	4.3	4.3	4.3
연령	20대	3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30대	23	52.2	8.7	17.4	4.3	0.0	4.3	4.3	4.3	4.3
	40대	14	64.3	14.3	0.0	0.0	14.3	7.1	0.0	0.0	0.0
	5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지역	읍/면	6	50.0	16.7	0.0	0.0	0.0	16.7	0.0	16.7	0.0
	동	35	54.3	11.4	14.3	5.7	5.7	2.9	2.9	0.0	2.9

▌표 Ⅲ-119 ▌등원하는 영유아 자녀 주 양육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단위: 명, %, 시간)

		사례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		41	2.4	7.3	24.4	17.1	19.5	29.3	5.0
성별	여성	18	5.6	5.6	16.7	22.2	27.8	22.2	4.6
	남성	23	0.0	8.7	30.4	13.0	13.0	34.8	5.3
연령	20대	3	0.0	0.0	33.3	33.3	33.3	0.0	4.0
	30대	23	4.3	4.3	30.4	17.4	17.4	26.1	4.7
	40대	14	0.0	14.3	14.3	14.3	21.4	35.7	5.6
	50대	1	0.0	0.0	0.0	0.0	0.0	100.0	6.0
지역	읍/면	6	0.0	0.0	66.7	0.0	16.7	16.7	4.5
	동	35	2.9	8.6	17.1	20.0	20.0	31.4	5.0

(5) 미등원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및 돌봄 시간

미등원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조부모와 베이비시터 등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미등원 영유아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8.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62.5%로 나타나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집단의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표 Ⅲ-120 ▌미등원 영유아 자녀의 주 양육자

(단위: 명, %, 점)

		사례수	어머니	친조부모	베이비시터	외조부모
전체		8	37.5	25.0	25.0	12.5
성별	여성	5	60.0	20.0	0.0	20.0
	남성	3	0.0	33.3	66.7	0.0
연령	30대	8	37.5	25.0	25.0	12.5
지역	동	8	37.5	25.0	25.0	12.5

▌표 Ⅲ-121 ▌미등원 영유아 자녀 주 양육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단위: 명, %, 시간)

		사례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6시간 이상	평균(시간)
전체		8	25.0	12.5	62.5	8.3
성별	여성	5	20.0	20.0	60.0	10.2
	남성	3	33.3	0.0	66.7	5.0
연령	30대	8	25.0	12.5	62.5	8.3
지역	동	8	25.0	12.5	62.5	8.3

(6) 양육자 부재시 도움을 주는 사람

영유아 자녀 양육자가 부재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살펴보면 어머니(3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버지(16.3%)와 외조부모(16.3%)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응답도 8.2%로 나타나 영유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Ⅲ-122 ▌양육자 부재 시 도움을 주는 사람

(단위: 명, %, 점)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외조부모	친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	이웃	베이비시터	도움받기 어려움
전체		49	36.7	16.3	16.3	6.1	6.1	6.1	2.0	2.0	8.2
성별	여성	23	34.8	26.1	13.0	4.3	13.0	0.0	0.0	4.3	4.3
	남성	26	38.5	7.7	19.2	7.7	0.0	11.5	3.8	0.0	11.5
연령	20대	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30대	31	32.3	16.1	22.6	6.5	9.7	6.5	3.2	0.0	3.2
	40대	14	35.7	21.4	7.1	7.1	0.0	0.0	0.0	7.1	21.4
	50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지역	읍/면	6	50.0	0.0	16.7	0.0	0.0	0.0	0.0	16.7	16.7
	동	43	34.9	18.6	16.3	7.0	7.0	7.0	2.3	0.0	7.0

(7) 영유아 자녀 돌봄 필요 시간대

영유아 자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후 5~6시(53.1%)가 가장 높았으며, 오후 4~5시(49.0%), 오후 6~7시(30.6%), 오후 2~3시(26.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오전 8~9시(34.6%) 시간대의 돌봄 필요도가 남성(8.7%)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여러 시간대에서도 돌봄 수요가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는 하루 전반에 걸친 다양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대별 맞춤형 돌봄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Ⅲ-123 ▌영유아 자녀돌봄 필요 시간대(중복응답)

(단위: 명, %)

		사례수	오전 6~ 7시	오전 7~ 8시	오전 8~ 9시	오전 9~ 10시	오전 10~11시	오전 11~12시	오후 12~1시	오후 1~ 2시	오후 2~ 3시	오후 3~ 4시	오후 4~ 5시	오후 5~ 6시	오후 6~ 7시	오후 7~ 8시	오후 8~ 9시	오후 9~ 10시
전체		49	2.0	16.3	22.4	16.3	16.3	16.3	14.3	18.4	26.5	22.4	49.0	53.1	30.6	10.2	10.2	6.1
성별	여성	23	3.8	23.1	34.6	15.4	15.4	23.1	15.4	23.1	26.9	30.8	50.0	42.3	23.1	11.5	11.5	11.5
	남성	26	0.0	8.7	8.7	17.4	17.4	8.7	13.0	13.0	26.1	13.0	47.8	65.2	39.1	8.7	8.7	0.0
연령	20대	3	0.0	33.3	33.3	66.7	0.0	33.3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30대	31	3.2	19.4	19.4	9.7	16.1	12.9	19.4	22.6	35.5	29.0	54.8	48.4	25.8	9.7	9.7	9.7
	40대	14	0.0	7.1	28.6	14.3	21.4	21.4	7.1	14.3	14.3	14.3	50.0	71.4	42.9	14.3	14.3	0.0
	50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지역	읍/면	6	0.0	16.7	16.7	0.0	16.7	16.7	16.7	50.0	50.0	33.3	50.0	50.0	33.3	16.7	16.7	0.0
	동	43	2.3	16.3	23.3	18.6	16.3	16.3	14.0	14.0	23.3	20.9	48.8	53.5	30.2	9.3	9.3	7.0

(8)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영유아 자녀의 돌봄 분담을 일상생활돌봄, 아플 때 돌봄, 놀이활동, 자녀 등·하원, 훈육 및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내가 담당한다(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고 응답한 비율은 일상생활돌봄은 69.4%, 아플 때 돌봄은 61.2%, 놀이활동 46.9%, 자녀 등·하원은 51.0%, 훈육 및 교육 57.2%로 나타나 영유아 자녀 돌봄을 주로 아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놀이활동에서는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4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등·하원 역시 부부 공동분담이 36.7%로 나타나 다른 돌봄 영역에 비해 공동 참여 비율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Ⅲ-124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일상생활 돌봄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줌
전체		49	6.1	4.1	18.4	28.6	40.8	2.0
성별	여성	23	8.7	4.3	17.4	30.4	39.1	0.0
	남성	26	3.8	3.8	19.2	26.9	42.3	3.8
연령	20대	3	0.0	0.0	0.0	66.7	33.3	0.0
	30대	31	6.5	3.2	25.8	22.6	38.7	3.2
	40대	14	0.0	7.1	7.1	35.7	50.0	0.0
	50대	1	100.0	0.0	0.0	0.0	0.0	0.0
지역	읍/면	6	0.0	0.0	0.0	50.0	50.0	0.0
	동	43	7.0	4.7	20.9	25.6	39.5	2.3

▌표 Ⅲ-125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아플 때 돌봄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줌
전체		49	2.0	10.2	26.5	22.4	38.8	0.0
성별	여성	23	0.0	8.7	30.4	17.4	43.5	0.0
	남성	26	3.8	11.5	23.1	26.9	34.6	0.0
연령	20대	3	0.0	0.0	0.0	66.7	33.3	0.0
	30대	31	0.0	16.1	32.3	19.4	32.3	0.0
	40대	14	0.0	0.0	21.4	21.4	57.1	0.0
	50대	1	100.0	0.0	0.0	0.0	0.0	0.0
지역	읍/면	6	0.0	0.0	33.3	33.3	33.3	0.0
	동	43	2.3	11.6	25.6	20.9	39.5	0.0

▌표 Ⅲ-126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놀이 활동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줌
전체		49	0.0	12.2	40.8	22.4	24.5	0.0
성별	여성	23	0.0	13.0	30.4	21.7	34.8	0.0
	남성	26	0.0	11.5	50.0	23.1	15.4	0.0
연령	20대	3	0.0	0.0	33.3	33.3	33.3	0.0
	30대	31	0.0	16.1	48.4	19.4	16.1	0.0
	40대	14	0.0	0.0	28.6	28.6	42.9	0.0
	50대	1	0.0	100.0	0.0	0.0	0.0	0.0
지역	읍/면	6	0.0	0.0	33.3	33.3	33.3	0.0
	동	43	0.0	14.0	41.9	20.9	23.3	0.0

▌표 Ⅲ-127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자녀 등하원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줌
전체		49	2.0	8.2	36.7	24.5	26.5	2.0
성별	여성	23	4.3	4.3	39.1	26.1	26.1	0.0
	남성	26	0.0	11.5	34.6	23.1	26.9	3.8
연령	20대	3	0.0	33.3	0.0	66.7	0.0	0.0
	30대	31	3.2	6.5	38.7	25.8	25.8	0.0
	40대	14	0.0	0.0	42.9	14.3	35.7	7.1
	50대	1	0.0	100.0	0.0	0.0	0.0	0.0
지역	읍/면	6	0.0	0.0	50.0	16.7	33.3	0.0
	동	43	2.3	9.3	34.9	25.6	25.6	2.3

▌표 Ⅲ-128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 훈육 및 교육

(단위: 명, %)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줌
전체		49	4.1	6.1	30.6	32.7	24.5	2.0
성별	여성	23	4.3	0.0	34.8	30.4	30.4	0.0
	남성	26	3.8	11.5	26.9	34.6	19.2	3.8
연령	20대	3	0.0	0.0	0.0	0.0	100.0	0.0
	30대	31	6.5	6.5	29.0	35.5	19.4	3.2
	40대	14	0.0	0.0	42.9	35.7	21.4	0.0
	50대	1	0.0	100.0	0.0	0.0	0.0	0.0
지역	읍/면	6	0.0	0.0	16.7	66.7	16.7	0.0
	동	43	4.7	7.0	32.6	27.9	25.6	2.3

(9)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만족도

영유아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는 평균 3.51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54점, 여성은 3.48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129▐ 영유아 자녀 돌봄분담 만족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척도)
전체		49	4.1	8.2	34.7	38.8	14.3	3.51
성별	여성	23	8.7	4.3	34.8	34.8	17.4	3.48
	남성	26	0.0	11.5	34.6	42.3	11.5	3.54
연령	20대	3	0.0	0.0	0.0	100.0	0.0	4.00
	30대	31	3.2	9.7	35.5	35.5	16.1	3.52
	40대	14	7.1	7.1	42.9	35.7	7.1	3.29
	50대	1	0.0	0.0	0.0	0.0	100.0	5.00
지역	읍/면	6	0.0	16.7	33.3	50.0	0.0	3.33
	동	43	4.7	7.0	34.9	37.2	16.3	3.53

2) 초등 자녀 돌봄

(1)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

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24.7%)과 돌봄 공백(24.7%)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으로 힘듦(17.3%), 학업 관련 어려움(9.9%), 게임·스마트폰 사용 문제(8.6%)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돌봄 공백(28.9%)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23.7%), 학업 관련 어려움(1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25.6%)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으로 힘듦(23.3%), 돌봄 공백(20.9%)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Ⅲ-130▐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체력적)으로 힘듦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봄 공백 어려움	직장내 육아지원 제도 부재 및 활용 어려움	학업 관련 어려움	대화 단절	자녀학교부적응(따돌림 등)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전체		81	24.7	17.3	24.7	6.2	9.9	3.7	4.9	8.6
성별	여성	38	23.7	10.5	28.9	2.6	13.2	5.3	5.3	10.5
	남성	43	25.6	23.3	20.9	9.3	7.0	2.3	4.7	7.0
연령	20대	2	0.0	0.0	50.0	0.0	0.0	50.0	0.0	0.0
	30대	13	23.1	23.1	46.2	0.0	0.0	0.0	0.0	7.7
	40대	54	25.9	20.4	16.7	5.6	13.0	3.7	7.4	7.4
	50대	12	25.0	0.0	33.3	16.7	8.3	0.0	0.0	16.7
지역	읍/면	12	41.7	8.3	8.3	8.3	8.3	8.3	8.3	8.3
	동	69	21.7	18.8	27.5	5.8	10.1	2.9	4.3	8.7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을 1 ·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38.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 공백(37.0%), 학업 관련 어려움(32.1%), 직장 내 육아제도 부재(29.6%), 신체적으로 힘듦(28.4%)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돌봄 공백(42.1%)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했으며 경제적 어려움(34.2%), 신체적으로 힘듦(28.9%), 학업 관련 어려움(28.9%)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41.9%)이 가장 높았고 직장 내 육아제도 부재(37.2%), 학업 관련 어려움(34.9%)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131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 : 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체력적)으로 힘듦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봄 공백 어려움	직장내 육아지원 제도 부재 및 활용 어려움	학업 관련 어려움	대화 단절	자녀학교 부적응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전체		81	38.3	28.4	37.0	29.6	32.1	9.9	7.4	17.3
성별	여성	38	34.2	28.9	42.1	21.1	28.9	13.2	10.5	21.1
	남성	43	41.9	27.9	32.6	37.2	34.9	7.0	4.7	14.0
연령	20대	2	50.0	0.0	50.0	0.0	50.0	50.0	0.0	0.0
	30대	13	46.2	23.1	53.8	61.5	7.7	0.0	0.0	7.7
	40대	54	38.9	31.5	27.8	25.9	35.2	13.0	11.1	16.7
	50대	12	25.0	25.0	58.3	16.7	41.7	0.0	0.0	33.3
지역	읍/면	12	58.3	25.0	33.3	8.3	41.7	8.3	8.3	16.7
	동	69	34.8	29.0	37.7	33.3	30.4	10.1	7.2	17.4

(2) 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10점 척도)는 평균 6.4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6.91점, 여성은 5.82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32 ▌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단위: 명, %, 점)

		사례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10점 척도)
전체		81	1.2	1.2	3.7	6.2	16.0	21.0	27.2	11.1	8.6	3.7	6.40
성별	여성	38	0.0	2.6	5.3	10.5	21.1	26.3	21.1	10.5	2.6	0.0	5.82
	남성	43	2.3	0.0	2.3	2.3	11.6	16.3	32.6	11.6	14.0	7.0	6.91
연령	20대	2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6.50
	30대	13	0.0	0.0	0.0	15.4	0.0	7.7	30.8	23.1	7.7	15.4	7.31
	40대	54	1.9	1.9	3.7	3.7	22.2	22.2	27.8	11.1	5.6	0.0	6.09
	50대	12	0.0	0.0	8.3	8.3	8.3	25.0	16.7	0.0	25.0	8.3	6.75
지역	읍/면	12	0.0	0.0	16.7	0.0	50.0	0.0	25.0	0.0	8.3	0.0	5.50
	동	69	1.4	1.4	1.4	7.2	10.1	24.6	27.5	13.0	8.7	4.3	6.55

(3) 하교 후 초등 자녀 돌봄

초등 자녀의 하교 후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학원 이용(45.7%)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돌봄(29.6%), 돌봄교실(25.9%), 방과후 수업(23.5%)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이가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경우도 9.9%로 나타나, 보호 공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교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7.8%), 30분 미만(2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33 ▌하교 후 초등 자녀 돌보는 곳(중복응답)

(단위: 명, %)

		사례수	학원	아이의 어머니	돌봄교실	방과후수업	늘봄학교	아이의 (외)조부모	아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이의 아버지	다함께 돌봄센터	친인척	아이돌보미
전체		81	45.7	29.6	25.9	23.5	13.6	11.1	9.9	7.4	7.4	4.9	2.5	1.2
성별	여성	38	47.4	31.6	23.7	15.8	23.7	10.5	21.1	7.9	5.3	2.6	0.0	0.0
	남성	43	44.2	27.9	27.9	30.2	4.7	11.6	0.0	7.0	9.3	7.0	4.7	2.3
연령	20대	2	0.0	0.0	50.0	0.0	50.0	50.0	50.0	50.0	0.0	0.0	0.0	0.0
	30대	13	69.2	38.5	7.7	38.5	7.7	15.4	7.7	0.0	23.1	0.0	0.0	0.0
	40대	54	38.9	31.5	29.6	18.5	16.7	9.3	11.1	7.4	5.6	5.6	1.9	0.0
	50대	12	58.3	16.7	25.0	33.3	0.0	8.3	0.0	8.3	0.0	8.3	8.3	8.3
지역	읍/면	12	41.7	16.7	33.3	8.3	16.7	8.3	16.7	25.0	0.0	0.0	8.3	0.0
	동	69	46.4	31.9	24.6	26.1	13.0	11.6	8.7	4.3	8.7	5.8	1.4	1.4

▌표 Ⅲ-134 ▌하교 후 초등자녀가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단위: 명, %)

		사례수	30분 미만	30분이상~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54	20.4	42.6	27.8	9.3
성별	여성	21	14.3	38.1	38.1	9.5
	남성	33	24.2	45.5	21.2	9.1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대	5	0.0	60.0	20.0	20.0
	40대	39	23.1	41.0	28.2	7.7
	50대	9	22.2	44.4	22.2	11.1
지역	읍/면	8	25.0	25.0	25.0	25.0
	동	46	19.6	45.7	28.3	6.5

(4) 초등 자녀 돌봄 필요 시간대

영유아 자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후 5~6시(50.6%)가 가장 높았으며 오후 4~5시(49.4%), 오후 3~4시(42.0%), 오후 6~7시(30.9%), 오후 2~3시(2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수요가 주로 오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생의 하교시간이 영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초등 하교 시간대에 맞춘 돌봄 연계와 시간 확장이 함께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135 ▌평일 초등생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중복응답)

(단위: 명, %, 점)

		사례수	오전 6~7시	오전 7~8시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1시	오전 11~12시	오후 12~1시	오후 1~2시	오후 2~3시	오후 3~4시	오후 4~5시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9시	오후 9~10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전체		81	3.7	16.0	8.6	4.9	6.2	3.7	8.6	11.1	27.2	42.0	49.4	50.6	30.9	11.1	8.6	7.4	1.2
성별	여성	38	2.3	14.0	7.0	4.7	7.0	2.3	11.6	14.0	27.9	44.2	46.5	48.8	30.2	11.6	7.0	9.3	0.0
	남성	43	5.3	18.4	10.5	5.3	5.3	5.3	5.3	7.9	26.3	39.5	52.6	52.6	31.6	10.5	10.5	5.3	2.6
연령	20대	2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50.0	50.0	0.0	0.0
	30대	13	23.1	61.5	38.5	15.4	23.1	15.4	38.5	30.8	38.5	53.8	61.5	84.6	46.2	23.1	23.1	23.1	7.7
	40대	54	0.0	5.6	3.7	1.9	1.9	1.9	1.9	5.6	31.5	42.6	42.6	42.6	22.2	7.4	5.6	3.7	0.0
	50대	12	0.0	8.3	0.0	8.3	8.3	0.0	8.3	16.7	0.0	33.3	58.3	41.7	41.7	8.3	0.0	8.3	0.0
지역	읍/면	12	0.0	16.7	8.3	8.3	0.0	0.0	0.0	8.3	16.7	33.3	58.3	50.0	41.7	16.7	0.0	8.3	0.0
	동	69	4.3	15.9	8.7	4.3	7.2	4.3	10.1	11.6	29.0	43.5	47.8	50.7	29.0	10.1	10.1	7.2	1.4

3) 가족구성원 돌봄

(1) 간병·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여부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11.7%)에서 해당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중·장년층에서 가족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Ⅲ-136▐ 간병·돌봄 필요한 가구원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25	6.5	93.5
성별	여성	520	6.5	93.5
	남성	505	6.5	93.5
연령	20대	117	6.8	93.2
	30대	111	7.2	92.8
	40대	153	9.8	90.2
	50대	206	11.7	88.3
	60대	205	3.4	96.6
	70대 이상	233	2.1	97.9
지역	읍/면	242	5.0	95.0
	동	783	7.0	93.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7.4	92.6
	비혼	242	8.3	91.7
	이혼·별거	59	6.8	93.2
	사별	139	0.0	100.0
자녀유무	있음	649	6.8	93.2
	없음	376	6.1	93.9

(2) 간병·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 또는 형제자매(26.9%)와 손자녀(26.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19.4%), 조부모(14.9%) 순으로 나타나, 가족 내 돌봄 요구가 세대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37 ▌간병·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단위: 명, %, 점)

		사례수	부모·형제자매	손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청소년 이상 자녀
전체		67	26.9	26.9	19.4	14.9	7.5	4.5
성별	여성	34	32.4	23.5	17.6	20.6	2.9	2.9
	남성	33	21.2	30.3	21.2	9.1	12.1	6.1
연령	20대	8	0.0	25.0	12.5	37.5	25.0	0.0
	30대	8	25.0	25.0	0.0	37.5	0.0	12.5
	40대	15	33.3	26.7	20.0	6.7	6.7	6.7
	50대	24	29.2	29.2	20.8	8.3	8.3	4.2
	60대	7	57.1	14.3	28.6	0.0	0.0	0.0
	70대 이상	5	0.0	40.0	40.0	20.0	0.0	0.0
지역	읍/면	12	16.7	33.3	25.0	8.3	16.7	0.0
	동	55	29.1	25.5	18.2	16.4	5.5	5.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3	39.5	14.0	23.3	14.0	2.3	7.0
	비혼	20	0.0	60.0	5.0	20.0	15.0	0.0
	이혼·별거	4	25.0	0.0	50.0	0.0	25.0	0.0
	사별	0	0.0	0.0	0.0	0.0	0.0	0.0
자녀유무	있음	44	40.9	13.6	25.0	11.4	4.5	4.5
	없음	23	0.0	52.2	8.7	21.7	13.0	4.3

(3) 가족구성원 돌봄 어려움

돌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스트레스'(17.9%), '신체적 피로 및 고단함'(16.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26.5%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9.1%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남성은 30.3%, 여성은 14.7%가 응답하여 돌봄 부담의 성별 차이를 보였다.

▌표 Ⅲ-138▐ 가족 구성원 돌봄 어려움

(단위: 명, %, 점)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피로 및 고단함	수발자와 비수발와의 갈등	가족 간 갈등	여가 제약	부부 간 갈등	적절한 보상이 없음	직장생활(사회생활) 제약	집안 공간 부족	어려움 없음
전체		67	22.4	17.9	16.4	11.9	9.0	6.0	4.5	4.5	4.5	1.5	1.5
성별	여성	34	14.7	26.5	20.6	11.8	5.9	2.9	2.9	5.9	5.9	2.9	0.0
	남성	33	30.3	9.1	12.1	12.1	12.1	9.1	6.1	3.0	3.0	0.0	3.0
연령	20대	8	0.0	25.0	25.0	25.0	12.5	0.0	12.5	0.0	0.0	0.0	0.0
	30대	8	12.5	12.5	25.0	0.0	12.5	25.0	0.0	0.0	0.0	12.5	0.0
	40대	15	20.0	20.0	13.3	26.7	0.0	6.7	0.0	6.7	6.7	0.0	0.0
	50대	24	41.7	8.3	8.3	0.0	16.7	4.2	4.2	4.2	8.3	0.0	4.2
	60대	7	14.3	42.9	0.0	14.3	0.0	0.0	14.3	14.3	0.0	0.0	0.0
	70대 이상	5	0.0	20.0	60.0	2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	읍/면	12	16.7	8.3	16.7	33.3	8.3	0.0	0.0	8.3	8.3	0.0	0.0
	동	55	23.6	20.0	16.4	7.3	9.1	7.3	5.5	3.6	3.6	1.8	1.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3	20.9	18.6	18.6	9.3	9.3	9.3	4.7	2.3	4.7	0.0	2.3
	비혼	20	30.0	15.0	15.0	15.0	5.0	0.0	5.0	10.0	5.0	0.0	0.0
	이혼·별거	4	0.0	25.0	0.0	25.0	25.0	0.0	0.0	0.0	0.0	25.0	0.0
	사별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녀유무	있음	44	20.5	20.5	15.9	11.4	9.1	9.1	2.3	2.3	4.5	2.3	2.3
	없음	23	26.1	13.0	17.4	13.0	8.7	0.0	8.7	8.7	4.3	0.0	0.0

(4) 가족돌봄 스트레스

가족돌봄 스트레스(10점 척도)는 평균 6.9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09점, 여성은 6.74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 돌봄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39 ▌가족돌봄 스트레스

(단위: 명, %, 점)

		사례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10점 척도)
전체		67	0.0	1.5	7.5	6.0	4.5	16.4	22.4	22.4	9.0	10.4	6.91
성별	여성	34	0.0	2.9	5.9	11.8	5.9	14.7	20.6	14.7	11.8	11.8	6.74
	남성	33	0.0	0.0	9.1	0.0	3.0	18.2	24.2	30.3	6.1	9.1	7.09
연령	20대	8	0.0	0.0	12.5	12.5	0.0	37.5	25.0	0.0	12.5	0.0	6.00
	30대	8	0.0	0.0	25.0	0.0	12.5	0.0	12.5	12.5	12.5	25.0	6.88
	40대	15	0.0	0.0	0.0	0.0	6.7	20.0	26.7	26.7	13.3	6.7	7.40
	50대	24	0.0	4.2	4.2	8.3	4.2	16.7	20.8	20.8	8.3	12.5	6.88
	60대	7	0.0	0.0	14.3	14.3	0.0	14.3	14.3	28.6	0.0	14.3	6.57
	70대 이상	5	0.0	0.0	0.0	0.0	0.0	0.0	40.0	60.0	0.0	0.0	7.60
지역	읍/면	12	0.0	8.3	0.0	0.0	0.0	25.0	50.0	16.7	0.0	0.0	6.50
	동	55	0.0	0.0	9.1	7.3	5.5	14.5	16.4	23.6	10.9	12.7	7.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43	0.0	2.3	7.0	2.3	4.7	9.3	23.3	23.3	11.6	16.3	7.30
	비혼	20	0.0	0.0	10.0	10.0	0.0	30.0	25.0	25.0	0.0	0.0	6.25
	이혼·별거	4	0.0	0.0	0.0	25.0	25.0	25.0	0.0	0.0	25.0	0.0	6.00
	사별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자녀 유무	있음	44	0.0	2.3	6.8	2.3	6.8	11.4	20.5	22.7	13.6	13.6	7.20
	없음	23	0.0	0.0	8.7	13.0	0.0	26.1	26.1	21.7	0.0	4.3	6.35

7. 건강과 생애설계

1) 신체적 건강

전북도민의 신체적 건강 상태(5점 척도)는 평균 3.3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3.25점, 남성은 3.36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신체 건강을 더 좋게 평가하였다(t=-2.248, p<.05). 연령별로는 20대(3.54점)가 가장 높은 건강 수준을 보였으며, 70대 이상(3.1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상태가 낮아졌다(F=4.729, p<.0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34점)과 비혼(3.33점)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사별(3.24점), 이혼·별거(3.05점) 순으로 나타났다(F=3.832, p<.05).

▌표 Ⅲ-140 ▐ 신체적 건강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나쁜 편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은 편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0.9	11.2	49.9	32.6	5.5	3.31	
성별	여성	520	1.0	12.5	51.5	30.4	4.6	3.25	-2.248*
	남성	505	0.8	9.9	48.1	34.9	6.3	3.36	
연령	20대	117	0.0	7.7	45.3	32.5	14.5	3.54	4.729***
	30대	111	0.9	11.7	32.4	45.9	9.0	3.50	
	40대	153	1.3	11.8	51.0	30.7	5.2	3.27	
	50대	206	1.5	15.5	45.1	31.1	6.8	3.26	
	60대	205	1.0	10.2	51.2	36.1	1.5	3.27	
	70대 이상	233	0.4	9.4	62.7	25.8	1.7	3.19	
지역	읍/면	242	0.0	9.1	53.7	33.1	4.1	3.32	0.418
	동	783	1.1	11.9	48.7	32.4	5.9	3.3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3	11.3	47.4	36.2	4.8	3.34	3.832*
	비혼	242	2.5	12.0	45.9	29.8	9.9	3.33	
	이혼·별거	59	0.0	16.9	62.7	18.6	1.7	3.05	
	사별	139	0.7	7.2	61.9	28.1	2.2	3.24	
자녀유무	있음	649	0.5	11.2	49.2	34.8	4.3	3.31	0.403
	없음	376	1.6	11.2	51.1	28.7	7.4	3.29	

*p<.05, ***p<.001

2) 정신적 건강

전북도민의 정신적 건강 상태(5점 척도)는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3.29점, 남성은 3.4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정신적 건강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t=-3.205, p<.01). 연령별로는 20대(3.66점)는 정신적 건강이 가장 좋은 반면 70대 이상(3.15점)은 가장 낮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신적 건강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9.121,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3.40점)이 읍·면 지역(3.26점)보다 정신적 건강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t=-2.587, p<.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44점)과 비혼(3.39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F=9.971, p<.001).

▌표 Ⅲ-141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나쁜 편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은 편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5	9.9	48.1	31.5	9.1	3.37	
성별	여성	520	1.7	10.8	50.6	31.0	6.0	3.29	-3.205**
	남성	505	1.2	8.9	45.5	32.1	12.3	3.45	
연령	20대	117	0.9	9.4	33.3	35.9	20.5	3.66	9.121***
	30대	111	2.7	16.2	32.4	33.3	15.3	3.42	
	40대	153	1.3	15.7	45.1	32.0	5.9	3.25	
	50대	206	3.4	10.7	38.8	34.0	13.1	3.43	
	60대	205	1.0	4.9	47.8	41.5	4.9	3.44	
	70대 이상	233	0.0	6.9	73.4	17.2	2.6	3.15	
지역	읍/면	242	1.2	9.1	57.9	26.4	5.4	3.26	-2.587**
	동	783	1.5	10.1	45.1	33.1	10.2	3.4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2	9.4	43.4	36.6	9.4	3.44	9.971***
	비혼	242	3.3	12.0	41.3	29.3	14.0	3.39	
	이혼·별거	59	0.0	15.3	59.3	23.7	1.7	3.12	
	사별	139	0.0	5.8	74.8	17.3	2.2	3.16	
자녀유무	있음	649	0.6	9.1	47.9	34.7	7.7	3.40	1.386
	없음	376	2.9	11.2	48.4	26.1	11.4	3.32	

**p<.01, ***p<.001

3) 가정 건강성

전북도민의 가정 건강성(5점 척도)은 평균 3.4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3.79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70대 이상(3.23점)은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 건강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11.648,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3.49점)이 읍·면 지역(3.35점)보다 가정 건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t=-2.455, p<.05),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57점)과 비혼(3.46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F=21.707, p<.001).

▌표 Ⅲ-142 ▌가정 건강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나쁜 편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은 편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8	6.8	43.6	39.6	8.2	3.46	
성별	여성	520	1.3	6.3	46.9	38.7	6.7	3.43	-1.035
	남성	505	2.2	7.3	40.2	40.6	9.7	3.48	
연령	20대	117	0.9	4.3	33.3	37.6	23.9	3.79	11.648***
	30대	111	0.0	10.8	28.8	48.6	11.7	3.61	
	40대	153	2.0	13.7	37.9	40.5	5.9	3.35	
	50대	206	3.9	7.3	35.9	42.2	10.7	3.49	
	60대	205	2.9	2.9	40.0	50.2	3.9	3.49	
	70대 이상	233	0.0	4.7	69.5	24.0	1.7	3.23	
지역	읍/면	242	1.2	6.6	53.7	32.6	5.8	3.35	-2.455*
	동	783	1.9	6.9	40.5	41.8	8.9	3.4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0.9	4.6	38.6	48.2	7.7	3.57	21.707***
	비혼	242	2.5	11.6	39.3	31.0	15.7	3.46	
	이혼·별거	59	10.2	11.9	52.5	25.4	0.0	2.93	
	사별	139	0.7	5.8	68.3	24.5	0.7	3.19	
자녀유무	있음	649	1.4	5.1	43.5	44.4	5.7	3.48	1.113
	없음	376	2.4	9.8	43.9	31.4	12.5	3.42	

*p<.05, ***p<.001

4) 생애설계 준비

전북도민의 생애설계 준비 수준을 6개 영역(결혼·자녀·직업·여가·재무·은퇴 및 노후)으로 살펴보면 직업계획(3.44점)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계획(3.20점), 결혼계획(3.16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설계(3.03점), 재무설계(3.00점), 은퇴 및 노후준비(2.93점)는 전반적으로 낮아 노후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안정과 노후 대비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각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애설계 준비 중 결혼계획 정도(5점 척도)는 평균 3.1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3.17점)이 남성(3.16점)보다 결혼 준비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t=3.559, p<.001)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7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F=102.349, p<.001). 지역별 차이를 보면 동 지역(3.18점)이 읍·면 지역(3.09점)보다 결혼 준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t=3.810, p<.001).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52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F=722.418, p<.001) 이는 실제 결혼 경험이 결혼 준비가 잘 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혼·별거 집단(2.75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또한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 결혼 준비 정도를 더 높게 평가했는데(t=14.400, p<.001), 이 역시 이미 결혼·출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결혼 준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북도민의 자녀 계획 수준은(5점 척도) 평균 3.2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21점)이 여성(3.17점)보다 자녀 계획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t=-2.531, p<.05), 연령별로는 30대(3.51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F=74.551, p<.001). 반면 20대(2.99점)는 다른 연령대보다 자녀 계획 의향이 낮았으며, 70대 이상 연령층은 대부분(94.8%)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부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실제 자녀계획보다는 문항 이해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 지역(3.22점)이 읍·면 지역(3.08점)보다 자녀 계획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4.745, p<.0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3.46점)가 가장 높은 자녀 계획 점수를 보였다(F=77.550, p<.001).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 자녀 계획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t=5.462, p<.05), 이는 추가 출산 혹은 둘째·셋째 출산에 대한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도민의 직업계획 준비(5점 척도)는 평균 3.4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3.45점)이 남성(3.4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t=2.186, p<.05),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75.563, p<.001).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3.51점)이 읍·면 지역(3.03점)보다 직업계획 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t=3.754,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55점) 집단의 직업계획 점수가가장 높았다(F=69.865, p<.001). 반면 이혼·별거(2.50점) 집단은 직업계획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유무에 따라 비교해보면, 자녀가 없는 집단(3.49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3.39점)보다 직업계획 준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t=4.459, p<.05).

전북도민의 여가설계 준비(5점 척도)는 평균 3.03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3.11점)이 여성(2.96점)보다 여가설계를 더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t=-2.247, p<.05), 연령별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F=38.93, p<.001). 20대(3.76점)에서 준비 정도가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2.32점)은 점수가 낮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설계에 대한 관심 및 준비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3.16점)이 읍·면 지역(2.64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t=-6.345, p<.001), 상대적으로 도시거주자의 여가설계 준비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F=61.797, p<.001) 비혼(3.34점)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 있음(3.14점), 이혼·별거(2.66점), 사별(2.19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민의 재무설계 준비(5점 척도)는 평균 3.0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3.10점)이 여성(2.91점)보다 준비 수준이 높았으며(t=-2.681, p<.01),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2.312, p<.001). 20대(3.47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70대 이상(2.31점)은 가장 낮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무설계에 대한 준비 정도가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3.16점)이 읍·면 지역(2.6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6.515, p<.001), 결혼상태별로 보면 비혼(3.20점), 배우자 있음(3.14점), 이혼 · 별거(2.78점), 사별(2.19점) 순으로 나타났다(F=51.581, p<.001).

전북도민의 은퇴 및 노후설계 준비(5점 척도)는 평균 2.93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02점)이 여성(2.84점)보다 준비 수준이 더 높았으며(t=-2.498, p<.05),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9.909, p<.001). 50대(3.25점)가 가장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고, 70대 이상(2.33점)이 가장 낮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 및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3.02점)이 읍·면 지역(2.64점)보다 은퇴 및 노후 준비 수준이 높았으며(t=-4.619, p<.0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14점)이 가장 높은 반면, 사별 집단(2.15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53.663, p<.001).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3.00점)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2.81점)보다 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2.587, p<.01).

▌표 Ⅲ-143 ▌생애설계 준비

(단위: 명, 점)

		사례수	결혼계획	자녀계획	직업계획	여가설계	재무설계	은퇴/노후 설계
전체		1025	3.16	3.20	3.44	3.03	3.00	2.93
성별	여성	520	3.17	3.17	3.45	2.96	2.91	2.84
	남성	505	3.16	3.21	3.43	3.11	3.10	3.02
	t		3.559***	2.531*	2.186*	-2.247*	-2.681**	-2.498*
연령	20대	117	3.17	2.99	3.63	3.76	3.47	3.04
	30대	111	3.40	3.51	3.63	3.49	3.43	3.18
	40대	153	3.11	3.11	3.36	3.19	3.12	3.01
	50대	206	2.99	3.11	3.18	3.17	3.27	3.25
	60대	205	3.37	3.36	3.58	2.93	2.93	3.03
	70대 이상	233	2.98	3.50	3.20	2.32	2.31	2.33
	F		102.349***	74.551***	75.563***	38.93***	32.312***	19.909***
지역	읍/면	242	3.09	3.08	3.03	2.64	2.60	2.64
	동	783	3.18	3.22	3.51	3.16	3.13	3.02
	t		3.81***	4.745***	3.754***	-6.345***	-6.515***	-4.6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3.52	3.46	3.48	3.14	3.14	3.14
	비혼	242	3.00	2.90	3.55	3.34	3.20	2.90
	이혼·별거	59	2.75	2.67	2.50	2.66	2.78	2.86
	사별	139	3.00	2.75	3.00	2.19	2.19	2.15
	F		722.418***	4.745***	69.865***	61.797***	51.581***	53.663***
자녀유무	있음	649	3.29	3.41	3.39	2.99	2.99	3.00
	없음	376	3.07	2.94	3.49	3.10	3.02	2.81
	t		14.4***	5.462***	4.459***	-1.492	-0.477	2.587**

*p<.05, **p<.01, ***p<.001

주) 5점척도 평균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계산됨

5)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

전북도민의 노후 거주 선호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8.1%가 요양시설 등 외부시설보다는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혼·별거 집단은 외부시설 선호 비율이 높았던 반면, 사별 집단은 자택 거주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χ^2=12.78, p<.01).

▌표 Ⅲ-144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

(단위: 명, %)

		사례수	집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외부시설	χ^2
전체		1025	78.1	21.9	
성별	여성	520	76.7	23.3	1.238
	남성	505	79.6	20.4	
연령	20대	117	79.5	20.5	7.452
	30대	111	78.4	21.6	
	40대	153	75.2	24.8	
	50대	206	73.8	26.2	
	60대	205	77.6	22.4	
	70대 이상	233	83.7	16.3	
지역	읍/면	242	74.8	25.2	2.085
	동	783	79.2	20.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77.9	22.1	12.78**
	비혼	242	78.1	21.9	
	이혼·별거	59	62.7	37.3	
	사별	139	85.6	14.4	
자녀유무	있음	649	78.6	21.4	0.197
	없음	376	77.4	22.6	

**p<.01

6)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선호 여부

전북도민의 노후 자녀동거 선호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2.9%만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자녀동거 선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x^2=48.551, p<.001), 지역별로도 읍·면 지역의 자녀동거 선호 비율이 동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x^2=7.398, p<.05). 또한 배우자가 있는 집단(76.6%)은 다른 결혼상태 집단에 비해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x^2=164.651, p<.001). 이러한 결과는 전북도민이 부모-자녀 간 독립적 생활을 선호하는 현대적 가족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45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선호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아니오	예	자녀 없음/ 자녀 계획 없음	x^2
전체		1025	65.6	12.9	21.6	
성별	여성	520	66.3	11.0	22.7	3.736
	남성	505	64.8	14.9	20.4	
연령	20대	117	47.9	14.5	37.6	48.551***
	30대	111	60.4	18.0	21.6	
	40대	153	62.7	15.7	21.6	
	50대	206	66.0	18.4	15.5	
	60대	205	76.6	5.4	18.0	
	70대 이상	233	68.7	9.4	21.9	
지역	읍/면	242	68.2	7.9	24.0	7.398*
	동	783	64.8	14.4	20.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76.6	14.4	9.1	164.651***
	비혼	242	39.3	12.8	47.9	
	이혼·별거	59	62.7	13.6	23.7	
	사별	139	66.2	6.5	27.3	

*p<.05, ***p<.001

7) 노후에 자녀와 동거 선호 이유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가족이니까'(37.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20.5%), '자식의 부양 의무 인식'(17.4%), '외로움 해소('15.2%), '건강 악화 대비'(7.6%), '손자녀 돌봄'(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46 ▌노후에 자녀와 동거 선호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가족이니까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으려고	자식은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외로울 것 같아서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손자녀 육아 때문에	x^2
전체		132	37.9	20.5	17.4	15.2	7.6	1.5	
성별	여성	57	43.9	19.3	12.3	12.3	12.3	0.0	7.533
	남성	75	33.3	21.3	21.3	17.3	4.0	2.7	
연령	20대	17	47.1	17.6	5.9	23.5	0.0	5.9	33.026
	30대	20	30.0	25.0	25.0	10.0	10.0	0.0	
	40대	24	45.8	16.7	12.5	20.8	0.0	4.2	
	50대	38	21.1	21.1	31.6	18.4	7.9	0.0	
	60대	11	36.4	27.3	9.1	18.2	9.1	0.0	
	70대 이상	22	59.1	18.2	4.5	0.0	18.2	0.0	
지역	읍/면	19	31.6	36.8	10.5	10.5	10.5	0.0	4.657
	동	113	38.9	17.7	18.6	15.9	7.1	1.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4	31.0	22.6	19.0	15.5	10.7	1.2	14.293
	비혼	31	45.2	16.1	19.4	16.1	0.0	3.2	
	이혼·별거	8	50.0	37.5	0.0	12.5	0.0	0.0	
	사별	9	66.7	0.0	11.1	11.1	11.1	0.0	

8) 노후에 자녀와 동거 비선호 이유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서'(5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섭이나 방해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36.3%), '자녀와의 갈등이 우려되어서'(1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적 생활(간섭·방해 없이 편하게 살고 싶음, 24.3%)을 중시한 반면, 60대 이상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x^2=24.279, p<.01).

▌표 Ⅲ-147 ▌노후에 자녀와 동거 비선호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자녀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 주기 싫어서	간섭·방해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자녀와의 갈등이 우려되어서	x^2
전체		672	52.5	36.3	11.2	
성별	여성	345	53.6	34.8	11.6	0.736
	남성	327	51.4	37.9	10.7	
연령	20대	56	46.4	48.2	5.4	24.279**
	30대	67	55.2	31.3	13.4	
	40대	96	39.6	44.8	15.6	
	50대	136	44.9	43.4	11.8	
	60대	157	58.6	32.5	8.9	
	70대 이상	160	61.9	26.9	11.3	
지역	읍/면	165	49.7	38.2	12.1	0.726
	동	507	53.5	35.7	10.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48	50.4	38.2	11.4	11.993
	비혼	95	47.4	43.2	9.5	
	이혼·별거	37	56.8	27.0	16.2	
	사별	92	66.3	23.9	9.8	
자녀유무	있음	529	53.5	35.2	11.3	1.42
	없음	143	49.0	40.6	10.5	

**p<.01

9) 노후준비

(1)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후준비

전북도민의 노후 준비는 신체적 노후준비, 심리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신체적 노후준비 중 정기적 건강검진 수행 정도는 평균 3.35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53점)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3.12점)가 가장 낮아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F=2.701, p<.05).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57점)이 가장 높고, 이혼·별거(2.98점)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F=21.047, p<.001), 자녀가 있는 집단(3.50점) 역시 자녀가 없는 집단(3.08점)보다 건강검진 준비 정도가 더 높았다(t=6.196, p<.01).

규칙적 운동 및 체력관리는 평균 3.34점(5점 척도)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46점)이 가장 높고, 이혼·별거 집단(2.93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9.308, p<.001). 또한 자녀가 있는 집단(3.44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3.18점)보다 규칙적 운동 및 체력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나(t=4.118, p<.001),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생활습관 관리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심리적 노후준비 중 배우자·가족과의 소통 및 활동은 3.27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49점)이 가장 높고, 이혼·별거 집단(2.85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19.097, p<.001). 또한 자녀가 있는 집단(3.39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3.06점)보다 평균점수가 높아(t=4.895, p<.001),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은 3.47점(5점 척도)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3.53점)이 남성(3.41점)보다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t=2.036, p<.05) 연령별로는 60대(3.68점)가 가장 높았고, 70대이상(3.55점), 50대(3.46점), 40대(3.39점)순으로 나타났다(F=4.723, p<.0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49점)이 가장 높고, 이혼·별거 집단(2.85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F=14.44, p<.001), 자녀가 있는 응답자(3.60점)가 없는 응답자(3.24점)보다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5.739, p<.001).

사회적 노후준비 중 노후를 위한 사회활동은 2.88점(5점 척도)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참여 의지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2.98점)이 가장 높고, 비혼(2.72점)과 이혼·별거 집단(2.75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F=4.013, p<.01) 자녀가 있는 집단(2.98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2.71점)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t=3.796, p<.001) 가족 유대가 사회활동 참여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은 2.92점(5점 척도)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2.99점)이 남성(2.84점)보다 노후 교육 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2.219, p<.05). 연령별로는 30대(3.18점)가 가장 높고 60대(2.7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F=3.945, p<.01), 중장년층 이후의 노후 교육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집단(3.04점)이 가장 높은 반면 사별 집단(2.66점)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F=6.449, p<.001) 자녀가 있는 응답자(2.99점)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2.79점)보다 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3.016, p<.01).

▌표 Ⅲ-148▐ 노후준비

(단위: 명, 점)

		사례수	정기적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및 체력관리	배우자(가족)과의 소통 및 활동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	노후를 위한 사회활동	노후생활 교육 준비
전체		1025	3.35	3.34	3.27	3.47	2.88	2.92
성별	여성	520	3.41	3.34	3.31	3.53	2.91	2.99
	남성	505	3.29	3.34	3.23	3.41	2.85	2.84
	t		1.720	0.060	1.239	2.036*	0.876	2.219*
연령	20대	117	3.12	3.22	3.25	3.22	3.10	2.87
	30대	111	3.39	3.28	3.31	3.30	2.82	3.18
	40대	153	3.31	3.31	3.22	3.39	2.82	3.01
	50대	206	3.37	3.35	3.26	3.46	2.88	3.04
	60대	205	3.53	3.35	3.27	3.68	2.79	2.74
	70대 이상	233	3.29	3.44	3.31	3.55	2.92	2.81
	F		2.701*	1.194	0.168	4.723***	1.627	3.945**
지역	읍/면	242	3.43	3.25	3.22	3.52	2.91	2.86
	동	783	3.32	3.37	3.29	3.45	2.87	2.93
	t		1.516	-1.719	-0.854	1.153	0.471	-0.9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3.57	3.46	3.49	3.63	2.98	3.04
	비혼	242	3.02	3.19	2.97	3.15	2.72	2.81
	이혼·별거	59	2.98	2.93	2.85	3.17	2.75	2.78
	사별	139	3.16	3.28	3.06	3.47	2.78	2.66
	F		21.047***	9.308***	19.097***	14.44***	4.013**	6.449***
자녀유무	있음	649	3.50	3.44	3.39	3.60	2.98	2.99
	없음	376	3.08	3.18	3.06	3.24	2.71	2.79
	t		6.196***	4.118***	4.895***	5.739***	3.796***	3.016**

*p<.05, **p<.01, ***p<.001

(2) 경제적 노후준비

전북도민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49.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5.0%)에서 준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31.3%)과 20대(36.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χ^2=61.901, p<.001).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58.8%)과 이혼·별거 집단(55.9%)이 높았으며, 사별 집단(25.2%)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χ^2=68.7, p<.001).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55.9%)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37.0%)보다 경제적 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χ^2=34.262, p<.001).

▌표 Ⅲ-149 ▌경제적 노후준비

(단위: 명, %)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025	49.0	51.0	
성별	여성	520	47.7	52.3	0.696
	남성	505	50.3	49.7	
연령	20대	117	36.8	63.2	61.901***
	30대	111	51.4	48.6	
	40대	153	54.2	45.8	
	50대	206	65.0	35.0	
	60대	205	54.6	45.4	
	70대 이상	233	31.3	68.7	
지역	읍/면	242	44.6	55.4	2.396
	동	783	50.3	49.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58.8	41.2	68.7***
	비혼	242	37.2	62.8	
	이혼·별거	59	55.9	44.1	
	사별	139	25.2	74.8	
자녀유무	있음	649	55.9	44.1	34.262***
	없음	376	37.0	63.0	

***p<.001

(3) 경제적 노후준비 종류

경제적 노후준비 종류는 '예금 및 적금'(24.8%)이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21.1%), '개인연금 및 보험'(17.8%), '퇴직금 및 퇴직연금'(11.5%), '부동산'(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예금 및 적금'과 '개인연금 및 보험'에서 남성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국민연금'과 '퇴직금 및 퇴직연금' 항목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국민연금 비율이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은 부동산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150 ▌경제적 준비 종류(중복응답)

(단위: 명, %)

		사례수	예금 및 적금	국민연금	개인 연금 및 보험	퇴직금 및 퇴직 연금	부동산	주식 및 채권	공무원 연금
전체		502	61.0	51.8	43.6	28.3	23.3	22.7	14.7
성별	여성	248	61.3	51.6	45.6	24.6	21.0	18.1	13.3
	남성	254	60.6	52.0	41.7	31.9	25.6	27.2	16.1
연령	20대	43	60.5	46.5	55.8	46.5	18.6	27.9	18.6
	30대	57	59.6	52.6	45.6	36.8	19.3	33.3	28.1
	40대	83	57.8	59.0	42.2	31.3	27.7	27.7	15.7
	50대	134	67.2	57.5	37.3	33.6	25.4	27.6	12.7
	60대	112	52.7	61.6	58.9	18.8	17.0	16.1	9.8
	70대 이상	73	67.1	20.5	24.7	12.3	30.1	6.8	12.3
지역	읍/면	108	64.8	46.3	40.7	24.1	23.1	16.7	9.3
	동	394	59.9	53.3	44.4	29.4	23.4	24.4	16.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44	58.4	56.7	44.2	27.6	27.3	24.4	17.4
	비혼	90	67.8	42.2	44.4	35.6	15.6	27.8	12.2
	이혼·별거	33	69.7	45.5	36.4	36.4	12.1	12.1	9.1
	사별	35	60.0	34.3	42.9	8.6	14.3	2.9	0.0
자녀유무	있음	363	58.7	54.5	43.5	25.9	26.4	21.2	15.7
	없음	139	66.9	44.6	43.9	34.5	15.1	26.6	12.2

(4)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준비할 능력이 없다'(39.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25.0%),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18.5%),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13.8%), '자녀에게 의지할 계획이다'(3.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 · 30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으며, 70대 이상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χ^2=86.693, p<.001). 지역별로 보면, 동 지역은 '준비할 능력이 없다'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읍·면 지역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χ^2=12.51, p<.05).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사별한 집단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χ^2=50.913, p<.001). 또한 자녀가 없는 집단(46.4%)이 있는 집단보다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χ^2=14.347, p<.01).

▌표 Ⅲ-151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준비할 능력이 없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자녀에게 의지할 계획이다	x^2
전체		523	39.0	25.0	18.5	13.8	3.6	
성별	여성	272	41.2	20.6	18.0	15.8	4.4	7.934
	남성	251	36.7	29.9	19.1	11.6	2.8	
연령	20대	74	51.4	21.6	24.3	2.7	0.0	86.693***
	30대	54	35.2	25.9	24.1	11.1	3.7	
	40대	70	31.4	35.7	20.0	10.0	2.9	
	50대	72	50.0	27.8	15.3	5.6	1.4	
	60대	93	32.3	44.1	7.5	14.0	2.2	
	70대 이상	160	36.9	9.4	21.3	25.0	7.5	
지역	읍/면	134	35.1	25.4	14.2	22.4	3.0	12.51*
	동	389	40.4	24.9	20.1	10.8	3.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1	32.4	33.6	20.7	9.5	3.7	50.913***
	비혼	152	50.7	19.7	17.8	9.9	2.0	
	이혼·별거	26	46.2	19.2	19.2	11.5	3.8	
	사별	104	35.6	14.4	14.4	29.8	5.8	
자녀유무	있음	286	32.9	28.0	20.6	13.3	5.2	14.347**
	없음	237	46.4	21.5	16.0	14.3	1.7	

*p<.05, **p<.01, ***p<.001

(5) 경제적 노후 준비 수준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5점 척도)은 평균 2.73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 수준의 준비 정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3.11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20대(2.24점)가 가장 낮아(F=28.721, p<.00)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인식하였다. 지역별로는 읍 · 면 지역(3.00점)이 동 지역(2.65점)보다 높게 나타나(t=5.773, p<.001), 도시보다 농촌 지역의 노후경제 준비 수준이 다소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3.07점)과 이혼 · 별거(2.95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혼(2.24점) 집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F=40.183, p<.001). 또한 자녀가 있는 집단(2.88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2.48점)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6.956, p<.001)

▌표 Ⅲ-152 ▌경제적 노후 준비 수준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부족하다	대체로 부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1025	10.4	25.3	45.9	17.5	1.0	2.73	
성별	여성	520	9.4	22.9	47.9	19.2	0.6	2.79	1.943
	남성	505	11.5	27.7	43.8	15.6	1.4	2.68	
연령	20대	117	28.2	29.9	32.5	8.5	0.9	2.24	28.721***
	30대	111	10.8	42.3	31.5	12.6	2.7	2.54	
	40대	153	14.4	33.3	39.2	12.4	0.7	2.52	
	50대	206	14.6	31.1	37.4	15.0	1.9	2.59	
	60대	205	3.9	19.0	51.2	25.4	0.5	3.00	
	70대 이상	233	0.9	9.9	66.5	22.7	0.0	3.11	
지역	읍/면	242	5.4	15.3	54.1	24.0	1.2	3.00	5.773***
	동	783	12.0	28.4	43.3	15.5	0.9	2.6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7.2	26.0	45.0	20.2	1.7	2.83	40.183***
	비혼	242	24.4	33.5	35.5	6.6	0.0	2.24	
	이혼·별거	59	5.1	22.0	45.8	27.1	0.0	2.95	
	사별	139	2.2	9.4	67.6	20.9	0.0	3.07	
자녀유무	있음	649	6.6	22.0	49.2	21.0	1.2	2.88	6.956***
	없음	376	17.0	30.9	40.2	11.4	0.5	2.48	

***p<.001

10)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1순위)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응답이 전체의 4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돌보미(요양보호사 등)' 17.2%, '자녀' 14.3%로 나타났다. 한편,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8.0%,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10% 이상이 고령으로 인해 필요한 돌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거나 돌봄 자원이 부재하다고 인식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일수록 배우자를 돌봄 제공자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70대 이상에서는 배우자(24.0%), 공공돌보미(23.6%), 자녀(23.2%)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부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후기 고령층에서 공공돌봄과 자녀 의존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젊은 연령층에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배우자를 돌봄 제공자로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이혼·별거 및 사별 집단에서는 공공돌보미와 자녀에 대한 의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153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배우자	공공 돌보미 (요양 보호사)	자녀	생각해 본 적 없음	민간 서비스 (간병인 등)	지인 (이웃, 친구)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음	돌봄로봇
전체		1025	40.1	17.2	14.3	8.0	7.6	6.9	3.7	2.1
성별	여성	520	36.9	18.8	16.3	5.6	8.1	8.3	4.0	1.9
	남성	505	43.4	15.4	12.3	10.5	7.1	5.5	3.4	2.4
연령	20대	117	40.2	8.5	8.5	20.5	7.7	6.0	4.3	4.3
	30대	111	43.2	11.7	10.8	13.5	6.3	9.0	5.4	0.0
	40대	153	42.5	18.3	9.8	9.2	5.9	4.6	7.8	2.0
	50대	206	47.1	18.4	10.7	9.2	3.4	3.9	4.9	2.4
	60대	205	47.8	15.6	16.6	2.9	10.2	4.4	1.0	1.5
	70대 이상	233	24.0	23.6	23.2	1.7	10.7	12.9	1.3	2.6
지역	읍/면	242	38.0	13.6	18.6	6.6	10.7	8.7	1.7	2.1
	동	783	40.7	18.3	13.0	8.4	6.6	6.4	4.3	2.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59.3	14.4	11.5	4.1	5.8	2.2	1.4	1.4
	비혼	242	23.1	15.3	7.4	20.2	9.9	11.2	9.1	3.7
	이혼·별거	59	6.8	27.1	22.0	10.2	8.5	13.6	10.2	1.7
	사별	139	2.9	28.1	35.3	2.2	10.8	16.5	1.4	2.9
자녀유무	있음	649	46.1	15.3	19.6	3.9	6.8	4.8	2.0	1.7
	없음	376	29.8	20.5	5.3	15.2	9.0	10.6	6.6	2.9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1~3순위 합)을 살펴보면, 공공돌보미(59.0%)가 가장 높았으며 민간서비스(53.7%), 배우자(49.8%), 자녀(47.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은 공공돌보미와 민간서비스를 선택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던 반면, 남성은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또한,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아, 남성의 돌봄 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공돌보미와 민간서비스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배우자(72.0%)를, 자녀가 있는 집단은 자녀(61.8%)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54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 1+2+3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공공 돌보미 (요양 보호사 등)	민간 서비스 (가사 도우미, 간병인 등)	배우자	자녀	지인 (이웃, 친구)	돌봄 로봇	생각 해본 적 없음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음
전체		1025	59.0	53.7	49.8	47.9	26.6	15.2	8.0	3.7
성별	여성	520	60.8	56.3	47.3	48.7	27.5	16.0	5.6	4.0
	남성	505	57.2	50.9	52.3	47.1	25.7	14.5	10.5	3.4
연령	20대	117	38.5	37.6	49.6	47.0	29.1	21.4	20.5	4.3
	30대	111	51.4	43.2	54.1	45.9	24.3	12.6	13.5	5.4
	40대	153	51.0	41.8	54.2	43.8	24.2	15.7	9.2	7.8
	50대	206	54.9	41.3	59.7	52.4	24.8	15.0	9.2	4.9
	60대	205	65.4	63.9	58.0	52.7	19.5	12.2	2.9	1.0
	70대 이상	233	76.4	76.4	28.8	43.8	36.1	15.9	1.7	1.3
지역	읍/면	242	63.6	60.3	44.6	51.2	28.9	12.4	6.6	1.7
	동	783	57.6	51.6	51.3	46.9	25.9	16.1	8.4	4.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58.1	50.9	72.0	56.8	19.5	12.0	4.1	1.4
	비혼	242	45.9	40.9	31.8	30.2	33.1	23.1	20.2	9.1
	이혼·별거	59	67.8	59.3	11.9	42.4	32.2	13.6	10.2	10.2
	사별	139	82.0	84.9	3.6	43.9	43.2	15.8	2.2	1.4
자녀유무	있음	649	61.5	54.9	57.2	61.8	22.0	12.2	3.9	2.0
	없음	376	54.8	51.6	37.0	23.9	34.6	20.5	15.2	6.6

8. 일과 여가

1) 근로여부

전체 응답자의 63.0%가 현재 근로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71.7%, 여성 54.6%로, 남성이 근로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χ^2=32.026, p<.001). 연령별로는 30대(82.0%)와 50대(80.6%)에서 근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χ^2=167.031,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 65.0%, 읍·면 지역 56.6%로 동 지역 거주의 근로 비율이 더 높았다(χ^2=5.591, p<.05).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사별한 응답자의 근로 비율이 43.2%로 가장 낮았다(χ^2=31.378, p<.001).

▌표 Ⅲ-155 ▌근로여부

(단위: 명, %)

		사례수	근로 중	근로 중이지 않음	χ^2
전체		1025	63.0	37.0	
성별	여성	520	54.6	45.4	32.026***
	남성	505	71.7	28.3	
연령	20대	117	57.3	42.7	167.031***
	30대	111	82.0	18.0	
	40대	153	72.5	27.5	
	50대	206	80.6	19.4	
	60대	205	69.3	30.7	
	70대 이상	233	29.6	70.4	
지역	읍/면	242	56.6	43.4	5.591*
	동	783	65.0	35.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68.2	31.8	31.378***
	비혼	242	60.7	39.3	
	이혼·별거	59	67.8	32.2	
	사별	139	43.2	56.8	
자녀유무	있음	649	64.4	35.6	1.451
	없음	376	60.6	39.4	

*p<.05, ***p<.001

2) 고용형태

근로 중인 응답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 비중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 근로자(19.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1%), 일용 근로자(6.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6.3%), 무급 가족 종사자(1.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0.6%)'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작가,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8.0%)과 20대(23.9%)에서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χ^2=133.037, p<.001). 또한 이혼·별거 및 사별한 응답자들은 상용 근로자 비율이 다른 결혼 상태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χ^2=65.030, p<.001).

전반적으로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청년층(20대)과 고령층(70대 이상)에서는 임시근로 의존도가 높아 연령별 고용 안정성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Ⅲ-156 ▌고용형태

(단위: 명, %)

		사례수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χ^2
전체		646	57.7	19.8	6.8	6.3	7.1	1.5	0.6	
성별	여성	284	56.0	22.5	8.5	3.9	6.3	2.1	0.7	10.589
	남성	362	59.1	17.7	5.5	8.3	7.7	1.1	0.6	
연령	20대	67	64.2	23.9	4.5	6.0	1.5	0.0	0.0	133.037***
	30대	91	78.0	13.2	3.3	2.2	3.3	0.0	0.0	
	40대	111	66.7	14.4	5.4	4.5	8.1	0.0	0.9	
	50대	166	59.0	12.0	9.0	8.4	9.6	1.2	0.6	
	60대	142	52.8	16.9	7.0	9.2	10.6	2.1	1.4	
	70대 이상	69	17.4	58.0	10.1	4.3	2.9	7.2	0.0	
지역	읍/면	137	53.3	20.4	8.0	8.8	6.6	2.9	0.0	5.869
	동	509	58.9	19.6	6.5	5.7	7.3	1.2	0.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9	62.2	15.3	5.8	6.8	8.0	1.5	0.5	65.03***
	비혼	147	61.2	22.4	6.1	5.4	4.1	0.0	0.7	
	이혼·별거	40	35.0	15.0	17.5	12.5	15.0	5.0	0.0	
	사별	60	35.0	46.7	8.3	1.7	3.3	3.3	1.7	
자녀유무	있음	418	56.7	18.2	7.4	7.2	8.1	1.7	0.7	5.754
	없음	228	59.6	22.8	5.7	4.8	5.3	1.3	0.4	

***p<.001

3) 정시퇴근 가능성

근로 중인 응답자의 정시퇴근 가능성(5점 척도)을 살펴본 결과 평균은 3.72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3.96점)의 정시퇴근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3.38점)이 가장 낮아 고령층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불규칙함을 알 수 있다(F=7.765, p<.001). 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79점)이 가장 높았고, 사별한 집단(3.35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7.857, p<.001). 이는 전반적으로 기혼자의 정시퇴근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고령층과 사별한 응답자는 일 · 생활 균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157▐ 정시퇴근 가능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절대 불가능 하다	거의 불가능 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가능하다	항상 가능하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646	0.9	7.7	28.2	44.7	18.4	3.72	
성별	여성	284	0.7	8.1	30.3	43.7	17.3	3.69	-0.845
	남성	362	1.1	7.5	26.5	45.6	19.3	3.75	
연령	20대	67	3.0	13.4	17.9	47.8	17.9	3.64	7.765***
	30대	91	2.2	5.5	24.2	51.6	16.5	3.75	
	40대	111	0.9	11.7	17.1	48.6	21.6	3.78	
	50대	166	0.0	6.6	18.1	47.6	27.7	3.96	
	60대	142	0.7	8.5	35.9	43.0	12.0	3.57	
	70대 이상	69	0.0	0.0	69.6	23.2	7.2	3.38	
지역	읍/면	137	0.7	5.8	29.2	48.2	16.1	3.73	0.151
	동	509	1.0	8.3	27.9	43.8	19.1	3.7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9	0.3	7.8	24.1	48.4	19.5	3.79	7.857***
	비혼	147	2.7	8.8	21.1	48.3	19.0	3.72	
	이혼·별거	40	2.5	12.5	35.0	27.5	22.5	3.55	
	사별	60	0.0	1.7	68.3	23.3	6.7	3.35	
자녀유무	있음	418	0.5	7.4	28.0	45.0	19.1	3.75	1.129
	없음	228	1.8	8.3	28.5	44.3	17.1	3.67	

***p<.001

4) 일·생활 균형 수준

근로 중인 응답자의 일 · 생활 균형 수준(5점 척도)을 살펴보면 평균은 3.37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지역, 결혼상태 등 주요 배경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58 ▌일·생활의 균형 수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646	3.1	11.1	38.7	39.5	7.6	3.37	
성별	여성	284	2.5	12.0	39.4	37.7	8.5	3.38	0.093
	남성	362	3.6	10.5	38.1	40.9	6.9	3.37	
연령	20대	67	9.0	11.9	23.9	38.8	16.4	3.42	0.318
	30대	91	2.2	14.3	35.2	41.8	6.6	3.36	
	40대	111	5.4	11.7	36.9	38.7	7.2	3.31	
	50대	166	3.6	13.9	30.1	43.4	9.0	3.40	
	60대	142	0.0	10.6	42.3	43.7	3.5	3.40	
	70대 이상	69	0.0	0.0	73.9	20.3	5.8	3.32	
지역	읍/면	137	2.2	10.9	39.4	40.9	6.6	3.39	0.204
	동	509	3.3	11.2	38.5	39.1	7.9	3.3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9	2.3	11.5	38.8	40.6	6.8	3.38	0.129
	비혼	147	6.1	13.6	29.9	38.8	11.6	3.36	
	이혼·별거	40	5.0	15.0	30.0	45.0	5.0	3.30	
	사별	60	0.0	0.0	65.0	30.0	5.0	3.40	
자녀유무	있음	418	1.9	10.3	40.4	40.4	6.9	3.40	1.062
	없음	228	5.3	12.7	35.5	37.7	8.8	3.32	

5) 일·생활 불균형 원인

일 · 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근로(35.3%)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24.3%), 가사 부담(22.0%), 자녀양육 부담(1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가사부담(34.6%)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한 반면, 남성은 장시간 근로(42.6%) 비율이 가장 높았다(χ^2=30.922, p<.001).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에서 장시간 근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고, 30 · 40대는 자녀양육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70대 이상은 가사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였다(χ^2=73.058, p<.001).

결혼상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자녀양육 부담을, 비혼·이혼·별거 집단은 장시간 근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였다(χ^2=41.385, p<.01).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장시간 근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자녀양육 부담 비율이 더 높았다(χ^2=31.63, p<.001). 또한 맞벌이 가구는 가사부담(24.7%)과 자녀양육 부담(17.9%) 비율이 비맞벌이보다 높게 나타났다(χ^2=15.121, p<.05). 이는 맞벌이 가구에서 시간적 제약과 돌봄 부담이 더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표 Ⅲ-159▐ 일·생활 불균형 원인

(단위: 명, %)

		사례수	장시간 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부족	가사 부담	자녀 양육 부담	노부모 부양	가족내 환자/ 장애인 돌봄	기타	χ^2
전체		346	35.3	24.3	22.0	11.8	3.8	1.2	1.7	
성별	여성	156	26.3	20.5	34.6	13.5	2.6	1.3	1.3	30.922***
	남성	190	42.6	27.4	11.6	10.5	4.7	1.1	2.1	
연령	20대	30	46.7	30.0	6.7	6.7	6.7	0.0	3.3	73.058***
	30대	47	53.2	14.9	8.5	21.3	0.0	2.1	0.0	
	40대	60	28.3	23.3	15.0	23.3	6.7	0.0	3.3	
	50대	79	35.4	17.7	22.8	10.1	6.3	3.8	3.8	
	60대	75	36.0	30.7	25.3	6.7	1.3	0.0	0.0	
	70대 이상	55	20.0	30.9	43.6	3.6	1.8	0.0	0.0	
지역	읍/면	73	37.0	26.0	24.7	5.5	2.7	2.7	1.4	6.001
	동	273	34.8	23.8	21.2	13.6	4.0	0.7	1.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4	31.3	22.9	22.0	15.9	5.1	1.9	0.9	41.385**
	비혼	73	49.3	27.4	12.3	4.1	2.7	0.0	4.1	
	이혼·별거	20	55.0	20.0	15.0	5.0	0.0	0.0	5.0	
	사별	39	20.5	28.2	43.6	7.7	0.0	0.0	0.0	
자녀유무	있음	224	27.2	25.0	23.7	17.0	4.9	1.3	0.9	31.63***
	없음	122	50.0	23.0	18.9	2.5	1.6	0.8	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2	31.5	17.3	24.7	17.9	4.9	2.5	1.2	15.121*
	비맞벌이	52	30.8	40.4	13.5	9.6	5.8	0.0	0.0	

*p<.05, **p<.01, ***p<.001

6) 가족여가시간_평일

최근 6개월 동안 평일에 가족과 함께 보낸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30분~1시간 미만'(29.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분 미만'(20.8%), '2시간 이상'(19.2%), '1시간~2시간'(16.8%), '전혀 하지 않는다'(13.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9.7%)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χ^2=58.559,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1시간 이상' 여가를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χ^2=38.16, p<.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낮아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비교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1.057, p<.001). 자녀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집단(22.9%)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2시간 이상'의 경우 자녀가 있는 집단(22.8%)이 자녀가 없는 집단(13.0%)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χ^2=54.287, p<.001).

▌표 Ⅲ-160 ▌가족여가시간 : 평일

(단위: 명, %)

		사례수	전혀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χ^2
전체		1025	13.6	20.8	29.7	16.8	19.2	
성별	여성	520	12.5	20.8	31.3	16.3	19.0	2.026
	남성	505	14.7	20.8	27.9	17.2	19.4	
연령	20대	117	11.1	31.6	29.9	13.7	13.7	58.559***
	30대	111	10.8	24.3	16.2	23.4	25.2	
	40대	153	10.5	16.3	31.4	21.6	20.3	
	50대	206	13.1	18.4	24.3	22.8	21.4	
	60대	205	12.2	18.0	35.1	15.1	19.5	
	70대 이상	233	19.7	21.0	34.8	8.2	16.3	
지역	읍/면	242	22.3	20.7	34.7	8.7	13.6	38.16***
	동	783	10.9	20.8	28.1	19.3	20.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4.8	19.5	29.1	20.9	25.8	161.057***
	비혼	242	23.1	24.8	24.8	13.6	13.6	
	이혼·별거	59	42.4	6.8	27.1	13.6	10.2	
	사별	139	21.6	25.2	41.7	6.5	5.0	
자녀유무	있음	649	8.2	20.3	29.9	18.8	22.8	54.287***
	없음	376	22.9	21.5	29.3	13.3	13.0	

***p<.001

7) 가족여가시간_주말

최근 6개월 동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낸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2시간 이상'(3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시간~2시간'(22.8%), '30분~1시간 미만'(22.5%), '전혀 하지 않는다'(11.9%), '30분 미만'(10.4%) 순으로 나타나, 평일보다 휴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χ^2=35.343, p<.05),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20.2%)이 동 지역(9.3%)보다 휴일에도 가족여가를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χ^2=22.247, p<.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전혀 하지 않는다' 비율이 매우 낮아(3.2%, χ^2=151.434, p<.001), 가족과의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집단은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휴일 가족여가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χ^2=51.559, p<.001).

▌표 Ⅲ-161 ▌가족여가시간 : 주말

(단위: 명, %)

		사례수	전혀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χ^2
전체		1025	11.9	10.4	22.5	22.8	32.3	
성별	여성	520	11.3	8.8	21.3	22.5	36.0	7.953
	남성	505	12.5	12.1	23.8	23.2	28.5	
연령	20대	117	8.5	14.5	29.1	23.1	24.8	35.343*
	30대	111	9.9	10.8	21.6	19.8	37.8	
	40대	153	8.5	12.4	22.2	22.9	34.0	
	50대	206	10.7	13.6	21.4	20.9	33.5	
	60대	205	9.8	5.9	24.4	25.4	34.6	
	70대 이상	233	19.7	8.2	19.3	23.6	29.2	
지역	읍/면	242	20.2	9.9	21.5	21.9	26.4	22.247***
	동	783	9.3	10.6	22.9	23.1	34.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3.2	8.4	23.6	22.7	42.1	151.434***
	비혼	242	20.2	16.1	22.7	20.7	20.2	
	이혼·별거	59	32.2	13.6	8.5	30.5	15.3	
	사별	139	25.2	7.9	23.7	23.7	19.4	
자녀유무	있음	649	7.2	8.8	22.5	24.3	37.1	51.559***
	없음	376	19.9	13.3	22.6	20.2	23.9	

*p<.05, ***p<.001

8) 가족여가시간 충분여부

가족여가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5%였으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3.5%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지역 등 주요 변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162▐ 가족 여가시간 충분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x^2
전체		1025	56.5	43.5	
성별	여성	520	57.1	42.9	0.169
	남성	505	55.8	44.2	
연령	20대	117	61.5	38.5	6.934
	30대	111	51.4	48.6	
	40대	153	51.6	48.4	
	50대	206	52.9	47.1	
	60대	205	59.5	40.5	
	70대 이상	233	60.1	39.9	
지역	읍/면	242	52.9	47.1	1.666
	동	783	57.6	42.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58.8	41.2	3.265
	비혼	242	54.5	45.5	
	이혼·별거	59	52.5	47.5	
	사별	139	51.8	48.2	
자녀유무	있음	649	57.5	42.5	0.699
	없음	376	54.8	45.2	

9)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

가족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일이 많아서'(26.9%)가 가장 높았으며, '몸이 피곤해서'(22.9%), '비용 부담'(17.3%), '여가시설 부족'(10.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x^2=95.222, p<.001), 20대(46.7%)와 30대(42.6%)는 '일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40대(20.3%, 29.7%), 50대(25.8%, 20.6%), 60대(34.9%, 20.5%)에서는 '일이 많아서'와 '몸이 피곤해서'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은 '비용 부담'(33.3%)과 '몸이 피곤해서'(22.6%)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집단에서 '비용 부담'이 38.8%로 가장 높아,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이유로 가족여가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x^2=63.46, p<.001). 또한, 자녀가 없는 집단은 '몸이 피곤해서'라는 응답이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x^2=14.343, p<.05).

▌표 Ⅲ-163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

(단위: 명, %)

		사례 수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자녀의 학업 때문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기타	x^2
전체		446	26.9	22.9	17.3	10.3	8.7	6.7	4.5	2.7	
성별	여성	223	24.7	22.0	17.9	9.4	10.8	8.1	4.0	3.1	5.265
	남성	223	29.1	23.8	16.6	11.2	6.7	5.4	4.9	2.2	
연령	20대	45	46.7	20.0	8.9	2.2	6.7	8.9	6.7	0.0	95.222***
	30대	54	42.6	24.1	9.3	9.3	5.6	1.9	3.7	3.7	
	40대	74	20.3	29.7	14.9	9.5	5.4	13.5	5.4	1.4	
	50대	97	25.8	20.6	16.5	8.2	7.2	10.3	3.1	8.2	
	60대	83	34.9	20.5	12.0	10.8	10.8	2.4	7.2	1.2	
	70대 이상	93	7.5	22.6	33.3	17.2	14.0	3.2	2.2	0.0	
지역	읍/면	114	27.2	21.9	24.6	6.1	11.4	6.1	2.6	0.0	13.983
	동	332	26.8	23.2	14.8	11.7	7.8	6.9	5.1	3.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1	29.9	22.8	14.1	9.5	7.1	10.0	5.0	1.7	63.46***
	비혼	110	34.5	28.2	11.8	8.2	5.5	3.6	4.5	3.6	
	이혼·별거	28	21.4	17.9	14.3	17.9	14.3	3.6	3.6	7.1	
	사별	67	6.0	16.4	38.8	13.4	17.9	1.5	3.0	3.0	
자녀유무	있음	276	26.4	19.2	18.5	9.4	9.8	9.4	4.7	2.5	14.343*
	없음	170	27.6	28.8	15.3	11.8	7.1	2.4	4.1	2.9	

*p<.05, ***p<.001

10) 선호하는 가족여가프로그램

선호하는 가족여가프로그램은 가정 내 활동(33.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람(24.1%), 체험 및 관광 활동(23.6%), 스포츠 활동(11.0%), 사회 및 기타 활동(7.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은 가정 내 활동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문화예술 관람과 체험·관광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문화예술 관람(32.5%)'과 '체험 및 관광 활동(31.6%)'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가정 내 활동'은 23.9%로 나타났다. 30대 역시 '체험 및 관광 활동(28.8%)'과 '문화예술 관람(27.0%)'의 선호가 높았으며 40대는 '체험 및 관광 활동(33.3%)'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반면, 5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가정 내 활동 선호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0대는 32.5%, 60대는 42.0%, 70대 이상에서는 43.8%로, 고연령층일수록 '가정 내 활동'을 더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164 ▌선호하는 가족여가프로그램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가정 내 활동	문화예술 관람	체험 및 관광 활동	스포츠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전체		1025	33.9	24.1	23.6	11.0	7.4
성별	여성	520	30.4	25.8	25.8	10.2	7.9
	남성	505	37.4	22.4	21.4	11.9	6.9
연령	20대	117	23.9	32.5	31.6	11.1	0.9
	30대	111	26.1	27.0	28.8	12.6	5.4
	40대	153	22.9	25.5	33.3	9.2	9.2
	50대	206	32.5	30.1	19.9	10.7	6.8
	60대	205	42.0	18.0	23.4	9.3	7.3
	70대 이상	233	43.8	17.6	14.2	13.3	11.2
지역	읍/면	242	37.2	24.8	16.1	12.0	9.9
	동	783	32.8	23.9	25.9	10.7	6.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30.9	24.1	24.6	12.0	8.4
	비혼	242	38.0	27.7	21.9	9.1	3.3
	이혼·별거	59	27.1	27.1	27.1	10.2	8.5
	사별	139	41.7	16.5	20.9	10.8	10.1
자녀유무	있음	649	33.1	23.6	24.5	10.6	8.2
	없음	376	35.1	25.0	22.1	11.7	6.1

9. 가족정책

1) 아동돌봄 책임

아동돌봄 책임인식을 살펴보면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0%, 부모와 국가가 서로 비슷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36.1%, 국가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본 응답은 20.8%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비율이 높았다(x^2=10.53, p<.01).

연령별로는 20대(53.0%)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26.2%)에서는 해당 비율이 가장 낮았다(x^2=100.73, p<.001). 지역별로는 동 지역(41.6%)이 읍 · 면 지역(18.2%)보다 '부모와 국가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x^2=50.192, p<.001). 결혼상태별로 보면 이혼·별거 집단은 '부모 역할'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사별 집단은 국가 역할이 더 커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x^2=56.78, p<.001).

▌표 Ⅲ-165 ▌아동돌봄 책임

(단위: 명, %)

		사례수	(부모역할)에 매우 동의	(부모역할)에 약간 동의	서로 비슷함	(국가역할)에 약간 동의	(국가역할)에 매우 동의	x^2
전체		1025	22.6	20.4	36.1	14.7	6.1	
성별	여성	520	21.5	19.6	35.6	18.1	5.2	10.53*
	남성	505	23.8	21.2	36.6	11.3	7.1	
연령	20대	117	18.8	18.8	53.0	6.0	3.4	100.73***
	30대	111	21.6	21.6	37.8	13.5	5.4	
	40대	153	25.5	20.9	45.8	5.9	2.0	
	50대	206	30.6	18.9	34.5	9.2	6.8	
	60대	205	24.4	20.5	31.2	15.1	8.8	
	70대 이상	233	14.6	21.5	26.2	30.0	7.7	
지역	읍/면	242	28.5	21.9	18.2	22.3	9.1	50.192***
	동	783	20.8	19.9	41.6	12.4	5.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5.5	19.7	35.9	13.0	6.0	56.78***
	비혼	242	21.1	19.4	45.0	9.9	4.5	
	이혼·별거	59	25.4	30.5	22.0	13.6	8.5	
	사별	139	12.2	20.9	27.3	30.9	8.6	
자녀유무	있음	649	24.0	21.3	32.8	15.6	6.3	8.379
	없음	376	20.2	18.9	41.8	13.3	5.9	

*p<.05, ***p<.001

2) 양육정책 방향

양육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은 돌봄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 현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은 34.9%, 비슷하게 필요하다는 응답은 3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서로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돌봄서비스 지원을 더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대 이상은 현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χ^2=128.416, p<.001).

지역별로는 동지역(38.8%)은 '서로 비슷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읍·면 지역(21.1%)은 현금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χ^2=97.41, p<.001). 결혼상태별 차이를 보면 사별 집단에서 현금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χ^2=61.506, p<.001).

▌표 Ⅲ-166▐ 양육정책 방향

(단위: 명, %)

		사례수	(돌봄 서비스 지원) 훨씬 더 필요	(돌봄 서비스 지원) 약간 더 필요	서로 비슷함	(현금 지원) 약간 더 필요	(현금 지원) 훨씬 더 필요	χ^2
전체		1025	15.2	15.2	34.6	15.4	19.5	
성별	여성	520	15.0	13.5	37.9	16.0	17.7	7.393
	남성	505	15.4	17.0	31.3	14.9	21.4	
연령	20대	117	17.1	16.2	45.3	12.8	8.5	128.416***
	30대	111	23.4	20.7	31.5	9.9	14.4	
	40대	153	15.7	16.3	38.6	15.7	13.7	
	50대	206	26.2	17.5	36.9	11.2	8.3	
	60대	205	10.7	15.6	29.3	18.0	26.3	
	70대 이상	233	4.3	9.0	30.9	20.6	35.2	
지역	읍/면	242	9.9	11.6	21.1	16.9	40.5	97.41***
	동	783	16.9	16.3	38.8	14.9	13.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7.4	15.2	34.2	15.2	17.9	61.506***
	비혼	242	16.5	17.4	38.8	14.0	13.2	
	이혼·별거	59	18.6	22.0	30.5	13.6	15.3	
	사별	139	2.2	8.6	30.9	19.4	38.8	
자녀유무	있음	649	15.4	15.3	32.5	16.2	20.6	4.182
	없음	376	14.9	15.2	38.3	14.1	17.6	

***p<.001

3) 맞벌이 시 자녀 선호돌봄

맞벌이 시 선호하는 돌봄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 돌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고, 두 방식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34.2%, 조부모 돌봄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서로 비슷하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조부모 돌봄 선호 비율이 24.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x^2=47.636, p<.001). 지역별로는 동지역(37.2%)이 읍·면 지역(24.8%)보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기관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은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x^2=17.106, p<.01).

이는 전반적으로 기관 돌봄을 더 선호하지만, 조부모 돌봄에 대한 선호도도 일정 수준 존재하며 특히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기관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7▐ 맞벌이 시 자녀 선호돌봄

(단위: 명, %)

		사례수	(기관돌봄) 훨씬 더 좋음	(기관돌봄) 약간 더 좋음	서로 비슷함	(조부모돌봄) 약간 더 좋음	(조부모돌봄) 훨씬 더 좋음	x^2
전체		1025	18.9	27.2	34.2	12.4	7.2	
성별	여성	520	17.7	27.7	35.4	11.9	7.3	1.535
	남성	505	20.2	26.7	33.1	12.9	7.1	
연령	20대	117	16.2	27.4	42.7	6.0	7.7	47.636***
	30대	111	27.9	22.5	25.2	16.2	8.1	
	40대	153	22.9	31.4	30.7	9.8	5.2	
	50대	206	24.8	25.7	26.2	14.6	8.7	
	60대	205	18.0	25.4	39.0	11.7	5.9	
	70대 이상	233	9.0	29.6	39.5	14.2	7.7	
지역	읍/면	242	25.2	31.4	24.8	12.0	6.6	17.106**
	동	783	17.0	25.9	37.2	12.5	7.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0.7	26.7	31.8	13.5	7.4	18.51
	비혼	242	20.2	26.9	36.8	9.1	7.0	
	이혼·별거	59	22.0	27.1	30.5	15.3	5.1	
	사별	139	7.9	30.2	41.7	12.2	7.9	
자녀유무	있음	649	19.3	28.4	32.2	12.6	7.6	3.441
	없음	376	18.4	25.3	37.8	12.0	6.6	

**p<.01, ***p<.001

4) 노인돌봄 책임

노인돌봄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18.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36.2%, '비슷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45.9%로 가장 높았다. 즉,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노인돌봄을 국가와 가족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국가 역할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χ^2=34.344, p<.05),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동지역보다 국가 역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χ^2=10.695, p<.05).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책임'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으며(χ^2=26.981, p<.01) 자녀가 없는 집단(53.5%)이 자녀가 있는 집단(41.4%)보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χ^2=14.416, p<.01).

이는 전북 도민은 노인돌봄을 가족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0대 이상과 읍·면 지역에서는 국가 책임 요구가 높아 공공 돌봄 인프라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168▐ 노인돌봄 책임

(단위: 명, %)

		사례수	(가족역할)에 매우 동의	(가족역할)에 약간 동의	서로 비슷함	(국가역할)에 약간 동의	(국가역할)에 매우 동의	χ^2
전체		1025	6.0	12.0	45.9	22.5	13.7	
성별	여성	520	4.4	12.1	48.1	21.7	13.7	5.595
	남성	505	7.5	11.9	43.6	23.4	13.7	
연령	20대	117	6.8	12.8	53.8	20.5	6.0	34.344*
	30대	111	7.2	10.8	46.8	18.9	16.2	
	40대	153	7.2	14.4	39.2	22.9	16.3	
	50대	206	8.7	17.0	39.8	18.4	16.0	
	60대	205	3.4	10.2	47.8	26.3	12.2	
	70대 이상	233	3.9	7.7	49.4	25.3	13.7	
지역	읍/면	242	2.5	10.3	45.0	27.3	14.9	10.695*
	동	783	7.0	12.5	46.1	21.1	13.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6.7	14.5	40.5	23.8	14.5	26.981**
	비혼	242	7.0	9.1	52.9	17.4	13.6	
	이혼·별거	59	5.1	8.5	50.8	25.4	10.2	
	사별	139	1.4	7.9	54.0	25.2	11.5	
자녀유무	있음	649	6.6	13.4	41.4	23.9	14.6	14.416**
	없음	376	4.8	9.6	53.5	20.2	12.0	

*p<.05, **p<.01

5)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인지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다양한 서비스의 인지도를 확인해본 결과, '다문화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54%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아이돌봄사업'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각각 44.78%, '가족센터'가 41.66%, '전북여성가족재단'이 37.66%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인 사업은 '조손가족 지원사업' 23.61%이며 '1인가구지원사업(26.44%)'과 '일·생활균형 지원사업(27.32%)' 역시 2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다문화 지원사업(48.51%)'과 '가족센터(35.84%)'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다문화 지원사업(52.50%)', '아이돌봄사업(49.04%)', '가족센터(47.31%)' 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과 서비스에 대해 여성의 인지도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대와 70대이상은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별인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 별거 집단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집단은 '아이돌봄사업(53.22%)', '다문화지원사업(54.07%)', '한부모가족지원사업(46.83%)' 인지율이 높은 반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서는 '1인가구지원사업(30.59%)', '일·생활균형지원사업(30.06%)'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69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인지도

(단위: 명, %)

		사례수	가족센터	전북여성가족재단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사업	다문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일생활균형지원 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1인가구지원사업
전체		1025	41.7	37.7	30.5	44.8	50.5	44.8	27.3	23.6	26.4
성별	여성	520	47.3	42.5	36.5	49.0	52.5	47.5	29.4	27.7	28.3
	남성	505	35.8	32.7	24.4	40.4	48.5	42.0	25.1	19.4	24.6
연령	20대	117	35.0	31.6	20.5	28.2	32.5	29.9	24.8	14.5	26.5
	30대	111	42.3	40.5	28.8	42.3	39.6	36.9	27.0	19.8	30.6
	40대	153	43.1	35.9	30.7	51.0	53.6	49.0	22.9	27.5	30.1
	50대	206	39.8	35.9	29.1	37.4	44.2	37.9	23.8	25.2	29.1
	60대	205	52.2	50.2	36.1	53.7	62.9	57.6	33.2	26.8	25.4
	70대 이상	233	36.1	30.9	32.6	48.9	57.5	48.1	29.6	23.2	20.6
지역	읍/면	242	48.3	41.7	37.6	55.4	63.6	58.3	33.1	28.1	21.9
	동	783	39.6	36.4	28.4	41.5	46.5	40.6	25.5	22.2	27.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45.3	41.4	33.7	50.4	52.6	48.0	27.7	27.5	26.5
	비혼	242	33.5	28.5	21.5	28.9	38.4	32.6	21.9	14.0	26.0
	이혼·별거	59	40.0	40.0	20.0	40.0	80.0	40.0	40.0	20.0	20.0
	사별	139	38.9	38.9	25.9	33.3	42.6	37.0	24.1	20.4	38.9
자녀유무	있음	649	41.7	37.4	35.3	53.2	64.7	55.4	36.0	25.2	22.3
	없음	376	43.5	40.7	35.3	51.0	54.1	47.3	28.2	26.8	26.0

6)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접근성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족지원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아이돌봄지원사업(61.7%)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60.3%), 공동육아나눔터(57.5%), 가족센터(56.5%) 조손가족지원사업(51.2%), 1인가구 지원사업(49.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족센터(여성 60.8%, 남성 49.2%), 공동육아나눔터(여성 60.1%, 남성 48.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여성 61.3%, 남성 57.6%) 등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50대에서 접근성이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30 · 40대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고령층에서는 조손가족지원사업과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접근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체감 방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접근성이 더 높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가족센터(읍·면 67.5%, 동 52.2%), 전북여성가족재단(읍·면 62.4%, 동 52.7%), 아이돌봄지원사업(읍·면 67.5%, 동 59.3%)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에서 가족서비스 이용 지원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상태별로는 비혼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접근성 평가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서비스 접근성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자녀양육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Ⅲ-170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접근성

(단위: 명, %)

		가족센터		전북여성가족재단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사업		다문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일생활균형지원 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1인가구지원사업	
		사례수	좋음	사례수	좋음	사례수	좋음	사례수	좋음	사례수	좋음	사례수	좋음	사례수	좋음	사례수	좋음	사례수	좋음
전체		427	56.0	386	49.0	313	57.5	459	61.7	518	57.3	459	60.3	280	48.9	242	51.2	271	49.8
성별	여성	246	61.0	221	54.3	190	60.0	255	67.5	273	63.4	247	63.6	153	51.0	144	56.3	147	55.8
	남성	181	49.2	165	41.8	123	53.7	204	54.4	245	50.6	212	56.6	127	46.5	98	43.9	124	42.7
연령	20대	41	65.9	37	40.5	24	54.2	33	66.7	38	44.7	35	54.3	29	48.3	17	47.1	31	48.4
	30대	47	48.9	45	42.2	32	40.6	47	46.8	44	36.4	41	51.2	30	43.3	22	45.5	34	41.2
	40대	66	40.9	55	34.5	47	38.3	78	47.4	82	42.7	75	42.7	35	25.7	42	42.9	46	58.7
	50대	82	39.0	74	31.1	60	30.0	77	49.4	91	40.7	78	41.0	49	34.7	52	42.3	60	40.0
	60대	107	65.4	103	66.0	74	78.4	110	70.0	129	70.5	118	72.0	68	61.8	55	58.2	52	57.7
	70대 이상	84	71.4	72	62.5	76	78.9	114	76.3	134	75.4	112	78.6	69	60.9	54	63.0	48	52.1
지역	읍/면	117	67.5	101	57.4	91	71.4	134	72.4	154	76.0	141	73.8	80	61.3	68	51.5	53	56.6
	동	310	51.6	285	46.0	222	51.8	325	57.2	364	49.5	318	54.4	200	44.0	174	51.1	218	48.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65	51.7	242	45.9	197	50.3	295	58.0	308	53.2	281	54.4	162	42.0	161	46.6	155	47.1
	비혼	81	50.6	69	34.8	52	46.2	70	51.4	93	46.2	79	51.9	53	47.2	34	47.1	63	46.0
	이혼·별거	2	0.0	2	100.0	1	0.0	2	50.0	4	75.0	2	100.0	2	50.0	1	100.0	1	0.0
	사별	21	66.7	21	71.4	14	85.7	18	72.2	23	65.2	20	65.0	13	69.2	11	54.5	21	71.4
자녀유무	있음	58	81.0	52	71.2	49	91.8	74	83.8	90	80.0	77	88.3	50	68.0	35	74.3	31	58.1
	없음	282	55.0	264	51.1	229	56.8	331	61.3	351	57.3	307	57.3	183	46.4	174	50.0	169	47.3

7)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경험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실제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1인가구 지원사업'의 이용률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일 · 생활균형 지원사업(25.4%), 전북여성가족재단 사업(23.3%), 가족센터(22.5%), 공동육아나눔터(22.0%), 아이돌봄사업(17.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용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인지도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경험은 오히려 남성이 더 높은 항목이 많았다. 이는 여성의 정보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은 남성보다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응답자가 남성이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이용률의 성별 차이는 실제 이용량의 차이라기보다 서비스 신청 방식과 응답자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 거주자의 이용경험 비율이 읍·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라 비교했을 때에도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이용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다만, 이용경험 항목은 가족 단위 서비스 이용 시 응답 주체에 따라서 또는 서비스 인지와 이용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Ⅲ-171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

		가족센터		전북여성가족재단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사업		다문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일생활균형지원 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1인가구지원사업	
		사례수	있음	사례수	있음	사례수	있음	사례수	있음	사례수	있음	사례수	있음	사례수	있음	사례수	있음	사례수	있음
전체		427	22.5	386	23.3	313	22.0	459	17.4	518	14.3	459	15.3	280	25.4	242	21.9	271	28.4
성별	여성	246	18.3	221	19.9	190	18.9	255	16.5	273	13.6	247	13.0	153	22.2	144	16.0	147	29.3
	남성	181	28.2	165	27.9	123	26.8	204	18.6	245	15.1	212	17.9	127	29.1	98	30.6	124	27.4
연령	20대	41	31.7	37	32.4	24	33.3	33	36.4	38	28.9	35	40.0	29	44.8	17	35.3	31	54.8
	30대	47	42.6	45	33.3	32	43.8	47	38.3	44	31.8	41	34.1	30	46.7	22	59.1	34	52.9
	40대	66	34.8	55	32.7	47	36.2	78	21.8	82	20.7	75	21.3	35	40.0	42	33.3	46	28.3
	50대	82	36.6	74	40.5	60	33.3	77	26.0	91	22.0	78	20.5	49	40.8	52	19.2	60	28.3
	60대	107	6.5	103	9.7	74	9.5	110	8.2	129	7.0	118	5.9	68	8.8	55	12.7	52	15.4
	70대 이상	84	3.6	72	6.9	76	3.9	114	3.5	134	2.2	112	2.7	69	5.8	54	5.6	48	8.3
지역	읍/면	117	17.9	101	15.8	91	17.6	134	11.9	154	9.7	141	9.9	80	13.8	68	16.2	53	17.0
	동	310	24.2	285	26.0	222	23.9	325	19.7	364	16.2	318	17.6	200	30.0	174	24.1	218	31.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65	25.3	242	26.0	197	25.9	295	20.0	308	15.9	281	14.9	162	27.8	161	21.1	155	25.2
	비혼	81	30.9	69	29.0	52	28.8	70	22.9	93	21.5	79	30.4	53	39.6	34	50.0	63	42.9
	이혼·별거	2	50.0	2	0.0	1	100.0	2	0.0	4	0.0	2	0.0	2	50.0	1	0.0	1	0.0
	사별	21	9.5	21	14.3	14	7.1	18	16.7	23	17.4	20	10.0	13	15.4	11	9.1	21	42.9
자녀유무	있음	58	1.7	52	7.7	49	2.0	74	2.7	90	1.1	77	2.6	50	4.0	35	2.9	31	6.5
	없음	282	24.1	264	24.6	229	23.1	331	18.4	351	14.5	307	13.4	183	24.6	174	20.7	169	23.1

8)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만족도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응답자 중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가족센터(6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여성가족재단(50.0%), 공동육아 나눔터(43.5%), 아이돌봄지원사업(4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 54.5%, 남성 45.7%), 공동육아나눔터(여성 55.6%, 남성 30.3%), 아이돌봄사업(여성 47.6%, 남성 36.8%) 등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가족센터는 남성(64.7%)이 여성(60.0%)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Ⅲ-172 ▌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가족센터		전북여성가족재단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사업		다문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일생활균형지원 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1인가구지원사업	
		사례수	만족	사례수	만족	사례수	만족	사례수	만족	사례수	만족	사례수	만족	사례수	만족	사례수	만족	사례수	만족
전체		96	62.5	90	50.0	69	43.5	80	42.5	74	39.2	70	31.4	71	42.3	53	41.5	77	40.3
성별	여성	45	60.0	44	54.5	36	55.6	42	47.6	37	43.2	32	34.4	34	50.0	23	47.8	43	39.5
	남성	51	64.7	46	45.7	33	30.3	38	36.8	37	35.1	38	28.9	37	35.1	30	36.7	34	41.2
연령	20대	13	69.2	12	41.7	8	37.5	12	25.0	11	18.2	14	28.6	13	53.8	6	33.3	17	29.4
	30대	20	60.0	15	53.3	14	71.4	18	61.1	14	50.0	14	50.0	14	50.0	13	53.8	18	44.4
	40대	23	52.2	18	33.3	17	23.5	17	29.4	17	41.2	16	12.5	14	21.4	14	28.6	13	30.8
	50대	30	66.7	30	53.3	20	40.0	20	35.0	20	50.0	16	31.3	20	45.0	10	40.0	17	47.1
	60대	7	71.4	10	60.0	7	57.1	9	55.6	9	22.2	7	42.9	6	33.3	7	42.9	8	50.0
	70대 이상	3	66.7	5	80.0	3	33.3	4	75.0	3	33.3	3	33.3	4	50.0	3	66.7	4	50.0
지역	읍/면	21	81.0	16	56.3	16	56.3	16	75.0	15	60.0	14	50.0	11	72.7	11	54.5	9	55.6
	동	75	57.3	74	48.6	53	39.6	64	34.4	59	33.9	56	26.8	60	36.7	42	38.1	68	38.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7	67.2	63	49.2	51	45.1	59	47.5	49	40.8	42	33.3	45	46.7	34	44.1	39	33.3
	비혼	25	48.0	20	45.0	15	33.3	16	25.0	20	35.0	24	29.2	21	33.3	17	29.4	27	33.3
	이혼·별거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사별	2	100.0	3	66.7	1	0.0	3	33.3	4	25.0	2	0.0	2	0.0	1	100.0	9	77.8
자녀유무	있음	1	0.0	4	75.0	1	100.0	2	50.0	1	100.0	2	50.0	2	50.0	1	100.0	2	100.0
	없음	68	66.2	65	52.3	53	47.2	61	47.5	51	43.1	41	39.0	45	44.4	36	47.2	39	41.0

9) 일·생활 균형 정책

일·생활 균형을 정책을 살펴보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재택근무·시차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22.2%),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16.6%), 초과근로시간 단축(13.4%),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10.6%),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8.0%),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6.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보육지원 확대를, 남성은 초과근로시간 단축과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χ^2=30.922, p<.001).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유연근무제 도입 요구가 높았으며, 반면 60대 이상은 보육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χ^2=144.846, p<.001).

지역에 따라서는 동 지역은 유연근무제 확산(23.1%), 읍·면 지역은 보육지원 확대(30.2%) 응답이 높아 지역 간 요구가 다르게 나타났다(χ^2=14.982, p<.05).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및 사별 집단에서 보육지원 확대 요구가 두드러졌고, 비혼 집단은 유연근무제를 가장 선호하였다(χ^2=94.737, p<.001).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집단은 보육지원 확대(25.6%), 자녀가 없는 집단은 유연근무제 확대(28.7%) 비율이 더 높았다(χ^2=32.051, p<.001).

▌표 Ⅲ-173 ▌일·생활 균형 정책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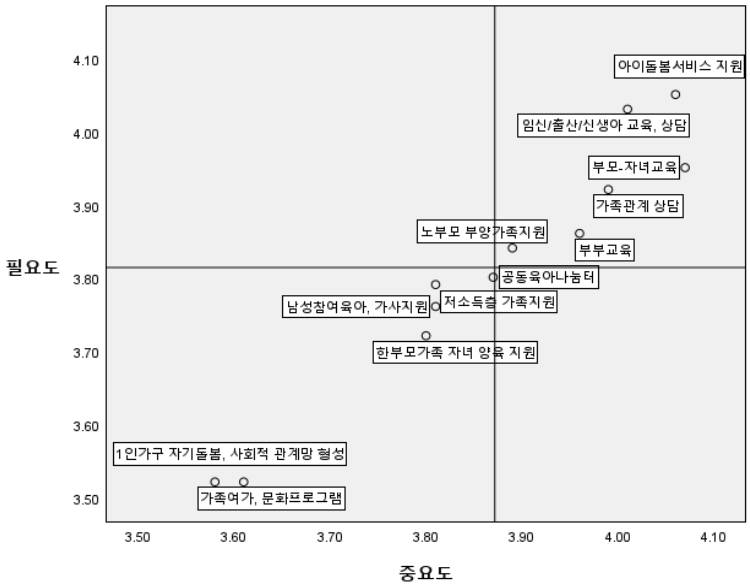
		사례수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재택근무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확산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x^2
전체		1025	22.7	22.2	16.6	13.4	10.6	8.0	6.4	
성별	여성	520	25.8	22.3	15.4	11.2	8.5	7.3	9.6	30.922***
	남성	505	19.6	22.2	17.8	15.6	12.9	8.7	3.2	
연령	20대	117	9.4	31.6	8.5	26.5	12.0	8.5	3.4	144.846***
	30대	111	12.6	34.2	17.1	10.8	6.3	9.9	9.0	
	40대	153	15.7	24.8	15.7	20.3	10.5	9.2	3.9	
	50대	206	15.0	22.3	18.4	14.1	11.2	11.7	7.3	
	60대	205	27.8	21.0	18.5	11.2	8.8	4.4	8.3	
	70대 이상	233	41.2	11.2	17.6	4.7	13.3	6.0	6.0	
지역	읍/면	242	30.2	19.4	17.8	10.3	10.3	8.3	3.7	14.982*
	동	783	20.4	23.1	16.2	14.3	10.7	7.9	7.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1.4	22.7	17.4	12.5	11.5	7.9	6.7	94.737***
	비혼	242	11.6	30.6	14.9	21.9	7.4	8.7	5.0	
	이혼·별거	59	39.0	10.2	15.3	6.8	11.9	13.6	3.4	
	사별	139	41.0	10.8	16.5	5.0	12.2	5.0	9.4	
자녀유무	있음	649	25.6	18.5	17.4	11.1	12.6	8.0	6.8	32.051***
	없음	376	17.8	28.7	15.2	17.3	7.2	8.0	5.9	

*p<.05, ***p<.001

10) 가족지원서비스 우선순위(IPA 분석)

가족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도는 모두 중간값(3점)을 상회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와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두 영역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및 신생아 교육·상담', '부모-자녀 교육', '가족관계 상담', '부부교육',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등도 필요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필요도와 중요도가 중간 수준인 서비스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저소득층 가족 지원', '남성 참여 육아 및 가사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이 포함되었다. 한편, 필요도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는 '1인 가구 자기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과 '가족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가족지원서비스 우선순위

11) 가족정책 필요 생애주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족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를 파악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결혼 및 신혼기(19.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신·출산기(19.6%), 비혼 청년시기(19.4%), 영유아기(14.0%), 노년기(9.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비혼 청년시기를, 30~50대는 영유아기, 60대는 결혼 및 신혼기, 70대 이상은 임신·출산기를 가장 중요한 정책지원 시기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형성기 전후 단계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으며, 특히 결혼–출산–영유아 양육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대한 지원 요구가 전 생애주기에서 일관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74 ▌가족 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생애주기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결혼하지 않는 청년 시기	결혼 및 신혼기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0~5세)	학령기 (초등자녀)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전체		1025	19.4	19.9	19.6	14.0	5.7	6.5	5.3	9.6
성별	여성	520	22.8	22.0	16.4	12.5	5.7	7.1	4.2	9.3
	남성	505	16.2	17.9	22.7	15.6	5.6	6.0	6.3	9.8
연령	20대	117	40.2	15.4	11.1	10.3	8.5	7.7	0.0	6.8
	30대	111	19.8	15.3	19.8	21.6	7.2	4.5	2.7	9.0
	40대	153	16.3	19.0	19.0	20.9	7.8	8.5	3.9	4.6
	50대	206	16.0	14.6	14.1	17.0	5.8	9.7	9.7	13.1
	60대	205	18.5	25.9	20.0	9.8	2.9	3.4	7.8	11.7
	70대 이상	233	14.6	24.5	28.8	9.0	4.3	5.6	3.9	9.4
지역	읍/면	242	15.7	26.9	21.1	11.2	8.3	6.6	2.9	7.4
	동	783	20.6	17.8	19.2	14.9	4.9	6.5	6.0	10.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16.9	19.0	19.7	17.8	6.2	6.8	5.1	8.5
	비혼	242	31.0	16.9	13.2	9.5	5.8	7.0	5.0	11.6
	이혼·별거	59	13.6	16.9	23.7	11.9	3.4	5.1	8.5	16.9
	사별	139	12.2	30.2	28.8	7.2	4.3	5.0	5.0	7.2
자녀유무	있음	649	14.8	19.7	20.5	17.1	6.5	7.1	5.2	9.1
	없음	376	27.4	20.2	18.1	8.8	4.3	5.6	5.3	10.4

한편, 1·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는 임신·출산기(34.5%)로 나타났으며 결혼 및 신혼기(33.5%), 노년기(30.2%), 영유아기(29.2%), 비혼 청년시기(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1순위에서는 주로 가족 형성기(결혼-출산-영유아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던 반면, 1·2순위를 합산할 경우 노년기에 대한 정책 필요성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 이후 연령층에서 노년기 지원 요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향후 '가족 형성기'뿐 아니라 고령기 가족정책 및 돌봄·건강 지원에 대한 수요도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75 ▌가족 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생애주기 : 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결혼하지 않는 청년 시기	결혼 및 신혼기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0~5세)	학령기 (초등자녀)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전체		1025	25.3	33.5	34.5	29.2	16.6	15.0	15.7	30.2
성별	여성	520	30.1	37.2	31.5	26.7	16.2	16.2	13.9	28.1
	남성	505	20.6	29.8	37.5	31.5	16.9	13.8	17.5	32.3
연령	20대	117	45.3	48.7	26.5	19.7	20.5	17.1	4.3	17.9
	30대	111	26.1	25.2	36.0	41.4	22.5	9.9	14.4	24.3
	40대	153	22.9	27.5	31.4	36.6	21.6	28.8	13.1	18.3
	50대	206	23.8	27.2	24.3	33.0	15.0	18.0	21.4	37.4
	60대	205	22.4	39.5	34.6	22.9	14.1	9.8	17.6	39.0
	70대 이상	233	20.2	33.9	48.9	25.3	12.0	9.4	17.2	33.0
지역	읍/면	242	19.8	38.8	38.8	26.9	15.3	12.8	16.1	31.4
	동	783	26.9	31.8	33.2	29.9	17.0	15.7	15.6	29.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2.6	29.7	33.2	33.5	18.1	16.4	15.9	30.6
	비혼	242	38.4	38.4	28.9	23.1	14.9	14.0	12.8	29.3
	이혼·별거	59	15.3	30.5	39.0	23.7	18.6	11.9	23.7	37.3
	사별	139	18.0	41.7	48.2	23.7	12.2	12.2	16.5	27.3
자녀유무	있음	649	20.0	31.0	33.6	33.0	18.3	16.5	17.3	30.4
	없음	376	34.3	37.8	36.2	22.6	13.6	12.5	13.0	30.1

10. 1인 가구

1) 1인가구 생활기간

1인 가구 평균 생활 기간은 8.9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평균 12.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 · 30대는 각각 5.4~5.5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F=10.549,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10.2년)이 가장 길었고, 사별 집단은 7.2년으로 나타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F=3.027, p<.05). 또한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평균 9.7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7.7년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생활 기간이 더 길었다(t=-2.054, p<.05).

▌표 Ⅲ-176 ▌1인가구 생활기간

(단위: 명, %. 년)

		사례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평균(년)	*t* / *F*
전체		336	30.7	41.4	17.6	10.4	8.9	
성별	여성	165	33.9	43.0	13.3	9.7	8.1	-1.552
	남성	171	27.5	39.8	21.6	11.1	9.7	
연령	20대	58	41.4	55.2	3.4	0.0	5.4	10.549***
	30대	35	45.7	42.9	11.4	0.0	5.5	
	40대	35	22.9	20.0	45.7	11.4	10.1	
	50대	36	19.4	22.2	30.6	27.8	12.5	
	60대	45	24.4	44.4	17.8	13.3	10.0	
	70대 이상	127	29.1	44.9	14.2	11.8	9.7	
지역	읍/면	103	27.2	39.8	21.4	11.7	10.2	1.51
	동	233	32.2	42.1	15.9	9.9	8.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54.2	20.8	8.3	16.7	8.3	3.027*
	비혼	146	32.2	37.7	15.8	14.4	10.2	
	이혼·별거	47	23.4	42.6	25.5	8.5	9.7	
	사별	119	26.9	49.6	18.5	5.0	7.2	
자녀유무	있음	124	30.6	45.2	17.7	6.5	7.7	-2.054*
	없음	212	30.7	39.2	17.5	12.7	9.7	

*p<.05, ***p<.001

2) 1인가구로 생활하는 이유

1인 가구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배우자 사망'(33.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혼자 살고 싶어서'(32.1%), '학업·취업 등의 개인 사유'(11.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배우자 사망이 46.7%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은 혼자 살고 싶어서가 45.0%로 가장 높았다(χ^2=44.563, p<.001). 연령별로 보면 젊은 연령층은 자발적 선택(혼자 살고 싶어서, 학업·취업 등)이 주요 요인인 반면, 고연령층은 배우자 사망이 1인 가구의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χ^2=255.582, p<.001).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배우자 사망 비율이 높았고, 동 지역은 혼자 살고 싶어서의 비율이 더 높았다(χ^2=21.505, p<.05).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였는데 사별 상태에서는 배우자 사망(93.3%)이, 이혼·별거 상태에서는 이혼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경우(66.0%)가 높았다. 반면 비혼 및 유배우자는 자발적 이유(혼자 살고 싶어서, 학업·취업 등)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χ^2=579.256, p<.001).

▌표 Ⅲ-177 ▌1인가구로 생활하는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 살고 싶어서	본인 학업이나 취업으로	본인의 이혼으로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부모나 자녀의 사망으로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으로	배우자의 학업이나 취업으로	자녀의 결혼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x^2
전체		336	33.0	32.1	11.6	9.2	7.7	2.7	2.1	0.9	0.3	0.3	
성별	여성	165	46.7	18.8	9.1	9.7	7.3	3.6	1.8	1.8	0.6	0.6	44.563***
	남성	171	19.9	45.0	14.0	8.8	8.2	1.8	2.3	0.0	0.0	0.0	
연령	20대	58	0.0	72.4	15.5	0.0	10.3	0.0	0.0	0.0	0.0	1.7	255.582***
	30대	35	0.0	54.3	22.9	2.9	17.1	2.9	0.0	0.0	0.0	0.0	
	40대	35	0.0	34.3	34.3	11.4	14.3	0.0	0.0	5.7	0.0	0.0	
	50대	36	5.6	30.6	11.1	30.6	2.8	8.3	8.3	2.8	0.0	0.0	
	60대	45	55.6	17.8	4.4	8.9	4.4	6.7	2.2	0.0	0.0	0.0	
	70대 이상	127	66.1	12.6	3.1	8.7	4.7	1.6	2.4	0.0	0.8	0.0	
지역	읍/면	103	43.7	21.4	14.6	4.9	8.7	1.9	2.9	0.0	1.0	1.0	21.505*
	동	233	28.3	36.9	10.3	11.2	7.3	3.0	1.7	1.3	0.0	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0.0	41.7	16.7	0.0	16.7	4.2	8.3	12.5	0.0	0.0	579.256***
	비혼	146	0.0	61.6	21.2	0.0	11.6	4.8	0.0	0.0	0.0	0.7	
	이혼·별거	47	0.0	10.6	4.3	66.0	8.5	0.0	8.5	0.0	2.1	0.0	
	사별	119	93.3	2.5	1.7	0.0	0.8	0.8	0.8	0.0	0.0	0.0	
자녀유무	있음	124	57.3	12.1	3.2	13.7	4.8	0.0	5.6	2.4	0.8	0.0	102.44***
	없음	212	18.9	43.9	16.5	6.6	9.4	4.2	0.0	0.0	0.0	0.5	

*p<.05, ***p<.001

3) 1인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

1인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식을 살펴보면, 본인이 직접 마련한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높았으며 공적 지원(27.1%), 부모 지원(2.7%), 자녀 지원(2.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은 본인 마련(76.0%)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공적 지원(35.2%) 비율이 남성(19.3%)보다 높게 나타났다(χ^2=12.673, p<.01).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공적 지원 비율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χ^2=161.11, p<.001), 이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이 공공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읍·면 지역(38.8%)이 동 지역(21.9%)보다 공적 지원 의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χ^2=11.963, p<.01).

결혼상태별로는 대부분 본인 마련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사별한 경우에는 공적 지원(48.7%)이 본인 마련(4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χ^2=72.995, p<.001).

▌표 Ⅲ-178 ▌1인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명, %)

		사례수	본인	공적 지원	부모 지원	자녀 지원	χ^2
전체		336	67.6	27.1	2.7	2.7	
성별	여성	165	58.8	35.2	2.4	3.6	12.673**
	남성	171	76.0	19.3	2.9	1.8	
연령	20대	58	96.6	0.0	3.4	0.0	161.11***
	30대	35	91.4	2.9	5.7	0.0	
	40대	35	80.0	8.6	11.4	0.0	
	50대	36	88.9	11.1	0.0	0.0	
	60대	45	86.7	8.9	2.2	2.2	
	70대 이상	127	31.5	62.2	0.0	6.3	
지역	읍/면	103	55.3	38.8	1.9	3.9	11.963**
	동	233	73.0	21.9	3.0	2.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79.2	12.5	4.2	4.2	72.995***
	비혼	146	84.9	10.3	4.8	0.0	
	이혼·별거	47	66.0	31.9	2.1	0.0	
	사별	119	44.5	48.7	0.0	6.7	
자녀유무	있음	124	56.5	34.7	1.6	7.3	23.994***
	없음	212	74.1	22.6	3.3	0.0	

**p<.01, ***p<.001

4) 1인가구 거주지 마련 방법

1인가구의 거주지 마련 방식은 본인 부담이 7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적 지원(10.4%), 부모 지원(8.9%), 자녀 지원(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를 차이를 보면 남성은 부모 지원(13.5%)이 여성(4.2%)보다 더 높았고, 반대로 여성은 공적 지원(11.5%)이 남성(9.4%)보다 높았다(χ^2=17.057, p<.001).

연령별 경향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 지원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 지원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으며(χ^2=71.048, p<.001) 읍 · 면 지역(16.5%)이 동 지역(7.7%)보다 공적 지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χ^2=11.36, p<.01).

또한 이혼·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공적 지원을 통해 거주지를 마련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χ^2=44.822, p<.001), 자녀가 없는 응답자 역시 공적 지원과 부모 지원 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25.902, p<.001). 이는 연령, 가족 구조, 지역 여건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취약성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표 Ⅲ-179 ▌1인가구 거주지 마련 방법

(단위: 명, %)

		사례수	본인	공적 지원	부모 지원	자녀 지원	χ^2
전체		336	77.1	10.4	8.9	3.6	
성별	여성	165	77.6	11.5	4.2	6.7	17.057***
	남성	171	76.6	9.4	13.5	0.6	
연령	20대	58	77.6	0.0	22.4	0.0	71.048***
	30대	35	85.7	0.0	14.3	0.0	
	40대	35	74.3	5.7	17.1	2.9	
	50대	36	80.6	11.1	8.3	0.0	
	60대	45	88.9	4.4	6.7	0.0	
	70대 이상	127	70.1	21.3	0.0	8.7	
지역	읍/면	103	69.9	16.5	6.8	6.8	11.36**
	동	233	80.3	7.7	9.9	2.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87.5	0.0	12.5	0.0	44.822***
	비혼	146	76.7	6.2	17.1	0.0	
	이혼·별거	47	74.5	17.0	2.1	6.4	
	사별	119	76.5	15.1	0.8	7.6	
자녀유무	있음	124	76.6	9.7	4.0	9.7	25.902***
	없음	212	77.4	10.8	11.8	0.0	

**p<.01, ***p<.001

5) 1인가구의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인가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은 주거비(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식비(34.8%), 의료비(15.2%), 의류비(5.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60대 이상은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식비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났다(χ^2=77.315, p<.001). 결혼상태별로는 비혼 1인가구 중 52.7%가 식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했으며(χ^2=61.162, p<.001), 이는 다른 상태의 1인가구보다 뚜렷하게 높은 비율이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녀가 없는 1인가구는 식비 부담이 45.3%로 매우 높았던 반면, 자녀가 있는 1인가구는 의료비 부담 비율(24.2%)이 자녀가 없는 집단(9.9%)보다 높았다(χ^2=38.468, p<.001). 이는 1인가구는 전반적으로 주거비와 식비 부담이 크지만, 연령과 가족 특성에 따라 부담 지출 항목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Ⅲ-180 ▌1인가구의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단위: 명, %)

		사례수	주거비	식비	의료비	의류비	경조사비	교통·통신비	χ^2
전체		336	38.4	34.8	15.2	5.4	3.6	2.7	
성별	여성	165	44.2	29.1	15.8	6.7	2.4	1.8	9.147
	남성	171	32.7	40.4	14.6	4.1	4.7	3.5	
연령	20대	58	24.1	65.5	1.7	8.6	0.0	0.0	77.315***
	30대	35	31.4	51.4	5.7	5.7	0.0	5.7	
	40대	35	37.1	42.9	11.4	5.7	0.0	2.9	
	50대	36	33.3	33.3	13.9	11.1	8.3	0.0	
	60대	45	37.8	20.0	31.1	4.4	6.7	0.0	
	70대 이상	127	48.8	19.7	19.7	2.4	4.7	4.7	
지역	읍/면	103	39.8	25.2	18.4	5.8	5.8	4.9	9.835
	동	233	37.8	39.1	13.7	5.2	2.6	1.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37.5	20.8	25.0	4.2	4.2	8.3	61.162***
	비혼	146	31.5	52.7	6.8	6.2	0.7	2.1	
	이혼·별거	47	31.9	34.0	17.0	10.6	6.4	0.0	
	사별	119	49.6	16.0	22.7	2.5	5.9	3.4	
자녀유무	있음	124	42.7	16.9	24.2	4.8	7.3	4.0	38.468***
	없음	212	35.8	45.3	9.9	5.7	1.4	1.9	

***p<.001

6) 1인가구 정서적 지지자

1인가구의 정서적 지지자는 친구(20.5%)가 가장 높았으며 형제자매(18.2%), 자녀(16.1%), 부모(15.2%)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11.3%로 나타났다. 여성은 자녀(22.4%)나 형제자매(20.0%) 등 가족에게 상담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친구(28.1%)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χ^2=34.148, p<.001). 연령별로는 20 · 30대는 부모나 친구 비중이 높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형제자매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40 · 50대는 '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χ^2=211.57, p<.001).

지역에서는 읍 · 면 지역이 친구, 형제자매, 자녀에게 상담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 지역은 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χ^2=22.772, p<.05).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녀(37.5%), 비혼은 부모(27.4%), 이혼·별거는 형제자매(23.4%), 사별은 자녀(29.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χ^2=152.646, p<.001). 자녀가 있는 집단은 자녀(43.5%)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자녀가 없는 집단은 친구(24.1%)가 가장 많았다. 또한 '상담 대상이 없다'는 비율은 자녀 없는 집단(15.1%)에서 자녀 있는 집단(4.8%)보다 월등히 높았다(χ^2=123.274, p<.001).

▌표 Ⅲ-181 ▌1인가구 정서적 지지자

(단위: 명, %)

		사례수	친구	형제자매	자녀	부모	이웃	동료	애인	성직자	배우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야기할 사람 없음	x^2
전체		336	20.5	18.2	16.1	15.2	6.3	4.8	3.9	2.1	0.9	0.9	11.3	
성별	여성	165	12.7	20.0	22.4	11.5	10.9	4.8	3.6	1.8	1.2	1.2	9.7	34.148***
	남성	171	28.1	16.4	9.9	18.7	1.8	4.7	4.1	2.3	0.6	0.6	12.9	
연령	20대	58	24.1	3.4	0.0	46.6	0.0	1.7	10.3	0.0	1.7	0.0	12.1	211.57***
	30대	35	28.6	8.6	0.0	31.4	0.0	2.9	11.4	0.0	2.9	2.9	11.4	
	40대	35	11.4	22.9	2.9	28.6	2.9	2.9	0.0	5.7	2.9	0.0	20.0	
	50대	36	36.1	11.1	11.1	5.6	0.0	5.6	0.0	8.3	0.0	0.0	22.2	
	60대	45	20.0	22.2	28.9	2.2	4.4	2.2	2.2	0.0	0.0	2.2	15.6	
	70대 이상	127	15.0	26.8	28.3	0.0	14.2	7.9	1.6	1.6	0.0	0.8	3.9	
지역	읍/면	103	22.3	23.3	18.4	6.8	5.8	5.8	3.9	0.0	2.9	1.9	8.7	22.772*
	동	233	19.7	15.9	15.0	18.9	6.4	4.3	3.9	3.0	0.0	0.4	12.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0.0	8.3	37.5	16.7	8.3	0.0	12.5	0.0	0.0	0.0	16.7	152.646***
	비혼	146	27.4	13.0	0.0	30.1	2.1	3.4	6.2	0.7	2.1	1.4	13.7	
	이혼·별거	47	12.8	23.4	21.3	6.4	6.4	6.4	2.1	10.6	0.0	0.0	10.6	
	사별	119	19.3	24.4	29.4	0.0	10.9	6.7	0.0	0.8	0.0	0.8	7.6	
자녀유무	있음	124	14.5	12.1	43.5	5.6	8.9	4.0	3.2	2.4	0.0	0.8	4.8	123.274***
	없음	212	24.1	21.7	0.0	20.8	4.7	5.2	4.2	1.9	1.4	0.9	15.1	

*p<.05, ***p<.001

7) 1인가구 일상생활 인식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평균 3.05점), '가사를 하기 어렵다'(3.03점),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다'(3.02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2.86점), '부양해 줄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2.76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외롭다'(2.67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2.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의 어려움 인식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여성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3.25점),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다(3.19점),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3.03점), 경제적으로 불안하다(2.90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2.81점)에서 모두 남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p<.001$).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상의 어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외로움(2.94점),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3.34점), 가사와 주거환경의 불편감(각 3.36점, 3.28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20대 또는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사와 식사와 같은 기본 생활 기능 영역에서 고령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졌으며, 연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p<.001$).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읍·면 지역의 어려움 인식이 동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외롭다'는 항목에서 읍·면 지역은 평균 3.07점, 동 지역은 2.49점으로 읍·면 지역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t=4.593$, $p<.001$).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에서도 읍·면 지역이 3.22점, 동 지역이 2.99점으로 나타났다($t=2.096$, $p<.05$).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항목에서 읍·면 지역은 3.30점, 동 지역은 2.94점이었으며($t=3.104$, $p<.01$), '가사를 하기 어렵다'는 항목 역시 읍·면 지역(3.23점)이 동 지역(2.9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403$, $p<.05$).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다'에서도 읍·면 지역이 3.22점으로 동 지역(2.93점)보다 높았다($t=2.498$, $p<.05$).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에서도 읍·면 지역은 3.13점, 동 지역은 2.74점으로 나타나($t=3.215$, $p<.01$), 농촌 지역의 1인가구가 도시 지역보다

정서적·환경적 측면에서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외롭다'는 항목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2.96점)이 가장 높았으며, 사별(2.82점), 이혼·별거(2.74점), 비혼(2.47점) 순으로 나타났다(F=2.948, p<.05).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항목에서는 사별(3.29점)이 가장 높았으며(F=3.948, p<.01) '가사를 하기 어렵다'에서도 사별(3.34점)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F=7.415, p<.001).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다'는 항목에서도 사별(3.24점)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배우자 있음(3.00점), 이혼·별거(2.89점), 비혼(2.88점) 순으로 나타났다(F=3.788, p<.05).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역시 배우자 있음(3.13점)과 사별(3.11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혼·별거(2.85점), 비혼(2.62점) 순으로 나타났다(F=5.902, p<.001).

또한 가사를 하기 어렵다는 항목에서 자녀가 있는 집단(3.20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2.9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2.467, p<.05),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역시 자녀가 있는 집단(3.02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2.77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t=2.15, p<.05).

▌표 Ⅲ-182 ▌1인가구 일상생활 인식

(단위: 명, 점)

		사례수	외부와 고립되어 있음	아플 때 대처하기 어려움	균형잡힌 식사 어려움	가사 어려움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음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음	경제적으로 불안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
전체		336	2.67	3.06	3.05	3.03	3.02	2.86	2.76	2.67
성별	여성	165	2.73	3.25	3.06	3.14	3.19	3.03	2.90	2.81
	남성	171	2.60	2.88	3.04	2.93	2.85	2.70	2.63	2.53
	t		1.095	3.629***	0.181	1.884	3.068**	3.038**	2.459*	2.401*
연령	20대	58	2.21	2.69	2.74	2.71	2.84	2.47	2.59	2.40
	30대	35	2.69	2.83	3.06	2.71	2.74	2.89	2.80	2.86
	40대	35	2.74	2.94	2.69	2.69	2.80	2.43	2.63	2.63
	50대	36	2.67	3.25	3.36	3.14	2.92	2.81	2.86	2.86
	60대	45	2.42	2.89	2.89	2.96	2.96	2.71	2.53	2.51
	70대 이상	127	2.94	3.34	3.26	3.36	3.28	3.22	2.91	2.75
	F		5.2***	6.55***	4.518***	6.441***	3.304**	8.073***	2.028	1.482
지역	읍/면	103	3.07	3.22	3.30	3.23	3.22	3.13	2.89	2.79
	동	233	2.49	2.99	2.94	2.94	2.93	2.74	2.70	2.61
	t		4.593***	2.096*	3.104**	2.403*	2.498*	3.215**	1.611	1.42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2.96	2.88	3.13	2.96	3.00	3.13	2.71	2.96
	비혼	146	2.47	2.92	2.97	2.82	2.88	2.62	2.71	2.57
	이혼·별거	47	2.74	3.00	2.87	2.94	2.89	2.85	2.87	2.72
	사별	119	2.82	3.29	3.20	3.34	3.24	3.11	2.79	2.71
	F		2.948*	3.948**	1.938	7.415***	3.788*	5.902***	0.375	1.05
자녀유무	있음	124	2.80	3.10	3.14	3.20	3.05	3.02	2.77	2.73
	없음	212	2.59	3.04	3.00	2.93	3.00	2.77	2.75	2.63
	t		1.689	0.511	1.219	2.467*	0.423	2.15*	0.218	0.756

*p<.05, **p<.01, ***p<.001

8) 1인가구 생활 만족도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비혼(3.43점)이 가장 높았고,이혼·별거(3.40점), 배우자 있음(3.38점), 사별(3.18점) 순으로 나타났다(F=3.401, p<.05).

▌표 Ⅲ-183 ▌1인가구 생활 만족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t* / *F*
전체		336	1.5	6.0	55.4	32.1	5.1	3.33	
성별	여성	165	1.8	5.5	58.8	29.7	4.2	3.29	-1.046
	남성	171	1.2	6.4	52.0	34.5	5.8	3.37	
연령	20대	58	0.0	1.7	62.1	27.6	8.6	3.43	2.239
	30대	35	0.0	17.1	14.3	60.0	8.6	3.60	
	40대	35	0.0	8.6	40.0	42.9	8.6	3.51	
	50대	36	11.1	11.1	36.1	30.6	11.1	3.19	
	60대	45	2.2	8.9	62.2	24.4	2.2	3.16	
	70대 이상	127	0.0	1.6	70.9	26.8	0.8	3.27	
지역	읍/면	103	1.0	3.9	54.4	36.9	3.9	3.39	0.918
	동	233	1.7	6.9	55.8	30.0	5.6	3.3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0.0	8.3	45.8	45.8	0.0	3.38	3.401*
	비혼	146	2.1	7.5	43.2	39.7	7.5	3.43	
	이혼·별거	47	0.0	6.4	57.4	25.5	10.6	3.40	
	사별	119	1.7	3.4	71.4	22.7	0.8	3.18	
자녀유무	있음	124	0.0	5.6	56.5	33.9	4.0	3.36	0.567
	없음	212	2.4	6.1	54.7	31.1	5.7	3.32	

*p<.05

9) 향후 혼자 살 의향

1인가구 응답자 중 75.0%가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에도 혼자 살겠다는 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F=33.644, p<.001)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87.2%)와 사별(83.2%)에서 혼자 살 의향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F=15.72, p<.01).

▌표 Ⅲ-184 ▌향후 혼자 살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의향있음	의향없음	x^2
전체		336	75.0	25.0	
성별	여성	165	73.9	26.1	0.195
	남성	171	76.0	24.0	
연령	20대	58	48.3	51.7	33.644***
	30대	35	65.7	34.3	
	40대	35	80.0	20.0	
	50대	36	83.3	16.7	
	60대	45	91.1	8.9	
	70대 이상	127	80.3	19.7	
지역	읍/면	103	79.6	20.4	1.685
	동	233	73.0	27.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62.5	37.5	15.72**
	비혼	146	66.4	33.6	
	이혼·별거	47	87.2	12.8	
	사별	119	83.2	16.8	
자녀유무	있음	124	78.2	21.8	1.091
	없음	212	73.1	26.9	

**p<.01, ***p<.001

10) 1인가구 어려움

1인가구의 어려움은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22.6%), 심리적 외로움(15.9%), 질병 · 건강 악화 시 대처의 어려움(11.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 · 3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일상적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목하였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외로움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읍 · 면 지역은 일상적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185 ▌1인가구 어려움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편견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	질병, 건강 악화 시 대처 어려움	노후에 대한 염려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정책적 지원으로부터의 소외
전체		252	22.6	15.9	8.7	32.1	11.9	6.3	1.6	0.8
성별	여성	122	22.6	15.9	8.7	32.1	11.9	6.3	1.6	0.8
	남성	130	26.2	19.2	6.9	26.2	10.0	7.7	2.3	1.5
연령	20대	28	53.6	17.9	0.0	7.1	14.3	3.6	3.6	0.0
	30대	23	47.8	43.5	8.7	0.0	0.0	0.0	0.0	0.0
	40대	28	28.6	25.0	3.6	0.0	28.6	14.3	0.0	0.0
	50대	30	36.7	30.0	10.0	6.7	10.0	6.7	0.0	0.0
	60대	41	19.5	9.8	2.4	51.2	12.2	2.4	2.4	0.0
	70대 이상	102	3.9	4.9	14.7	54.9	9.8	7.8	2.0	2.0
지역	읍/면	82	13.4	8.5	8.5	43.9	14.6	9.8	1.2	0.0
	동	170	27.1	19.4	8.8	26.5	10.6	4.7	1.8	1.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	46.7	13.3	6.7	20.0	13.3	0.0	0.0	0.0
	비혼	97	38.1	21.6	5.2	10.3	14.4	9.3	1.0	0.0
	이혼·별거	41	17.1	29.3	12.2	22.0	12.2	2.4	2.4	2.4
	사별	99	6.1	5.1	11.1	59.6	9.1	6.1	2.0	1.0
자녀유무	있음	97	8.2	10.3	14.4	42.3	15.5	5.2	2.1	2.1
	없음	155	31.6	19.4	5.2	25.8	9.7	7.1	1.3	0.0

1인가구의 어려움을 복수응답(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이 4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질병 · 건강 악화 시 대처의 어려움(46.4%), 경제적 어려움(28.6%), 노후에 대한 염려(25.8%), 심리적 외로움(2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86 ▌1인가구 생활 지속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 : 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편견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돌봄 관리의 어려움	질병, 건강 악화 시 대처 어려움	노후에 대한 염려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정책적 지원으로부터의 소외
전체		252	28.6	23.0	17.5	46.8	46.4	25.8	8.3	3.6
성별	여성	122	21.3	19.7	18.9	54.9	53.3	23.8	6.6	1.6
	남성	130	35.4	26.2	16.2	39.2	40.0	27.7	10.0	5.4
연령	20대	28	57.1	32.1	3.6	21.4	50.0	14.3	10.7	10.7
	30대	23	60.9	52.2	21.7	21.7	21.7	21.7	0.0	0.0
	40대	28	39.3	39.3	14.3	3.6	57.1	39.3	7.1	0.0
	50대	30	36.7	43.3	23.3	20.0	40.0	23.3	6.7	6.7
	60대	41	29.3	14.6	12.2	68.3	41.5	31.7	2.4	0.0
	70대 이상	102	7.8	6.9	21.6	70.6	52.0	24.5	12.7	3.9
지역	읍/면	82	22.0	14.6	19.5	54.9	46.3	30.5	11.0	1.2
	동	170	31.8	27.1	16.5	42.9	46.5	23.5	7.1	4.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	46.7	26.7	20.0	33.3	40.0	33.3	0.0	0.0
	비혼	97	48.5	33.0	11.3	23.7	47.4	25.8	7.2	3.1
	이혼·별거	41	19.5	31.7	24.4	41.5	48.8	19.5	7.3	7.3
	사별	99	10.1	9.1	20.2	73.7	45.5	27.3	11.1	3.0
자녀유무	있음	97	11.3	14.4	24.7	57.7	48.5	29.9	10.3	3.1
	없음	155	39.4	28.4	12.9	40.0	45.2	23.2	7.1	3.9

11) 1인가구 지속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

1인가구 생활을 지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23.8%), 시설 입소(21.4%), 동거(7.1%), 가족과의 합가(7.1%), 친구·지인과의 공동생활(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과 동거 계획을 더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시설 입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는 결혼을, 60대 이상은 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비혼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응답(46.9%)했으며, 38.8%는 결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7 ▌1인가구 생활 지속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

(단위: 명, %)

		사례수	계획없음	결혼	시설입소	동거	가족과의 합가	친구, 지인과의 공동생활
전체		84	38.1	23.8	21.4	7.1	7.1	2.4
성별	여성	43	39.5	9.3	30.2	2.3	14.0	4.7
	남성	41	36.6	39.0	12.2	12.2	0.0	0.0
연령	20대	30	73.3	23.3	0.0	3.3	0.0	0.0
	30대	12	0.0	75.0	0.0	8.3	8.3	8.3
	40대	7	14.3	28.6	0.0	28.6	28.6	0.0
	50대	6	33.3	33.3	0.0	16.7	16.7	0.0
	60대	4	0.0	0.0	75.0	25.0	0.0	0.0
	70대 이상	25	28.0	0.0	60.0	0.0	8.0	4.0
지역	읍/면	21	23.8	14.3	47.6	4.8	4.8	4.8
	동	63	42.9	27.0	12.7	7.9	7.9	1.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	11.1	0.0	33.3	33.3	22.2	0.0
	비혼	49	46.9	38.8	4.1	2.0	6.1	2.0
	이혼·별거	6	33.3	16.7	16.7	33.3	0.0	0.0
	사별	20	30.0	0.0	60.0	0.0	5.0	5.0
자녀유무	있음	27	25.9	3.7	37.0	18.5	11.1	3.7
	없음	57	43.9	33.3	14.0	1.8	5.3	1.8

12)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지원정책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지원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29.2%)정책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서비스 지원(27.7%)', '가사 서비스 지원(13.7%)',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9.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돌봄 서비스 지원'(32.7%)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주택 안정 지원'(27.3%), '가사 서비스 지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주택 안정 지원'(31.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돌봄 서비스 지원'(22.8%), '가사 서비스 지원'(13.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응답자는 '주택 안정 지원'(65.5%)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돌봄 서비스 지원'이 각각 10.3%로 나타났다. 30대는 '주택 안정 지원'(37.1%)과 '가사 서비스 지원'(14.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문화활동 지원'(17.1%)에 대한 수요가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높았다. 40대는 '주택 안정 지원'(37.1%)과 '건강 증진 지원'(25.7%)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50대는 '주택 안정 지원'(30.6%)과 함께 '가사 서비스 지원'(11.1%),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11.1%), '돌봄 서비스 지원'(11.1%)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심리정서 지원'이 1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60대는 '돌봄 서비스 지원'(48.9%)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주택 안정 지원'(17.8%)이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에서도 '돌봄 서비스 지원'(44.1%)이 가장 높았으며, '가사 서비스 지원'(23.6%)과 '주택 안정 지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대부터 50대까지는 '주거'('주택안정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수요가 40% 이상으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사회서비스('돌봄 서비스 지원'과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88▐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지원정책 :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활동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 지원
전체		336	29.2	9.5	27.7	13.7	5.7	4.5	3.6	4.5	1.8
성별	여성	165	27.3	7.9	32.7	13.9	5.5	6.1	2.4	1.8	2.4
	남성	171	31.0	11.1	22.8	13.5	5.8	2.9	4.7	7.0	1.2
연령	20대	58	65.5	10.3	10.3	0.0	1.7	5.2	5.2	1.7	0.0
	30대	35	37.1	8.6	8.6	14.3	11.4	2.9	17.1	0.0	0.0
	40대	35	37.1	11.4	5.7	5.7	5.7	5.7	2.9	25.7	0.0
	50대	36	30.6	11.1	11.1	11.1	16.7	5.6	2.8	2.8	8.3
	60대	45	17.8	11.1	48.9	11.1	4.4	4.4	0.0	0.0	2.2
	70대 이상	127	11.8	7.9	44.1	23.6	3.1	3.9	0.8	3.1	1.6
지역	읍/면	103	26.2	8.7	34.0	17.5	3.9	3.9	1.9	1.9	1.9
	동	233	30.5	9.9	24.9	12.0	6.4	4.7	4.3	5.6	1.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29.2	12.5	25.0	8.3	4.2	0.0	4.2	12.5	4.2
	비혼	146	45.9	10.3	12.3	8.9	5.5	4.8	6.8	4.8	0.7
	이혼·별거	47	21.3	8.5	25.5	17.0	12.8	6.4	0.0	4.3	4.3
	사별	119	11.8	8.4	47.9	19.3	3.4	4.2	0.8	2.5	1.7
자녀유무	있음	124	15.3	6.5	37.1	20.2	8.9	4.0	1.6	4.8	1.6
	없음	212	37.3	11.3	22.2	9.9	3.8	4.7	4.7	4.2	1.9

1인가구 지원정책 1+2순위 합쳐서 살펴보면 주택 안정 지원이 3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38.4%), 돌봄 서비스 지원(33.3%), 가사 서비스 지원(19.6%), 심리 · 정서 지원(19.6%), 사회 관계망 지원(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89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지원정책 : 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활동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 지원
전체		336	39.9	38.4	33.3	19.6	19.6	16.7	13.7	13.1	5.7
성별	여성	165	44.8	43.6	30.9	15.8	21.2	15.2	10.3	13.3	4.8
	남성	171	35.1	33.3	35.7	23.4	18.1	18.1	17.0	12.9	6.4
연령	20대	58	10.3	13.8	69.0	31.0	24.1	27.6	8.6	12.1	3.4
	30대	35	25.7	14.3	54.3	25.7	22.9	25.7	14.3	14.3	2.9
	40대	35	14.3	20.0	45.7	28.6	20.0	11.4	34.3	11.4	14.3
	50대	36	22.2	13.9	36.1	33.3	27.8	13.9	22.2	16.7	13.9
	60대	45	53.3	71.1	17.8	15.6	13.3	2.2	8.9	8.9	8.9
	70대 이상	127	64.6	56.7	12.6	7.9	16.5	16.5	9.4	14.2	1.6
지역	읍/면	103	48.5	47.6	29.1	12.6	19.4	16.5	10.7	10.7	4.9
	동	233	36.1	34.3	35.2	22.7	19.7	16.7	15.0	14.2	6.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	25.0	25.0	33.3	25.0	29.2	12.5	20.8	20.8	8.3
	비혼	146	23.3	20.5	52.1	26.7	19.2	23.3	16.4	11.6	6.8
	이혼·별거	47	38.3	40.4	27.7	19.1	29.8	6.4	14.9	17.0	6.4
	사별	119	63.9	62.2	12.6	10.1	14.3	13.4	8.4	11.8	3.4
자녀유무	있음	124	52.4	48.4	18.5	9.7	21.8	13.7	13.7	17.7	4.0
	없음	212	32.5	32.5	42.0	25.5	18.4	18.4	13.7	10.4	6.6

Ⅳ

결론

1. 주요결과 및 시사점
2. 정책방향

Ⅳ 결론

1. 주요결과 및 시사점

1) 전북 가족 변화와 특성

전북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조출생률은 3.9명으로 전국보다 낮아 출생 규모의 축소와 인구감소의 가속화를 시사한다. 전북의 고령화율은 25.3%로 전국 평균(20.0%)보다 높으며, 특히 임실군·진안군·장수군·고창군 등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40%이내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가족 형태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감소하고 1인 가구(38.2%)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다문화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가사 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3)에 따르면 전북의 가족정책 요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20.9%)과 노부모 부양 가족 지원(20.7%)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와 노인 부양 등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북의 가족정책의 대응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이

돌봄과 노부모 부양 지원 등 돌봄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며 한부모·재혼·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대중매체 캠페인,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가족인식 및 가치관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은 혈연 중심에서 정서적 유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수는 여전히 혈연 중심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지만, 20~30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친인척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선택적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족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전통적인 가족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힘들 때 의지하는 대상은 여전히 가족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를 가장 중요한 의지 대상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아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2.9%로 나타나 노년기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완화할 지원도 요구된다.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 제공(4.20점)과 자녀 양육 및 교육 기능(4.01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핵심 기능으로 정서적 지원과 자녀 돌봄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서적 관계 형성 및 양육 지원 중심의 가족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가치관은 연령대별 비례할당으로 인해 고령층의 보수적인 응답 태도가 반영되었으며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결혼 가치관을 살펴보면, 1인 비혼 가구(3.08점)와 이혼 및 재혼 가구(3.23점)에 대해서는 중간값(3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양한 결혼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동성 간 결혼'(2.31점)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혼 자녀 입양'(2.78점)과 '비혼 출산'(2.73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여성가족부, 2021)에서 비혼가족의 출산 · 양육 수용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의례 및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가 각자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항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20대에서 50대까지는 평균 3점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인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약 2.6점 내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제사를 지내거나 큰댁에서 명절을 보내는 비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옥선화·진미정, 2011)와 일치하며 한국 가족은 여전히 유교적·가부장적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어 세대 간·성별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성미애 외, 2023).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을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의 평균 점수가 여성보다 높아 성역할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섬세함이 있다'는 문항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3점 이상을 보였고, '방과 후 아이를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정서에 좋다'는 문항에서도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3점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북도민의 가정내 성역할 인식이 전통적,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부양 가치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모 부양보다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47점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40대(3.61점)와 50대(3.61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 도민이 부모 부양보다 자녀 부양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책임 의식은 부모 역할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부모(good enough parenting)가 될 수 있도록 부모됨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하고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Hoghughi & Speight, 1998).

또한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은 3.35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3.45점)이 남성(3.26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양육 책임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은 평균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3.22점)이 여성(3.03점)보다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성은 자녀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남성은 자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 가치관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6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3.97점)이 남성(3.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3.68점),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3.19점)는 문항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을 통해 얻는 만족감과 더불어 현실적인 부담 역시 함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북 도민은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의미와 책임을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삶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양육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모 역할에 대한 양가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반이 양육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3) 가족형성과 변화

전북도민의 혼인신고 비율은 97.3%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는 혼인신고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어려움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34.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택 청약 대출 등 제도 이용의 어려움(20.7%), 부정적 시선(13.8%)과 어려움 없다(1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거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녀계획에 대해서는 8.8%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계획 중인 자녀 수는 1.9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2명으로 나타나 과거 '두 자녀가 이상적'이라는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30대의 61.3%, 비혼자의

75.6%, 자녀가 없는 집단의 81.1%는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미래 세대의 저출산 인식과 가치관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접근보다는 출산을 개인이 선택 가능한 삶의 일부로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개인생활(23.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녀(22.0%), 일(21.5%), 파트너 관계(19.8%), 원가족 관계(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자녀(27.7%)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은 개인생활(25.9%)과 일(25.1%)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은 여전히 자녀양육의 주책임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은 개인적 성취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의 중요성을 비교하도록 한 결과, 개인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슷하다'(57.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잃는 것이 더 많다'(27.1%)는 응답이 '얻는 것이 더 많다'(15.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므로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함께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향후 임신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향은 평균 2.41점으로 중간값(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로 자녀가 없는 사람 100명 중 약 16명이 생식세포 동결보존에 관심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18.6%)이 여성(14.2%)보다 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32.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식세포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지만, 일부 연령층에서는 미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30대에서 의향이 높은 것은 결혼·출산 시기지연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식 제고를 통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4) 부부관계

전북 도민의 맞벌이 비율은 58.3%로 나타났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25.8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노년기 부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 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가정 내 성평등한 역할 인식이 강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사소통 만족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박영화·고재홍, 2005; 허은경, 2014)와 일치하며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부부 친밀감과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임나현, 2016; 전혜성·서미아,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1단계 분석에서 투입한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녀 유무 변수는 2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혼만족에는 소득이나 자녀 여부 같은 일반적 특성보다 개인의 인식과 관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비부부(부모)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 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관계 유지 및 의사소통,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결혼생활 전반에서 성평등한 역할 분담과 정서적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결혼불안정성의 평균 점수는 2점 내외로 낮게 나타났으나 '나는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 2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심각하게 제기한 적이 있다'(14.5%)와 '이혼 관련 법적 절차를 알아본 적이 있다'(12.8%)에서도 적지 않은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특히 두 문항 모두에서 남성의 평균점수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결혼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이혼을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는 실제로 이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담·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관계 성찰과 현실적 준비를 지원하는 '이혼 및 졸혼 준비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충동적 이혼을 예방하고, 당사자가 경제적, 심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될 것이다.

결혼생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안정감(4.27점), 정서적 친밀감(4.26점), 대화·소통(4.21점), 자녀 양육의 동반자 관계(4.10점), 서로의 성장 지지(3.87점), 부부 여가(3.85점), 성적 만족도(3.7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 실제 충족 수준은 중요도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부가 기대하는 결혼생활의 가치와 현실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가정관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족여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내가 주도한다'(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가정관리의 주된 역할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에는 1.3시간, 주말에는 1.4시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의 경우에도 평일 0.9시간, 주말 1.0시간으로 여성의 참여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에서는 평일 0.7시간, 주말 1.2시간, 자녀돌봄에서는 평일 0.5시간, 주말 0.7시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 내 성평등한 역할 분담 문화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며, 이를 위해 남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 참여 확대, 일·생활균형 제도 실효성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사 분담 및 자녀돌봄에 대한 공평성 인식은 평균 3.31점으로 전반적으로 공평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느 집단이 더 불리한지 물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아내가 불리하다는 응답이 87.1%로 더 높았으나 남성의 20.7%, 30대의 30.8%는 남편이 더 불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세대별 성별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6개월 동안 부부 갈등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38.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갈등 대처 방식으로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33.1%)이 여성(26.7%)보다 '참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비율은 0.0%로 나타나 부부상담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센터에서 오랜 기간 가족상담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부갈등은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단순한 인내는 갈등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갈등해결방안은 부부관계 만족에도 밀접한 관련(고수연·박정윤, 2024; 황지인 외, 2014)이 있으므로 건강한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5)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역할에 대한 문항,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성인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역할 인식을 보면 '나는 부모라서 행복하다'는 문항의 평균은 4.15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4.20점)이 남성(4.08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3.53점), '부모로서의 능력이 있다'(3.49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4.08점) 문항 모두 중간값(3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모의 행복과 노력은 높게 인식하지만 자신의 양육역량에 대해서는 다소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모역할 지원에 대한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는 각각 2.91점, 2.84점으로 중간값(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변 사람이나 배우자의 응원과 지지는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나,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37.2%)으로 여성은 진로문제(24.7%)를, 남성은 경제적 부담(51.7%)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어려움이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

소통 단절이나 인터넷 중독 문제는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청소년 대상 미디어 활용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부모 입장에서 본 성인자녀와의 상호 지원 관계를 보면,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정서적 지원(36.3%), 가사 및 집안일 도움(32.1%), 가족원 돌봄(22.0%), 경제적 지원(21.2%)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가사지원,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상호지원 유형에서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선행연구(박경순 외,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반면 부모가 성인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은 가사 및 집안일 도움(42.2%), 가족원 돌봄(34.6%), 정서적 지원(33.3%), 경제적 지원(3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돌봄 지원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지원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인자녀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교환 여부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만족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는 집단은 받지 않는 집단보다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가사 및 가족 돌봄 등 직접적 도움을 받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 지원이 단순한 교환 관계를 넘어,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관계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경제적 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은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과도한 돌봄 의존이나 역할의 역전은 오히려 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 입장에서 본 성인자녀의 부모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57.6%), 집안일 도움(56.5%), 정서적 지원(53.8%), 가족원 돌봄(46.1%)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절반 가량의 성인자녀가 부모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 자녀층에서 부모에 대한 지원 비율이 70~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대가 부모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로 50대 이상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이중돌봄' 상황뿐만 아니라 고령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노노케어(老老 care)'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가족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가족돌봄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영유아 자녀 돌봄, 초등자녀 돌봄,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영유자녀 스트레스는 6.33점(10점척도)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의 어려움은 신체적 힘듦(30.6%)이 가장 높았고, 돌봄 공백(26.5%), 경제적 부담(2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34.6%)을, 여성은 신체적 힘듦(30.4%)과 돌봄 공백(30.4%)을 주요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돌봄 분담과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주로 담당한다'는 응답이 높아 여성이 여전히 영유아 돌봄의 주 양육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지원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미등원 자녀의 경우 돌봄 시간이 평균 8.3시간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관중심의 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기반의 돌봄지원 및 주양육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간대는 오후 4시~7시로 집중되어 있지만 각 시간대별로 요구하는 응답도 있어 '틈새 시간대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초등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6.40점(10점척도)으로 나타났으며 초등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돌봄공백(24.7%)과 경제적 어려움(24.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자치하였다. 다음으로 신체적으로 힘듦(17.3%), 학업관련 어려움(9.9%), 게임·스마트폰·인터넷 중독(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원비 지출 증가 가능성과 함께 자녀의 학업 및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양육 부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초등학생 자녀가 하교 후 돌봄은 '학교돌봄(돌봄교실, 방과후 수업, 늘봄학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족(부모, 조부모 등)'돌봄은 27.8%,

‘학원(공부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나타나 대부분은 학교, 가정, 학원에서 돌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교 후 초등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자녀의 돌봄 필요시간은 오후 2시~7시로, 영유아 돌봄 수요(오후 4시~7시)보다 이른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학교 하교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돌봄 공백의 존재를 보여주며 하교 후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늘봄학교 등 학교 중심의 공공돌봄 확대,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 저학년 아동을 위한 안전귀가·틈새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성원 돌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 돌봄 스트레스는 6.91점(10점척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부담(22.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30.3%)을, 여성은 정신적 스트레스(17.9%)를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여 돌봄 경험의 양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가족돌봄의 주 담당자로서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돌봄자는 주로 여성이면서 평균 연령이 높고 비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연구(노혜진, 2021)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가족돌봄자를 위한 심리적·신체적 휴식 지원과 정서 상담,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 돌봄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간 돌봄 분담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족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7) 건강과 생애설계

건강인식을 살펴보면 주관적 신체적 건강 평균점수는 3.31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3.36점)이 여성(3.25점)보다 자신을 더 건강하다고 인식하였다. 주관적 정신적 건강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평균은 3.37점으로, 남성(3.45점)이 여성(3.29점)보다 더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가정건강성 평균은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자신을 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생애설계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설계·재무설계·노후설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여성의 평균 점수가 남성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준비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정서적 노후 준비는 중간값(3점)보다 높았으나 사회적 노후 준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쳐, 노후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선행연구 결과(진주영·하규수, 2016)에 따르면 노후 준비 수준은 삶의 만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무·여가·건강 등 노후 전반에 걸친 준비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사람 중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83.6%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가 자녀세대에 대한 의존보다는 독립적 노후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78.2%), 60대(93.5%), 70대 이상(88.0%)에서 비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령층일수록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52.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보다는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자신 또한 자율적인 노후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노년층의 자립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돌봄·건강관리 기반 강화와 함께, 세대 간 상호존중과 관계 지속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가장 많이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후의 돌봄과 삶의 안정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8) 일과 여가

전북도민의 근로율은 63.0%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 71.7%, 여성 54.6%로 남성이 여성보다 근로 참여율이 높았다. 일·생활 균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장시간 근로(36.5%)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가사부담(34.6%)을, 남성은 장시간 근로(42.6%)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전국 일-생활균형 실태조사(변수정 외, 2022)에 따르면

계약상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9.80시간이었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40.81시간으로 더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은 평균 58.46분, 여성은 1시간 48.79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85배 많은 시간을 가사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과 함께 충분한 여가시간 보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최근 6개월동안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평균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해서 56.5%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여가가 부족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일이 많아서(26.9%)가 가장 높았고, 몸이 피곤해서(22.9%), 비용 부담(17.3%), 여가시설 부족(10.3%) 순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로와 피로 누적이 중요한 제약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은 가정 내 활동(33.9%)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32.5%)는 문화예술 관람이, 30대(33.3%)와 40대(33.3%)는 체험·관광 활동을 가장 많이 선호한 반면, 5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가정 내 활동 선호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와 자녀 유무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일·생활 균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쉼과 여가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가족정책

가족정책 인식에서 전북도민은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책임 주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아동돌봄의 책임 주체로는 '부모 책임'이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아 아동돌봄을 가정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돌봄의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와 가족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고 '국가 책임'이 36.2%, '가족 책임'은 18.0%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돌봄의 경우 아동돌봄보다 국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분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돌봄 방식 선호도를 살펴보면 '기관돌봄'이 46.1%로 가장 높았고, '비슷하다'가 34.2%, '조부모 돌봄'은 19.6%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양육의 공공성 강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조부모 돌봄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조부모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조부모 돌봄 가정에 대한 휴식 지원, 세대 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공식 돌봄이 공적 돌봄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를 살펴보면, 다문화 지원사업(50.4%)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조손가족, 1인가구,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은 20%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보다 낮아, 현재 사업의 주요 이용자가 여성 중심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남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보인다.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중간값 이상을 나타내어 각 사업들이 전북도민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PA분석 결과 필요성과 중요성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정책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었으며, 임신·출산 교육 및 상담, 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센터의 보편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출산 및 영유아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개선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생애주기(1순위)를 살펴보면 결혼 및 신혼기(19.9%), 임신·출산기(19.6%), 결혼하지 않는 청년시기(19.4%)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시기(40.2%)의 응답이 가장 높아 결혼을 전제로 한 지원보다 자기 성장을 위한 지원 요구가 강한 세대적 특징을 보였다. 30~40대는 영유아기(30대 21.6%, 40대 20.9%)와 임신·출산기(30대 19.8%, 40대 19.0%)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 자녀양육과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50대는 영유아기(17.0%), 결혼하지 않는 청년시기(16.0%)가, 60대 이후 세대에서는 결혼 및 신혼기(60대 25.9%, 70대 이상 24.5%)와 임신·출산기(60대 20.0%, 70대 이상 28.8%)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인 세대의 당면 과제보다 자녀 세대의 결혼·출산 지원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출산 초기 단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특히 청년·신혼기 지원 확대와 임신·출산기 돌봄 인프라 강화는 세대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며 결혼 및 출산 초기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가 안정적 가족형성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1+2순위를 합친 결과를 보면 50대(37.4%)와 60대(39.0%)는 노년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생애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또는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1인가구

1인 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응답자의 75.0%가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3.06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성(3.25점)이 남성(2.88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다'는 문항에서도 평균 3.02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여성(3.19점)이 남성(2.85점)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평균 2.86점으로 중간값(3점)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편이었으나 여성의 평균 점수(3.03점)는 남성(2.70점)보다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 중 여성의 생활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건강관리, 주거환경, 안전 문제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1인가구 응답자들이 평소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가장 많이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20.5%)가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18.2%), '자녀'(16.1%), '부모'(15.2%), '이야기할 사람 없음'(1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자녀'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22.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형제자매'(20.0%), '친구'(1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친구'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18.7%)와 '형제자매'(16.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 가구는 10년 이상 장기 생활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에도 이야기할 사람 없음(12.9%) 비율이 더 높고 이웃과의 소통이 극히 적어(1.8%) 사회적 고립 위험이 여성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로 의존하는 친구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취미·여가 활동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재구축하고 가족 관계망을 보완·강화할 수 있는 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소통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으로는 가사 등 일상적 자기돌봄(32.1%)과 경제적 어려움(2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에서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에서 일상적 자기돌봄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 40대는 질병·건강 악화 시 대처의 어려움(28.6%)을, 50대는 심리적 외로움(30.0%)을 상대적으로 많이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의 어려움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에 따른 정책 수요 또한 연령별 어려움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50대는 '주거 안정'(주택안정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1인가구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를 삶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40대는 건강증진 지원사업(25.7%), 50대는 외로움·고립감 등 심리정서 지원(16.7%)에 대한 요구가 주거 안정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 1인가구의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돌봄서비스·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 고령 1인가구의 일상 지원과 공적 돌봄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중년층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지원, 중·장년층의 건강 및 정서 지원 강화, 고령층의 일상생활·돌봄서비스 확충, 그리고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 고립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본 연구는 전북 가족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해 전북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 인식과 가치관, 가족 형성과 변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가족돌봄, 건강과 생애설계, 일과 여가, 가족정책 인식, 1인가구 등 전북 도민의 가족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전북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전북 가족정책 방향

정책방향	주요정책
다양한 가족의 포용과 지속가능한 지원 확대	• 비혼, 동거, 무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가족 다양성 인식 개선(교육·캠페인) • 가족실태조사 정례화 및 자료체계 구축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생애주기별 부부관계 지원체계 구축	•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방안 마련 •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상담 확대 • 부부 상담 및 관계 전환 지원 강화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관계 지원 강화	• 부모역할 캠페인 • 자녀발달별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갈등 대응 지원 확대 • 생애주기별 부모-자녀 지원 플랫폼 구축
돌봄의 성평등과 공공성 강화	•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틈새·긴급돌봄 강화) • 남성 돌봄참여 촉진 지원 강화 • 가족돌봄자 보편적 지원체계 확대 및 비공식돌봄 연계
건강한 노후 자립과 생애설계 지원 강화	• 재무·여가·건강 등 생애 설계 교육 강화 • 노년기 건강·여가·관계지원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
생애주기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확대	• 성별·연령별 맞춤 지원 강화 • 1인가구 고립예방 관계망 회복 지원 • 1인가구 전담창구 및 통합지원 거버넌스 구축
가족정책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	• 가족센터 보편사업 강화(교육, 상담, 돌봄 등)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환류체계 구축 • 지역특성 반영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

1) 다양한 가족의 포용과 지속가능한 지원 확대

전북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1인가구, 다문화가구, 재혼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비친족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족의 경계가 점차 느슨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동거·공동체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민 다수가 여전히 혈연 중심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20~30대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거나, 선택적 관계를 가족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 개념이 점차 '정서적 유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가치관에서도 '비혼 출산'(2.73점), '비혼 자녀 입양'(2.78점), '동성 결혼'(2.31점)에 대한 수용도는 중간값(3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 형태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한계를 넘어 모든 가족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은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동거·비혼·무자녀가족 등 제도권 밖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사는 다양한 방식'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북의 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지원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가족유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소득층 자립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 부모 등 일부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취약가구 지원을 넘어 동거가족, 비혼출산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다양한 가족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근거 기반의 가족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하는 가족정책 자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생애주기별 부부관계 지원체계 구축

전북도민의 가정 내 역할 분담 인식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났다. 가사와 자녀돌봄의 주된 담당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가사 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인식과 현실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은 아내가 더 불공평하다고 보았으나, 남성의 20.7%, 30대의 30.8%가 '남편이 더 불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연령이 높은 집단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다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남성의 돌봄·가사 부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대별로 상이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맞춤형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한 부부 역할 분담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하여 가정 내 돌봄과 가사노동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가족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관계 개선을 넘어, 가족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세대 간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전북도민의 생애주기별 선호하는 가족정책을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는 청년시기(19.4%), 결혼 및 신혼기(19.9%), 임신·출산기(19.6%)에 대한 가족정책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가족형성의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세대는 경제적 불안정, 주거문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자신의 생애설계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예비부부(부모)교육 및 상담뿐만 아니라 결혼준비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부모됨을 결정하고 자녀 출산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과 건강한 생애설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북도민의 평균 혼인기간을 보면 중·장년기 부부의 비중이 높으며, 배우자를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자 노후의 주요 돌봄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관계가 생애 전 단계에서 삶의 안정성과 행복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부부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8.1%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갈등 회피형 대처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만족도 역시 소득이나 자녀 유무보다 의사소통 만족도, 성평등한 관계 인식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의 질은 개인의 인식과 상호 소통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북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부부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가족지원 사업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어 시·군 가족센터의 인력, 예산, 시설 여건에 따라 운영 규모와 수준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부부관계 교육이 일회성·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 부부상담 경험 응답이 0.0%로 나타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 부족, 접근성 제약, 상담에 대한 문화적 낙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외부 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와 상담 접근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전북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부부관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 단계별로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관계 유지 및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결혼 20년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부부관계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기 결혼생활의 관계 점검과 재구조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부부를 대상으로는 이혼·졸혼 준비 상담 및 관계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하더라도 당사자의 심리적 회복과 삶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족 내 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관계 지원 강화

전북도민의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3.86점)라는 문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3.68점)는 응답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해 자녀 양육은 인생의 큰 즐거움인 동시에 삶의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3.47점, 40~50대 최고점),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4.08점)는 자녀양육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의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완벽한 부모'가 아닌 '충분히 좋은 부모(good enough parenting)'의 관점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실수와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양육문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현재 전북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자녀까지는 센터이용이 활발한 반면 그 이후에는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이는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일수 있으나 학령기 이후 부모-자녀의 실질적 수요(방과후 돌봄, 학업·진로 스트레스, 스마트폰·게임 문제 등)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부모-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녀 발달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기는 신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이므로 시간제돌봄, 틈새돌봄을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양육자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 휴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정 내 돌봄 역할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육아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자녀기의 가장 큰 과제는 방과후·하교 후 돌봄 공백이다. 학교돌봄(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연계한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부터 스마트폰·게임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교육, 가족상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건강한 미디어 활용 규칙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진로, 학업, 디지털 기기 사용 등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기 이전부터 가족 내 의사소통 부재, 습관적인 스마트폰 사용 등이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는 자녀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 부모의 역할도 '보호자'에서 '조력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 부모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발달 이해 교육, 진로 코칭 방법,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법 등을 포함한 부모교육과 개별·집단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전북은 지역 내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부모자녀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양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결혼·출산·양육 단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4) 돌봄의 성평등과 공공성 강화

연구결과 가족 내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영유아 돌봄의 경우 '신체적으로 힘듦'(30.6%), '돌봄 공백 어려움'(26.5%)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초등자녀 돌봄에서는 '돌봄 공백 어려움'(24.7%)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교 후 초등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오후 2시~7시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간대도 요구도가 있어 각 가정의 근무시간, 자녀 연령, 거주지 여건에 따라 돌봄 요구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족구성원 돌봄에서 여성은 신체적·정서적 피로를, 남성은 경제적 부담을 돌봄의 어려움으로 선택해 성별에 따라 돌봄 경험의 어려움이 다르다. 이는 여성이 직접 돌봄 노동을 전담하고, 남성은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 담당하는 전통적 성역할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의 역할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가정내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돌봄에서 남성의 돌봄 스트레스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돌봄역할 주체로서 자신이 인지하는 역할 기대와 실제 수행 수준의 차이인지 돌봄 경험 부족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남성돌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 남성 돌봄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북은 '돌봄의 성평등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가정과 사회가 돌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돌봄의 성평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틈새돌봄과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지역별 공공 돌봄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의 돌봄참여를 촉진하는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사용률 제고, 아버지 돌봄교육 및 지원,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대 등 가정내 성평등 돌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맞돌봄 문화조성과 남성의 돌봄 참여 권리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속적인 문화를 유지하는 방안 등은 미흡한 편이다(박은정, 2024). 따라서 전북은 남성의 돌봄참여 촉진 전략을 마련하고 전북여성가족재단과 가족센터에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돌봄자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돌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휴식지원, 상담, 자조모임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의 가족돌봄자 지원은 주로 가족돌봄청년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령 부모를 돌보는 성인 자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돌봄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은 기존 대상뿐만아니라 가족 형태와 돌봄 강도에 근거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돌봄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가족이 감당하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가족돌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자녀 돌봄, 고령 부모 돌봄, 이중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비공식 돌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부담이 공적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5) 건강한 노후 자립과 생애설계 지원 강화

전북의 고령화율은 25.3%로 전국 평균(20.0%)보다 높으며 임실·진안·장수·고창 등 일부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40% 내외로 나타났다. 고령화 수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보여진다.

생애설계에서 여가설계, 재무설계, 노후설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여성의 평균 점수가 남성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준비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9.0%로 나타나 노년기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노년세대는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후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녀와의 관계만족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 돌봄 및 가사 등의 지원을 받는 집단은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자녀와의 관계만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년기에도 가족 내 역할을 유지하고 자녀와의 상호교류가 지속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것은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세대의 독립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관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의 자립과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 재무·여가·건강 설계 교육을 강화하고 중·장년기에는 생애전환기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후 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년층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 여가·문화 활동, 사회참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상담·정서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 건강, 돌봄의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과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 친화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용재·박용우, 2022). 이러한 지원은 노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될 것이며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노년'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전북도 이러한 통합돌봄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생애주기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확대

전북은 1인가구 비율이 38.2%로 2세대 가구(35.4%)보다 높게 나타나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0~50대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여성이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1인가구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형 1인가구 생활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과 중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대주택 연계와 안정적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 1인가구에게는 생활지원사 파견과 방문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북은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주택', '안심귀가 서비스', '안심전화' 등 다중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회복 지원이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취미와 여가 활동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형제자매 등과의 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서지원 상담과 가족소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는 돌봄단을 운영하여 비대면 안부 확인과 방문 확인 등 고립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센터, 복지관, 지자체,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1인가구 통합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복을 줄이고 실질적인 연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인가구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정례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수립된 전북형 1인가구 생활안전망 구축사업은 '안전하고 연결된 1인가구의 삶'을 보장하는 지역 기반의 새로운 가족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7) 가족정책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

전북의 가족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50.4%)이었으며 조손가족·1인가구·일·생활균형 관련 사업은 20%대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보다 낮아 정책 이용자가 여성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지원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도민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센터와 가족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남성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PA 분석 결과 필요성과 중요성이 모두 높은 영역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교육 및 상담, 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민이 가족센터를 통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가족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가족센터의 정체성인 보편적인 가족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 전북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사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전북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지역간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전북의 가족정책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환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정책을 설계·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히 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전북은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세대구성, 저출산과 고령화 수준, 다문화 가구 및 재혼가구 비율 등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을 수행하여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권오, 이연화, 민주홍. (202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고수연, 박정윤. (2024).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 방식의 상호의존 매개효과: APIMeM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3), 299-319.

김경주, 김지영, 정지연. (2024). 전남지역 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향. 전남여성가족재단.

김동영, 이중섭, 김현수. (2023).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축과 도민행복 실태연구. 전북연구원.

김수연. (2023). 경상북도 가족정책 대응전략 방안 수립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영란, 최인희, 주재선, 정가원, 김소영, 배호중, 박미진, 권도연, 최진희. (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혜진. (2021). 성인가족 돌봄시간의 영향요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1-12.

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성인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이 농촌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8, 273-301.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박은정. (2024). 남성 자녀돌봄의 현재와 남성 돌봄 친화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박주희, 신난딩. (2023). 광주지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광주여성가족재단.

변수정, 오신휘, 조성호, 김은정, 이혜정. (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main.html

성미애, 진미정, 기쁘다. (2023). 제사와 재산상속을 통해서 본 유교적 가부장제 인식의

현주소: 젠더별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41(3), 65-79.

성인지통계시스템. 각 연도. 통계청「사회조사-가족편」원자료 분석.

안세아. (2024). 충청남도 가족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5).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Ⅱ.

옥선화, 진미정. (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HER (Human Ecology Research), 49(4), 67-76.

이경숙, 김민지, 황동진, 김소정. (2022). 대구시 가족실태조사. 대구여성가족재단.

이나련, 정유진, 이경민, 유다영. (2022). 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선형, 김우영. (2023). 서울시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용재, 박창우. (2022). 고령화 시대 한국 노인돌봄체계의 구조와 한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역할방향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0, 205-231.

이윤정, 권안나. (2021). 울산광역시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 과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임나현. (2016).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230-240.

전혜성, 서미아. (2012).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49-357.

조막래, 김혜린. (2024). 2024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전북여성가족재단.

주경미, 김희찬. (2024). 충북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 충북여성재단.

진주영, 하규수. (2016).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2), 45-57.

통계청. (2019). 통계작성 단계별 가이드라인: 통계대행 및 컨설팅 수요기관용.

통계청. 각 연도.「사회조사」

통계청. 각 연도.「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연도.「인구총조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main

행정안전부(주민과). 각 연도. 고령인구비율

허은경. (2014).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 국내박사 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36, 381-405.

Hoghughi, M., & Speight, A. N. P. (1998). Good enough parenting for all children—a strategy for a healthier society.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78(4), 293-29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여성가족재단 JEONBUK WOMEN & FAMILY FOUNDATION ID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의견은 정책 개선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6~7월

■ 연구담당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이선영 연구위원(063-254-9489)

■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엄승범 전임연구원(02-3484-3076)
조선미 이사(02-3484-3053)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면접일시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SQ1	연령대	□ ① 19세 미만 ☞ 조사종료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 ⑥ 70대 이상
		출생년도 : ( )년		
SQ2	거주 지역	□ ① 전주/익산/완주	□ ② 군산/김제/부안	□ ③ 무주/진안/장수
		□ ④ 임실/순창/남원	□ ⑤ 정읍/고창	
SQ3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SQ4	1인가구 여부	□ ① 혼자 거주 중임(1인가구임)	□ ② 다른 가구원과 함께 거주 중임	
SQ5	자녀 여부 및 연령 (복수 응답 가능)	□ ① 자녀 없음	□ ② 영유아(만5세 이하)	□ ③ 초등학생(만6세~12세)
		□ ④ 청소년(만13세~24세)	□ ⑤ 성인(만25세 이상)	

PART A. 가족 인식 및 가치관

A01. 다음 중 "우리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포함되는 대상을 모두 응답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귀하의 상황이 아니라 귀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①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 ② 자녀	□ ③ 부모
□ ④ 배우자의 부모	□ ⑤ 형제자매	□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⑦ 형제자매 배우자	□ ⑧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 ⑨ (아버지쪽) 할아버지, 할머니
□ ⑩ (어머니쪽) 할아버지, 할머니	□ ⑪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고모부 등)	□ ⑫ 어머니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외삼촌, 외숙모, 이모, 이모부 등)
□ ⑬ 조카(본인 조카, 배우자 조카)	□ ⑭ 사위	□ ⑮ 며느리
□ ⑯ 손자녀	□ ⑰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 ⑱ 반려동물
□ ⑲ 기타(적을 것:)		

A02. 아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함께 살지 않아도)	□ ①	□ ②	□ ③	□ ④	□ ⑤
6)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A03. 귀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한명)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배우자(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 ④ 딸 □ ⑤ 아들
□ ⑥ 연인 □ ⑦ 형제자매 □ ⑧ 친구 □ ⑨ 동료 □ ⑩ 이웃
□ ⑪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⑫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등) □ ⑬ 의지할 사람 없음
□ ⑭ 기타( )

A04. 귀하는 아래 제시된 각각의 가족 기능들이 우리나라 가족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상황이 아니라 귀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 ①	□ ②	□ ③	□ ④	□ ⑤
2) 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 ①	□ ②	□ ③	□ ④	□ ⑤
3)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	□ ①	□ ②	□ ③	□ ④	□ ⑤
4)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능	□ ①	□ ②	□ ③	□ ④	□ ⑤
5) 아동 및 노인 등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기능	□ ①	□ ②	□ ③	□ ④	□ ⑤
6) 가족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과 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기능	□ ①	□ ②	□ ③	□ ④	□ ⑤
7)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기능	□ ①	□ ②	□ ③	□ ④	□ ⑤

A05. 귀하는 결혼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상황이 아니라 귀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6)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7)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8)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9)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10) 동성 간의 결혼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A06. 귀하는 다음의 가족의례 및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상황이 아니라 귀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 ①	□ ②	□ ③	□ ④	□ ⑤

A07. 귀하는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다음의 문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상황이 아니라 귀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집안일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A08. 귀하는 부모와 자녀 부양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상황이 아니라 귀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A09. 귀하는 자녀와 자녀양육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상황이 아니라 귀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6)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PART B. 가족 형성과 변화

B01.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배우자 있음(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 B02번으로

□ ② 미혼 □ ③ 별거 □ ④ 이혼 □ ⑤ 사별 ☞ B03번으로

B02. 귀하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 ① 혼인신고 했음 ☞ B03번으로 □ ② 혼인신고 하지않음 ☞ B02-1번으로

B02-1. 배우자 혹은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이른 나이여서) □ ②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 ③ 경제적인 이유로 □ ④ 재산 상속 등의 이유로
□ ⑤ 기혼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 ⑥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 ⑦ 기타( )

B02-2.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중복응답)

□ ①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 ②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
□ ③ 주택청약, 대출 등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 ④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 ⑤ 재산 상속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함 □ ⑥ 기타( )

B03. (SQ5=2~4 응답자만) 귀하는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자녀 수 : 총 [ ] 명

B04. 귀하는 미래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자녀가 있다면 추가적인 계획 여부를 응답해주십시오.

□ ① (추가) 계획 있음 ☞ 총 ( ) 명 □ ② 계획 없음

B05. 귀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이상적인 자녀 수 : [ ] 명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를 응답해주시고, 없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면 '0'명으로 응답해주십시오.

B06. 아래 영역 중 귀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일 ② 개인생활(여가, 자기계발, 개인시간 등) ③ 자녀
④ 파트너관계(부부, 연인관계) ⑤ 친구관계 ⑥ 나 또는 배우자의 원가족 관계(부모, 형제관계 등)

※ B07~B09 문항은 자녀가 없는 응답자(SQ5=1)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B07. 귀하는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여가, 자기계발, 개인시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 □ ② 부모가 되는 것이 약간 중요 □ ③ 서로 비슷함
□ ④ 개인생활이 약간 중요 □ ⑤ 개인생활이 훨씬 중요

B08. 귀하는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과 얻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잃는것이 얻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 〉 얻는 것)
□ ②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서로 비슷함
□ ③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 〈 얻는 것)

B09. 귀하는 향후 임신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별로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있다 □ ⑤ 많이 있다

PART C. 부부 관계

※ PART C 문항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B01=1)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C01. 귀하는 현재 배우자(사실혼, 비혼동거 포함)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따로 살고 있음

C02. 귀하와 배우자는 맞벌이 중이십니까?

☐ ① 맞벌이 ☐ ② 본인 외벌이 ☐ ③ 배우자 외벌이 ☐ ④ 둘 다 일하지 않음

C03.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동안 결혼(동거)**

*사실혼, 비혼동거의 경우 동거 기간을 응답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로 응답

C04. 최근 6개월동안 배우자와의 결혼(동거) 생활에 대한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결혼(동거)생활은 만족스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동거)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는 배우자와 결혼(동거)한 것을 후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나는 마지못해 배우자(파트너)와 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C05. 최근 6개월 동안 아래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는 친한 친구와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 또는 배우자(파트너)가 심각하게 이혼을 제의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나는 이혼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C06. 귀하는 결혼생활에서 다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실제로 결혼생활에서 얼마나 충족되십니까?

항목	중요도					충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	별로 충족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충족된다	매우 충족된다
1) 정서적 친밀감, 사랑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2) 경제적 안정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자녀양육 동반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4) 성적만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5) 대화, 소통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6) 부부여가 및 취미 공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7) 서로의 성장 지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C07. 귀하는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모든 의사소통 포함)

☐ ① 전혀하지 않는다 ☐ ② 30분 미만 ☐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⑤ 2시간 이상

C08.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대체로 만족 ☐ ③ 보통 ☐ ④ 대체로 만족 ☐ ⑤ 매우 만족

C09.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자녀, 부모 등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으로 응답)

항목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1) 자녀 양육 및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2) 투자와 자산 관리(금융, 부동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3) 가사 등 집안일	□ ①	□ ②	□ ③	□ ④	□ ⑤	
4) 내 부모 돌봄(안부전화,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5) 배우자 부모 돌봄(안부전화,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6) 가족 여가(여행)	□ ①	□ ②	□ ③	□ ④	□ ⑤	
7) 성인자녀 돌봄(손자녀 돌봄, 일생생활지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C10. 귀하께서는 평소에 가사(집안일) 및 자녀돌봄(양육, 교육, 훈육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1일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고, 참여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다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항목		참여 시간
가사 (집안일)	평일 가사 활동	□□ 시간 □□ 분
	주말 가사 활동	□□ 시간 □□ 분
자녀 돌봄 (양육, 교육, 훈육 등)	평일 자녀돌봄 활동	□□ 시간 □□ 분
	주말 자녀돌봄 활동	□□ 시간 □□ 분

* 참여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다음 문항으로 이동

C11. 가사 및 돌봄 등의 가정일을 부부가 분담하는데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평하지 않다 □ ② 별로 공평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C11-1번으로

□ ④ 대체로 공평하다 □ ⑤ 매우 공평하다 ☞ C12번으로

C11-1. 가사 및 돌봄 등의 가정일 분담이 공평하지 않다면(C11=1~3), 누구에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편 □ ② 아내

C12.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배우자와 다툰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C12-1번으로 □ ② 없다 ☞ PART D로

C12-1. 가장 많이 다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가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내 부모/형제자매 관련한 문제
②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 관련한 문제
③ 배우자의 생활습관(음주/늦은 귀가/잔소리 등)
④ 자녀 교육 문제(학업 성적, 생활 방식 등)
⑤ 경제적 문제
⑥ 가사와 육아 분담
⑦ 내 부모 간병
⑧ 배우자의 부모 간병
⑨ 배우자와의 성생활
⑩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⑪ 기타 ( )

C12-2. 귀하는 배우자와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가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그냥 참는다
②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본다
③ 다른 일을 하면서 잊으려고 한다(쇼핑, 운동, 음주, 종교 활동 등)
④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⑤ 주위 사람(친구, 친지 등)에게 이야기 한다
⑥ 전문가와 상담한다
⑦ 기타 ( )

PART D. 부모-자녀 관계

※ PART D01~D09 문항은 자녀가 있는 응답자(SQ5=2~5)만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가 없는 분은 D10번부터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D01. 다음은 부모로서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나는 부모라서 행복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5)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D02. 다음은 부모역할에 대한 지역 및 주변사람의 인식을 살펴보는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북도는 부모역할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의 동네(○○시·군)는 부모역할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의 주변사람들은 내가 부모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나의 배우자는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D03~D05 문항은 청소년(만13~만24세) 자녀가 있는 분(SQ5=4)만 응답해주십시오.

D03.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중요한 순으로 2가지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① 경제적 부담 ② 학업성적 ③ 대화단절 ④ 자녀의 이성관계나 성 문제
⑤ 진로문제 ⑥ 학교생활부적응(등교거부, 따돌림 등) ⑦ 생활습관(음주, 흡연 등) ⑧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⑨ 입시정보 부족 ⑩ 기타( )

D04. 귀하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내 자녀를 믿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6) 자녀와 자주 다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7)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8)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9)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스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D0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일을 결정할 때 자녀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D06~D09 문항은 성인(만25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분(SQ5=5)만 응답해주십시오.

D06. 아래 첫째 성인 자녀와 관련된 인적 사항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첫째 성인 자녀의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2. 첫째 성인 자녀의 연령	□□□□ 년 출생
3. 첫째 성인 자녀와 동거 여부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따로 살고 있음
4. 첫째 성인 자녀의 혼인 여부	□ ① 기혼(이혼, 사별 포함) □ ② 미혼

D07. 귀하가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내용을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성인 자녀에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주고 있음	도움을 주지 않음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지 않음
1)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 ①	□ ②	□ ①	□ ②
2) 가사 등 집안일 도움	□ ①	□ ②	□ ①	□ ②
3)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 ①	□ ②	□ ①	□ ②
4)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 ①	□ ②	□ ①	□ ②

D08. 귀하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6)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D09. 따로 거주하는 성인자녀와의 만남 빈도 또는 연락하는 정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따로사는 성인자녀가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번	거의하지 않음	해당 없음
1) 성인자녀와 만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2) 성인자녀와 연락하는 정도(전화, 문자, 우편, 전자우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 D10~D13 문항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D10. 귀하는 부모님(또는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본인이 비혼이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해당없음 응답)

항목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나와 따로 살고 계신다	해당 없음
1) 나의 아버지	□ ①	□ ②	□ ③
2) 나의 어머니	□ ①	□ ②	□ ③
3)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③
4)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③

D11.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만남 또는 연락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본인이 비혼이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해당없음 응답)

항목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번	거의하지 않음	해당 없음
1) 나의 부모님과 만남의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2) 나의 부모님과 연락하는 정도 (전화, 문자, 우편, 전자우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3)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의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4)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하는 정도 (전화, 문자, 우편, 전자우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D12. 귀하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내용을 항목별로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나의 부모님에게			배우자 부모님에게		
	도움 주고 있음	도움받고 있음	해당없음	도움 주고 있음	도움받고 있음	해당없음
1)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2) 가사 등 집안일 도움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3)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4)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D13. 귀하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나의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2) 나의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3) 배우자의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4) 배우자의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PART E. 가족 돌봄

※ E01~E09 문항은 영유아(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SQ5=2)만 응답하며, 영유아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01. 만 5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신체적(체력적)으로 힘듦
③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봄 공백 어려움 ④ 직장내 육아지원제도 부재 및 활용 어려움
⑤ 영유아 놀이공간 부족 ⑥ 정신적 어려움 ⑦ 기타 ( )

E02. 귀하의 영유아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1~10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E03. 귀댁의 영유아 자녀가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E04-1~3번으로 □ ② 없다 ☞ E05-1~2번으로

E04-1. 귀댁의 영유아 자녀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놀이방 포함) □ ② 유치원
□ ③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유아 스포츠단 등) □ ④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 ⑤ 기타( )

E04-2. 영유아 자녀가 기관에 다니는 않는 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친조부모 □ ④ 외조부모 □ ⑤ 친인척
□ ⑥ 이웃 □ ⑦ 아이돌보미 □ ⑧ 베이비시터 □ ⑨ 가사도우미 □ ⑩ 기타( )

E04-3.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하루 평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일 하루 평균 [ ][ ]시간

E05-1.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로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친조부모 □ ④ 외조부모 □ ⑤ 친인척
□ ⑥ 이웃 □ ⑦ 아이돌보미 □ ⑧ 베이비시터 □ ⑨ 가사도우미 □ ⑩ 기타( )

E05-2.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하루 평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일 하루 평균 [ ][ ]시간

E06.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누가 아이의 양육을 도와줍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친조부모 □ ④ 외조부모 □ ⑤ 친인척
□ ⑥ 이웃 □ ⑦ 아이돌보미 □ ⑧ 베이비시터 □ ⑨ 가사도우미 □ ⑩ 기타( )
□ ⑪ 도움받기 어려움

E07. 평일 중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를 모두 ✔표해 주십시오.

□ ① 오전 6~7시 □ ② 오전 7~8시 □ ③ 오전 8~9시 □ ④ 오전 9~10시 □ ⑤ 오전 10~11시 □ ⑥ 오전 11~12시
□ ⑦ 오후 12~1시 □ ⑧ 오후 1~2시 □ ⑨ 오후 2~3시 □ ⑩ 오후 3~4시 □ ⑪ 오후 4~5시 □ ⑫ 오후 5~6시
□ ⑬ 오후 6~7시 □ ⑭ 오후 7~8시 □ ⑮ 오후 8~9시 □ ⑯ 오후 9~10시 □ ⑰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E08. 귀하의 가정에서는 영유아 자녀 돌봄 활동을 어떻게 분담합니까?

항목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1) 일상생활 돌봄 (밥 먹이기, 옷 입히기, 재우기, 씻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2) 아플 때 돌봄(병원데려가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3) 놀이 활동(놀아 주기, 책 읽어 주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4) 자녀 등하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5) 생활습관 등 훈육 및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E09. 귀하는 현재의 영유아 자녀 돌봄 활동 분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불만족 □ ② 대체로 불만족 □ ③ 보통
□ ④ 대체로 만족 □ ⑤ 매우 만족

※ E10~E14 문항은 초등학생(만6세~12세) 자녀가 있는 분(SQ5=3)만 응답하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10. 초등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신체적(체력적)으로 힘듦 ③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봄 공백 어려움
④ 직장내 육아지원제도 부재 및 활용 어려움 ⑤ 학업 관련 어려움 ⑥ 대화단절
⑦ 자녀학교부적응(따돌림 등) ⑧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⑨ 기타( )

E11.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1~10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E12. 하교 후 낮시간 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 ① 돌봄교실 □ ② 방과후수업 □ ③ 늘봄학교(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이 합쳐진 제도)
□ ④ 지역아동센터 □ ⑤ 다함께돌봄센터 □ ⑥ 학원(공부방) □ ⑦ 아이의 아버지
□ ⑧ 아이의 어머니 □ ⑨ 아이의 조부모/외조부모 □ ⑩ 친인척 □ ⑪ 아이돌보미
□ ⑫ 비혈연 육아/가사도우미 □ ⑬ 아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 ⑭ 기타( )

E13. 초등학생 자녀가 하교 후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 ① 거의없음 □ ② 30분 미만 □ ③ 30분이상-1시간 미만
□ ④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⑤ 2시간 이상

E14. 평일 중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를 모두 ✔표해 주십시오

□ ① 오전 6~7시 □ ② 오전 7~8시 □ ③ 오전 8~9시 □ ④ 오전 9~10시 □ ⑤ 오전 10~11시 □ ⑥ 오전 11~12시
□ ⑦ 오후 12~1시 □ ⑧ 오후 1~2시 □ ⑨ 오후 2~3시 □ ⑩ 오후 3~4시 □ ⑪ 오후 4~5시 □ ⑫ 오후 5~6시
□ ⑬ 오후 6~7시 □ ⑭ 오후 7~8시 □ ⑮ 오후 8~9시 □ ⑯ 오후 9~10시 □ ⑰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 다음은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돌봄 관련 문항입니다.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E15.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지속적인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유아와 초등학생 외의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응답)

□ ① 있다 ☞ E16번으로 □ ② 없다 ☞ PART F로

E16.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본인 □ ② 배우자 □ ③ 성인 자녀 □ ④ (배우자)부모 □ ⑤ 형제자매
□ ⑥ 손자녀 □ ⑦ 기타 친인척 □ ⑧ 조부모 □ ⑨ 기타( )

E17. 귀하는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보살피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부부간 갈등 □ ② 가족 간 갈등 □ ③ 여가제약 □ ④ 수발자와 비수발와의 갈등
□ ⑤ 경제적 어려움 □ ⑥ 신체적 피로 및 고단함 □ ⑦ 정신적 스트레스 □ ⑧ 적절한 보상이 없음
□ ⑨ 직장생활(사회생활) 제약 □ ⑩ 집안 공간 부족 □ ⑪ 어려움 없음 □ ⑫ 기타( )

E18. 귀하의 가구원 돌봄 스트레스는 1~10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PART F. 건강과 생애설계

F01.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쁜 편 ☐ ② 나쁜 편 ☐ ③ 보통
☐ ④ 좋은 편 ☐ ⑤ 매우 좋은 편

F02. 귀하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최근 6개월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우울감을 느낀 경험)

☐ ① 매우 나쁜 편 ☐ ② 나쁜 편 ☐ ③ 보통
☐ ④ 좋은 편 ☐ ⑤ 매우 좋은 편

F03. 귀하의 가정 건강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건강성: 가정생활이 원활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가정의 구성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

☐ ① 매우 나쁜 편 ☐ ② 나쁜 편 ☐ ③ 보통
☐ ④ 좋은 편 ☐ ⑤ 매우 좋은 편

F04. 귀하는 생애 설계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하고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해당없음
1) 결혼 계획과 준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2) 자녀계획과 준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3) 직업계획과 준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4) 여가설계	☐ ①	☐ ②	☐ ③	☐ ④	☐ ⑤	
5) 재무설계	☐ ①	☐ ②	☐ ③	☐ ④	☐ ⑤	
6) 은퇴/노후설계	☐ ①	☐ ②	☐ ③	☐ ④	☐ ⑤	

F05. 귀하는 노후에 어디에서 지내고 싶습니까?

☐ ① 집 ☐ ②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외부시설

F06. 귀하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예 ☞ F06-1번 ☐ ② 아니오 ☞ F06-2번 ☐ ③ 자녀 없음/자녀 계획 없음 ☞ F07번

F06-1. 노후에 자녀와 살기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식은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 ② 가족이니까 ☐ ③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으려고
☐ ④ 외로울 것 같아서 ☐ ⑤ 건강악화를 우려하여 ☐ ⑥ 손자녀 육아 때문에
☐ ⑦ 기타( )

F06-2. 노후에 자녀와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에게 정신적 · 경제적 부담 주기 싫어서 ☐ ② 간섭·방해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 ③ 자녀와의 갈등이 우려되어서 ☐ ④ 기타( )

F07. 귀하께서는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후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활동하고 대화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노후를 위해 사회활동(봉사, 동호회 등)을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6)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F08. 귀하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F08-1번 □ ② 그렇지 않다 ☞ F08-2번

F08-1. 귀하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두 ✔표해 주십시오.

□ ① 국민연금 □ ② 공무원 연금(교직원, 군인 포함) □ ③ 개인연금 및 보험
□ ④ 퇴직금 및 퇴직연금 □ ⑤ 예금 및 적금 □ ⑥ 부동산
□ ⑦ 주식 및 채권(펀드 포함) □ ⑧ 기타( )

F08-2.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 ②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 ③ 준비할 능력이 없다
□ ④ 자녀에게 의지할 계획이다 □ ⑤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 ⑥기타( )

F09. 귀하는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대체로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F10. 귀하는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지인(이웃, 친구)
④ 공공돌보미(요양보호사 등) ⑤ 민간서비스(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⑥ 돌봄 로봇
⑦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음 ⑧ 생각해본 적 없음 ⑨ 기타( )

PART G. 일과 여가

G01.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1주일 동안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경험 포함)

□ ① 예 ☞ G01-1~2번으로 □ ② 아니오 ☞ G02번으로

G01-1.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상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 ② 임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 ③ 일용 근로자(1개월 미만, 일단위로 임금 지급)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G01-2 귀하는 정해진 시간에 퇴근이 가능합니까?

□ ① 절대 불가능하다 □ ② 거의 불가능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가능하다 □ ⑤ 항상 가능하다

G02.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 · 생활균형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G02-1번으로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G03번으로

G02-1. 귀하가 일 · 생활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양육 부담 ☐ ② 가사부담 ☐ ③ 노부모 부양
☐ ④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 ☐ ⑤ 장시간 근로 ☐ ⑥ 가족내 환자/장애인 돌봄
☐ ⑦ 기타( )

G03. 귀댁에서 최근 6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평일		주말	
☐ ① 전혀하지 않는다	☐ ② 30분 미만	☐ ① 전혀하지 않는다	☐ ② 30분 미만
☐ ③ 30분-1시간 미만	☐ ④ 1시간-2시간	☐ ③ 30분-1시간 미만	☐ ④ 1시간-2시간
☐ ⑤ 2시간 이상		☐ ⑤ 2시간 이상	

G04. 최근 6개월동안 가족이 함께 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충분하다 ☞ G05번으로 ☐ ② 충분하지 않다 ☞ G04-1번으로

G04-1. 가족과 함께 보낸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이 많아서 ☐ ② 자녀의 학업 때문에 ☐ ③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 않아해서
☐ ④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 ⑤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⑥ 몸이 피곤해서
☐ ⑦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 ⑧ 기타( )

G05.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여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문화예술관람(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 ☐ ② 체험 및 관광 활동(가족캠프, 놀이공원, 축제참여 등)
☐ ③ 스포츠 활동(수영, 요가, 헬스, 스포츠 관람 등) ☐ ④ 사회 및 기타 활동(봉사활동, 주말농장, 낚시 등)
☐ ⑤ 가정 내 활동(가족식사(외식), 게임 및 TV(동영상) 시청, 요리하기 등) ☐ ⑥ 기타( )

PART H. 가족 정책

H01. 아동돌봄에 대한 책임은 부모와 국가 중 어느 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역할)에 매우 동의 ☐ ② (부모역할)에 약간 동의 ☐ ③ 비슷(부모와 국가가 함께 역할)
☐ ④ (국가역할)에 약간 동의 ☐ ⑤ (국가역할)에 매우 동의

H02. 양육자 지원정책으로 돌봄서비스지원(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과 현금 지원(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중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돌봄서비스 지원) 훨씬 더 필요 ☐ ② (돌봄서비스 지원) 약간 더 필요 ☐ ③ 비슷(돌봄서비스지원과 현금지원 필요)
☐ ④ (현금 지원) 약간 더 필요 ☐ ⑤ (현금 지원) 훨씬 더 필요

H03. 귀하께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한다면), 기관돌봄(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는 것)과 조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관돌봄) 훨씬 더 좋음 ☐ ② (기관돌봄) 약간 더 좋음 ☐ ③ 비슷(기관돌봄과 조부모 돌봄 비슷)
☐ ④ (조부모돌봄) 약간 더 좋음 ☐ ⑤ (조부모돌봄) 훨씬 더 좋음

H04. 노인돌봄에 대한 책임은 가족과 국가 중 어느 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역할)에 매우 동의 ☐ ② (가족역할)에 약간 동의 ☐ ③ 비슷(가족과 국가가 함께 역할)
☐ ④ (국가역할)에 약간 동의 ☐ ⑤ (국가역할)에 매우 동의

H05.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인지도, 접근성, 이용경험, 만족도에 각각 ✔표해 주십시오. (접근성과 이용경험은 '인지도=안다' 응답시, 만족도는 '이용경험=있다' 응답시 응답)

항목	인지도		접근성 (알고 있는 응답자만)		이용경험 (알고 있는 응답자만)		만족도 (이용경험 있는 응답자만)		
	모른다	안다	좋다	어렵다	없다	있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1) 가족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2) 전북여성가족재단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3) 공동육아나눔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4) 아이돌봄사업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5) 다문화 지원사업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7)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8) 조손가족 지원사업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9) 1인가구 지원사업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H06. 귀하는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 ②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 ③ 남성들의 육아 · 가사 참여
□ ④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 ⑤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 ⑥ 일 · 가정 양립 인식 확산
□ ⑦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⑧ 기타( )

H07. 귀하는 다음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성(중요한 정도)					우선 필요성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임신 및 출산, 산생아 교육 및 상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부부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부모-자녀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4) 가족관계 상담(부부, 부모-자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5)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6) 공동육아나눔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7) 남성 참여 육아 및 가사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8)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9) 저소득층 가족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1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11) 가족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12) 1인 가구 자기돌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H08. 귀하께서는 다음의 생애주기에서 가족 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순으로 2순위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결혼하지 않는 청년 시기 ② 결혼 및 신혼기 ③ 임신·출산기
④ 영유아기(자녀가 0~5세) ⑤ 학령기(초등자녀) ⑥ 청소년기(중고등자녀)
⑦ 중장년기(성인자녀, 노부모 돌봄) ⑧ 노인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기

PART J. 1인 가구

※ 다음은 1인 가구(SQ4=1)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J01. 귀하께서 1인가구로 생활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인가구 생활 기간 : [ ][ ]년 [ ][ ]개월

J02. 귀하께서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혼자 살고 싶어서 ☐ ②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 ③ 배우자의 사망으로
☐ ④ 본인의 이혼으로 ☐ ⑤ 본인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 ⑥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 ⑦ 자녀의 결혼으로 ☐ ⑧ 부모나 자녀의 사망으로 ☐ ⑨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 ⑩ 부모의 이혼으로 ☐ ⑪ 부모의 직장(취업)으로 ☐ ⑫ 기타( )

J03. 귀하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주된 방법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본인 ☐ ② 부모 지원 ☐ ③ 자녀 지원
☐ ④ 공적 지원(기초생계급여 등) ☐ ⑤ 기타( )

J04.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주된 방법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본인(대출포함) ☐ ② 부모 지원 ☐ ③ 자녀 지원
☐ ④ 공적 지원(기초생계급여 등) ☐ ⑤ 기타( )

J05. 다음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식비 ☐ ② 의류비 ☐ ③ 주거비 ☐ ④ 의료비
☐ ⑤ 교통·통신비 ☐ ⑥ 경조사비 ☐ ⑦ 기타( )

J06. 평소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한 명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부모 ☐ ② 배우자 ☐ ③ 자녀 ☐ ④ 애인
☐ ⑤ 형제자매 ☐ ⑥ 친구 ☐ ⑦ 동료 ☐ ⑧ 이웃
☐ ⑨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등) ☐ ⑩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⑪ 기타( ) ☐ ⑫ 이야기할 사람 없음

J07.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현재 귀하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를 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7)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8)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J08. 귀하는 현재 1인가구로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대체로 불만족 ☐ ③ 보통
☐ ④ 대체로 만족 ☐ ⑤ 매우 만족

J09. 귀하는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J09-1번으로 ☐ ② 아니다 ☞ J09-2번으로

J09-1. 1인가구로 계속 살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심리적 외로움
③ 사회적 편견 ④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 · 관리의 어려움
⑤ 질병, 건강 악화 시 대처 어려움 ⑥ 노후에 대한 염려
⑦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⑧ 정책적 지원으로부터의 소외(배제)

J09-2. 계속 혼자 살 의향이 없으시면,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① 결혼 ☐ ② 동거 ☐ ③ 친구, 지인과의 공동생활
☐ ④ 가족과의 합가 ☐ ⑤ 시설입소 ☐ ⑥ 계획없음
☐ ⑦ 기타( )

J10. 귀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을 순서대로 두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주택 안정 지원(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②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CCTV 설치 등)
③ 돌봄 서비스 지원 ④ 가사 서비스 지원 ⑤ 외로움, 고립감 등 심리정서 지원
⑥ 사회관계망 지원(동아리, 지역커뮤니티 등) ⑦ 여가문화활동 지원 ⑧ 건강 증진 지원
⑨ 고독사 및 장례 지원

응답자 일반사항 및 가구 특성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일반사항 및 가구 특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응답하신 개인정보는 통계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DQ1	최종 학력	☐ ① 학력 없음(미취학 포함)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전문)대학교 ☐ ⑥ 대학원(석사 이상) ※ 재학, 중퇴 시 해당 기관을 응답, 예시) 대학교 재학 또는 중퇴시 "(전문)대학교" 입력
DQ2	거주 시/군	☐ ① 전주시 ☐ ② 익산시 ☐ ③ 군산시 ☐ ④ 정읍시 ☐ ⑤ 김제시 ☐ ⑥ 남원시 ☐ ⑦ 완주군 ☐ ⑧ 고창군 ☐ ⑨ 부안군 ☐ ⑩ 임실군 ☐ ⑪ 순창군 ☐ ⑫ 진안군 ☐ ⑬ 무주군 ☐ ⑭ 장수군
DQ3	거주 행정구역	☐ ① 읍 지역 ☐ ② 면 지역 ☐ ③ 동 지역
DQ4	가구 형태	☐ ① 부부만(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 ② 부부+자녀 ☐ ③ 한부모가구(한부모+아동/청소년 자녀+그외 가족 포함) ☐ ④ 부모+부부+자녀 ☐ ⑤ 1인 가구 ☐ ⑥ 기타 ( ) ※ 예시) 2번 응답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의 자녀, 부모님+본인 및 형제자매 3번 응답 = 부모 중 1인 + 만18세 미만 자녀, 부모 중 1인과 성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기타에 응답 4번 응답 = 부모님+본인 및 배우자+본인의 자녀, 조부모 + 부모 + 본인 및 형제자매
DQ5	함께 사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총 [ ][ ] 명 함께 거주 중
DQ6	월 평균 가구소득 (세후기준)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200만 원 미만 ☐ ③ 200~300만 원 미만 ☐ ④ 300~400만 원 미만 ☐ ⑤ 400~500만 원 미만 ☐ ⑥ 500만 원 이상
DQ7	현재 사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지위	☐ ① 매우 낮음 ☐ ② 조금 낮음 ☐ ③ 중간 ☐ ④ 조금 높음 ☐ ⑤ 매우 높음
DQ8	거주 중인 주택 유형	☐ ① 일반주택 ☐ ② 아파트 ☐ ③ 기숙사 ☐ ④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 ⑤ 기타( )
DQ9	거주 주택 소유 형태	☐ ① 자기집 ☐ ② 전세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 ⑤ 무상(사택, 관사 등) ☐ ⑥ 기타 ( )

설문조사 완료시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답례품을 받으실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는 답례품 발송만을 위한 것이며
답례품 발송 후 바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010 - _____ - _____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25 기본연구 - 01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발행인 노홍석
연구자 이선영, 김민철
발행일 2025년 12월
인쇄처 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 인쇄사업단
발행처 전북여성가족재단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38
전 화 1577-3813(代)
ISBN 979-11-996197-3-9

이 책의 저작권은 전북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